

제4장 유 교 유 적

1. 향교 · 서원

1) 보령향교

(1) 위치

- 위치 :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47-1번지
- 지정 : 충청남도 지정 기념물 제112호(1997년 8월 31일)

(2) 연혁

보령향교의 창건연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나, 다른 지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초 각 지방 군현에 향교들이 건립될 때인 태종 때에 함께 창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초기 창건이후 양란을 겪을 때에 이르는 200여 년 간의 사적은 알려지지 않는다. 단지 1630년(인조 8) 9월에 보령향교에 도둑이 들어 공자·맹자·증자·안유의 위판 4개가 도둑맞고 불태워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후 보령향교 『청금록』이 있어 여기에 수록된 도유사 명단을 통하여 1630년 무렵의 위판 도난 사건이후 100여 년이 지난 1720년대에 이르러 보령향교의 운영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이후 조선후기의 보령향교 운영과 중수 연혁을 알려주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보령향교에 남아 있는 향교문서들은 거의가 19세기 후반~한말 이후까지의 자료들인데, 이 중에서 청금록 2책은 그나마 보령향교의 위상을 엿보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청금록 1책은 1723년 도유사 이홍(李泓)에서부터 성정수(成政修)까지 수록되어 있고, 2책은 이승순(李承淳)부터 현재까지 수록되어 있다. 청금록에는 본관과 생년 재임기간이 적혀 있고, 특히 본관이 정확히 나타나 있으므로 성씨 분석을 통해 향교를 출입한 문중과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청금록 1.2권 모두 합쳐서 도유사를 역임한 전체 인원은 188명이었는데, 이 중 성씨별 순위를 보면 한산이씨(33)·광산김씨(28)·수성이씨(13)·진주류씨(10)·능성구씨(10)·한양조씨(9)·전주이씨(9)·완산이씨(8)·연안이씨(6)·

경주이씨(6) · 월성이씨(5)의 순이었고, 4명이 입록된 경우는 평산신씨 · 안동김씨 · 무풍김씨 · 용인이씨 · 3명이 입록된 경우는 평해손씨, 화산권씨, 함평이씨, 창녕성씨 등이었다.

1898년에 작성된 『강학계복설입의』에 의하면 보령향교에서는 1886년 강학계가 조직되었으나, 백성들의 사정이 어려워 해체되었다가 1898년 새로 부임한 현감 박제경(朴齊璟)의 노력에 의하여 재조직되어 운영되었다.

일제시기의 보령향교는 도유사(都有司)체제가 직원(直員)체제로 바뀌면서 1919년에 유도회(儒道會)를 조직하였고, 1921년에는 전면적인 중수를 단행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전교(典敎) · 장의(掌儀) 체제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보령향교

(3) 중수기록

- 1868년(고종 5) 중수

1895년 『강학계복설입의』에 의하면 중수를 위해 재물을 모았으나, 고을민의 피폐로 여의치 않아 관청의 보조로 중수함

- 1921년 전면적 중수는 직원 이궁식(李肯植)이 주도하였다. 기록으로 「보령문묘중수기」 「중수제성록」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령향교 유림들은 향교 벽이 무너져 내리고 담이 허물어졌는데도, 이를 보수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다가 함께 중수의 뜻을 모아 행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중수제성록」에는 각 면별로 나누어 중수 비용을 기증한 사람들의 이름과 액수를 적고 있다.

광복 이후의 중수 기록은 다음과 같다.

- 1961년 문묘 계단, 담 및 교궁 경내 보수
- 1967년 대성전, 동무 서무 보수
- 1967년 홍살문 건립
- 1968년 대성전 동편 섬돌과 신문 계단 보수
- 1975년 동재 중수
- 1977년 대성전 벽 화채시공(畫彩施工)
- 1984년 5월 대성전이 충청남도 지정문화재자료 제135호로 지정
- 1985~1987년 대성전, 명륜당 중수

(4) 선생안(先生案)

① 도유사(都有司)

李泓(韓山) 金鼎慶(光山) 李濂(韓山) 權須(花山) 金錫慶(光山) 李濬(韓山) 李垺(韓山) 李瀨(韓山) 具萬元(綾城) 安鏤(順興) 金復慶(光山) 李潑(韓山) 李鎮綱(隋城) 金啓暘(光山) 李以元(月城) 金啓曄(光山) 趙垺(漢陽) 李秉周(韓山) 李恒燮(完山) 李慶翊(月城) 權啓億(安東) 金聲鳳(光山) 趙孺(漢陽) 李貞遠(韓山) 具錫咸(綾城) 孫夏相(平海) 朴師漢(月城) 趙垺(漢陽) 具錫坤(綾城) 李宜俊(隋城) 金若欽(光山) 李在溫(完山) 金聖讓(茂豐) 權撫(花山) 李彙福(韓山) 金聲天(光山) 金洛宗() 具翼溟(綾城) 金守鎮(茂豐) 李守孟(隋城) 趙定鉉(漢陽) 李大錫(完山) 趙象鉉(漢陽) 李鳳采(韓山) 朴致寬(月城) 崔祐東(江陵) 李義鵬(全州) 蔡一永(平康) 金昌烈(光山) 金鍾玉(淸風) 洪秉駿(南陽) 趙斗鉉(漢陽) 金完鎮(茂豐) 趙益洙(漢陽) 李光助(遂安) 李心遠(隋城) 李命箕(慶州) 李義命(全州) 李鼎季(韓山) 李度永(延安) 李栢季(韓山) 李度玄(延安) 金定欽(光山) 孫大夏(平海) 李雲觀() 尹永世() 金龍欽(光山) 金榮碩(茂豐) 李復圭(遂安) 李重季(韓山) 李起溟(韓山) 孫錫龍(平海) 李龜季(韓山) 金重元(光山) 李秀俊(韓山) 鄭復顯(河東) 李復鉉(龍仁) 金洛一(光山) 成政修(昌寧) 柳相喆(晉州) 李台鉉(遂安) 李秀俊(韓山) 李寅承(韓山) 李承淳(韓山) 金泰鎮(安東) 李承寅(韓山) 李裕高(慶州) 柳暘(全州) 申行朝(平山) 金衡鎮(安東) 李夏圭(韓山) 李應象(韓山) 申箕朝(平山) 金祖欽(光山) 申應善(平山) 李在淵(全州) 具鶴祖(綾城) 李忠植(韓山) 申明休(高靈) 金遇臣(原州) 李毅緒(咸平) 李承義(韓山) 柳冀善(晉州) 李承禹(韓山) 李林珪(韓山) 金洛鼎(光山) 李源贊(遂安) 李建春(全義) 柳誠魯(晉州) 成夏榮(昌寧) 李思應(全州) 李鶴榮(慶州) 柳冀惠(晉州) 金龜秀(延安) 金斗漢(安東) 柳瞬(全州) 柳冀翼(晉州)

② 직원

柳冀翼(晉州) 沈國慶(靑松) 沈仁澤(靑松) 金在豐(光山) 李林珪(韓山) 李昌植(韓山) 金弘圭(安東) 申赫均(平山) 李政求(韓山) 李肯植(韓山) 金年秀(光山) 李義仁(公州) 李彙植(韓山) 閔載國(驪興) 李殷相(龍仁) 李啓升(咸平) 安赫遠(廣州) 韓起東(淸州) 蔡洛夏(平康) 申東禹(平山) 洪斗淳(南陽) 金秉鉉(光山) 金在龍(光山) 李容燮(公州) 柳冀元(晉州) 李鳳珪(韓山)

③ 전교

李鳳珪(韓山) 具永書(綾城) 金石鉉(光山) 金在龜(光山) 柳曉(全州) 金東鉉(光山) 李孝求(韓山) 李寅範(咸平) 李忠求(韓山) 金斗鉉(光山) 李鍾錫(慶州) 具行書(綾城) 具瑾書(綾城)

李奉圭(全州) 崔炳喜(陽川) 李東烈(全州) 韓養浩(淸州) 千宗洙(穎陽) 韓相乾(淸州) 李鳳周(全州) 金靑龍(金海) 徐昌國(達城) 朴丁淳(密陽) 具敏會(綾城)

(5) 보존문서 및 현판

〈보존문서〉

- 청금록 : 1921년 작성된 도유사 명단, 목선 6행으로 구획하여 한산 이홍(李泓)부터 창녕 성정수(成政修)까지 총 110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 선생안 : 1901년 작성된 도유사 장의 명단, 목선 5행으로 구획되었으며 서문은 신용구(申容求)가 썼다.
- 보령향교원액교생안 : 1901년 작성된 교생명부, 윤철순(尹哲淳)부터 고건옥(高建玉)까지 총 30명의 명단 수록, 중간에 도할된 부분도 보인다.
- 강학계입의절목 : 1864년 9월 6일 유익덕(柳翼惠)이 서(序)한 것이다.
- 강학계복설입의 : 1898년 계원이었던 유성로(柳誠魯)와 신견(申健)이 작성하였다.
- 재전실곡 : 1906년 2월 이학영 서, 입의(李鶴榮 書 入議)
- 제성록 : 1921년 7월 15일 작성, 내제는 文廟重修時儒林齊誠錄이다. 柳浩根 識
위의 보존문서들은 보령향교지 발간(1998년) 이후 분실되었다.

〈현판류〉

- 보령향교문묘중수기(1921) : 직원 李肯植, 추기 1969년 전교 鄭燦浩
- 보령문묘보수기(1961) : 李鳳珪 撰
- 보령향교보수기(1967) : 전교 柳曉 撰
- 보령향교보수헌성기(1967) : 각 읍면별로 향교보수 때 헌납한 사람들의 명단 기록
- 홍살문건립기(1967) : 전교 柳曉, 유림 金在龜 白南俊 李瑛鎬 李炳琰 沈在順 鄭燦好 任晚宰 識
- 보령향교보수기(1968)
- 보령향교임복원기(林復權記, 1969) : 전교 鄭燦好, 장의 白南俊, 李炳琰, 李光炯, 千奇鎬, 金在錄, 李仁性, 具永書, 金正鉉
- 보령향교중수기(1975) : 田容彥 記, 黃冕周 書, 典校 李忠求
- 대성전화채시공기(1977) : 李洪植 記
- 보령향교중수기(1987) : 具瑾書 記
- 대성전중수기(1985) : 전교 崔炳喜

(6) 운영현황

현재 향교의 임원은 전교 1인을 비롯하여 장의 33인, 감사 2인, 고문 1인, 관리인 1명이다. 매년 2월과 8월의 상정(上丁)에 석전제(釋奠祭)를 지내고 있으며, 그 외 2,8월 유림총회로 임원들이 모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령향교에 출입해온 성씨로는 많이 출입하는 문중 순으로 한산이씨, 광산김씨, 경주이씨, 능성구씨, 영양천씨, 청주한씨, 밀양박씨, 전주이씨, 양천최씨, 수안이씨, 평산신씨 김해김씨 등이 있다.

향교에 참여하는 유림 수는 해방전후 45명 정도, 1960년도 85명 정도, 1970년대 134명 정도, 1980년대 237명 정도, 현재 약 305명 정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주요 활동사업은 향교 교화활동으로 향교 임원 중 전직 교육공무원이나 행정동우회를 규합하여 도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중 2회의 충효교실에 교육강사로 임명하여 각 읍면동 교육장에 배치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퇴색되어 가는 전통예절과 한자 학습에 이바지하고 있다.

향교운영의 협력 조직으로는 유도회가 결성되어 있다.

현재 재산상황은 향교 연건평 237.6㎡, 총대지 4,119㎡, 전9,655㎡, 답20,989㎡, 임야 551,370㎡, 기타 2,585㎡이다.

(7) 향교건물

① 대성전(大成殿)

- 지정 : 충청남도지정 문화재자료 제135호(1984. 5. 17)

조선 경종 3년(1723)년 건립되었으며 몇 차례의 보수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공자를 위시한 중국 5성(五聖)과 4현(四賢), 우리나라 18현(賢)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매년 2월과 8월에 유림들이 석전제를 지낸다. 건물구조는 정면3칸, 측면2칸의 맞배지붕으로, 창호는 정면3칸에만 각각 띠살분합문을 달았다. 다른 향교와는 달리 전면에 퇴칸을 두지 않았다. 측면과 후면의 하방벽은 자연석을 쌓고, 상부는 심벽으로 마감하였다.



보령향교대성전

봉안한 27위의 위패는 중국5성은 공자·안자·증자·자사·맹자이며, 4현은 주돈이·정호·정이·주희이고, 한국18현은 설총·최치원·안향·정몽주·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김인후·이이·성혼·김장생·조현·김집·송시열·송준길·박세채이다.

② 명륜당(明倫堂)

정면3칸 측면2칸의 맞배지붕으로 내부 공간은 모두 마루로 짚다. 마루 하단부를 막지 않고 개방해 두어서 마치 고상식(高床式) 건물로 보인다. 창호는 3면만 달았다. 정면과 후면의 어칸은 띠살분합문이고 나머지는 모두 귀갑문(龜甲文) 분합창을 달았다.

③ 동재(東齋)

정면5칸 측면2칸으로 한쪽은 맞배지붕이고, 한쪽은 팔작지붕이다. 전면열은 마루이고 후면열 좌우 2칸씩은 각각 온돌방을 두었다. 후면에는 2자폭으로 뒷마루를 길게 달아두었다.

④ 서재(西齋)

동재와 마주보고 있는 서재는 정면4칸 측면2칸이다. 후면열 가운데 2칸을 온돌방으로 하고 전면과 한쪽 측면은 마루이다. 한쪽은 맞배지붕 한쪽은 가섭지붕이다.

기타 현관석 제기고 외삼문 수재문 내삼문이 있으며, 전체 구조는 전학후묘(前學後廟)식 배치를 이루고 있다.

⑤ 유림회관 : 향교의 앞에 1억 8,951만원의 비용으로 1997년에 완공하였다.

참고 : 충남의 향교와 서원, 충청남도. 보령향교지

2) 남포향교

(1) 위치

- 위치 :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9번지
- 지정 : 충청남도 지정기념물 제111호(1997년 12월 23일)

(2) 연혁

남포향교의 최초 창건에 관한 기록은 현재 정확히 밝힐 수 없다. 전언에 의하면 고려 시대는 웅천읍 평리 중상굴에 있다가 태종 13년(1413)에 웅천읍 대천리로 옮겼다고 한다. 대천리 구장터에는 현재 향교말로 불리는 마을이 있다.

이어서 세종 때 남포현 치소의 이동과 함께 현재의 남포면 옥동리에 이전하게 된다. 그 때의 상황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향교는 현의 동쪽 1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1583년에는 이 향교에서 선성(先聖) 선현(先賢) 위판 8위가 부수어져 산골짜기에 버려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어서 1646년의 『학교등록』 기사에는 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현의 동쪽 1리에 있던 향교를 현재의 위치인 옥동리에 신축했다고 하였다.

이후 40여 년이 지난 1711년(숙종 37)에 남포향교는 특별한 이유없이 다시 현의 서쪽인 현재의 옥서리 월촌마을로 이전된다. 그런데 이전한 서쪽의 향교터는 지반이 습하고 읍의 관청이 향교보다 위에 있어서 향교터로서 적합하지 못했으며, 1843년까지 130여 년이 지나자 향교건물이 무너질 지경이었다. 이에 박효묵(朴黻默)이 중심이 되어 예조에 이건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향교 이전에 대해서 당시 금령이 내려져 있었으므로 순상 김필균(巡相 金弼均)을 내려보내 직접 조사하게 하였다. 그는 계문을 올려 말하기를 향교의 터가 옛터인 동쪽에 하나, 새로 이전하려 했던 서쪽에 하나인데, 그중 향교 자리로는 동쪽이 적합하다고 알렸다. 이에 8월에 동쪽 옛터인 옥동리에 건축하기 시작하여 9월에 완공하고 11월에 봉향하였다. 이때 현의 사족 150명이 20만금을 내놓았다.

그리하여 1843년 남포향교는 현재의 위치에 이 건된 것이다. 이때 이전되기 전 향교의 위치는 현재의 남포저수지 아래 마을인 옥서리 열구리 마을(月村)이다. 남포관아보다 아래 마을이며, 위치도 낮다.

1843년 이 건 후 1890년(고종 27)과 1898년에 중수가 있었다. 이 중수의 사실은 1898년의 중수기(都有司 李教玩 記)에 전하고 있다. 1890년의 중수는 정이번(鄭李繁) 현감이 자신의 봉급과 아전의 봉급을 걷어 370냥을 만들어 수리한 것이고, 1898년의 중수는 또 다른 중수기(黃邦顯 記)에 전한다. 그에 따르면 이해에 김용제(金用濟) 현감이 자신의 봉급 200금을 내어 춘추향사시 음식을 차리는 데 쓰게 하고, 또 800금을 모아 향교전담을 마련, 흥학의 자산으로 삼게 하였다고 한다.

이후 1907년의 중수 역시 중수기(李哲圭 記)로 전한다. 즉 남포군의 이무영(李茂榮), 조용필(趙鏞弼), 이종응(李鍾應) 세 집의 문중이 비용을 아끼지 않고 향교를 존모한 지가 60년이 되어 지난해인 1906년 가을에 다시 집의 재산을 기부하여 향교를 중수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일제시기에는 별다른 중수가 없었고, 해방 이후의 중수로는

- 1946년 대성전, 동·서양재 중수
- 1966년 명륜당, 외삼문 중수
- 1973년 대성전 중수
- 1976년 문묘 중수
- 1983년 명륜당 중수



남포향교

- 1984년 전사청, 내·외삼문 중수

를 거쳐서 1984년 5월 대성전이 충청남도지정문화재 136호로 지정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선생안

1908년(戊申)부터 정리해 놓은 것만 있어서 그 이전의 상황은 알 수 없다.

○ 직원

尹邦鉉(坡平) 白鶴洙(藍浦) 南佶元(宜寧) 金玟元(慶州) 崔成集(江陵) 李憲憲(咸平) 黃宗顯(長水) 白樂昶(藍浦) 李鍾大(慶州) 金東淳(慶州) 金昌濟(慶州) 吳憲泳(寶城) 金得濟(慶州) 李興雨(慶州) 崔鳳圭(江陵) 任宣浩(豐川) 任熙益(長興) 任泰珍(豐川) 金商曄(慶州) 崔禧集(江陵) 尹世顯(茂松) 任性淳(豐川) 李承儀(全州) 金珀濟(慶州) 任永宰(豐川) 李應疇(全州) 李奎淳(星州) 金道秀(光山) 李敦淳(星州) 金德煥(慶州)

○ 전교

吳炳和(寶城) 金在一(通川) 李圭三(慶州) 金東日(慶州) 金顯弼(金海) 任碩宰(豐川) 金一貞(順川) 李秉直(星州) 任明淳(豐川) 韓瓚熙(淸州) 白樂貞(藍浦) 任光宰(豐川) 金德元(慶州) 崔章圭(慶州) 鄭昌鎬(溫陽) 金壽烈(慶州) 李鍾國(慶州) 白南夏(藍浦) 尹世明(茂松) 吳鍾綠(寶城) 金善甲(光山) 吳炳毅(寶城) 尹甲善(茂松) 玄貴男(延州)

(4) 보존문서 및 현판

한국전쟁 당시 남포향교가 인민군 집무실로 사용되면서 많은 문서가 소실되었고, 전쟁 후에는 고문서가 도난당하면서 현재 남아 있는 문서류는 많지 않다.

〈고문서〉

- 청금록 : 일제시기 직원(職員) 장의(掌儀)명단부터 현재의 전교·장의명단을 수록, 1908년 선출된 직원 윤방현(尹邦鉉)~1991년 선출된 전교 백남하(白南夏)까지 수록되었다.

〈현판류〉

- 대성전중수기(1848) ; 현감 길현범(吉顯範)이 쓴 것으로 옥서리에 있던 향교를 옥동리의 현 위치로 이견하게 된 과정을 기록

- 남포향교 수리찬양문(1898) : 도유사 이교원(李敎元)이 쓴 것으로 정이번 현감이 자신과 아전의 봉급을 내어 향교를 수리함을 찬양한 기록
- 중수기(1898) : 1898년 김용제 현감이 자신의 봉급을 내어 중수하고 흥학의 자산으로 삼도록 했다는 내용
- 중수기(1907) : 남포군의 이무영·조용필·이중응 세 문중이 향교에 집의 재산을 기부하여 향교를 중수하였다는 내용(군수 李哲圭 記, 齋任 黃律源 尙大鉉 吳光圭)
- 남포향교중수기(1946) : 향교 직원 이돈순(李敦淳)이 주동이 되어 4개면 유림들의 도움을 얻어 대성전과 동·서 양재를 중수하였다는 내용이다. (보령군수 李鍾純 記)
- 문묘중수기(1966)(藍浦 白彰均 記)
- 남포문묘중수기(1976) (典校 任光宰 記)

〈비〉

최근의 공적비 3기가 외삼문 앞에 있다,

- 남포문묘보수기념비(1984) (金壽烈 記)
- 전교 김수열공적비(1989) (吳在燮 記)
- 남포향교중수기적비(1991) (金壽烈 記)

(5) 운영현황

현재 향교의 임원은 전교 1인을 비롯하여 의전장의 1인, 총무장의 1인, 재정장의 1인, 교화장의 1인, 연락장의 1인, 관리인 1인이 있다. 매년 2월과 8월의 상정일에 석전제를 올린다. 석전제에 참여하는 성씨로는 전통적으로 남포향교에 출입해온 성씨로서 경주 김씨, 경주이씨, 보성오씨, 풍천임씨, 남포백씨, 성주이씨, 무송윤씨, 청주한씨, 인동장씨, 장수황씨, 광산김씨, 전주이씨 등이 있다. 향교에 참여하는 유림수는 해방 전후 250여 명, 1960년대 300여 명, 1970년대 300여 명, 1980년대 350여 명, 현재 450여 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향교의 재산은 향교의 연건평 388㎡, 총대지 19,722㎡, 전 49,744㎡, 답 11,078㎡ 임야 66,455㎡이다.

(6) 향교건물

향교 건물의 배치는 대성전(大成殿)과 명륜당(明倫堂) 서재(西齋)를 갖춘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일반적 향교 배치 양식을 따르고 있다.

① 대성전

- 지정 : 충청남도문화재자료 136호(1984년 5월 17일)

정면3칸 측면3칸의 맞배지붕 형식이다. 내부 전면열 1칸 중 반 칸만을 퇴칸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내부공간으로 꾸며 선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정면 3칸에 창호를 설치하였는데 井字살 4분합문이고, 양 협칸은 井字살 분합문이다.

공자를 위시한 중국 5성(五聖)과 4현(四賢), 우리나라 18현(賢)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매년 2월과 8월의 상정에 유림들이 석전제를 지낸다. 봉안한 27위의 중국5성과 4현, 한국의 18현은 보령향교와 같다.



남포향교 대성전

② 명륜당

정면5칸 측면2칸의 장방형 평면으로 가운데 3칸통은 대청마루로 하고, 좌우측 1칸통은 온돌방을 꾸몄다. 온돌방 아궁이 함실은 정면 쪽에 두고 있다. 창호는 정면 중앙의 3칸에 골판문 분합을 달고, 나머지는 모두 띠살문이다. 후면은 중앙 3칸에 띠살문 4분합이고, 양 협칸은 창호 없이 벽을 두었다. 후면 양 협칸 앞에 기와편으로 쌓은 굴뚝이 각각 1개씩 있다.

③ 서재

ㄴ자 평면으로, 원래는 一자형 몸체만 있었는데, 나중에 2칸을 부엌 앞으로 달아 붙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몸체로 보이는 부분에는 정면 4칸 중 3칸을 방으로 하고 1칸은 부엌을 두었다. 가운데 2칸 전면은 퇴칸으로 마루를 꾸몄다. 부엌 앞쪽에 길게 붙인 2칸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몸체는 맞배지붕이고, 덧붙인 부분은 우진각지붕이다.

온돌방 전후는 띠살문 창이나 문을 달고 부엌 전후와 창고에는 장판문을 달았다. 본향교에는 동재(東齋)는 없고 서재만 있는데, 이곳은 강학 공간이면서 향교의 관리 기능을 하는 고직사(庫直舍)를 겸하기도 한다.

④ 외삼문

낮은 구릉 위에 배치되어 있고, 외삼문 앞에는 계단이 놓여 있다. 정면 3칸의 솟을대문 형식이다. 문의 위치는 중간열에 맞추고, 장판 분합문을 달았다.

⑤ 내삼문

정면 3칸의 솟을삼문 형식이다. 전후면 폭이 외삼문에 비해 좁다. 가운데 열에 맞추어

각 칸에는 장판문 분합을 달았다.

참고 : 충남의 향교와 서원, 충청남도. 남포향교지

3) 오천향교

(1) 위치

-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166번지

(2) 연혁

오천은 조선시대 충청도 수군절도사영이 설치된 곳이었으나 1896년에 폐영되었다가 1901년(신축년)에 오천군이 신설된 곳이다. 오천군 신설과 동시에 이곳 유림들은 고을에 향교를 갖추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간단한 제향을 할 정도의 기물과 시설을 갖춘 채 향교의 터전을 시작하였다.



오천향교

그때 제향의 장소는 현 향교의 50여 m 아래에 있는 민가에서 간략히 제향할 수 있는 기물과 시설을 갖춘 곳이었다. 처음 분향의 예만 치르던 민가는 교직사라고 불리며 현재 향교재산으로 되어 있다.

그 후 1905년(을사년)에 이르러 한양조씨 조태정(趙泰正)은 토지를 기증하고 영건유사인 신건, 장의 박성래, 조태천 등이 유림들의 헌납을 주동하여 향교의 건립을 이뤘다. 대성전 건립에 관련하여 터를 잡을 때의 군수는 이명하(李命夏) 목재와 재원을 담당한 군수는 서동익(徐東翊) 교재를 모은 군수는 이병묵(李柄默), 상량 때의 군수는 이갑승(李甲承)이었다.

그리고 실제 이 과정에서 조태정·조태천·조채동 등 한양조씨들이 많은 조력을 하였다 한다. 이리하여 향교의 체모를 일신하는 대성전이 건립되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향교가 되었다.

(3) 선생안

○ 도유사

李瑗(延安) 李鍾淳(全州) 李承殷(韓山) 申樞(平山) 李秉憲(延安)

○ 직원

申樾(平山) 李康植(韓山) 李範敦(全州) 康漢哲(信川) 李柱益(全州) 趙宗東(漢陽) 李柱民(全州) 盧載應(交河) 尹英重(坡平) 康漢執(信川) 趙翼元(漢陽) 申禮湜(平山) 趙泰熙(漢陽) 李祥植(韓山) 黃圭復(昌源) 申斗泳(平山) 朴聖來(密陽) 韓命教(淸州) 鄭教海(慶州) 申昌燮() 趙星元(漢陽) 李祖馨(延安) 李伯珪(韓山) 申東台() 朴魯賢(密陽)

○ 전교

朴魯賢(密陽) 康大根(信川) 趙殷遠(漢陽) 金舜濟(慶州) 李任鳳(延安) 申東元(平山) 趙鳳儀(漢陽) 李方珪(韓山) 趙容肅(漢陽) 康廷根(信川) 金禹濟(慶州) 趙眞誼(漢陽) 盧斗鎬(交河) 申致燮(平山) 康熙貞(信川) 盧承高(交河) 趙重元(漢陽) 康熙台(信川) 金寅元(慶州) 趙文衍(陽壤) 李春配(延安)

(4) 보존 문서 및 현판

오천향교는 짧은 역사 때문인지 자료가 많지 않고 소장 전적은 필사본인 청금록 1권이 있을 뿐이다. 현판류는 없으며, 2003년 향교 문 앞에 청금록 서문을 번역해서 ‘오천향교 유래비’를 세웠다.

(5) 운영현황

전통적으로 오천향교에 출입해온 성씨로는 많이 출입하는 문중 순으로 한양조씨, 평산신씨, 신천강씨, 경주김씨, 창녕조씨, 한산이씨, 연안이씨, 영양천씨, 달성서씨, 나주임씨, 경주정씨, 밀양박씨 등이다. 향교에 참여하는 유림 수는 해방 전후부터 1980년대까지 200여 명이었다가 현재는 300여 명에 이른다.

향교의 주요 활동으로는 교화활동, 장학사업, 2월 8월의 춘추 석전제 등을 행하고 있다. 향교 소유토지는 향교 연건평 12,486㎡, 총대지 24,972㎡이고 부동산으로는 전 6,794㎡, 답 46,473㎡가 있다.

(6) 향교건물

① 대성전

- 지정 : 충청남도문화재자료 제137호(1984년 5월 17일)

정면3칸 측면3칸으로 전면 1칸열은 퇴칸으로 만들어 측면을 개방해 두었다.

후면열 2칸은 내부 공간을 만들어 선현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홀처마 맞배지붕으로 측면에 풍판을 설치해 두었다. 1905년 건립되었다. 전면열의 퇴칸은 대성전을 처음 창건할 때 만든 것이 아니라 후일 덧달아낸 것이다. 원래는 홀처마로 처마가 짧고 퇴칸이 없어서, 춘추 제향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면 1칸열을 덧달아 낸 것이다.

공자를 위시한 중국 5성(五聖)과 4현(四賢), 우리나라 18현(賢)의 위패가 봉안되어있다. 매년 2월과 8월의 상정에 유림들이 석전제를 지낸다.

봉안한 27위의 중국5성과 4현, 한국의 18현은 보령향교와 같다.

② 기타 건물

동무와 명륜당 정문만 있다. 지형적 문제 때문에 좌학우묘(左學右廟)의 배치형식을 가지고 있다. 동무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양식이며, 전면에 창호를 두지 않고 개방하였다. 이 건물을 현관석으로 사용할 경우 창호가 없어도 되지만 동무로 사용하려면 창호를 달아야 한다.

명륜당은 정면3칸 측면1칸의 맞배지붕 양식이며, 3칸 중 서측2칸은 대청마루이고, 동측 1칸은 온돌방이다. 정문은 대성전 앞에 1칸으로 만들었다.



오천향교대성전

4) 서원(화암서원)

(1) 위치

- 위치 :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산27-1
- 지정 : 충청남도지정문화재자료 제138호(1984년 5월 17일)

(2) 연혁

화암서원은 1610년(광해 2)에 충청관찰사 정엽(鄭曄)이 서원영건통문을 보내고, 이산보의 문인인 구계우(具繼禹)가 주도하여 청라동 옥계에 건립하였으며, 1624년 이지함과 이산보를 봉안하였다.

1685년에는 보령생원 김황(金鎭) 등이 사액을 청하는 소를 올렸으나 첩설이라는 이유로 허락받지 못하였고, 이어 1686년(숙종 12)에 보령 진사 최문해(崔文海) 등의 상소로

화암서원(花巖書院)으로 사액(賜額)되었다. 1723년 이세현(李世炫)의 소청으로 이몽규(李夢奎)를 추향하였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5) 철폐되었다가 1922년 복설되었고, 1922년 복설 당시 이정암(李廷菴)이 추향되었다. 청천저수지 축조로 1959년에 현 위치로 옮겨 세워졌다.

1971년에는 수암 구계우(睡庵 具繼禹)를 배향하면서 현재는 모두 5분의 위패를 모셨다. 1998년에는 이지함 선생의 영정을 봉안하였으며, 최근에는 이산보의 영정을 봉안하고 지역 유림들이 매년 춘추로 제향하고 있다.



화암서원

(3) 선생안

1847년 작성된 선생안과 1922년 이후 작성된 선생안만 남아 있어 그 내용만 여기에 기록한다. 화암서원은 원장(院長) 체제가 아닌 도유사(都有司) 체제로 운영되었음이 청금록에 나타난다.

金就成 姜貞雲 申行朝 姜喜達 車判孫 金能均 金道興 李秀俊 金洛一 朴能鎭 鄭亨運 朴宗根 鄭基百 李升鉉 金恩鳳 金鍾欽 車判石 李承烈 李恒源 金重元 申泰翼 金重仁 李元泉 金斗欽 李瑄 李裕景 林永吉 鄭秀觀 李祖憲 朴斗熙 車富成 李會溟 申桂朝(平山)

- 이상 1847년 청금록 유사 -

金箕福(光州) 金箕冕(光州) 具赫祖(綾城) 李源用(延安) 洪斗淳(南陽) 具然栻(綾城) 金思吉() 趙震元() 具然集() 李教極(全義) 金容昇(安東) 孫致學(平海) 具然採(綾城) 朴敬熙(慶州) 洪斗厚() 鄭奭朝(東萊) 具璋書 鄭榮好(溫陽) 金斗鉉(光山) 李寅範(咸平) 李鑄生(延安) 具瓚書(綾城) 申東濬(平山) 李相德(全義) 朴宰信(密陽) 金世烈(慶州) 金奎元(慶州) 金永澤(光山) 李鳳周(全州) 元裕璿(原州) 朴元植(慶州) 李樂憲(公州) 韓相憲(清州) 金寅煥(慶州) 金日鉉(光山) 申峴澈(平山) 金箕滿(光山)

- 이상 1922년 이후 청금록 도유사 -

(4) 보존문서 및 현판

- 문서

- 화암서원선생안(1847)
- 화암서원선생안(1922)
- 심원록(대소부동) 5책

○ 현판

- 화암서원중건기(1964) 전교 김재구(金在龜), 장의 구장서(具璋書), 김우현(金禹鉉), 천규복(千奎復), 백남준(白南俊) 識
- 화암서원중수기(1964)
- 화암서원보수기(1971)
- 화암서원전등가설기(1976)
- 강륜당건립기(1988)
- 화암서원중수기(1991)
- 화암서원중수기(1998)

○ 비석

- 화암서원유허비(1914) : 보령군수 김완진(金完鎭)이 세움, 서원철폐 후 훼손된 곳에 세워진 것을 서원 복설 후 현 위치에 옮긴 것임
- 단제비(壇祭碑) 5개 : 서원 훼손 후 그 터에 유허비를 세우고 이지함, 이산보, 이몽규의 단제비를 세워 향사하였다. 복설 후 현 위치에 이전했으며. 최근 추가로 이정암, 구계우의 단제비를 세웠다.

(5) 서원건물

화암서원은 전면에 물이, 후면에 급한 구릉이 있는 배산임수 지형에 구릉지를 따라 횡으로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상단과 하단으로 터를 조성하여 후면인 상단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의 사우(祠宇)를 두었다. 여기에 토정 이지함(土亭 李之菡)을 비롯한 5분의 위패를 모셨다. 1998년에는 이지함의 영정을 봉안하였으며, 최근에는 이산보의 영정을 봉안하였다.

상단 사우의 전면인 하단에는 그 밖에 동재, 서재, 강당, 요사, 제기고, 대문, 묘문 등의 건물들을 배치하고 있다. 동서 양재가 묘당 앞에 있어 전학후묘(前學後廟)식 배치다.

화암서원으로 사액 되기 이전의 명칭은 현재 알려지지 않는다.

2. 사우

1) 신안사(新安祠)

- 위치 : 보령시 남포면 신흥리 70번지 일대

(1) 신안사 연혁

〈1797년 창건〉

보령현 지역은 청라에 이지함을 배향한 화암서원이 광해군 2년(1610)년에 만들어지고, 숙종 12년(1686)에 사액되면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서원 건립이 추진되었지만, 남포현 지역은 정조 말년인 1797년에야 현감 권상신(權常愼)과 지역 유림들의 노력으로 신안사(新安祠)가 설립되었다.



신안사지(남포면 신흥리 매내)

신안사 설립의 계기가 된 것은 남포현 신안면 지역의 지명이 옛날 주자가 살던 중국의 ‘신안’지명과 부합된다는 점이였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도입한 백이정이 이 고장 출신의 학자라는 점이였다. 신안(新安) 매천(梅川) 옥산(玉山) 무이산(武夷山) 등이 주자가 살던 중국의 지명과 매우 부합되어 주자흠모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고, 백이정과 같은 현인이 이 고장 출신인데, 지금까지 서원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점이라는 것에서 사우 건립이 추진되었다. 주자와 송시열에 대한 존경이 남달랐던 현감 권상신(權常愼)의 발론을 계기로 향교 재임(齋任) 김우필(金愚弼)의 이름으로 통문을 돌리고, 현감의 도움, 유림들의 노력으로 1797년(丁巳年) 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여름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에 당시의 남포현 신안면에 신안사를 완성하였다.

신안사 창건에 당시 현감 권상신은 결정적 역할을 하였는데, 그는 학문적으로 주자와 송시열을 존경한 인물이었다. 이후 권상신은 전직된 후에도 신안사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당시 신안사가 세워진 남포현 신안면은 오늘날의 보령시 남포면 신흥리 매내마을이다. 과거에는 신안면 지역이지만, 오늘날은 이곳에 신안이라는 지명은 없다. 그러나 마을 이름 매내(梅川)가 있고, 남포의 고지명인 옥산(玉山)이 남아 있으며, 당시 무이산으로 불렸던 산은 현재 무주공산이라고 부른다. 오늘날 신안이라는 지명은 없지만 과거 조선 시대 웅천면 지역에서 신안면으로 넘어가던 고개를 ‘신안재’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다.

신안면 매천에 신안사를 완성하고 이어서 주자의 영정을 서울에서 모사하여 와서 모시고, 백이정은 영정이 있으면 주자 영정과 함께 배향하였겠지만, 없어서 관례에 의해 신안사에 별도의 사당을 건립하고 위패로 모셨다.

그러나 얼마 후 부임한 충청관찰사 한용화(韓容和)는 이 신안사는 금령에도 불구하고 지었다고 하여 중앙에 장계를 올리고, 후임 현감 윤기(尹楹)로 하여금 훼손하게 하고, 주자의 영정은 덕산 회암사(晦菴祠)에 보내버렸다. 그리고 신안사 설립을 주도한 전 현감 권상신과, 부임 초기 신안사에 제재를 가하지 않은 현감 윤기의 죄를 물을 것을 조정에 상소하였고, 이어서 영건 유사들인 지역 유림 윤재복, 박노환, 윤필리 등을 옥에 가두었다.

당시는 조선후기 서원이 난립하는 시기여서 남설이나 첩설을 금지하는 억제책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의 허가 없이 설립된 신안사는 불법이었고, 따라서 한용화는 정부의 방침을 충실히 이행하여 철거하였다.

한용화는 조정에 신안사가 조정의 금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건립되었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장계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정조실록 정조 21년 8월 29일조에 나타난다.

남포현(藍浦縣)의 신안면(新安面) 무이봉(武夷峰)에, 유생(儒生)들이 남양(南陽)에서 제갈량(諸葛亮)을 제사 지내는 의리를 모방하여 주자(朱子)의 영당(影堂)을 창건하고 얼마 뒤에 또 고려의 명현(名賢)인 백이정(白頤正)의 사당을 그 옆에 지었다. 관찰사 한용화(韓用和)가 서원을 창건하는 것은 금령이 있다 하여 본현(本縣)에 관문(關文)으로 알려, 주자의 영정(影幀)은 전일 봉안(奉安)하던 곳에 도로 봉안하고 백이정의 사당은 헐어버리게 하였다. 그리고 해당 현감의 죄를 계청(啓請)하여 전임 현감 권손(權禔)과 시임 현감 윤기(尹楹) 모두를 나문(拿問)하여 죄를 감정(勘定)하게 하였다.

이때에 와서 대사성 조진관(趙鎭寬)이 아뢰기를, “주자의 화상을 모신 서원도 장차 헐어버리려 한다 하는데, 이미 만든 뒤에 곧바로 또 헐어버린다면 매우 불경스럽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조정에서 알 바가 아니니 경이 해당 도신과 좋은 쪽으로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한용화가 마침내 헐어버렸다.

한용화의 강력한 의지로 영당은 훼손되고, 유생을 처벌하지 말라는 조정의 결정으로 유생들은 석방되었다.

〈1807년의 중건과 훼손〉

관찰사 한용화에 의해 신안사가 훼손된 후 지역 유림들의 반발과 복설 여론 조성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보령 진사 이의준(李宜俊)은 도내 유림들에게 통문을 돌려 왕의 명령도 듣지 않고 신안사를 훼손한 한용화를 당시 주자를 비판하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린 윤후에 비유하여 비난하면서 여론을 조성하였고, 1798년에는 이의준·박노환·김태주 등이 경기도 여주의 사림들과 연대하여 조정에 상소를 추진하려다가 실패하기도 하였다. 1799년에는 윤재복·박노환 등이 상소하려고 성균관의 협조를 구하였으나 성균관 장의 홍수준(洪秀俊)의 비협조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1804년에는 휴암(休菴) 백인걸(白仁傑)의 후손인 백동섭(白東攝)이 성균관과 영문(營門)을 드나들면서 노력하여, 덕산에 옮겨졌던 주자의 영정을 남포에 반환해 와서, 훼손된 신안사에 남아 있던 전청(典廳)에 임시로 모셨다. 또한 1804년 2월 남포유생 박노환, 보령유생 진사 이의준, 임천유생 유준주, 홍주유생 백동섭 명의로 성균관에 통문을 보내 신안사 재건에 성균관이 주선해 달라는 의사를 전하였고, 이어서 성균관으로부터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중수(重修)하는 것이니 사리에 합당하다는 답을 얻어내었다.

또 1804년 9월에는 유준주가 소두(疏頭)가 되고 진사 이의준이 제조(製疏)하여 윤재복, 이명호, 박성, 이봉채 등의 연명으로 ‘청신안원복설소(請新安院復設疏)’를 올렸고, 예조에서도 왕에게 복설하는 명을 내려도 좋다는 의견을 회계(回啓)하였으며, 이어서 왕도 윤허하였다.

이어서 1807년에는 신안사를 복설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옛 터는 훼손될 때 주자가 욕을 당한 곳이라 하여, 그곳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지술가로 하여금 터를 잡게 하고 백동섭·이의준·윤재복 등이 주동이 되어 일을 시작하니 1807년 2월이었다. 재물을 모아서 공사를 6개월 정도 진행하여 드디어 1807년 8월에 완성을 하고 주자 영정을 신당(新堂)에 모시고 낙성식을 거행했으며, 이어서 백이정은 지패(紙牌)로 모시고 배향했다.

신안사에서는 낙성식을 1807년 8월 거행하고, 9월에는 성균관에 통문을 보내 그 사실을 알렸고, 성균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사풍을 진작하여 교화에 힘쓰기 바란다는 회답이 내려왔다. 1798년의 처음 신설 당시의 신안사는 조정과 협의 없이 설립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1807년의 중건시에는 조정에 상소를 올리고 성균관에 통문을 보내 허락을 얻었고, 사후에는 성균관에 보고하는 형식을 갖추었다. 그리고 1811년에는 당시의 이조판서 박종경(朴宗慶)을, 1841년에는 당시의 의정부 좌참찬 이지연(李志淵)을 원장으로 청해서 모셨다. 명실상부한 서원의 모습을 갖춘 것이었다.

이어서 1808년 우암 송시열을 배향하였다. 그 영정을 수원에 있는 매곡서원에서 모사하기 위해 성균관과, 매곡서원 원장 한용구(韓容龜)의 협조를 얻었다. 완성된 우암의 영정은 성균관과 신안사 유생이 주선하여 남포 신안사에 옮겨져 오는데, 경유하는 곳은

성균관의 협조 편지에 의하여 지봉(祗奉)의 예를 다하게 하였다. 이어서 1819년에는 백이정의 제자인 익재 이제현이 추배되고, 1823년에는 우암 송시열의 제자인 수암 권상하가 추배되었다. 그리고 1835년에는 보령지역 유림들이 남당 한원진을 배향하기를 원하는 통문을 신안사에 발송했고, 이어서 1838년에는 남당을 추배하였고, 양정축문(兩丁祝文)을 완성하였다. 1838년부터는 남포현감에게 요청하여 제향(祭享) 경비 보조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도정치기를 지나 1863년 대원군이 섭정하자 1864년(고종 1년) 서원에 대한 모든 특권을 엄금하고 이듬해인 1865년 5월에는 대표적인 서원인 만동묘를 폐쇄하면서 서원철폐를 단행하였다. 이때 가장 우선 철폐 대상이 된 것이 칙설 서원이었다. 이와 같은 대원군의 적극적인 서원철폐 정책으로 대부분의 서원은 정비되고 세상에 사표가 될 47개의 서원만을 남겨 놓았다.

이 정책에 의해 신안사도 주자를 칙설한 서원이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훼손되었다. 신주 5개는 땅에 묻고 백이정의 위패는 후손들에 의해 보령시 동막동으로 옮겨진다.

그러나 훼손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서원 훼손령이 내려지는 1865년부터 1871년 사이에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신안사는 혼한 복설운동도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안사는 주자(朱子)와 이재(彝齋) 백이정(白頤正),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 수암(遂庵) 권상하(權尙夏),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을 배향하였는데 노론 기호학파의 학맥과 남포현 토착세력의 상징성을 띠었다. 그 후 몇 차례 개수(改修)되면서 60여 년 간 지속되다가 1864년(고종,1)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하여 1864~1871년 사이에 철폐되어 현재는 몇 개의 초석과 ‘서원터’ ‘홍살문앞’ 등의 지명만이 남아오면서 과거 신안서원의 사실을 말하여 주고 있다.

(2) 신안사영건사실기(新安祠營建事實記)

《신안사영건사실기》는 최근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황의호가에서 발굴되었는데, 유일 필사본으로 되어 있다. 19cm×21cm의 크기에 26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는 한말 일제시대 웅천 구룡리 유학자 황온(黃穩, 1860~1938)이 참고로 하기 위해 원본을 필사해서 만든 자료로 보이는데, 이것 또한 원본이 아니라는데 한계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신안사의 사실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신안사영건기

황온은 족조에게 한학을 배우고, 개화기에도 성리학적 가치관을 실천하면서 변해가는 세상의 습속을 따르지 않았으며, 웅천의 집성당(集成堂), 비인의 청절사(淸節祠) 등을 출입하며, 지역의 유교 문풍을 지키는 유림 및 지역에 낙향해 온 화서학과의 유림들과 교유했다. 따라서 주자에서 송시열로 이어지는 기호 노론의 학맥을 지지하고 따랐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신안사의 영건 사실을 필사해 두고서, 무너져가는 문풍을 혼자만이라도 지켜보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집성당(集成堂)

- 위치 :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산 14번
- 지정 : 보령시 향토유적 제2호(1991년 12월 10일)

(1) 연혁

집성당은 1898년 3월 삼희당(三希堂) 윤석봉(尹錫鳳)의 주도 아래 보령지역과 인근 서천·홍성·청양·부여 지역 유림들의 도움을 받아 세워진 사우이다. 윤석봉과 함께 집성당을 창건하는 데 앞장선 인물은 율농(栗農) 신섭(申櫻)과 돈간재(敦良齋) 조진학(趙鎭鶴)이었다.

율농 신섭은 일찍이 경기도 지역의 유생 대표로 항일 위정척사의 상소문을 고종에게 올렸다가 전남 지도(智島)로 유배된 후 풀려나 충청도 비인에 낙향하고 있던 항일의 선비이며, 돈간재 조진학은 숙재 조병덕의 제자로 보령 주산에서 많은 제자를 길러낸 낙론계(洛論系)의 뛰어난 학자였다.

이렇게 세워진 집성당은 일제 침략의 어려움에 처한 한말에 주자(朱子)와 송시열(宋時烈)의 영정을 모시고 향사(享祀)를 음력 2월과 8월에 행하면서 인근의 선비들이 강학(講學)하였으며, 인륜도덕의 문란을 바로잡고, 항일 위정척사(抗日衛正斥邪)의 정신을 지켜나갔던 곳이다.



집성당

이곳의 유림들은 항일 위정척사의 사상을 강론하였으며, 1906년 민중식의 홍주의병이나 1919년 파리장서운동 등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여기에서 활동하거나 관련을 가진 유림들 중 향일운동가로 잘 알려진 사람들이 많으니, 우선 삼희당 윤석봉 선생은 우리나라에서 조선말기 가장 실천적 향일의병운동을 하였던 화서학과의 인물이며, 그가 교유한 인물이 면암 최익현, 의암 유인석, 경암 서상렬 등 당대 최고의 의병장들이었다.

그 또한 1906년 민중식의 홍주의병에 가담하였다가 2개월 간의 옥고를 겪었다.

그리고 홍성의 향일 운동가 지산 김복한, 복암 이설, 위관 김상덕이 있으며, 윤석봉 선생의 제자로서 홍주의병에 가담하였다가 대마도에 유배된 소위 대마도9의사 중 보령의 우록 유준근, 비인의 운초 문석환, 공주의 택당 이식이 있고, 보령 5열사 중 백관형이 있다.

그 외 김지정·유호근·조구원·윤용원 등 향일 유림들이 이곳 집성당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집성당은 단순한 사우가 아니고 향일의 사상을 가진 보령·서천·홍성·청양 등 인근의 선비들이 모여 활동하던 의미 있는 장소였다.

그동안 6.25사변 등 어려움 속에서 훼손되기도 하였으나 유림들의 노력으로 몇 번의 중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주송(朱宋) 양부자(兩夫子) 영정(影幀)은 없어져서 위패로 대신하고, 강학하던 장소는 터만 남아있다. 현재는 지방 유림들이 관리하며 해마다 음력 2월에 향사를 올리고 있다.

(2) 현재의 집성당

집성당은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웅천초등학교 앞의 하천을 따라 500여 m정도 남쪽으로 내려 온 곳의 화락산 동향 사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6.25전까지는 주자와 송시열의 영정을 모시고 향사(享祀)를 행해 왔지만 6.25 때 영정을 도난당한 후부터는 위패를 모시고 지역 유림들이 매년 향사를 행해 왔고, 건물은 계속 중수(重修)해 왔다.

그러다가 1990년에 보령시의 도움으로 새롭게 개수(改修)하였는데, 정면 2칸 측면 3칸의 건물로 정면의 각 칸에는 4분합문(分閤門)이 설치되었고, 왼쪽의 문 위에는 집성당(集成堂)이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편액의 좌우에는 작은 글씨로 된 집성당 중수기 현판 4개가 걸려 있다. 홀처마에 맞배지붕 양식을 한 이 건물의 양 옆 박공 아래에는 방풍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납도리식 건물이다.

집성당의 건물은 2단의 기단 위에 놓여 있으며, 원형 초석 위에 원주(圓柱)를 세우고 있다. 집성당의 주위는 담장이 둘러 있으며, 맞배지붕의 솟을문이 있다.

3) 광성부원군사우(光城府院君祠宇)

- 위치 : 보령시 청소면 재정리 산 71-2
- 지정 : 충청남도지정 문화재자료 제143호(1984년 5월 17일)

(1) 연혁

광성부원군 사우는 조선전기의 문신인 김극성(金克成)의 위패를 봉안한 사우로 부조묘(不祧廟)이다. 창건 연대는 미상이고, 처음에는 청라면 장산리에 세웠던 것을 청천저수지 조성으로 그곳이 수몰지구가 되자 1960년 2월 16일 그의 묘소가 있는 현재의 청소면 재정리로 이전하였다. 이때의 사연은 사우에 걸려 있는 ‘사우이건상량문기’에 기록되어 있다.



광성부원군사우

광산김씨가 보령에 세거하게 된 것은 고려말 김성우(金成雨) 때부터이다. 김성우의 증손 김맹권은 문명으로 이름을 날리고, 현손인 김극성은 1496년(연산군 2)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어 문과에 급제한 후 벼슬길에 올라 1506년 중종반정에 공을 세워 정국공신 4등으로 광성부원군에 봉해졌다. 그후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다. 또한 김극성의 형 김극신(金克愼 1469~1521)은 1497년(연산 3) 문과에 급제했으나 연산군의 실정으로 삭과를 당하고 다시는 관직에 나가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여 도학으로 일가견을 이루었다.

이처럼 광산김씨는 김성우 이래 고려말부터 이 지역에 세거하면서 토착적 기반과 학문적 영향력을 꾸준히 성장시켜 나갔고 그것이 김극성 신도비와 광성부원군사우의 건립을 통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극성과 광산김씨는 인물편 참조)

(2) 건축현황

현재 사우는 전퇴간으로 정면3칸 측면1칸의 건물로 홑처마 맞배지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사우 전면 중앙상단에는 그의 시호인 ‘충정사(忠貞祠)’라는 편판과 ‘사우이건상량문기’가 걸려 있다. 축대를 자연의 할석으로 쌓은 후에 원형의 초석을 놓았으며, 그 위에 원형의 초석을 세웠다. 건물 양옆 박공 아래에는 방풍판을 설치하였고, 출입문은 외솨을 문이고, 맞배지붕 형식을 취하고 있다. 주위는 토석혼축으로 담장을 돌렸다.

4) 수현사(水絃祠)

- 위치 :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산 27번지
- 지정 : 충청남도 지정문화재자료 제142호(1984년 5월 17일)

수현사는 고려말기의 명신 염제신(廉悌臣)과 그의 아들 염국보(廉國寶), 손자 염치중(廉致中)과 염치용(廉致用) 등 파주염씨 중시조의 위패를 봉안한 사우이다. 이 사우는 1921년에 그 후손인 염건현(廉健鉉)과 염하영(廉夏永)이 향사를 목적으로 성균박사인 주산의 유학자 김상우(金商雨)와 유림의 공의(公議)로 건립한 것이다. 원래 이 사우가 있던 곳이 보령댐 건설로 수몰되어 현재는 수몰선 위로 옮겨 지었다.

파주염씨들이 보령에 처음 입향하게 된 것은 염제신의 8세손인 염경원(廉慶遠) 때부터이다. 파주염씨들은 나주에서 염경원 대에 이르러 보령에 이거하여 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세거해 왔다.

파주염씨명륜록(坡州廉氏明倫錄) 등의 기록에 의하면 염제신을 제향하는 서원들은 서원철폐시 훼손되었으나 영당을 짓고 종사하여 왔는데, 단천, 재령, 안의 3군에는 이미 영당이 건립되었으나, 경기와 충청도에만 자손이 빈약하여 영당을 짓지 못하고 있던 중 18세손 건수와 19세손 하영 등이 1921년 12월 보령 미산 북쪽에 사우를 짓기 시작하여 다음해인 1922년 8월에 사우3칸, 삼문, 재실, 창고의 건립을 마치고 9월 14일에 영정을 봉안하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수현사의 건립은 후손들의 주도로 사재를 들여 사우를 건립하고 나주에서 염제신의 존영을 가져다가 봉안하여 춘추로 향사하게 된 것이다. 이때 지역의 선비들인 조익순(趙翊淳), 최영조(崔永祚), 백낙창(白樂稔), 김상우(金商雨) 등이 사실 및 찬양의 글을 지었다.



수현사

염제신(廉悌臣 1304~1382)은 고려말 관직에 나가 공민왕 때 좌정승, 우정승이 되었으며, 곡성부원군이 되었다. 1356년에는 친원과 기철을 숙청한 뒤 서북면 도원수가 되어 원의 공격에 대비하였으며, 문하시중이 된 인물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물편 참조)

염국보(廉國寶 ?~1388)는 고려의 문신으로 염제신의 아들이다. 그의 아우 염홍방과 함께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에 나갔다. 그는 이제현-안보(安輔)로 이어지는 좌주문생(座主門生) 관계였다. 학문적 경향은 성리학을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안렴사로 지방에 파견되어 폐단을 다스림으로써 개혁에 참여하였다. 1388년 이성계에 의하여 아우 홍방

및 임견미 등이 제거될 때 살해되었다.

5) 용암영당(龍巖影堂)

- 위치 :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62-1
- 지정 : 충청남도문화재자료 제141호(1984년 5월 17일)

용암영당은 삼사당(三思堂)이라고도 하며, 조선 영조 16년(1740)년 보령지역에 사는 경주이씨(慶州李氏)들이 자신들의 조상인 익재이제현(益齋 李齊賢)을 추모하며, 제사하기 위하여 세웠다.



용암영당

1800년에는 웅천의 학자이자 이제현의 17대손인 이예환(李禮煥 1772~1837) 등이 중심이 되어 이제현의 영정을 봉안하고 향사하였다.

보령 남부지역에는 조선 초기에 익재 이제현의 후손들이 입향하여 경주이씨 익재공파를 이루며 지금까지 세거해 오고 있다.

이 사당에 모셔진 익재 이제현은 충렬왕 27년(1301) 나이 15세로 문과에 급제하고, 공민왕 6년(1357) 우정승을 끝으로 벼슬을 떠날 때까지 수많은 관직을 역임하였다. 그는 충선왕 때(1334) 원나라에 들어가 연경의 만권당에서 조맹부 등 원나라의 여러 학자들과 함께 고전을 연구하여 그 이름을 떨쳤다. 용암영당은 바로 이 같은 고려말 성리학의 대가인 익재 이제현의 영정을 봉안한 유적이다.(자세한 내용은 인물편 참조)

이곳에 모셔진 익재의 영정은 심의에 공수자세로 된 전신상인데, 원래 모본이 된 그림은 충북 보은군 탄부면 하강리 장산영당(長山影堂)에 봉안된 영정이고, 모사자는 화사 함익철(畫師 咸益喆)이다. 한편 이예환은 당시 삼사당 옆에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현재까지도 자라면서 마을의 보호수 역할을 하여 왔고, 최근 수몰되면서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삼사당 건물은 그 후 퇴락하여 고종 16년(1890)에 고쳐 지었고, 또한 1960년 9월에도 내삼문을 다시 짓고, 단청 등을 하였다. 현재의 건물과 주변의 공적비·추모비 등은 1990년대 다시 단장한 것이다.

영당은 목조와가(木造瓦家)로 전면3칸 측면1칸의 맞배지붕 형식이며, 솟을삼문을 갖추었다. 최근 보령댐 수몰로 인하여 현재의 위치에 이전하였다. 매년 유림과 경주이씨 후손들이 제사를 지낸다. (경주이씨와 이제현의 자세한 내용은 인물편 참조)

6) 문헌사(文憲祠)

- 위치 ;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산 37-1
- 지정 : 보령시 향토유적 제3호(1991년 12월 10일)

이 사우(祠宇)는 병조판서와 예문관 대제학을 지낸 문도공(文度公) 윤희(尹淮)와 영의정을 지내고 무송부원군(茂松府院君)에 봉해진 문헌공(文憲公) 윤자운(尹子雲)을 제향하는 사우이다.

원래 이 사우는 성종 25년(1494)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홍죽리에 부조묘(不祧廟)로 건립되었으나, 그 곳에 사는 윤자운의 후손들이 쇠락하여 관리가 부실해짐에 따라 1725년 웅천읍 소황리 지역에 사는 윤자운의 후손들이 위패를 모셔다가 웅천 소황리에 재 건립하였다.

그러나 소황리에 군사시설이 들어서면서 1992년 현 위치에 옮겨졌다. 이 문헌사는 현 위치에 옮겨지기 전까지만 해도 보령지역에서 가장 전통적 사우건축의 양식을 보존하고 있었지만, 이전하면서 주초석만 옮겨왔을 뿐, 나머지는 새로 만든 것들이다. 웅천 무송윤씨는 임진왜란 후 소황리에 입향한 이래 후손들이 지금까지 세거해 오고 있다. 종중에서 관리하고 제향한다.



문헌사

윤자운(1416~1478)은 본관이 무송(茂松)이며 1444년(세종 26)에 식년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갔다. 계유정난 때는 수양대군을 도왔으며, 1460년 신숙주와 함께 여진족 정벌에 참여하고 무송군(茂松君)에 봉해졌으며, 병조·형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이시애의 난 진압에 나서기도 했다. 세조·성종 때 우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오르고 무송부원군에 봉해졌다. (자세한 내용은 인물편 참조)

7) 사창사(士昌祠)

- 위치 :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두루니 마을

사창사는 성주이씨 도은(陶隱) 이숭인(李崇仁)의 영정을 모신 사우이다. 16세기 후반 남포지역에 입향한 성주이씨들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나 남포 소송리에 이숭인의 사우를 건립하고 추모해 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퇴락되자 후손들의 노력으로 1891년(辛卯年) 웅천읍 두룡리에 이건하였다. 남포 소송리에서 이곳으로 이 건한 이유는 도은의

11세손 생원 이형원(李馨元)의 호자 정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호자정려 옆에 2칸 사우를 건립하고 영정을 봉안하고 추모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삼희당 윤석봉이 지은 ‘두릉도은영당창건기(杜陵陶隱影堂創建記)’에 전한다.

그리고 1991년 다시 개수해서 현재에 이른다.

사당은 맞배지붕의 익공식(翼工式)의 건물로 정면3칸 측면 1칸의 건물이다. 사당의 정면 소슬문 상단에는 ‘사창사’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吏曹判書星州李公陶隱公李崇仁’이라 쓰여 있다. 내부에는 제작연대 미상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다.



사창사

이승인(1349~1392)은 고려말기의 학자이며 충신으로 목은(牧隱) 이색, 포은(圃隱) 정몽주와 함께 고려말의 삼은(三隱)으로 일컬어진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한 뒤 예문관제학, 지밀직사사 등을 지내면서 여러 차례 귀양 혹은 감옥살이를 했고, 정몽주가 살해되자 그 일당으로 몰려 유배되었다가 정도전의 심복에게 유배지에서 살해되었다. 그는 성리학에 정통했을 뿐 아니라 시문에도 뛰어나서 元·明과의 외교관계 문서를 도맡아 썼으며, 문장이 전아하여 중국 명사들을 탄복시켰다.

8) 옥산사(玉山祠)

- 위치 : 보령시 웅천읍 평리 동막동

옥산사(玉山祠)는 남포백씨 문중에서 고려 시대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도입한 백이정(1247~1323)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사당인데, 앞에 홍살문이 있고 삼문이 있다. 원래는 현 위치보다 위쪽 골짜기에 있어서 신안사 폐사 후 백이정의 위패를 모셔와 봉안해 왔으나 현재는 폐가가 되었고(1991년 보령



옥산사

군지에는 1710년 창건으로 기록), 1989년 현 위치에 문중에서 새로 지었다가 최근 중건했다. 보령지역에는 백이정의 후손들이 남포백씨를 이루며 세거해 오고 있다.

백이정(白彝正 1247~1323)은 고려 충선왕 때의 문신이며 유학자로 안향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1298년 충선왕을 따라 원의 연경에서 10여 년간 머물면서 성리학을 배워

귀국 후 후진을 양성하여 이제현·박충좌·이곡·이인복·백문보와 같은 후학을 배출했다.(인물편 참조)

9) 경순왕영모전(敬順王永慕殿)

- 위치 : 남포면 창동리 고야실 마을

창동리 당산의 중상단부에 위치한 사우로 마을에서 소로를 따라 약 200여 m 올라간 곳에 있다. 중앙에 석계단을 두고 있으며, 이 위에 삼문이 설치되었으며, 건물은 정면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양식이다. 한글로 ‘경순왕영모전’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경순왕은 신라의 마지막 왕으로 보령의 경주김씨들에 의해서 제사가 행해진다.

동국여지승람 등에는 옥마산정에 김부대왕사(金傅大王祠)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남포면 제석리에 봉안된 김부대왕 왕기((王旗))가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1965년 경주김씨들은 제석리 사당에 봉안된 경순왕 왕기(王旗)와 위패를 이전 봉안하기 위하여 옛 김부대왕사(金傅大王祠)가 있던 옥마산의 산록 아래 창동리 고야실 마을에 시멘트 벽돌 와가(瓦家)와 삼문 그리고 돌담장을 갖춘 사당을 조성하고, 왕기를 옮겨오려 했으나 제석리 주민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경순왕 영정을 봉안하였다.

이어서 1993년 삼문 등을 시멘트 벽돌에서 목조건물로 개수하여 오늘에 이른다.



경순왕영모전

10) 경순왕경모전(敬順王敬慕殿)

- 위치 : 보령시 남포면 제석리 지석굴 마을

지석굴(원제) 마을 동북쪽 산 중턱에 있는 산제당이다. 약 200년 전에 지석굴 마을에 사는 경순왕 후손의 꿈에 경순왕이 나타나 왕기(王旗)와 위패가 든 상자가 있을 테니 잘 보존하라고 명하였다. 꿈에서 깬 후손은 이른 아침에 바닷가에 나가보니 그 말이 사실이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모셨고, 그 후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 후 마을 주민들이 당집을 마련하고 매년 정월 열나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처음 초가집이던 것을 1988년 군비(郡費)지원으로 삼문과 담장 그리고 위패전을 갖춘 사당 형식의 제당(祭堂)을 새로 짓고 ‘경순왕경모전’이라고 이름하였다. 경순왕경모전이라는 한글 편액이 걸려 있다.

왕기라 전해지는 기(旗)는 가로로 ‘朝鮮國’ 세로로 ‘湖西玉馬山金傅大王之旗’라 써어있다. 이 왕기와 함께 있는 상에는 ‘道光十二年壬寅九月初吉日金傅大王之旗改建’ ‘19년초길 일노당너리게흐라’라 기록하여 왕기가 도광 12년 즉 1832년 개조되어 동기(洞旗)로 쓰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경주김씨들은 이 왕기를 남포면 창동리의 경순왕영모전에 봉안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최근 진입로가 시멘트로 포장되었다.



경순왕경모전

11) 정절사(貞節祠)

· 위치 :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선림사 입구

정절사는 오천면 소성리 선림사 입구에 있는 백제 열녀 도미부인(都彌婦人)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다. 선림사가 있는 뒷산의 명칭이 상사봉이고, 오천면 교성리의 도미항, 천북면 낙동리에 있는 빙도(미인도)의 지명이 『삼국사기』에 기록된 도미설화와 관련된 곳이라 하여 최근에 건립하였다. 그리고 상사봉의 정상부근에 정절각이라는 정자를 건립하였다.

1983년 보령시에서 발간한 『내고장 보령』 이후 보령지방에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도미설화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논의되어 왔다. 이어 1991년 보령시에서는 소책자인 『보령의 도미설화』를 발간하였고, 1992년 상사봉에 정절각을 지었으며, 1994년 도미부인 사당인 정절사를 건립하였고, 2003년에는 도미부인과 남편 도미공의 합장묘를 정절사 옆에 조성하였다.

1994년 보령시에서는 ‘정절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미부인의 정절을 기리고 그 뜻을 후세에 전하고자 정절사를 건립하게 되었으며, 도미부인의 영정을 그려 봉안했는데, 정부에서는 이 도미부인 영정을 대한민국 표준영정 65호로 인정하였다.

1995년부터 매년 양력 10월 1일 정절사에서 도미부인 경모제를 올리는데, 대천여상 학생들이 제를 올리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주로 참여한다. 성주도씨 문중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경남 진해시 청안동에는 예부터 전해오는 소위 ‘도미총’ 또는 ‘정승묘’가 있는데, 이 묘에 음력 초하룻날 가장 먼저 벌초한 사람은 無子한 사람이 득남하고, 년중에는 소원성

취한다는 영험설이 전승되어 도성(都姓) 후손들에게 알려지기 전부터 한결같이 묵지 않고 보존되었다 한다. 이 묘에 성주도씨가 도미의 무덤이라 하여 비를 세우고 제를 올렸다고 한다. 이 묘역이 2003년 6월 공단 개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보령시에서 오천면 정절사 옆으로 이장하였다.



도미부인 영정(대한민국 표준영정 제65호)



도미묘소와 정절사

12) 요산사(遼山祠)

- 위치 :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죽하마을(대숲말)

요산사는 조선시대 중종반정공신 이기(李夔)를 모신 사우로 부조묘(不祧廟)이다. 이기는 중종반정에 공을 세워 정국공신(靖國功臣) 3등에 책훈(策勳)된 인물이며, 자는 자후(子侯)이고 본관은 수안(遂安),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이기의 관록(官錄)은 순충분의익대정국공신자헌대부행병조판서오위도총부도총관요산군(純忠奮義翊戴靖國功臣資憲大夫行兵曹判書五衛都總府都總管遼山君)이다.

명종 때 부조지위(不祧之位)를 받아 부조묘(不祧廟)가 건립되었다고 하며, 그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고 원래의 위치는 목천에 있었으나, 약 400여 년 전에 현 위치에 다시 건립하였다고 한다. 이기의 묘소는 천안 병천면에 있으며, 현재 사우의 위치는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산60번지 대숲말이다. 주변에는



요산사

이기와 그의 아들 이거인이 500여 년 전에 이곳에 입향한 이래 수안이씨 집성촌이

오랫동안 형성되어 오고 있으며, 현재는 매년 정월 초이튿날에 제향한다. 사우는 솟을 대문과 담장으로 둘러싸인 와가이며, 몇 번의 중수를 거쳐서 지금에 이른다. 내부에는 2편의 중수기가 걸려 있으며, 주변에는 고송(古松)들이 있어 운치와 함께 사우의 오랜 역사를 말해 준다. (李希性)

3. 정려(旌閭) - 무순 -

1) 효자 고이대(高二大) 정려

보령시 남곡동 가포말 북쪽 산기슭에 있는 효자문으로 150여 년 전에 세워졌다.

고이대는 아버지 병구환에 극진하였고, 양친이 돌아가신 뒤에도 효도를 다하였다. 그의 아들 고득천(高得天)도 친환에 손가락을 자르는 효심을 보였고, 고이대의 손자 高彌文도 효심이 지극해서 부모를 정성껏 섬기니 세효(世孝)의 명문이라 하였다.

위치상으로 보아 여러 번 옮겨진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 편액이 걸려 있었으나, 편액은 없어지고 정자각만 약간 훼손된 채 남아 있다. 편액은 孝子贈通訓大夫司憲府監察高二大之門, 孝子贈童蒙教官朝奉大夫高得天之門이라 써어 있었다. 고이대의 본관은 제주이다.

2007년 다시 보수하고, 편액을 다시 만들어 걸었다,

2) 열녀 평산신씨(申氏) 정려

처음에는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약현 마을 중앙부를 서에서 동으로 잇는 구릉의 하단부 큰 샓갯재 마을에 위치했었다. 남포백씨 백낙완(白樂完)의 처 신씨의 정문(旌門)으로 야산 대나무숲 사이에 자리하고 남향으로 건립되어 있었다. 정면 측면 모두 1칸의 맞배 지붕이다. 내부에는 중앙에 비석이 세워져 있고 편액과 비석의 전면에는 <烈女故土人白樂完妻孺人平山申氏之門上之四年丁卯命旌同治己巳十月日> 이라고 각서되어 있다.

신씨는 남편이 산송(山訟)관계로 죽자 예로써 3년상을 마치고 상을 마치는 날 약을 마시고 자결하여 1869년 명정(命旌)되었다. 신씨는 1882년 남산에 올라가 척사상소를 올렸다가 사형당한 보령 5열사의 한 사람인 백낙관(白樂寬)의 둘째 형수이다.

이 정려는 화평리 큰샓갯재 마을에 있었으나 최근 이 곳 보령시 평리 삼재 아래 동막동 입구에 옮겨 세웠다.

3) 열녀 남포백씨(白氏) 정려

보령시 주산면 동오리 선돌 마을 북서쪽으로 뻗은 구릉의 하단부에 위치한다. 정면 측면 1칸의 맞배지붕 양식이며, 내부에는 오석의 비석이 있는데 전면에는 <烈女學生李震榮妻孺人藍浦白氏之門上之二十五年戊子九月日命旌崇禎紀元後五庚寅三月日揭>라 각서되어 있다. 정문의 서편에는 암반을 대좌로 하여 높이 120cm 정도의 비를 세웠는데, 비신 전후면에 정려기(旌闈記)가 각서되어 있으나 마모가 심하여 잘 보이지 않으며, 비신 위에는 옥개형(屋蓋形)의 이수(螭首)가 올려져 있다.

경주이씨 이진영의 처인 남포백씨(1802~1821)는 부도(婦道)를 지켜 18세에 남편이 먼저 사망하자 머리를 빗지 않고 옷을 빨지 않으며 매일 피눈물을 흘리다가 3년상을 마친 후 자신의 20세 생일에 간장 3사발을 마시고 죽었다. 1825년 명정되고, 1890년에 비석을 세웠다가 정려를 세웠다.

4) 열녀 개성고씨(高氏) 정려

보령시 주산면 삼곡리 월현 마을에 있다. 건물은 겹처마에 맞배지붕이고 정문의 내부 중앙 상단에는 <烈女內金衛副司正具思謹妻恭人開城高氏之門上之十一年庚午十月日重修>라고 각서된 현판이 걸려 있다. 개성 고씨(1556~1605)는 구사심(具思謹)의 처로 광해군 시기 사람이며, 병이 든 남편을 위하여 겨울에 수박과 가물치를 구해다 병간호를 극진히 하였으며, 남편이 죽자 초종(初終)을 치른 후 자결하였다. 1810년에 서천 비인면 구북리에 세워진 것을 1923년 현위치로 이전하였다.

5) 열녀 한양조씨(趙氏) 정려

보령시 주산면 황율리 황성마을에 있다. 건물은 정면 측면 1칸의 팔작지붕 양식으로, 건물 중앙 내부 상단에 편액을 걸어 놓았다. 편액에는 <烈女學生任世憲妻孺人漢陽趙氏之閭崇禎再丁酉命旌>라고 각서되어 있다.

한양 조씨는 숙종조 임세헌의 처로 남편이 사망하자 3년상을 치른 후 칼로 목을 찢러 자결하였고, 그 열행을 기리기 위해 1717(숙종 43)년 명정되었다.

6) 열녀 평산신씨(申氏) 정려

보령시 주산면 황율리 황성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임은모 정려와 나란히 있다.

정면 측면 1칸의 맞배지붕 양식의 지붕을 하고 있으며, 건물 중앙 상단에 편액을 걸어 놓았는데 편액에는 〈列女學生任憲順妻孺人平山申氏之門崇禎五甲申八月日命旌〉라고 각서되어 있다. 평산신씨(1857-1878)는 임헌순의 처로 남편이 병이 들자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였으나 마침내 세상을 떠나자 소상 다음날 한글로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 자결했으며, 1884년 명정되었다.

7) 효자 임은모(任殷模) 정려

보령시 주산면 황올리 황성마을 입구에 열녀 평산신씨 정려와 함께 위치하고 있다. 건물은 정면 측면의 1칸으로 팔작지붕이며 내부 중앙 상단에 편액이 걸려 있다. 편액에는 묵서(墨書)로 〈孝子學生任公殷模之閭上之二十一年甲申十二月日命旌〉이라 기록되어 있다.

임은모(1804~1868)의 본관은 풍천(豊川)이며,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조석 문안 인사를 거르지 않았고, 부모 허락없이 출타를 하지 않으며, 부모가 병이 들었을 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극진히 간호하는 등 효행으로 주위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임종을 보지 못한 것이 불효라 생각하여 3년 동안 상복을 벗지 않고 상을 치렀으며, 3년상이 끝난 뒤에도 두문불출하는 등 효행이 특출했다. 1884년 명정되었다.

8) 열녀 보성오씨(吳氏) 정려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금당 마을 도로변에 위치한다. 정면 측면 1칸의 맞배지붕을 한 양식으로 내부에는 중앙 상단에 주칠한 편액을 걸었는데 편액의 전면에 〈烈女學生任聖舜妻孺人寶城吳氏之門上之二十三年丁卯九月日命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보성오씨(1723~1745)는 영조 때 사람인 임성순의 처이다. 보성오씨는 시집 온 후 부부가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던 중 남편이 19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곧바로 허리띠로 목을 매어 자결을 시도하다가 가족들에게 제지당하고, 며칠 후 남편의 시신 곁에서 통곡한 후 자기 방에 들어가 칼로 목을 찢러 23세에 사망하였다. 이러한 열행이 지역 유림들의 발의로 현감과 관찰사에게 알려졌고 예조에서 왕에게 보고하여 1747년(영조 23) 명정되었다.

9) 열녀 인동장씨(仁同張氏) 정려

보령시 미산면 내평리 마을에서 서향으로 세워져 있다. 정면 2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을

하고 있다. 내부는 정면 우측 한 칸에 비석을 세워 놓았으며, 정면 좌측칸 상단에는 편액을 걸어 놓았는데, 편액에는 〈學生金俊培妻烈女孺人仁同張氏之門孔夫子誕降後二千四百八十年己卯四月日始旌〉이라고 각서되어 있다. 우측상단에는 인동장씨정렬각중수기가 걸려 있다.

장씨는 김해인 김준배의 처로 남편의 병세가 심하여 차도가 없자 사람의 고기를 달여 먹여야 낫는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살을 떼어 국을 끓여 장에서 사온 쇠고기 국이라 하며 먹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남편이 3개월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이 사실을 남포군수가 알고 감탄하여 표창하고 후손들은 길이 빛내기 위해 1929년에 열녀문을 세웠다.

10) 효자 박승건(朴承健) 박세주(朴世胄) 정려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마을 입구 국도 36호 도로변에 위치한다. 남향의 정면2칸 측면 1칸의 건물로 팔작지붕 양식이다. 내부에는 2기의 비석을 칸마다 1기씩 세워 놓았으며, 후면 중앙에는 중수기를 걸어 놓았다. 또 각 칸에는 편액도 걸려 있는데 좌측에는 〈孝子處士朴世胄之門崇禎後再己酉六月日命旌〉이라고 각서되어 있고, 우측에는 〈孝子通訓大夫行司憲府掌令朴承健之門崇禎甲申後六十三年九月二十二日命旌〉이라고 각서되어 있다.

박승건(1609~1667)의 본관은 밀양(密陽)이고 평소에 형제간의 우애가 깊었고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여 1706년(숙종 32)에 조정에서 효자 정려가 내려졌다.

박세주(1641~1725)는 박승건의 셋째 아들로 일생을 처사(處士)로 살면서 아버지 병환에 겨울 죽순을 구하고 허벅지 살을 베고, 어머니 병환에 세 손가락을 베는 등 효성이 지극하였으므로 1765년(영조 41)에 조정에서 정려가 내려졌다.

1831년(순조 31)에 두 분의 정려를 현 위치의 건너편인 보령시 도화담리에 세웠으나, 도로공사 관계로 1983년 현 위치에 옮겨 세웠다. 박세주가 이곳 도화담에 정착한 이후로 후손들이 밀양박씨 성은공파를 이루며 세거해 오고 있다.

(박승건·박세주 : 인물편 참조)

11) 열녀 동복오씨(同福吳氏) 정려

보령시 웅천읍 죽청리의 북문재 삼거리에서 부사방조제 방향의 도로 옆, 작은 봉오재 마을 입구에 있다. 정면 측면 1칸의 4각 지붕의 형식이며, 내부 중앙상단에 “烈女學生李

基崇妻同福吳氏之閭上之四十八年壬辰八月日”이라 각서된 편액이 걸려 있고 편액의 상단에는 국한문 혼용으로 墨書한 ‘烈女旌閭改築移轉記’ 편액이 걸려있다. 정려 좌측으로 1m 떨어진 곳에는 ‘孝子贈朝奉大夫戶曹左郎李基商 孝子通德郎李基周 烈女學生李基崇妻同福吳氏之里’라 각서된 비석이 있다

이기승의 처 동복오씨는 남편을 따라 순절함에 1772년(영조 48)에 정려가 내려졌다.

이기상의 본관은 전주이며, 지성으로 부모를 공양하여 그 높은 뜻으로 호조좌랑에 증직되었다. 이기주는 그의 동생이다.

12) 효자 최광필(崔光弼) 정려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철도 건널목 옆에 위치한다. 원래 웅천읍 소황리 황골에 있었으나 공군사격훈련장이 들어서면서 최근 이 곳으로 옮겼다. 겹처마 팔작지붕이며, 내부 중앙상단과 뒤편 상단에는 효자 최광필과 최성집(崔聖集)의 처 전주이씨 열녀문 편액이 걸려 있고, 뒤편 중단에는 중수기가 걸려 있다. 편액에는 “孝子贈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正行通訓大夫吏曹正郎崔光弼之門萬曆四十六年七月日立” “烈女學生崔聖集妻孀人全州李氏之閭今上卽位二十四年丁亥四月日命旌”이라 각서되어 있다. 효자문은 1618년, 열녀문은 1887년에 세워졌다.

최광필(1453~1608)은 본관이 강릉(江陵)으로 임진왜란 중에 아버지를 모시고 조종현(朝宗縣: 경기도 가평)에 피신하던 중 아버지의 상을 당함에 그 곳에 임시로 장사지냈는데, 왜구의 노략질과 살육이 심하여 주민들 모두가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묘소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남아서 낮에는 산에서 왜적을 피하고 밤에는 여막으로 돌아와 시묘를 하니 마을 사람들이 그 효성에 감동하여 양식을 가져다 주고 친척처럼 보살피 주어 복을 마쳤다. 1618년 조정에서는 최광필의 지극한 효행을 기려 정려를 내렸다.

(인물편 참조)

이 정려는 원래 이곳에 있었다가 광복 이후 소황리 황골로 옮겨졌고, 최근 공군사격장 관계로 다시 이곳에 옮겨졌다. 정면 1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의 건물 내부에는 1618년 명정된 최광필의 명정 현판과 1887년 명정된 최성집의 처 열녀 전주이씨의 명정 현판 그리고 중수기가 걸려 있다.

13) 효자 김침희(金瞻喜) 정려

보령시 웅천읍 죽청리의 무창포 방향과 부사방조제 방향의 북문재 삼거리에서 부사

방조제 방향의 500m 정도 내려간 도로 옆에 있다. 정면 측면의 팔작지붕 양식이며, 정려의 중앙에는 화강석 대좌 위에 오석의 비신이 올려져 있고 비신에는 정려기를 각서해 놓았다. 정려의 중앙 상단에는 “孝子贈童蒙教官朝奉大夫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金瞻喜之閭”라고 각서되어 있다. 정려의 命旌 시기는 “聖上二十九年壬辰六月”이다. 1892년에 세웠다. 김침희(1829~1889)의 본관은 경주로 양친을 봉양하는 데 남달리 뛰어났으며, 고종 때 경복궁 중건시에는 재정공뵐을 듣고 모금하여 925냥을 바치기도 했다. 이러한 일로 조정에서는 가상히 여겨 참찬(參贊)을 증(贈)하고 정려를 내렸다. 그의 묘는 구룡리 용굴에 있으며, 명필인 족손 김승렬(族孫 金承烈)이 짓고 쓴 묘비명이 있다.

14) 효자 황정직(黃廷直) 정려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절골 마을 즉, 웅천에서 주산 증산리 방면 도로변에 있다. 황정직(1581~1657)은 본관이 장수(長水)이고 호는 쌍벽당(雙碧堂)이다. 세종조에 영의정 황희(黃喜)의 6대손으로 어려서부터 문장에 능하고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아버지가 병환이 나자 밤낮으로 극진히 간호하는 한편, 병환이 위급함에 이르러서는 손가락을 잘라 목에 피를 넣어드려 수명을 10여 일 연장하게 하였다. 1625년(인조3)에 이형원(李馨元) 등 향리 유생들이 그의 효행에 대하여 표창을 천거하여 사포서별제 벼슬이 주어졌으나 나가지 않았고, 1633년(인조 11)에 정려가 내려졌다.(인물편 참조)

이 정려는 원래 웅천읍 황교리 광암에 있었으나 공군사격장 관계로 최근 이 곳으로 옮겼다. 정면 1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 형식을 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명정 편액이 걸려 있다. 정려 안의 편액에는 孝子司圃署別提宣敎郎黃廷直之門 崇禎六年仁祖十一年癸酉銘旌이라 써어있고, 비석에는 孝子雙碧堂黃公旌閭碑라 써어있다.

15) 효자 황유업(黃有業) 정려

황유업(1628~1708)은 본관이 장수(長水)이며, 세종조에 영의정 황희(黃喜)의 8대손이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고 우애가 깊었으며, 아버지 대명(大鳴)이 병환으로 위급해짐을 당하여 손가락을 찢어 피를 넣어 드려 수명을 연장하게 하였으며, 상사(喪事)를 당하여서는 묘 아래에 여막을 짓고 3년을 시묘하면서 자택의 노모 봉양을 하루같이 하였다. 숙종 때 관찰사가 그 효행을 조정에 상주하였고, 1707년(숙종 33)에 정려가 내려졌다. (인물편 참조)

이 정려는 원래 웅천읍 황교리 광암에 조부인 황정직의 정려와 함께 있었으나, 공군 사격장 관계로 조부 정려와 함께 최근 이곳에 옮겨졌다. 정면 1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 형식을 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명정 편액이 걸려있다. 내부 편액에는 ‘孝子朝奉大夫吏曹正郎黃有業之門 崇禎八十一年肅宗戊子銘旌’이라 써어 있고, 비석도 동일한 글씨로 써어 있다.

16) 호자 이백귀(李百貴) 정려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세면이(삼상) 마을에 위치한다. 팔작지붕이며 안에는 비석이 세워져 있고, 뒤쪽에는 편액이 걸려 있다. 편액에는 “孝行學生李百貴之門咸豐三年乙卯四月日命旌檀紀四二九八年乙巳八月日重修”라고 각서되어 있으며, 명정된 시기는 1885년이다. 이백귀는 전주이씨로 몹시 추운 겨울 병석에 누운 어머니의 병환을 대나무 순을 구하여 달여 낮게 하였으나, 다시 위독하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 드려 3일 동안 생명을 연장시켰다고 전한다.

17) 호자 이선원(李善元) 정려

보령시 남포면 소송리 내송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맞배지붕 양식이며 내부 중앙에 편액이 걸려 있는데 “孝子成均館生員李善元之門”이라고 각서되어 있으며, 정려기(旌闈記)가 걸려 있다. 명정된 시기는 1655년이다.

이선원은 본관이 성주이고, 부모가 병석에 눕자 공주·청주 등지로 약을 구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 부모의 병환에는 옥마산 고사리가 제일이라는 계시를 듣고 눈 덮인 옥마산에 올라가 고사리를 구하고, 또 부모님이 잉어를 먹고 싶다고 하자 추운 겨울 얼어붙은 옥동리의 물가에 가서 잉어를 구하여 부모님께 드렸다.

(인물편 참조)

효종 때 그의 높은 효심을 기려 정려가 내려졌고 마을 이름까지 효방(孝房)으로 부르게 되었다 한다.

18) 호자 오수현(吳壽顯) 정려

보령시 청소면 야현리 647에 위치한다. 정려는 시멘트 기단에 팔각의 고주기둥을 올렸다. 맞배지붕의 홑처마이다. 전면은 홍살로 보호 시설을 하였으며 양 벽 및 뒤 벽은 시멘트로

만든 벽에 홍살을 돌리고 있다. 정려 내부에는 중앙에 편액이 걸려있고 좌·우측에도 글씨가 쓰여진 판이 걸려 있다. 정면 편액에는 ‘孝子贈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漢城府左尹吳壽顯之門孔子誕降二千百七十七年丙寅正月’이라 적혀 있다.

오수현의 본관은 해주이고 청소면 야현리 출신이다. 부친이 병석에 누웠을 때 자리를 뜨지 않고 시탕하였으며, 그 부친이 엄동설한인데도 수박 먹기를 청하므로 들에 나가 하늘에 기도하기를 수박을 내려줄 것을 호소한 지 얼마 안 가서 수박을 얻어 먹을 수 있었다. 그 정성으로 부친의 병이 완쾌되었다 한다. 정려 앞에 이러한 내용의 표지석을 최근에 세웠다.

19) 효자 김계환(金啓煥) 정려

보령시 청소면 성연리 새재 마을에 위치한다. 정려의 건물은 자연석으로 쌓은 축대 위에 시멘트로 기단을 설치하였고, 시멘트로 만든 팔각의 고주를 올렸다. 정면은 홍살로 보호 시설을 하였으며, 건물의 양식은 맞배지붕의 겹처마 양식이다.

안쪽에는 편액이 2개 걸려 있는데 위쪽에는 孝子成均生員童蒙教官朝奉大夫光山金氏啓煥之門今上三十壬辰命旌 이라고 써어 있고, 아래에는 烈女學生金寅基妻孺人白川趙氏之門今上三十壬辰命旌 이라고 써어있다.

김계환의 본관은 광산이고 호는 오은(鳴隱)이다. 어려서부터 수재(秀才)로서 6세에 당시(唐詩)를 배우고 자라서는 경사(經史)에 능통하였다. 그리고 1783년 생원시에 급제하였다. 효성이 지극하여神明(神明)의 덕으로 눈 속에서 게를 구하고 빙중(氷中)에 고기를 얻어 부모를 봉양하는 기적(奇蹟)이 있었다. 이러한 그의 생애를 성당 정혁신이 행장에서 밝혔다.

배천조씨는 김인기의 처로 20세에 남편을 잃고, 장의(葬儀) 전날 수렴(收斂)을 마치고 음독자살했다.

20) 열녀 밀양박씨(密陽朴氏) 정려

보령시 주포면 마강리 312번지 21호 국도변에 위치한다. 밀양박씨는 일제시대 19세의 나이로 경주인 최중환(崔鍾環)과 혼인을 하였으나 남편 최중환이 공주고등학교에 공부 하러 갔다가 죽어서 돌아오니 장례를 치른 후 음독자살을 하여 남편의 뒤를 따랐다. 밀양박씨의 정렬(貞烈)을 기려 유림들이 열녀문을 세웠다.

21) 호자 구만원(具萬元) 정려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담안 마을에 위치한다. 정려의 앞에는 맞배지붕의 홀처마로 된 솟을문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정려와는 좀 다른 모습이다. 정려는 맞배지붕에 홀처마로 되었고 좌우에는 방풍판이 설치되었다. 대지 위에 자연 할석으로 1단을 쌓은 후 초석시설 없이 팔각의 고주기둥을 세웠으며, 정면 2칸 측면 1칸으로 홍살이 둘러져 있다. 정려 안에는 두 개의 편액이 걸려 있다. 우측 편액에는 烈女通德郎具孝閔妻恭人韓山李氏之閭라 씌어졌고, 바로 밑에는 孝子通德郎具萬元之門이라는 편액이 있으며, 좌측에는 烈女宣略將軍行內禁衛宣傳官具益壽妻令人彥陽金氏之閭라 씌어져 있다. 이 편액들은 최근 다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산이씨(1665~1699)는 토정 이지함의 후손이며, 통덕랑 구효민(1667~1699)의 처로 남편이 죽자 3개월 후에 12세, 10세의 아들을 시아버지에게 부탁하고 따라 죽었다. 구만원은 본관이 능성이고, 구효민의 아들로 12세에 부모를 모두 여의었으며, 어려서는 부모를 지성으로 봉양하고 성장해서는 조부를 지성으로 봉양한 높은 뜻을 조정에서 알고 특명으로 정려가 내려졌다. 구만원의 증손자 구상은(具相殷)이 1825년에 생원시에 합격한 후 헌종 9년(1843)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언양김씨(1636~1682)는 숙종조에 선전관을 지낸 구익수(1639~1682)의 처로 남편이 죽자 5일 후 뒤따라 자결하였다. 이곳 장산리는 보령 능성구씨들의 세거지였다. 최근까지도 이 정려는 장산리 질골 입구에 있었는데 도로 개설관계로 이곳에 옮겼다.

22) 호자 신석봉(申錫鵬) 정려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688번지에 있다. 이 정려는 별도의 정려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로 지정된 신경섭 가옥의 대문에 편액이 걸려 있다. 이 집은 신석봉이 여기에 살면서 효를 행한 집이며, 후손들이 계속 살고 있다. 현재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다. 편액에는 孝子贈朝奉大夫童蒙教官申錫鵬之門上之五年丁卯六月命閭라 씌어 있어서 고종 5년(1868)에 정려가 내려졌음을 알 수 있다.

신석봉은 본관이 평산으로 자는 성오(聖吾)이며 효로써 동몽교관(童蒙教官)에 증직되었다. 신석봉의 형제인 신석룡은 1848년(헌종 14)에 증광진사시에 합격하여 더욱 가문을 빛냈다. 신석봉의 효행 사실에 대하여는 당시 지역 유림들이 정려를 내려줄 것을 청하는 청원서를 작성한 것에 자세히 기록되었는데, 신석봉의 5대손인 신동은(申東殷)이 2001년에 『성오

신석봉공효행록(聖五申錫鵬公孝行錄)』에 이러한 여러 내용들을 번역하여 알렸다.

23) 효자 서한경(徐漢慶) 정려

보령시 청라면 옥계리 245번지 서촌마을에 위치한다. 정려는 팔작지붕의 홑처마 건물이다. 자연의 대지에 시멘트 기단을 설치하고 화강암의 팔각고주를 올린 후 원형의 고주를 올렸다. 사면을 홍살로 돌려 보호시설을 하였으며 방풍판은 설치하지 않았다.

정면 1칸, 측면 1칸이다. 주위는 민가가 위치하고 있으며 정려 앞으로는 조그만 개울이 흐르고 있다. 정려의 안에는 편액이 걸려 있는데 전면에는 孝子學生徐公漢慶之閭라 씌어져 있고, 후면에는 公諱漢慶字公謹本大邱享年七十三而卒事親至孝倒指療疾及其居友克盡喪禮友愛姻睦百行純□上之三十九年壬辰特賜旌閭康熙六十一年壬寅三月이라 씌어 있다.

서한경의 본관은 달성이고 자는 공근(公謹)이다. 그는 남달리 재조(材操)와 행세(行勢)가 뛰어난 사람이었다. 부친의 병환이 위독해지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넣어드림으로써 부친의 병환을 낮게 하였다.

천문(天文)과 연력(年歷)을 연구하여 지략이 뛰어나므로 사람들이 따랐으며 효행을 기려 정려를 세우고, 또한 그를 화정처사(和貞處士)라 불렀다. 이 정려의 편액은 1722년(경종 2)에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는 현관은 위로 올리고 비석을 세웠다.

24) 열녀 진주정씨(晉州鄭氏) 정려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갯밭 마을 36호 도로변에 위치한다. 정려의 건물은 팔작지붕에 겹처마로 정면 1칸 측면 1칸의 사면에 홍살을 돌렸고 팔각 고주 초석 위에 원형의 기둥을 세웠다. 건물 주위는 철제 담으로 깨끗하게 단장하였다.

건물 안에는 2매의 편액이 걸려 있다. 하나는 烈女通德郎申 濬妻恭人晉州鄭氏之門崇禎紀元後丹이라 씌어져있고, 또 하나의 편액에는 烈女申宗海妻儒人韓山李氏之門純祖癸未命이라 씌어져 있다. 1823년에 정려가 내려진 것이다.

진주정씨는 고령신씨 신기(申濬)의 처로 남편이 죽은 후 그 뒤를 따르기 위해 석회를 삼키고 간수를 마셨어도 죽지 않자 계장을 꿀에 타서 먹고 죽었다.

청라면 향천리에 열녀각이 세워졌으나 1989년 이곳에 이전하였다. 열녀 한산이씨의 남편 신종해(申宗海)의 동생인 신종수(申宗洙)는 영조 47년(1711)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다산 정약용과 교유가 두터웠다. 열녀 한산이씨의 열행 사실을 보령 진사 이의준(保寧進士

李宜俊) 등이 현감에게 알리고 관찰사가 조사하여 중앙에 알려서 열녀 정문을 허락받았다.

25) 신상돈 효자비(申相敦孝子碑)

보령시 청라면 신산리 277번지에 위치한다. 비는 화강암의 대좌에 오석의 비신으로 되어 있다. 비신의 전면에는 孝子平山申公相敦孝婦賢閣安平李氏表彰碑라 새겨져 있고, 후면에는 八旬老親 十有三年 朝夕獻飯 夜不安眠 風病臥人席 不離侍側 奉匙供饌 夫掖審寧 至誠侍湯 如斯孝行 異口同聲 刻石記名 永不回春 敢不表彰 一鄉合心 永世選傳이라 씌어져 있다.

신상돈은 일제시대 사람으로 본관은 평산이고, 모친이 중풍으로 13년간 병석에 누웠을 때 소변을 받으며 정성을 다해 시중을 들며 모친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효자비를 세웠다

26) 효자 신응수(申應秀) 정려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가그말 마을의 배산 남향사면 말단부에 자리잡고 있다. 신응수(1778~1839)의 효행으로 1892년 명정(銘旌)되었다. 현재 효자문 주변은 잔디를 심어 놓았으며, 철제 난간을 돌려 정문을 보호하고 있는데, 건물은 시멘트 기단 위에 조성되어 있다. 건물은 맞배지붕의 홑처마이다. 편액은 정려의 중앙부에 걸려 있다.

이 마을에는 평산신씨들이 세거하고 있다. 편액에는 孝子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 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申應秀之門 光緒十八年壬辰六月日 命旌이라 적혀 있다.

27) 효자 이호정(李鎬鼎) 정려

보령시 미산면 늑전리에 위치한다. 정면 2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내부에는 孝子贈通訓大夫司憲府監察李鎬鼎之門 上之二十二年乙酉五月立 命旌 이라 쓴 편액이 걸려 있다. 이호정(1800~1860)은 본관이 우봉(牛峯)으로 효행이 지극하여 1885년 사헌부 감찰에 증직되고 정려가 내려졌다.

이 정려는 훼손되었다가 2005년 후손들의 노력과 도비·시비를 지원받아 현 위치에 건립하였다. 그 내력을 적은 비석이 앞에 있다.

4. 비문(碑文) · 기문(記文)

1) 백이정신도비(白頤正神道碑)

- 위치 : 보령시 웅천읍 평리 동막동
- 건립연대 : 1848년
- 지은이 : 김이양(金履陽)

彝齋白公神道碑銘并序

我東僻在海隅人文閉塞之運宜若不竝中華觀於箕聖東來仲尼欲居文明之兆已闢焉由是安文成公當麗代佛教之漫葺聖廟宗孔氏門行彝齋白先生入中原購得程朱全書與李益齋朴恥庵諸公講誦討論揚厲發揮環海數千里章甫之士殆庶乎一變至道逮夫我朝眞儒繼緒雲興霞蔚斐然有章先輩所云自朱子沒吾道東來者儘非夸毗之言也楊子雲曰聖人者天地譯也蓋言天道無爲故惟聖代其工而明其道也推此而論之程朱孔氏之譯先生又程朱之譯也原原本本厥功誠不在文成之下矣謹按李益齋稗說曰國家伐叛問罪二十年士皆衽金革操弓矢讀書者十不一二六籍之傳不絕如線大德間安文成公爲宰相葺國學修庠序薦紳之徒盡以通經博古爲事白彝齋頤正從德陵留京師十年廣取程朱性理書以歸克廣其傳俾學者知有道學又安竹溪安氏家乘曰白公在元朝求得程朱書以還與文成之胤竹屋子及同文權菊齋李東庵諸公校正訓誨夫李益齋之賢親炙同德其言可信無疑殆文獻之徵孰加於是哉先生字若軒藍浦人遠祖諱仲鶴爲新羅諫官著名高祖諱光宇官兵部員外郎生諱汝舟樞密院左承宣翰林侍講學士知制誥生諱景瑄吏部尙書左僕射生諱文節官吏部侍郎國子祭酒大司成寶門閣學士諱文簡號淡巖史稱入朝有志節文詞富贍爲一時所推配星州李氏則先生之考妣也公以宋理宗淳祐七年九月二十八日生登第于忠烈王朝公天資純厚有公輔器事忠宣有志輔導忠宣不用其言累官至僉議評理商議會議都監事加三重大匡封上黨君卒于忠肅王朝諡文憲與權文正溥禹文僖倬早遊文成之門以性理之學自任時人稱之以東方夫子云配安東金氏上洛府院君恂之女男世廉清風郡守追封政堂文學平章事女適典理摠郎李達尊則益齋之子世廉生二子內侍舍人咸正政堂文學平章事咸明曾玄以下譜牒存焉公享年七十七葬于羊角山西麓東幕洞坐甲原嗟呼遠報本先王所以歸民德於忠厚之域也故先農先蠶咸有祀典農蠶不過衣食之原其崇報也如彼而乃於啓人文明人道之地昧昧焉不知其本寥寥焉不厚其報此不可聞於隣國者輿在宣廟先輩諸公議以文成及先生祀享于松京表獎其倡絕學之功值倭寇而止逮正廟丁巳權尙書常慎在藍浦有感於邑有新安面面有武夷山朱子川謨於邑人營建朱夫子影堂於武夷山下以先生配食因有尼之者已焉純廟丁卯京鄉多士翕然議同就其地重建朱夫子影堂配享先生及尤庵宋文正尋以先生之門人李益齋宋文正文人權遂庵配焉獨恨先生之言語文藻必有以惠後學者而

奈五百年之間兵燹屢作箱篋間零金片玉只有七絕一首傳誦者詩曰矮屋蕭條十肘餘焚香靜讀聖人書自從人爵生天爵情欲秋林日漸疎此雖寂寥乎短章超然有澄本原消物累之意焉今其後孫東赫有文學篤於追先懼夫愈久而愈泯也歷謁搢紳求和其遺韻既又合同人齊展力將伐山石爲碣爲碑屬余以銘誠意感人庸可辭諸銘曰玄聖之衰程朱篤生異言者熄大道以明孰嗜是書載之以東昭洗舊染擊發群蒙文成之傳益齋之師源泉放海普哉厥施長夜不曉噫復何爲荒山片石尙或有辭

後學輔國崇祿大夫行中樞府事兼吏曹判書致仕奉朝賀安東金履陽撰

後學資憲大夫禮曹判書兼知經筵事弘文館提學全城李翊會書

後學輔國崇祿大夫行中樞府事兼吏曹判書義禁府事弘文館提學世孫右賓客達成徐俊輔篆

우리 동방은 바다 모퉁이에 치우쳐 있어 인문(人文)의 열리고 닫히는 운수가 마땅히 중국과 나란하지 못할 듯하지만, 기자가 동방으로 온 것과 공자가 거처하고자 한 것에서 살펴보면 문명의 조짐이 이미 밝게 빛났다. 이로 말미암아 안문성공이 고려 때 불교가 융성한 때를 당하여 성묘(聖廟)를 수선하고 공씨(孔氏)를 높였다. 문행(門行)인 이익재, 박치암, 등 여러 공들과 함께 강론하여 외우고 토론하여 계양하고 발휘하였으니, 온 바다 수 천리의 유학자들이 거의 한번 변하여 도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진유(眞儒)가 계속 배출되어 구름이 일고 노을이 성하듯 환히 문장이 있었다. 선배가 말하기를 “주자가 죽은 뒤부터 유학이 동방으로 왔다.”는 것은 조금도 과장된 말이 아니다. 양자운이 말하기를 ‘성인은 하늘의 통역이다’라고 하였는데, 천도는 작위(作爲)가 없기 때문에 오직 성인이 그 일을 대신하여 그 도를 밝힘을 말한 것이다. 이것을 미루어 논한다면 정자(程子)와 주자는 공씨의 통역이고, 선생은 곧 정주의 통역이다. 근원해 보고 근원해 보면, 그 공이 진실로 문성공의 아래에 있지는 않다.

삼가 살펴보건대 이익재는 『역옹패설』에서 이르기를 ‘국가에서 반역을 정벌하고 문죄한 20년 간에는 선비들이 모두 갑옷을 깔고 누우며 활과 화살을 잡아서 독서하는 자들은 열에 한둘이 되지 못하여 6경(六經)의 전함이 단절되지는 않았으나 실낱과 같았다. 대덕(大德) 연간에 안문성공이 재상이 되어 국학을 수선하고 상서(庠序)를 수리하여 진신(搢紳)의 사대부 무리들이 모두 경서를 통하고 고금을 널리 아는 것을 일삼았다. 이제 백이정은 덕릉(德陵)을 따라 경사(京師)에 10년 간 머물면서, 널리 정자와 주자의 성리서를 수집하여 돌아와 그 전함을 넓힐 수 있었다. 학자로 하여금 도학이 있음을 알게 하였다.

살펴보건대 죽계 안씨의 가승에 이르기를 백공이 원나라에서 정주서(程朱書)를 구하여

돌아와, 문성공의 아들 죽옥자와 동문인 권국재·이동암 등 여러 공과 교정하고, 가르쳤다. 라고 하였다. 무릇 익재의 현명함으로 몸소 배워 덕을 함께 하였으니 그 말이 믿을 수 있고, 의심이 없다. 아마 문헌상의 증거가 이보다 더하겠는가.

선생의 자는 약현이고, 남포인이다. 원조의 휘 중학은 신라 간관으로 이름이 났다. 고조 휘 광우는 벼슬이 병부원외랑이었다. 휘 여주를 낳으니 추밀원좌승선 한림시강학사 지제교를 지냈다. 휘 경선을 낳았으니 이부상서 좌복야를 지냈다. 휘 문절을 낳았으니 벼슬이 이부시랑 국자좌주 대사성 보문각학사였다. 시호는 문간, 호는 담암이다. 사서에는 ‘조정에 설 때는 지조와 절개가 있었으며, 문사가 풍부하여 당시에 추존을 받았다.’ 라고 하였다. 배위는 성주이씨이니, 곧 선생의 고비(考妣)이다.

공은 송나라 이종(理宗) 순우 7년(1247) 9월 28일 태어나, 충렬왕조에 과거에 급제 하였다. 공은 천성이 순수하고 후덕하여 왕을 보좌할 기국이 있었다. 충선왕을 섬길 때 돕고 인도하려는 뜻을 두었지만 충선왕이 그 말을 써주지 않았다. 여러 관직을 거쳐 첨의평리 상의회의도감사에 이르렀고, 삼중대광에 가작(加爵)되고, 상당군에 봉해졌다. 충숙왕조에 졸하였으니 시호는 문헌이다.

문정공 권보, 문희공 우탁과 일찍이 문성공의 문하에서 종유하여 성리학을 자임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선생을 동방의 부자(夫子)라고 일컬었다. 배위는 안동김씨 상락부원군 순의 따님이다. 아들 세림은 청풍군수를 지냈고, 정당문학 평장사로 추봉되었다. 딸은 전리총랑 이달존에게 시집갔는데, 이로 익재의 아들이다. 세림은 아들 둘을 두었는데, 내시사인을 지낸 함정과 정당문학 평장사를 지낸 함명이다. 증손과 현손 이하로는 보첩에 실려 있다. 공의 향년은 77세이니, 양각산 서록 동막동 좌잡원에 장사지냈다.

아! 추원보본(追遠報本)은 선왕의 백성의 덕을 충후(忠厚)한 곳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선농(先農)과 선잠(先蠶)에 모두 사전(祀典)을 둔 것이다. 그러나 농사와 누에치기는 옷과 음식의 근원에 불과할 뿐인데, 그 높이고 보답하는 것이 저와 같으니, 바로 인문을 열고 인도를 밝힌 이 땅에서 어둡게 그 근본을 알지 못하여 쓸쓸히 그 보답을 후중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이웃나라에 돌려 줄 수 없는 것이다. 선조때 선배인 여러 공들이 의논하여 문성공과 선생을 송경에 향사하여 그 절학(絶學)을 창도한 공을 표장하기로 하였는데, 왜구의 침략을 만나 그치게 되었다.

정조 정사년(1797)에 이르러 상서 권상신이 남포를 다스릴 때, 읍에 신안면이 있고, 면에 무이산과 주자천이 있는 것에 느끼는 바가 있어 읍 사람들과 모의하여 주자의 영당을 무이산 아래에 건립하고 선생을 배향하였는데, 그것을 저지하는 자가 있었다. 순조 정묘년(1807)에 경향의 많은 선비들이 일제히 의론이 통일되어 그 지역에 가서

주부자의 영당을 증건하고 선생과 우암 송문정을 배향하였고, 이윽고 선생의 문인 이익재와 송문정의 문인 권수암을 배향하였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선생의 언어와 문장이 반드시 후학에게 은택을 줄 것이지만, 5백년 사이에 병화가 자주 발생하여 책 상자 속의 영금편옥(零金片玉) 사이에서 다만 칠언 절구 한 수만이 전하여 암송될 뿐이다. 그 시에, 다섯 발 남짓한 초라한 서재에, 향불을 피워 놓고 경전을 잃었네. 인작(人爵)을 거친 뒤에 천작(天爵)이 생기니, 가을 숲 낙엽 지듯 물욕 날로 사라지네. 라고 하였다. 이 시는 비록 적료(寂寥)한 짧은 글이지만 초연히 본원을 맑게 하고 사색(物累)을 제거하는 뜻이 담겨 있다.

지금 그의 후손 동혁이 문학이 있고, 추원이 독실하여 세월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없어지게 될까 두려워하여, 진신(摺紳) 선비들을 일일이 찾아뵈어 그 유운(遺韻)에 화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합동하여 일제히 힘을 써서 장차 산의 돌을 떼어다가 묘갈과 신도비를 만들려 하면서 나에게 명(銘)을 부탁하였다. 그 성의가 사람을 감동시키니, 어찌 사양할 수 있겠는가. 이에 다음과 같이 명한다.

현성(玄聖)이 쇠하자, 정주(程朱)가 독생(篤生)하여, 이언(異言)을 하는 자 없어지고, 대도(大道)가 밝아졌네. 누가 이 책을 좋아하여 동으로 신고 왔는가. 구염(舊染)을 깨끗이 씻어내고, 군몽(群蒙)을 격발시켰네. 안문성의 전(傳)이요 이익재의 스승이니. 원천(源泉)이 바다에 이르듯, 넓게 그 베풀었도다. 긴 밤토록 깨닫지 못하니, 아! 다시 무엇을 하리요. 황산의 편석이 오히려 말이 있으리라.

후학 보국송록대부 행 지중주부사겸 이조판서 치사 봉조하 안동 김이양 찬
(역 : 이재실기)

2) 임향신도비(任珦神道碑)

- 위치 : 보령시 웅천읍 평리 동막동
- 건립연대 : 1907년
- 지은이 : 任憲晦

高麗政丞府君神道碑銘并序

盖當勝國之季有位三事而不安於朝被竄而歿因葬其地者豐川任公諱向從玉是已其風節德業宜多可傳而無一槩見何也世代寢遠又屢經兵燹杞氏之不足徵亦宜哉謹按譜書公麗朝文科官一云掌令一云政丞又云謫洪州高丘島移配藍浦家乘云公舊基在藍浦熊峙下五相洞又云公墓卯座而

失傳公後孫常以職名之未詳墓所之失傳爲恨遍搜而不傳憲宗己亥同縣百姓人爲覓其先墓入羊角山東樂洞穿一古冢之類大葬者得誌石則公墓也彼慮兆域之見推碎其誌而掩之公後孫聞而京戲復開其封果有青石爛碎者只見川字邊一劃遂具其事訟之官官爲逮問彼皆直招至以誌面所刻政丞豐川任公某之墓若于字書進役丁菜童之隨觀問納供者亦鑿鑿相符蓋東樂洞則五相洞至近之地而坐向又與之合其爲公衣履之藏無疑而官之爲政丞亦於是乎定矣惟公後孫猶以未乃目見全誌過於審慎就質于肅齋趙公秉憲依安東金氏太師墓壇例則墓傍爲壇以祭反爲碎誌者所籍口至癸亥公後孫更質于趙公以爲旣明辨其墓之爲先山則破其壇而直祭于墓是爲十分當然底道理後孫乃從其定論伐石崇土仍行歲一祭于其前將百世不改噫今去公之世五百年所而宅兆隱而復顯苟非公有厚德爲神人所相何能乃爾且仁莫先於報本厚莫大於追遠而公之後孫有焉公亦可謂有後矣吾任之貫豐川自諱溫始或云中國紹興府慈溪縣人以銀紫光祿大夫東來公七世孫曾祖諱天裕或云三韓秉忠奮義同德贊化功臣豐海君祖諱澍御史大夫考諱子順民部典書妣無傳或云泗川陸氏直提學俊平之女公一男安吉入本朝進士男俊俊男永智同樞同樞男命新階通政通政二男世勳世弘參奉餘不盡錄蓋公子姓蕃衍至於千億彌可驗源大而川豐其事行之不傳又何足病乎後孫義白泰彥觀模等旣得趙肅齋文辨其事又來請曰將樹碑穹於神道予傍裔也宜亦相茲役不敢辭爲之敘次如右系以銘銘曰於惟我任遠自麗氏簪紳相望事書于史公纘厥緒致位高顯一斥不復莫無蹇蹇惟世綿邈厥迹泯泯并與防墓歸于無徵尋求不傳痛深雲仍明明靈感通琬琰始呈雖被人誣考信則明昔朱夫子失守祖塋籲于有司復舊不迷千載相符其事甚奇乃謀乃諷乃修乃碑有田于傍祭祀以時其祭維何膺牢馨稷其祝維何永寧斯宅神飽釐爾子孫千億人亦有言根深枝達惟德之報神理靡忒東樂之山拱木蒼蒼彼析薪者每敢或傷我銘隨經用詔茫茫

傍裔通訓大夫司憲府執義兼經筵官憲晦謹撰

己亥訟決之後稟守護之節於肅齋趙先生趙先生引安東金氏太師墓壇例以爲教者以誌石之見失一也而今日之碎與彼之匿略相似故也及癸亥之更質也趙先生攷金氏墓壇記以爲教曰今見任氏諸文籍詳其本末則誌雖碎而墓自在實與金氏墓無徵祭於壇之義顯有不同者矣旣明辨其墓之爲先山則破其壇而直祭于墓云云全齋任先生之撰神道碑銘已四十有餘年而今始刻豎後孫之稽緩不肖堆均噫幽明之痛恨固百世無窮而儒賢之定論將百世不磨矣庶可以尉雲仍追遠之思也歟

十七代孫興準追記 崇祿大夫議政府右贊成完山李容元書通政大夫行吏曹參議原任成均館大司成楊州趙重燁篆

태평시절에 나서 정승의 지위에 계시다가 조정이 불안해서 귀양살이에서 돌아가시니 그 곳에 장사를 모신 어른은 풍천임공 휘 향(珦)이다. 그 풍도와 업적은 마땅히 후세에 전할 것인데 하나도 보이지 않음은 어찌된 일인가. 세대가 멀고 또 여러 번 병화를 치러

역사에 증거가 부족함이다. 보첩을 상고하건대 공은 고려조에 문과에 장원으로 장령 또는 정승이라 하고 또 홍주 고구도에 귀양 가셨다가 다시 남포에 옮겨다 하였고, 가승에는 옛집이 남포 웅치 아래 오상동이라 하고, 묘소는 묘좌인데 실전이라 하였다. 후손들이 항상 관직이 미상하고 묘소 실전이 한이 되어 두루두루 찾던 터에 현종 기해년(1839)에 이 고을 백씨가 그의 선산을 찾고자 양각산 동락동에 들어가 고층의 큰 묘를 파서 지석을 얻은 바, 과연 공의 묘소였다. 남들이 산소 발굴함을 볼까 염려하여 그곳에서 발견된 지석을 깨서 버렸다.

공의 후손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 개봉하여 보니 과연 지석이 파손되어, 다만 천(川)자 변만이 보여 그 일을 일으켜 관청에 송사하니 관에서 호통하여 그 사람을 문초한 즉 지석면에 정승풍천 임공 아무의 묘라고 새겨져 있었음을 그 역군과 나물 캐는 아이들도 듣고 본 대로 말하여 깨진 돌을 맞추어보니 과연이었다. 대개 동락동은 오상동과 가까우며 좌향도 합치되니 공의 묘소가 의심 없고 관직도 정승이라 틀림이 없다.

공의 후손들이 전체의 지석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염려되어 숙재 조병덕 선생에게 질문하니 말씀하시기를 안동김씨 태사공묘단식으로 묘 옆에 단을 모아 제사하라 한다. 지석을 파손한 자의 말을 듣고 계해년(1863)에 공의 후손이 또다시 조선생게 질문하니 분명하게 선산으로 판명되면 단을 폐하고 묘에 직접 제사함이 정당한 도리라 하여 이 정론을 좇아 성분입석하고 묘제 행사하여 백세에도 변치 않도록 하니, 슬프다 이제 공이 가신 지 오백 년 만에 묘소를 다시 찾았으니 참으로 공의 은덕을 신이 도와주심이 아니리오. 또 仁道는 먼저 선조를 알고 후의(厚誼)는 추모함이 제일이다. 공의 후손이 과연 그렇다. 우리 임씨의 본관은 풍천으로 시조 휘 온이니 중국 소흥부 자계현인으로 벼슬이 은자광록대부로 고려조에 오셨다 하니 공이 7세손이 되고, 증조의 휘는 천유이니 삼한 병충 분의동덕찬화공신 풍해군이요, 조의 휘 주는 어사대부요, 고의 휘 자순은 민부전서요, 비는 미상이나 혹은 사천목씨 직제학 준평의 女라고도 한다.

공의 아드님은 안길이고 조선조에 들어와 진사요, 진사의 아드님은 준이요, 준의 아드님은 영지니 동지중추요, 동추의 아드님은 명신이니 통정이요, 통정의 두 아드님은 세훈과 세홍이니 참봉이다. 이하는 다 적지 못한다. 공의 자손이 번성하여 천억에 이르니 참으로 근원이 커서 대천이 됨에도 그의 행적이 불명함은 어찌된 일인가. 후손 희백, 태언, 관모 등이 조숙재 선생의 문단의 사실을 얻어 나에게 신도비문을 청하니 나는 방손이라 마땅히 이 일을 도와야 할 것이므로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서술하고 이어서 명을 쓰노니, 우리 임씨가 멀리 고려 때로 관작과 문장이 많아서 사적이 역사에 기록되었네.

공께서 선훈을 이어받아 지위가 정승이 되셨다. 한번 물러와 다시 안 가시니 충성할 곳
 바이 없네. 세대가 멀고멀어 역사조차 민물이구나. 묘소까지 의혹되고 증거조차 허술하네.
 찾다 찾다 할 수 없어 후손들이 통탄하니 신명이 감동하사 서광을 주시었네. 저 사람
 들은 은닉하나 증거가 분명하네. 예전에 주자도 선영을 찾고 책임자를 두셔서 확실히
 복구하니 천추의 상합함이 그 일이 기이하다. 묻고 또 의논하여 치분하고, 비석 세워
 위도답도 마련하고, 때를 찾아 제사하니 제물은 무엇인고, 어육과 스직일네. 축문은 어찌
 되고, 길이길이 안녕토록 신위가 포만하시니 자손이 천억이로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뿌리 지엽 번성하여 높은 덕을 보답하니 신도가 의심 없네. 동락산 높고 높아 좌우송백
 울창하니 여기저기 목동들이 함부로 베지 마라. 글을 지어 기록하니 한량없이 창대하리.
 방예손 통훈대부 사헌부집의 경연관 현희 근찬

기해년 판결 후로 수호하는 절차를 숙재 조선생에게 자문하니 안동김씨 태사공 묘단의
 예를 말씀하여 주심은 지식을 보고도 앓았음은 한가지인데, 오늘의 파손됨은 사람들이
 은닉함과도 흡사하고 계해년에 다시 질문함에 조선생이 김씨의 묘단기를 상고하여
 말씀하되 오늘 임씨의 상세한 문적을 본 바, 처음과 끝이 자세하여 지식이 깨졌으나 묘는
 그곳에 있으니 김씨의 묘가 증거 없어 단에 제사함과는 전혀 다르다. 그 묘가 선산에
 있다고 판단이 났으니 그 단을 폐하고 제향을 묘에 행사함이 옳다 하시고 전재 임선생도
 신도비명을 40년 전에 찬하시어 지금에야 새겨 비석을 세움은 후손들이 상세히 고증함
 이라. 슬프다 영혼의 원통함이 백대에 한이 없으며, 사람들의 정론도 백세가 가도 지위
 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 자손들의 정성을 위로하노라.

17대손 홍준 추기

승록대부 의정부우찬성 완산 이용원 서

통정대부행이조참의 원임 성균관 대사성 양주 조중엽 전

(역 : 풍천임씨죽보)

3) 김극성신도비(金克成神道碑)

- 위치 : 보령시 청소면 재정리 늑적골
- 건립 : 1613년(광해군 4년)
- 지은이 : 이정귀(李廷龜)

光城府院君神道碑銘并序

當中廟卽位之三十二年。嘉靖丁酉。上誅流權倖。大徵召耆喆。於是。前左贊成金公。起謫

所。復爲贊成。俄進拜議政府右議政。上方嚮重公。朝野想望風采。越三年庚子。公卒。上震悼。命輟朝三日。弔賻祭贈。恩禮有加。用其年八月。葬公于保寧縣烏棲山麓。蓋公之歿。距于今七十有四年。公之諸孫。相與伐石諱不朽。以狀來叩不佞曰。吾先祖。幸得備位將相。官階皆第一。勳爵在盟府。法應立碑如令。其立朝事業。有足傳世行後。而顧墓道尙闕顯刻。諸孫重懼久益泯。敢徼惠子一言。不佞辭不獲。則謹按。故奮義靖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光城府院君金公諱克成。字成之。光州人。麗朝有諱周鼎。官至侍中。是其鼻祖。至諱流。監察御史。諱允臧。版圖尙書。生諱成雨。全羅道都萬戶。實公高祖。嘗奉命討倭。過保寧。樂其土。因家焉。遂爲保寧人。曾祖諱南浩。贈吏曹判書。祖諱仲老。監察。贈左贊成。考諱孟權。進士。贈領議政。皆以公貴。議政公。早有重名。文宗大王末年。召對嘉賞。選置泮宮。已而謝科業。歸老林泉。娶羅州全氏。生公於成化甲午。幼有異質。丙辰。魁司馬。戊午。又魁大科。年始二十五。拜典籍兼宗學司誨。庚申。以書狀官赴燕。還道。丁外艱。服闋。授北評事。朝廷以公有文武才。欲以試之也。秩滿。盛玉堂。爲修撰。俄擢拜獻納。時燕山。欲以非罪殺沈順門。問群臣。皆莫敢異辭。公謂大司諫成世純曰。官以諫爲名。見人死無罪而不言。縱愛身。奈負職何。左右默然。或曰。必與順門同死。無益。公與世純。談笑自若曰。死生大矣。各任其志。可也。今日先死者。必吾兩人。豈累他人。遂白順門冤狀。燕山雖不聽。亦不之罪。累遷兵曹正郎。議政府舍人。中廟卽位。錄靖國功。陞拜掌樂院正。明年。進秩通政。便養乞外。補舒川郡守。亡何。投紱歸。議政公捐館。哀毀盡禮。鄉黨稱之。歷判決事。兵曹參議。陞嘉善。爲義州牧使。州連歲大侵。僉舉屬公。公至。則仁煦義摩。推赤心以服民。碁年。境大治。戊寅。入爲禮曹參判。其冬。又出拜慶尙兵使。庚辰。移拜觀察使。宿訟延刃。貪吏望風。一路肅然。翌年。拜工曹參判。朝正于京師。還拜大司憲兼世子賓客。癸未。超拜禮曹判書。轉右參贊。吏曹判書。西北有警。遂拜公平安道觀察使。秩滿。復爲禮曹判書。甲申。遭繼母喪。喪除。復拜宗伯。都憲。己丑。進贊成。轉大司馬。知經筵。世子貳師。辛卯。又爲貳公。金安老陰搆。與故相鄭光弼。同貶配興德。杜門七年。雖親舊問遺。一切謝絕之。丁酉。安老伏罪。還公政府。卽進右揆。公之被召也。都中父老。加額流涕曰。復見善人。死無憾矣。公神姿豐秀。器宇寬洪。和而不流。凝重簡嚴。居恒動止有常處。喜怒不形。人莫敢窺其涯涘。見人過。專務掩蓋之。雖子弟有失。必婉辭以喻。未嘗以色加之。待人必以至誠。每曰。人之患在好勝。至於曲直。尤不必辨。自反而縮。人雖不知。於我何損。性儉素。或勸丹其舍。則曰。侈以遺後。不祥。訓家庭。必以義方。平生未嘗言利。居官簡潔。判吏事。必詳必慎。斷獄如神明。夫人李氏。副司直文忠之女。有淑德。生一男三女。男麟士。楊根郡守。女長。適別坐李佐明。次適忠義衛尹之讓。次適生員

李夢奎。楊根生五男三女。男曰乃崙。次景祿，景祉，景祥，景祚。女適青原都正侃。次適李愈。次適察訪趙詡。李佐明有一男四女。尹之讓有二女。李夢奎有一男一女。乃崙生二男一女。長廷俊。次廷傑。景祿生一男二女。男曰廷稷。景祉生一男二女。男曰廷擘。景祥生一男。曰廷說。景祚生二男二女。長廷式。次廷傾。青原都正生二男二女。男長光山守孝胤。次錦山君誠胤。李愈生二男。長壽鸞。次壽鵠。趙詡生一男。曰國弼。內外諸孫。共若干人。嗚呼。公以兩科壯元。華聞早蔚。而既登朝。朝廷不專以文翰用公。或屈於戎幕。或淹以邊關。不能一日安於經幄。蓋公之經綸籌略。已有廊廟之具。朝家之所以待公者不淺。西急虜則公西。南急倭則公南。典禮非公不可。則公三爲宗伯。衡人物。掌邦政。非公不可。則公長兩銓。既出而復入。纔入而復出。國家以公經重者。殆三十年。可謂難矣。然此不可以論公之槩。當燕山熾醜焰。逆意者。立見鼎鑊。公以一諫官。抗論直人冤。分死不顧。此可見公之守。不與壬人朋比。竟爲其所擠。流貶七年。不變其操。此可見公之大。皆可銘。侍中有孫。士而守志。潛光遜世。以全素履。既蓄必發。乃生相公。公惟襲訓。啓慶自躬。豐中秀外。穆如條風。再魁多士。大播其馨。騫于邇列。輿望以傾。正言危朝。不畏義死。相我中宗。勳庸顯施。乃登將壇。乃秉國鈞。出入險夷。周旋屈伸。秩宗弘化。左右俱宜。讒口碁之。七年南陞。如距斯脫。上思公忠。公來自謫。相車崇崇。民扞於市。士慶於朝。爰卜金鉉。以總百僚。聖心虛己。賢路拭目。宜國黃耇。天奪何速。公歿于位。禮盡哀榮。名在四夷。功紀旂常。惟勤其始。以享其終。不昧者存。愈遠彌隆。銘以述之。我言匪侗。

皇明萬曆四十一年

崇祿大夫行禮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世子右賓客李廷龜。撰

중종 즉위 가정 32년 상계서 권행(權幸)을 처단하고 원로명철(元老名哲)을 예로써 크게 불러들이셨다. 이때 전 좌찬성 김극성 공도 유배지에서 기용되어 다시 찬성이 되었다. 얼마 안 있어 의정부 우의정에 오르게 되니 임금께서 바야흐로 공을 향하여 중히 여기심이요 조야가 그 위엄과 풍채를 상망(想望)하였다.

그 후 3년 경자년에 공께서 돌아가셨다. 임금께서 크게 슬퍼하시며 3일간 조회를 철폐하고 조의(弔儀)며 부의(賻儀)며 제례를 임금으로서 넉넉한 예를 내려주셨다. 그해 8월에 보령현의 오서산 기슭에 장사지내니 대체로 공이 돌아가신 지 지금으로부터 74년이 되었다. 공의 여러 자손들이 상의하여 돌을 다듬어 공의 행장(行狀)을 영원히 전하려 불초한 이 사람을 찾아와 말하였다. 우리 선조께서 다행이 장상(將相)의 위(位)를 갖추어

관작이나 계급이 모두 제일이요, 훈작(勳爵)이 맹부(盟府)에 있으니 법도에 맞추어 비를 세움이 마땅하겠습니다. 가령 입조하신 이래 이룩한 사업이 세상에 전해져 뒷날에 까지 행하여지기 넉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묘도(墓道)를 돌아보건대 아직 비를 새겨 세우지 못했습니다. 저희 자손들은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면 그 자취가 아주 인멸될까 더욱 두려운 것입니다. 선생님의 훌륭한 정론(正論)을 감히 칭하옵니다.

그 말에 나는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삼가 옛 기록을 살펴보았다. 분의정국공신(奮義靖國功臣)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우의정 겸 영경연(領經筵)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광성부원군 김공의 휘는 극성이요 자는 성지이며 광주인이다. 고려 왕조에서 벼슬이 시중에 이르렀던 김주정이 바로 그 비조(鼻祖)이고, 감찰어사를 지낸 김유를 거쳐 판도상서를 지낸 김윤장이 전라도 도만호를 지낸 김성우를 낳으니 이분이 바로 김극성 공의 고조이시다. 일찍이 왜구를 치라는 명을 받들어 보령을 지나다가 그 땅을 좋아하게 되어 자리를 잡고 마침내 보령인이 되었다.

증조 김남호에게는 이조판서가, 감찰이었던 할아버지 김중로에게는 좌찬성이, 진사였던 아버지 김맹권에겐 영의정이 각각 추증 되었는데, 모두 공이 귀하게 됨으로 인한 것이었다. 의정공은 일찍부터 명망이 중(重)하여 문종대왕이 말년에 불러 가상히 여기시며 반궁(泮宮)에 넣었으나, 곧 과거공부를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와 은거하였다. 나주김씨(羅州金氏)에게 장가들어 성화(成化) 갑오년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바 있어 병진년의 사마시에 장원하고 무오년의 대과에서도 장원하였으니, 나이 겨우 25세에 전적(典籍)에 임명되고 종학(宗學)의 사회(司誨)를 겸하였다. 경신년에 서장관으로 연경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조부상을 당하였다. 그후 상복을 벗자 북평사(北評事)의 직이 주어지니 조정은 공이 문무를 겸한 것을 시험해 보고자 함이었다. 임기가 차자 홍문관의 수찬에 올랐으며 얼마 뒤에 헌납에 발탁되었다. 당시 임금 연산군은 심순문이 죄가 없음에도 죽이고자 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오니 다들 감히 다른 말을 하지 못하였다. 공이 대사간 성세순에게 ‘벼슬이 간관이라는 이름 갖고 있으면서 죄없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입을 다물고 있기만 하는 것은 비록 몸을 아껴 그렇다지만 직분을 저버리게 됨을 어찌 하시려오’ 하니 좌우의 사람들이 잠자코 있다가 누군가가 ‘반드시 심순문과 함께 죽는다 해도 득될 것이 없을 것이요’ 라고 하였다.

공이 성세순과 담소하며 태연자약한 모습으로 ‘죽고사는 것은 큰 문제이니 제각기 자기 뜻에 맡기는 것이 옳겠소. 오늘 먼저 죽을 사람은 반드시 우리 두 사람이지 어찌 다른 사람에게까지 화가 미치게 하리요’ 라 하고 마침내 심순문의 원통한 형편을 아뢰니 연산군은 비록 들어주지 않았으나, 공 등에게 벌을 내리지는 않았다.

병조정랑과 의정부 사인 등의 벼슬을 지내다가 중종이 즉위하자 공이 정국공신으로 기록되고 장악원정으로 승진하였다. 그 이듬해에는 품계가 정3품인 통정대부에 올랐다. 아버이 봉양에 편의할까 하여 외직을 희망하여 서천군수가 되었다. 봉양한 지 얼마 안 되어 갖가지 방법도 효험없이 의정공이 돌아가시니 그 슬퍼하는 정이 지극하여 고을에서는 칭찬이 자자하였다. 관찰사, 병조참의를 역임하고 가선대부에 올라 의주목사가 되었다. 당시 의주는 해를 이은 오랑캐의 큰 침략에 시달린 터라 조정의 대신 모두가 공을 책임자로 천거하여 일을 맡긴 것인데, 부임하자 의롭게 어루만져 정성을 다하니 백성들이 복종하여 한 해 만에 경내가 잘 다스려졌다.

무인년에 조정에 들어와 예조참판이 되었다가 그해 겨울에 다시 경상병사로 나가고 경진년에 관찰사로 옮기어 송사(訟事)를 오래도록 묵혀둔 탐관오리를 제거하니 백성들은 한결같이 숙연한 마음으로 공의 높은 덕망을 우러러 사모하였다. 이듬해 공조참판이 되고 정조사로 명나라 연경에 다녀온 뒤 대사헌 겸 세자빈객이 되었다. 계미년에 일약 예조판서에 오르고 다시 우참찬 이조판서를 지내다가 서북지방에 경계할 일이 있어 마침내 공은 평안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다가 기한이 차자 다시 예조판서가 되었다.

갑신년에 계모상을 당하여 상기를 마치자 다시 예조판서 대사헌에 임명되었다. 기축년에 찬성에 오르고 다시 대사마(大司馬)와 경연의 지사, 세자 시강원의 이사(貳師) 등을 역임하고 신묘년에는 다시 이공(貳公)이 되었다. 김안로가 영상 정광필을 음해할 때 공도 함께 폄적(貶謫)되어 흥덕에서 귀양 사는 7년 동안 문을 걸어 닫고, 비록 친구가 찾아오거나 또 무엇을 보내와도 일체 사절하였다. 김안로가 복죄(伏罪)되자 공은 조정에 들어와 곧 우의정에 올랐다. 공이 다시 부름을 받자 도성의 부모(父老)들은 이마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선량한 어른을 보게 되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였다.

공은 용모와 풍채가 수려하며 도량이 넓어 남과 화친하기는 하나 도리를 어겨서까지 아첨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하지 않고, 침착 신중하며 대범하고 엄숙한 성격으로 평상시 거처함에 항상 행동거지가 일정하고, 기쁜 일이나 성나는 일을 당하여도 겉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그 깊은 마음속을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남의 허물을 보면 오로지 가려 덮어 주기를 힘쓰고, 비록 자제에게 잘못이 있어도 완곡한 말씨로 타일렸 으며 일찍이 노여운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남을 대접할 때는 항상 지극한 정성으로 이 르기를 ‘사람의 근심은 남을 이기기를 좋아하는 데 있다. 일의 곡직(曲直)에 이르러서는 더욱 굳이 가리려 들지 말 것이며, 스스로 반성하여 바로잡을 것이며, 비록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나에게 손(損)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였다. 성품이 검소하여 누군가가 집에 사치를 하라고 권하자 ‘사치는 뒷날에 상서롭지 못한 것을 남기게 된다.’ 며

물리치고, 가정은 반드시 의로운 방법으로만 가르쳤고, 평생 체에 대하여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벼슬에 있을 때는 청렴결백하고 관리의 사무를 판단함에는 반드시 상세히 살피고 신중하였으며, 중한 범죄를 처단함에는 밝기가 신(神)과 같았다. 부인 이씨는 부사직 이문충의 따님으로 맑고 아름다운 덕을 지녔으며 아들 하나 딸 셋을 낳으니 아들은 양근군수를 지낸 김인사요, 큰 딸은 별좌 이좌명에게, 둘째 딸은 충의위(忠義衛) 윤지양에게, 막내 딸은 생원 이몽규에 시집갔다.

양근군수가 아들 다섯, 딸 셋을 낳으니 내륜, 경록, 경지, 경상, 경조이며 큰딸은 청원도정(靑原都正) 간(侃)에게, 둘째 딸은 이유에게, 셋째 딸은 조후에게 시집갔다. 이좌명은 아들 하나, 딸 넷을 두고, 윤지양은 딸만 둘, 이몽규는 아들 딸 하나씩을 두었다. 내륜이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으니 큰 아들이 정준, 둘째가 정걸이요, 경록이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으니 아들이 정적이요, 경지가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으니 아들이 정엽이요 경상이 아들 하나를 낳으니 정열이요, 경조가 아들 딸 둘씩을 낳으니 큰 아들은 정식, 둘째 아들은 정석이다.

청원도정이 아들 딸 둘씩을 낳으니 큰 아들이 광산수(光山守) 효운(孝胤), 작은 아들이 금산군(錦山君) 성운(誠胤)이요, 이유가 아들 둘을 낳으니 큰 아들은 수란, 작은 아들이 수원이요, 조후가 아들 하나를 낳으니 국필이다. 공의 친손자, 손녀, 외손자, 손녀가 고루 여러 명이다.

아! 공이 사마시와 대과의 양과에 장원한 명성이 일찍이 무성하여 조정에 올랐으나 조정은 공을 오로지 문한으로만 쓰지 아니하고 더러는 군막에서 몸을 구부려야 했고, 어떤 때는 변방에서 몸이 이슬에 젖어야 했으니 하루라도 경연(經筵)에서 편안할 수 가 없었던 것은 대개 공의 경륜과 지략이 재상, 대신이 되어 정사를 맡아볼 만한 재능을 스스로 이미 갖춘 까닭이었다. 조정에서 공에게 기대하는 바가 적지 않았으니 오랑캐의 침입으로 서쪽이 급하게 되면 공은 서로, 왜구의 출몰로 남쪽이 급하게 되면 남으로 달려야 했다. 전례(典禮)의 면에서도 공이 아니면 아니 되어 세 차례나 예조판서가 되었고, 인물을 전형(銓衡)하고 국정을 관장함에 공이 아니면 아니 되어 오래도록 양전(兩銓)의 임무를 맡아 이미 외직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들어오자마자 다시 나가야 했으니 나라에서 크고 작은 일에 공을 쓴 것은 거의 30년, 참으로 옳은 일이었다 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공의 기개를 논함에 부족하다. 연산군의 불꽃 같은 성미에 그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곧바로 술에 넣어져 삶아 죽이는 형벌을 당하는 형편인데도 공은 일개 간관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하여 항론(抗論)하여 직분상 죽음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공이 맡은 바 직분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며, 절조가 없고 간사한 무리나 봉당을 이루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아 끝내 그들에게 배척당해 7년간이나 유배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 지조를 변치 않았으니 이는 공의 기개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니, 모두 비에 새겨 전할 일이다.

시중에게 자손이 있으니, 선비로서 뜻을 지켰도다. 빛을 감추고 세상에 숨어 본분을 좇으며 자족해 하도다. 학문과 덕을 쌓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발양되나니 이에 상공(相公)을 낳았도다. 공은 오직 선조들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자신의 경사(慶事)를 펼쳐나갔도다. 심성은 너그럽고 용모는 준수하며 화기가 봄바람 같았네. 많은 선비 중에 두 차례나 장원급제, 그 향기로운 명성 멀리 멀리 퍼져나가고, 동렬(同列) 중에 우뚝 솟으니 많은 사람들의 신망이 쏠리도다. 몸이 위태로운 조정에서도 바른 말 하며 의롭게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네. 우리 중종임금 등극하시자 도와 공이 크게 나타나도다. 이에 장상(將相) 지위에 올라 국사를 도맡았네.

변방과 조정을 돌며 많은 일 보살피느라 온갖 고생 무릅썼네. 여러 차례 종백(宗伯)이 되어 덕화(德化)를 널리 퍼니 좌우가 모두 마땅하게 되었네. 참조하는 무리들의 해를 당해 7년이나 남쪽에 유배 당하고, 유배가 풀리니 임금께서 공의 충성 생각하셨네. 공이 적소(謫所)에서 돌아오니 상공(相公)의 수레가 모이고, 백성들은 거리에서 손뼉치며 좋아하고 선비들은 조정에서 경사로 여겼네. 이에 금현(金鉉)을 점치어 백관을 거느리며, 지덕(智德)이 완비하여 통하지 않는 일 없고, 사사로운 욕심 하나 없으니 벼슬길의 어진 선비들 눈을 씻고 바라보네. 훌륭한 나라의 원로정승을 하늘은 어찌 그리 빨리 데려 가셨나.

공이 우상(右相)의 벼슬에서 돌아가시니 슬픔과 영화의 예(禮) 다하였네. 명성이 사방에 전해지고 공적은 기상(旂常)에 기록되도다. 젊어서부터 근면하여 그 말년을 온전히 누리셨네. 공께서 지니셨던 그 영명한 덕은 높고 멀기도 하여라. 명(銘)으로 기술하니 나의 말에 큰 잘못은 없으리라. 만력 41년(1613) 승록대부행예조판서겸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경연, 춘추관, 성균관사, 세자우빈객 이정귀(李廷龜) 지음.
(이병권 송하순 역, 보령문화 제6집)



김극성신도비

4) 이몽규신도비

- 위치 : 보령시 죽정동(독정)
- 지은이 : 홍양해(洪量海), 申應善 後記
- 연대 : 1837년

有明朝鮮國贈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兼成均館祭酒世弟侍講院贊善公天休堂李先生神道碑銘
展力副尉前世孫翊衛司洗馬 洪量海 撰 通訓大夫行昌寧縣監韓後賢書

自中廟己卯以後世以道學爲諱抱道之士多隱淪以沒世若聽松天休諸先生卽其人也雖其志在長往鈍世不見而其所存所就終有不可得以泯者故洪公奉世嘗論聽松以爲當世之高蹈聖代之逸民君子以爲知言抑天休之清操若節可以伯仲松翁而洪公之評在彼而不在此豈先生邈往海濱與世愈疎故雖生并一世而有不相知者歟雖然栗翁之狀先生大筆揄揚不啻洪公之一言於是幽蹟潛光闡發無餘而不患無知者斯可以無憾矣謹按狀曰先生姓李諱夢奎字昌瑞月城之李遠有來緒上世有諱謁平事新羅赫居王有佐命功幾世而至文僖公諱世基高麗忠烈王時與兄東庵公瑱并登文科壯元官至檢校政丞大提學遂益大以顯四世而至諱延孫官參判是爲先生之高祖曾祖諱崇壽僉中樞祖諱成茂判官贈參判考諱仁臣主簿贈判書妣光州潘氏節度使熙之女也先生以正德庚午二月六日生生有異質風骨秀爽學語知讀書未成童能通文義長者咸奇之既入學訥齋朴公爲學官深加歎賞曰異日必爲國器金忠貞公克成之一見異之以其子妻焉宗室興寧副正夫人先生從母也無子幼養先生托以後事先生事之盡誠孝興寧遂忘其無子而人亦不知非其出也弱冠遭判書公喪喪制一遵朱子家禮廬於墓側庚寅又興寧夫人喪自以保育之恩義同親生爲之服齊哀三年守墓終制听夕自致思齋金公服其行義就見與語益敬重之每論當時學者必稱先生以爲器宇之宏天品之高非人人所及云服闋又丁內憂荐罹鉅劫漸毀羸瘁猶率禮不懈庚子始陞上庠遊太學聲譽藹蔚士林有議必待而決一時名勝輻輳下風輪蹄咽門無虛日非先生所樂也仁廟初元泮中年少多尙高論先生憂之揖而歸未幾士禍作人服其先見甲辰興寧卒先生服喪視前明年仁廟賓天先生仰天搥胸悲慟者累月作詩傷之語甚悲絕先生素厭紛囂遂大歸于保寧之青蘿洞所居有園林水石之勝闢室其中扁以天休以排源圖及聽松書贈歸去來辭掛之壁上意會嘯咏悠然自樂常慕巢許之洗耳夷齊之採薇元亮之三徑有曠世相感之意或作歌辭以寓其懷而語意深遠人未易知云居鄉數十年遠近慕其德義莫不愛敬癸亥伯氏卒于京先生強疾奔哭窆而後還勞傷添就卒于家是歲六月二十四日也鄉人匍匐臨喪如悲親咸牛童走卒亦爲之不肉皆曰賢人亡矣春不相杵野無農歌者數月葬于縣東馬山峙負庚之原先生天資夷曠風神高亢氣度超俗識慮過人哇吟崖岸無以見其際勢利榮達不足東其中方其翺翔泮宮有鶴立雞羣之象及夫退處邱園著蟬脫物表之意嶮然不滓樂以終身可謂特立信道獨抱幽貞者也少時金忠貞公欲官之先生固辭金公不敢強後銓曹將薦其賢執友爲郎者曰某

必不屈徒益其名者某之所惡何必益所惡哉議遂止人高先生之志而謂其友知必也友諸兄甚至析著取小有鰥而窮者割已田以贍之從父兄早沒而家貧先生撫遺孤如已出資之婚嫁使不失時興寧有庶子四人皆頑嚚無賴興寧不子之先生從容規諫諭以天倫興寧爲之稍解興寧既卒先生謂異姓爲後非禮招庶子助以至誠使之改行主祀祭時自具粢盛不煩庶子家產任其自取曰汝輩飢寒則吾誰與足庶子亦感泣聽義至同與墓廬平生不事產業有時窘乏不以爲意或勸殖貨爲子孫計先生曰閒臥林泉只爲省慾頤神豈可以此煩吾慮乎子孫苟賢如吾足矣如其不賢多田何益朝貴多求婚媾先生不應曰結姻巨室非安分知命者也嚴於自守非合歡則止飲嘗獨處十二年不置姬妾其他可知也異端之書必深排之惡僧巫不敢近其門里深化之先生涇渭甚明於人少許可然未嘗形諸辭色無貴賤一以誠意接之言笑款洽應對不倦故戶屢常滿開陳倫理救鮮患難下至細民莫不泛愛故良順者興於善冥頑者感其德或有傷風之行者必惕然曰李生員得無知不嗚呼此其所以生而爲一鄉之慕歿則爲一鄉之哀者歟金夫人治內有法克順其志先生常敬重焉閨門之內和而且整有一男曰希參進士女適趙學進士生子埤司畜埤女爲權現妻庶男垆主簿趙學生存性知中樞司畜無子取先生伯氏知事夢麟曾孫承孝爲子埤三女壻趙元方張雲濟閔滉垆二男承裕承烈一女壻柳天起先生之後久益不振而獨外裔繁昌其最顯者領敦寧漢原府院君昌遠篤生莊烈聖母以配仁廟判書啓遠議政師錫大司憲泰東議政泰采道彬判書觀彬榮國營進參判榮順判書雲達參判沈琪判書吳彥儒參判金應順統制使李玕皆出於趙知事判書李裕民知事李齊岳也先生既歿後人之景慕不衰潛谷金相公編其事行入於海東名臣錄至景宗癸卯本章甫齊聲疎籲特命追享花巖書院後又贈司憲府大司憲兼成均館祭酒侍講院贊善褒崇之典無餘憾也希參號魯齋亦清高自持嚴於陰陽淑慝之辨除官別坐不就隱居行義以終竊疑夫松江行錄一端語有不可知者然以聽松爲師栗牛爲友而重峯疎又著其賢則終無愧爲先生子而散記之傳錄難保其無訛也百世之下必有能辨之者矣先生之彌甥也知先生頗祥又嘗寓居先生舊鄉其遺風餘韻猶有存者每有高山之仰矣先生七歲孫慶翊以先生之墓舊無顯刻碣銘于余屢辭而終不獲則謹因狀文撮其大略而繼之以一言曰先生有出倫之行高世之操當世之人覲德而慕百代之下聞風者起將與西山栗里爭其標致而高蹈逸民之評未必專美於世矣苟有知德者倘不以余言爲阿好也銘曰在昔龍蛇善類奚以不有明哲孰先其幾猗歟先生識高行邁謝榮辭利超然物外蘿山漠漠蘿水滄滄歸乎徜徉樂以忘憂含光葆真不悔不知死哀生榮豈其所期山薇籬菊異代同高立懦廉頑百世清標鄉祀載典野史傳芳欲晦而彰闡然綱章小子有述石潭之筆萬古不泐先生之碣

崇禎甲申後三丁酉刻

天休堂李先生之墓在縣之東馬山峙而曾所豎石而顯刻者長湖洪先生之所撰文也昌寧韓公之書及曾參議金公之篆也自戊戌以後其文爲世所諱其碑遂晦矣今先生之後孫裕高甫與其宗族謀更治其石而爲神道重刻其彰述先德可謂盛矣哉第其文則固自如而其書則已無原本矣要余以更書

之余不但不工字畫以不敢當謝而亦不敢終辭盖先生之道學節義已有石潭之筆長湖所述者則後生來學何敢贅一辭而今此墓道之碑晦而更顯實斯文之幸鄉人之光也載名其間與有榮焉乃敢忘其僭率書而因爲之追記如右用寓景慕之忱云爾

崇禎二百四十八年乙亥 後學東陽申應善謹識

중종 기묘(1519)년 이후부터는 세상에서 도학을 은휘했기 때문에 도학을 간직한 선비들이 많이 은거 생활하다가 몰락하고 말았으니, 세상에서 성청송(成青松:守琛), 이천휴당(李天休堂) 여러 선생 같은 분들이 곧 그 대상 인물이라고 한다.

비록 그 의지는 영영 세상을 마다하고 떠나가서 은둔생활로 세상에 보이지 않으려 했으나, 그 존재된 바와 성취된 바는 끝내 민물시키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에 홍봉세(洪奉世)가 일찍이 논하기를 ‘성청송은 당세에 숭고한 인물이고, 성왕시대에 일민(逸民)이라’ 하여 군자들이 말하기를 ‘알아주는 말이다’ 했으니 대체로 천휴당같이 청백한 지조와 쓰라린 절의는 가히 청송과 백중지세가 될 만하다는 홍공(洪奉世)의 논평이 있었으나, 민물되고 남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선생께서 멀리 바닷가로 떠나가서 세상으로 더불어 더욱 소활했기 때문에 비록 한 세상에 아울러 살았다 하여도 서로 알지 못한 자가 있어 그러했던 것인가? 비록 그러나 이율곡이 선생의 행장을 지으면서 대서특필로 찬양한 것이 홍공의 ‘말뿐만이 아니라 이로써 고요했던 사적과 잠겨진 광채가 남음이 없이 발천되어 알아주는 자가 없음은 우환거리가 되지 않으니 이제야 가히 유감이 없다 하겠다.

삼가 행장을 살펴보면 선생의 성은 이씨이고 휘는 몽규 자는 창서이다. 월성의 이씨는 원대부터 내려온 계통이 있다. 윗대에 알평(諱平)이 계신데 신라 혁거세 임금을 섬겨 좌명(佐命)의 공로가 있었다. 몇 십 대를 내려와서 문희공 휘 세기(世基)가 계셨는데, 고려 충렬왕 당시에 형 동암공 진(瑱)과 같이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벼슬이 검교정승 대제학에 이르러서 다같이 크게 번창하고 현달했다. 여기에서 4대를 내려와서 휘 연손(延孫)에 이르러서는 벼슬이 참판인데, 이 어른은 선생의 고조이다. 증조의 휘는 송수(崇壽)인데 첨지중추이고, 할아버지의 휘는 성무(成茂)인데 판관으로서 증직이 참판이고, 아버지의 휘는 인신(仁臣)인데 주부(主簿)로서 증직이 판서이다. 어머니는 광주반씨(光州潘氏)인데 절도사 희(熙)의 따님이시다.

선생께서 정덕 경오(1510) 2월 6일에 출생했는데 출생하면서부터 특이한 기질이 있어서 풍골이 수려하고 맑았다. 말을 배울 때부터 글을 읽을 줄 알아 성동(成童, 15세)이 되기 전에 능히 문의를 관통하니 장자들이 모두 기특하게 여겼다.

이미 학교에 들어가서는 침재 박공이 학관이 되어 깊이 감탄하고 장려하며 이르기를 ‘다른 날에 반드시 국가의 기틀이 될 것이다.’ 했다. 김충정공 극성이 한번 보고 특이하게 여겨 그 딸을 아내로 삼게 했다. 종실 흥녕부정부인(興寧副正夫人)은 선생의 종모(從母)이다. 아들이 없어 어렸을 때부터 선생을 데려다가 양육하고 신후의 일로써 부탁했기 때문에 선생이 섬기는 데 효성을 다하니 흥녕이 드디어 그 아들이 없음을 잊었고 사람들도 역시 그 소생이 아닌 줄 알지 못했다. 약관시절에 판서공 상사를 당하여 초상 치르는 예절을 한결같이 주자가례에 따랐으며, 묘소 곁에서 여막치고 삼년을 지냈다.

또 흥녕부인 상사를 당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보호하여 길러준 은의가 부모와 같다’ 하여 먼저 재최(母喪의 복제) 삼년복을 입고 묘소를 지키며 상제를 마치는데 아침 저녁으로 자진하여 성의를 다하니 사재 김공(四齋金公)이 그 행의에 감복하여 찾아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더욱 공경하고 소중하게 여겼다. 매양 당시에 학자를 논하자면 반드시 선생을 칭찬하며 말하기를 ‘기국이 크고 천품이 높아서 사람마다 미칠 바가 아니다’ 운운했다. 부친 복제를 마치고 나서 또 어머니 복제를 당했다.

거듭 거창(巨創 : 부모상사)한 일을 만나자 몸이 파리하고 야위었으나 오히려 예절을 따르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경자년(1540)에 비로소 상상(上庠, 진사)에 올라 태학에서 기리는 소리가 성대하였으며, 사림에서 무슨 논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선생을 기다려 결정하게 되므로 한때의 명망 높은 분들이 폭주하여 문하에 찾아오느라 수레와 말들이 문을 두드려 빈 날이 없었으나 선생의 즐거운 바가 아니었다.

인종 초년에 성균관의 소년배들이 고상한 언론을 좋아하는 자가 많았다. 선생이 걱정하여 이를 뿌리치고 돌아왔는데 얼마 안되어 사화가 일어나니 사람들이 선생이 미리 알았음에 탄복했다. 갑진년(1544)에 흥녕이 돌아갔다. 선생이 상복 입기를 전에 부인 때와 같이 했다. 명년에 인종이 돌아갔다. 선생이 하늘을 우러러 가슴을 치고 통곡한 것이 여러 달이며 시를 지어 상심하는 말씀이 너무도 애절했다.

선생께서 본래 어지럽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므로 드디어 보령 청라동으로 영영 돌아왔는데 사는 곳에 원림수석(園林水石)의 좋은 경치가 있었다. 그 동편에 집을 짓고 천휴당(天休堂)으로 이름을 걸고 도원도(桃源圖)와 성청송이 써준 귀거래사를 벽 위에 걸어 놓고 뜻을 모아 휘파람도 불고 시를 읊기도 하고 유연히 스스로 즐거워했다. 향시 소부(巢父) 허유(許由 : 상고시대 은거자)의 귀 닦은 일과 백이숙재의 고사리 캐 먹은 일이며 원량(元亮 : 도연명)의 삼경(三徑)에 거닐던 일을 사모하여 오랜 세대에 감상을 일으키는 의사가 있어 혹은 가사를 지어 그 회포를 부쳤는데, 말한 의사가 심원하여 사람들이 쉽게 알지 못했다.

시골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멀고 가까운 곳 할 것 없이 덕의를 존중하고 사모하여 사랑하며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계해(1563)에 백씨가 서울에서 돌아왔다. 선생이 병환 중에 억지로 분곡하고 장사 후에 돌아와 너무 과로하여 병이 위급하여 집에서 돌아갔으니 이해 6월 24일이다. 한 고을 사람들이 달려와 조상하며 친척같이 슬퍼했다. 소 먹이는 아이와 어린 사람들까지도 역시 고기를 먹지 않고 이르기를 어진 분이 돌아가셨다며 방아찢 때 서로 절구 소리를 내지 않고 들판에 농부도 노래를 부르지 않은 지가 수개월 되었다. 보령 동쪽 마산재 경좌의 언덕에 안장했다.

선생의 친품이 평탄하고 광활하며 풍신이 고향하고 기개가 세속에 초월했으며 지식과 생각이 남보다 뛰어났다. 마음이 소통하여 막히거나 좁은 것을 볼 수가 없었다. 세리와 영달에도 그 중심이 동요되지 않았다. 바야흐로 그 성균관에 나갈 때는 백학이 닭들 모인 중에 서 있는 기상과 같았는데 물러와 시골에 살면서는 매미가 만물 밖에 벗어난 의사가 나타나서 깨끗하여 때가 묻지 않고 즐거워하다가 몸을 마쳤으니 가히 우뚝이 서서 도를 믿으며 홀로 깊숙하고 굳은 의지를 안은 자라 하겠다. 소시적에 김충정공이 벼슬을 시키려 하니 선생이 고사하므로 김공이 감히 강제하지 못했다. 뒤에 이조(吏曹)에서 장차 그 어짚을 추천하려 했더니 선생의 친구 이즉이라는 자가 있어 말하기를 ‘아무개는 반드시 자신을 곱혀 그 이름을 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름이란 것으로 아무개의 미워하는 바이니 어찌하여 미워하는 것을 더하려는 것인가? 하여 의논이 드디어 그치게 되니 사람들이 선생의 의지를 고상하게 여기며 이르기를 그 친구의 알아준 것이 필연적이라고 했다.

여러 형제들과 우애가 심절하여 분가할 때도 적은 것을 취했으며 홀아버로 곤궁한 자가 있음에 자기의 농토를 분할해 주어 넉넉히 살게 했다. 종부형(從父兄: 4촌)이 일찍 죽고 집이 가난했다. 선생이 그 고아를 돌봐 줌이 자기의 소생과 같이 하여 남혼여가(男婚女嫁)에 자장(資裝)을 마련하여 혼기를 잃지 않도록 했다.

홍녕이 서자 4형제가 있었는데 모두가 완악한 무리배이므로 홍녕이 아들로 여기지 않았다. 선생이 조용히 충간하여 친륜으로써 개유하니 홍녕이 조금은 풀렸다. 홍녕이 이미 돌아가자 선생이 이르기를 ‘다른 성씨로 양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하고 서자들을 불러놓고 지성으로 힘써서 그들로 하여금 행동을 고쳐서 제사를 주관하라 하고 제사 때가 되면 스스로 제수를 마련하여 서자들에게 번거롭게 하지 않았다. 집안 재산은 너희들 마음껏 가져가라 맡겨 주고 이르기를 ‘너희들이 주리고 추운 즉 내가 누구로 더불어 만족하게 살겠는가?’ 하니 서자들이 역시 감사하여 울면서 의로운 말씀을 듣고 함께 여묘살이하기에 이르르게 되었다.

평생에 산업을 일삼지 않아서 때로는 궁색하여 꺾절되기도 했으나 이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혹 누가 재산을 불려 자손의 계책을 삼으라고 권고하면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한가하게 임천(산수)에 있으면서 다만 욕심을 덜고 수양하면 만족하는데 어찌 이런 일로써 나의 생각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는가. 자손이 참으로 어질기만 하다면 나는 만족할 것이고 어질지 못하다면 농토가 많다 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라고 했다. 조정에서 귀객들이 혼인하자는 사람들이 많았다. 선생이 대꾸하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공경의 집안과 혼인을 맺는 것은 분수에 편안하고 운명을 아는 자가 아니다’ 했다.

스스로 예의를 지키는 데 엄숙하여 누구와 술을 나눌 때가 아닌 즉 술마시기를 중지 했다. 일찍이 12년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희첩(姬妾)을 두지 않았으니 그 밖의 일은 가히 알 수가 있다. 이단의 서적을 심히 배척하지 않았으나 스님이나 무당 따위는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그 동네에서까지 깊이 교화되었다.

선생이 경위(經緯)에는 심히 명백하여 사람에는 허가해 주는 것이 적었으나, 일찍이 사색에 드러내지 않았으며 귀하고 천한 사람을 가릴 것 없이 성의로 접대하여 말씀하고 웃는 데 정성스러우면서도 흠족하며 묻고 대답하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에 문 앞에는 신발이 늘 가득차 있었다, 윤리(淪理)를 열어서 깨우쳐 주고 환란을 구제하여 풀 어주므로 아래 서민들까지도 널리 사랑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지극히 순탄한 자는 선생에 흥기하며 지극히 투미한 자도 그 덕의에 감동되어 혹 풍속을 해치는 행위가 있는 자라도 반드시 조심하며 이르기를 ‘이생원께서 알고 계시지 않은가?’ 라고 했다.

야! 이러한 것이 모두 살아서 한 고을에 사모하는 바가 되고 돌아가서도 한 고을에서 슬퍼하는 것이 된 것인가? 김부인께서 내행을 다스리는 데 법도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잘 이어가므로 선생께서 늘 공경하여 소중히 여기어 규문의 안방이 화평하면서도 또 정연했다. 1남을 두었으니 희삼(希參)이며 진사이고, 딸은 조람(趙孳)에게 출가했다. 진사는 아들 육(堉)을 낳았고 다음은 사축(司畜)이고, 다음은 비(埤)이며 딸은 권현의 아내가 되었다. 서자 경(峒)은 주부이다. 조람은 존성을 낳았으니 지중추이다.

사축은 아들이 없어서 천후당의 백씨 지사 몽린의 증손 승효(承孝)를 데려다가 아들을 삼았다. 비(埤)는 3녀만을 두었으니 사위는 조원방·장운제·민황이다. 경은 2남인데, 승유 승렬이고 1녀의 사위는 유천기이다. 선생의 후손은 오래일수록 더욱 진기되지 못했는데 유독 외손만이 번창하게 되었다. 현달한 자로는 영돈녕 한원부원군 창원이 훌륭한 장렬왕후를 탄생하여 인조의 왕비가 되었다. 판서 계원, 의정 사석, 대사헌 태동, 의정 태채, 도빈, 판서 관빈, 영국, 영진, 참판 영순, 판서 윤규, 참판 심기, 판서 오언유, 참판 김응순, 통제사 이우는 모두 조지사에서 나왔고, 판서 이유민과 지사 이제암도 있다.

선생이 이미 돌아간 뒤에도 사람들의 우러러 사모함이 헤아리지 않아서 잠곡 김상공이 그 사실의 행적을 편집하여 해동명신록에 입록했다. 경종 계미년(1723)에 본도의 사람들이 연명으로 상소하여 간청하자 특별히 화암서원에 추후로 배향하라고 명령했다. 뒤에 또 사헌부 대사헌 겸 성균관 췌주 시장원 찬선을 증직했으니 포승하는 성전에 유감이 없다 하겠다.

희삼의 호는 노재인데 역시 청백과 고상으로 유지했으며, 음양숙독(陰陽淑篤: 사람의 인격의 우열)의 분간에도 엄중했다. 벼슬 별좌를 제수했으나 나가지 않고 은거하면서 정의를 행하다가 마쳤다. 향시 정송강(鄭松江)의 행록에서 일단의 말씀이 의문된다. 그러나 성칭송으로서 스승을 삼고 율곡 우계로는 친구를 삼았으며 조중봉 상소에도 그 어짐을 저명했은 즉 마침내 선생의 아들되기에도 부끄럼이 없을 것이므로 감히 자손록에 기록했으나 그 오록(誤錄)이 없을지는 보장하기 곤란하다. 백세 아래에서 반드시 능히 분별할 자가 있을 것이다.

나는 선생의 외예손으로서 선생을 아는 데 자못 상세하고 또 일찍이 선생의 옛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유품 여운이 아직까지 보존된 것이 있으므로 매양 높은 산처럼 우러렀다. 선생의 7세손 경익(慶翊)이 선생의 묘소에 예부터 비문을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신도비명을 청하기에 내가 여러 차례 사양했으나, 마침내 그만 두지 않은 즉 삼가 장문(狀文)을 인용하여 그 대략을 모으고 한마디의 말로써 소급하여 이르기를 선생이 보통보다 뛰어난 행실과 세상에 숭고한 지조가 있기에 당세 사람들이 덕의를 보고 사모하여 백대의 아래에서도 풍치를 듣고 일어나서 장차 서산(西山 : 수양산)·율리(栗里 : 도연명 고향)로 더불어 그 표치(標致)를 다툼만 했는데 고도(高蹈 : 고상한 지조)의 일민(逸民)이라는 평론이 반드시 세상에 같이 아름답지 못했으니 진실로 덕을 알아주는 자가 있다면 혹시라도 나의 말로서 아첨하여 좋아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명에 이르기를

옛날 임진 난리를 당하여 착한 사람이 어찌할까? 명철한 사람이 있지 않으면 뉘 그 기미를 먼저 알아챌 것인가? 아! 훌륭하도다. 선생이시여 지식도 많고 행실도 뛰어났네. 영광도 사절하고 명리도 사려하여 세상 밖에 뛰어났지. 청라산은 막막한데 청라수는 유유히 흘러가누나. 돌아갈지이다. 거닐 곳 있으니 즐거워서 근심 걱정 잊으리라. 광채는 버리고 참을 보존함이여 알아주지 않음 뉘우치지 않았구려. 죽어서 슬퍼하고 살아서 영광일 줄 어찌 기필했을까. 수양산 고사리와 도연명의 국화는 세대는 다르지만 고필은 같구려. 나약한 사람도 세울 수 있고 완악한 사람도 옆치 차릴 수 있으니 백대에 밝은 표치일세. 시골에서 제사 올림 법전에 실려 있음에 초야의 노인들 향기로운 일 전해 오누나. 거둬서 어둡다가 밝아지니 은연 중 문채 이루었네. 소자 저술은 희미하지만,

석담(율곡)의 지은 글일세. 만고에 갈리지 않음이어 선생의 비같이로군.

전력부위 전임 세손 익위사 세마 홍양해(洪量海) 지음

승정 갑신 후 3정유 각(1837년 새김)

추기(追記)

천휴당 이선생의 묘소가 본 고을 동쪽 마산고개에 있어 일찍이 비석을 세웠는데, 새겨진 글은 장호(長湖) 홍선생이 지은 문단으로 창녕 한공이 쓰고 증참의 김공이 전자를 썼다. 무술 이후로 그 글이 세상에 은휘(隱諱)되어, 드디어 잠기게 되었다. 이제 선생의 후손 유설(裕高)이 그 일가 사람들과 함께 다시 그 비석을 다듬어 신도비로 새로이 새길 것을 도모했으나 선조의 덕행을 밝히려는 뜻은 가히 성대하다 이르겠다.

그러나 그 문단인즉 똑같으나 그 글씨인즉 이미 원본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보고 다시 써 달라 요구하기에 내가 다만 글자의 모양만 잘못되게 할 뿐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사양했으나 역시 감히 끝까지 사양하지 못하였다. 대개 선생의 도학과 절의는 이미 석담의 집필과 장호가 이어서 지은 것이 있는 즉 후생 말학(末學)으로서 어찌 감히 한마디의 말이라도 보탬 수가 있겠는가? 이제 묘도비가 어둡다가 다시 밝게 되었으니 실상 사문(유림)의 다행스런 일이고, 시골사람의 영광이라 하겠으며 그 사이에 이름을 실은 것만으로도 영광이라 하겠다. 이에 참람됨을 잊고 다시 쓰고 전자까지 썼으며 인하여 오른쪽과 같이 추기하여 높이 사모하는 성의를 부친다.

승정 248년(1875) 을해(乙亥)에 후학 동양 신응선(申應善) 삼가 기록하다.

〈참고 : 경주이씨족보〉

5) 이산보신도비(李山甫神道碑)

- 위치 :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 건립 연대 : 1959년
- 지은이 : 송시열(宋時烈)

忠簡公鳴谷李先生神道碑銘

朝鮮國贈扈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韓興府院君行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事世子左賓客贈諡忠簡公鳴谷先生韓山李公神道碑銘并序

鳴谷先生李公沒四十餘年。當仁廟朝。谿谷張公 維。據公女壻守夢鄭公擘行錄爲諡狀。上

賜諡忠簡。又五十餘年。而公玄孫涑來謂時烈曰。忠簡公墓木老死。而神道無顯刻。盍爲文而賁之。余以老病固辭。則又要責曰。公之大夫夫人。與忠簡長女爲妯娌。親義有所不可終辭者。余瞿然曰。孤露餘生。恒懷不泊之悲。今聞子言。不覺涕涔涔也。遂按張。鄭二公文而序之曰。公韓山人。自稼亭穀。牧隱穡二先生大鳴於世。天下皆知東國之有韓山。牧隱之曾孫大司成塢。於公高祖。曾祖長潤。祖釋。皆有贈職。考之茂。公既貴。以追典爲領議政。開號爲韓昌府院君。妣具氏貞敬夫人。公以嘉靖己亥。生于保寧村舍。諱山甫。字仲舉。幼有美質。凡言語動止。必以誠實。早孤。學于其叔父土亭先生之菴。嘗與群兒戲而折齒。群兒恐受長者責。謀以飾辭對。公曰。叔父常教我以不欺。吾當以實對。土亭嘗戲指石佛曰。是亦有父母乎。對曰。凡物皆父天而母地。土亭大奇之曰。此兒當爲大人君子矣。十七。將委禽于京師。土亭戒之曰。須惜寸陰。嘗讀書于江榭。有諸友七八輩拉而登舟。直抵奉恩寺下。爭先入寺游觀至暮而歸。則公在船中讀書自如曰。父兄之戒。不可違也。嘗與親友同赴舉。其友忽被錮。公亦與同歸曰。不忍異同也。人以爲難。及丁卯捷司馬試。旋闈大科。時公從兄山海以文藝。聲名大振。土亭曰。世以山海爲優於某。然賢否則懸矣。由承文院權知。薦入史苑爲翰林。辛未。序陞成均館典籍。移禮曹佐郎。爲養出爲海美縣監。以司諫院正言召入。遷兵曹佐郎。未幾。丁具夫人憂。廬于保寧墓側。哀毀盡禮。制終。拜兵曹正郎。承命爲御史。巡按咸鏡道還。歷拜弘文館修撰。校理。司憲府持平。司諫院獻納。爲吏曹佐郎。時東西黨議已成。爲銓郎者。各執好惡。睚眦不相下。公獨無偏頗之累。清議重之。丁丑。持收養母心喪。廬居舒川。舒僻邑也。鄉俗甚陋。自公之至。覲德興善。爲士者頗知慕學飭行。拜成均館典籍。屢遷議政府檢詳。舍人。司憲府執義。司諫院司諫。弘文館應教。典翰。直提學。嘗侍夜對。極陳黨論日盛。用捨不公。對罷將退。上命坐賜問。以此大爲用事者所惡。引疾遞。爲宗簿寺正。自是置散殆一年。會三司誣詆李文成公珥。上怒命竄朴謹元等。而公復拜執義。尋陞承政院同副承旨。俄遞西樞。歷成均館大司成。戶曹參議。司諫院大司諫。文成公既沒。時事大變。金字顛爲副提學。入對毀文成所爲。時公以右承旨入侍。盛稱文成道德學問。上擊節嘉歎。字顛有所言。上輒問公曰。此言何如。公輒盡言不諱。益觸時忌。無何。特授大司憲。爲忌嫉者所中傷。出爲慶尙監司。其治務以祛積弊恤惇獨。養老興學爲先。既遞歸。參判禮曹者一。刑曹者三。貳京尹者再。復出按黃海道。治理一如嶺南。士民慕德。立石頌之。己丑逆變起。召入再爲大司諫。庚寅。以賀節使赴京師還。又長憲府。時逆獄久益滋蔓。公持議平恕。隨事鎮靖。危懼之徒。恃以無恐。舊嘗訾毀公者。至是大慙服。皆稱以厚德長者。明年。特命再授黃海節。會士禍大起。一時士流多被竄逐。論者欲彈公。無毫毛可舉。只以怨天尤人劾公。公罷官閒居。唯以經史自娛。所親或唁公。公笑曰。彈辭謂我怨尤。可謂不知我者。先是倭酋秀吉弑其君。遣使請通

信。時廷臣獻議者。多以通信爲便。公獨以爲不可許。壬辰。倭寇深入。公自保寧赴都。居數日。始蒙收斂。公將謝恩詣闕。則大駕已西幸矣。公不復還家。單馬追駕扈行。至東坡驛。拜大司諫。尋以吏曹參判陞判書。時賊鋒漸逼。上將渡遼內附。問群臣誰肯從我。公與李公恒福數三人請從。天子大發援師。以存東藩。李提督如松駐軍遼陽。不肯前。公承命馳詣軍門。請亟濟師鴨江。以救呼吸之急。辭氣懇切。淚隨言發。提督具酒食以待之。公曰。君父在草莽。義不忍當此。遂下庭慟哭。提督感動。卽趣師渡江。天兵旣復平壤。進薄京城。與賊相持久。糧且盡欲退軍。上憂之曰。海西新中兵。公私赤立。括粟蜚輓。民必不堪。將奈何。廷議僉曰。李某曾按此道有遺惠。往必有濟。遂拜公都檢察使。公比抵境。民老幼咸手額曰。李監司至矣。傾儲輸粟。負戴繼屬於道。軍餉大集。又命往莅三南。公素爲士民所信服。聞其至。人爭趨事。大軍南下。軍興未嘗乏。蓋公忠信入人者深。故所在咸得其力矣。辭遞吏書。拜議政府左參贊。陪東宮。自全州至洪州。屬甲午大饑。親戚之窮餓者。皆扶携而歸。公分俸濟活。至輟盤飧以哺之。每食未嘗飽。子弟愍之以爲言。公歎曰。此時喫飯幸矣。敢望飽乎。東宮命公管賑饑民。早夜焦勞。親莅其糜粥。日昃忘食。以勞憊成疾。東宮遣醫視之。醫陽言疾可爲也。公曰。吾病吾自知之。豈以死生關念。疾亟。命夫人出。語不及家事。但問今日邊報何如而已。四月二十八日卒。得年五十六。訃聞。朝野莫不痛惜。民至有罷市流涕者。自上隱卒之典特厚。以其年某月日。葬于保寧之高灣先兆也。後甲辰。上錄扈從諸臣勳。賜公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號。贈領議政。公天資醇粹。器度寬弘。接其容貌。聽其辭氣。可知其爲厚德君子。少從土亭學。語默坐立。一遵其教。土亭有高識。於人少許可。常稱公曰。孝悌忠信。雖出於孔門。可以無愧。又曰。惟大人不失赤子之心。世人雖有美資。稍長。漸失本心。惟某也庶幾矣。又曰。可以託六尺之孤。毅然有不可奪之節也。蓋其寬厚之中。自有規度不差也。其事親敬長。一依小學。祭時薦獻。涕淚被面。其誠孝之篤如此。平居謔浪之語。不出於口。惰慢之容。不設於身。外物奉身之具。泊然無所入於其心。聽事土牀。廢而不火。至籍藁以處。而晏然自適。惟急於利人濟物。見有厄窮。猶飢渴之在身。聞有一善。喜而稱道之。或言人過惡。恒若不聞也。雖僮僕有過。亦不輕加詈罵。尤篤於宗族。誠心撫恤。故無論戚疏。戴之如父兄。教諸子。未嘗以榮進爲務。常曰。立心修行。當以古人爲法。科第乃外事也。公雖以忠厚存心。至淑慝是非之際。守之甚確。處之不苟。立朝近三十年。在經幄首尾十餘年。孤忠朴直。常以栗谷爲大賢。不顧衆咻。至其施諸政事。則誠心懇惻。切不喜聲名。所在化服。急難之日。多賴其力焉。與牛溪成先生渾。趙重峯憲。鄭松江澈。洪益城聖民相友善。終始不渝焉。蓋公於經傳之旨。無不究極。本旣立矣。至於濂洛諸書。亦皆淹貫。而尤深於易學啓蒙。蓋得之士亭。又洞曉象緯。當辛卯年間。仰觀俯察。深以國事爲憂。及倭變之作。其言果驗云。夫

人德水李氏。甚有婦道。治家謹嚴。有二男。慶倬以魁科進。官止都事。慶侁生員。皆早卒。女壻三人。長縣監宋承祚。卽余叔父也。次卽守夢公。爲世名臣。季別坐鄭俊衍。都事男峻發。進士男峻成，峻生，峻良。峻發男商雨郡守。峻成男斗章。峻生男奎章，翼章。峻良男星章。郡守男澗。其季卽澗也。內外曾玄。多不能盡錄。萬曆癸亥。章甫立祠於保寧靑蘿洞。與土亭先生醞享焉。今上丙寅。賜額曰花巖。聖朝崇報之典。無餘憾矣。銘曰。

在宣廟世。世道休明。多士熙載。日邁月征。維時忠簡。展也老成。廉而不劌。含章可貞。允矣文成。大猷是程。公與志同。道與之合。其道伊何。誠正常法。正君定國。與古允協。時論乖張。大賢躡路。公正其義。不懼不懾。壬辰之變。追執羈勒。旄丘葛誕。充耳伯叔。痛哭秦庭。三軍動色。貔貅十萬。渡江而來。燕天兇焰。欸如死灰。師旅饑饉。百爲艱難。竭智殫思。胼胝奚憚。風雨之漂。其音嘒嘒。死而後已。身殲務勞。不有君子。斯焉取斯。聖朝褒崇。多士立祠。百世之下。文在于茲

명곡 선생 이공이 몰(歿)한 지 40여 년이 되는 인조 때에 계곡 장유가 공의 사위 정업의 행록에 근거하여 시장(諡狀)을 만들고, 상계서 충간(忠簡)의 시호를 내리셨다. 또 50여 년이 지난 오늘에 공의 현손 속(澗)이 와서 시열(時烈)에게 이르기를 ‘충간공의 무덤 위에 나무가 늙어 죽었는데도 신도(神道)에 현각(顯刻)이 없습니다. 문장으로 만들어서 행적을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했다. 내가 늙고 병들었으므로 사양했는데, 다시 요구하면서 책(責)하기를 ‘공의 대부인께서 충간공의 따님과 동서가 되십니다. 친척의 의리에 끝까지 사양하실 수는 없습니다.’ 했다. 내 깜짝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말하기를 ‘내 일찍 부모를 여윈 몸이 되어 가슴속에 늘 봉양하기에 미치지 못했던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제 그대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흘러내림을 깨닫지 못하겠다.’ 하고, 장(張)·정(鄭) 두 분의 글을 상고하여 서술한다.

공은 한산 사람이다. 가정 곡과 목은 색 두 분 선생께서 세상에 크게 울린 뒤로 천하 사람이 모두 동쪽나라에 한산이씨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목은의 증손 대사성 우(堦)가 공에게 고조가 되고, 증조 장윤(長潤)·조부 치(禪)가 모두 증직(贈職)이 있다. 고(考)이신 지무(之茂)는 공이 귀히 됨으로 해서 추증의 은전을 입어 영의정이 되고, 한창부원군에 봉하여졌다. 비(妣) 구씨는 정정부인이다. 공은 가정(嘉靖) 기해년에 보령 시골집에서 났으니 휘는 산보, 자는 중거(仲舉)다. 어려서 아름다운 자질이 있었으며, 무릇 언어 동작이 반드시 성실을 위주로 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숙부인 토정 이지함 선생에게 배웠다. 일찍이 아이들과 놀이를 하다가 이를 부러뜨렸으니 아이들이 어른의 꾸지람을 들을까 두려워하여 말을 꾸며달 것을 꾀했는데, 공이 말하기를 ‘숙부께서 늘 내게 가르

치기를 속이지 말라고 하셨다. 내 마땅히 실제 대로 대답하리라' 했다.

토정이 일찍이 장난으로 돌부처를 가리키면서 '이것도 부모가 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모든 물건은 모두 하늘을 아버지로 하고, 땅을 어머니로 합니다.' 했다. 공이 크게 기이하게 여겨 말하기를 '이 아이가 반드시 대인 군자가 될 것이다.' 했다. 17세에 서울로 배우러 갔는데, 토정이 경계하기를 반드시 촌음(寸陰)을 아끼라고 했다.

일찍이 강정(江亭)에서 글을 읽었는데, 7-8명의 벗이 강제로 끌어서 함께 배에 올라 곧장 봉은사로 갔다.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절 안으로 들어가서 구경하고 놀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와보니 공은 배 안에서 글을 읽으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하기를, '부형의 훈계이니 어길 수 없다' 하였다. 일찍이 친한 벗과 함께 과장(科場)에 갔는데, 그 벗이 과거 볼 자격을 박탈당하니 공도 함께 돌아오면서 말하기를 '차마 행동을 달리할 수 없다' 고 했다. 사람들이 그와 같은 행동은 따르기 어렵다고 했다.

정묘년에 이르러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어 대과에 올랐다. 공의 중형 산해(山海)가 문예(文藝)를 가지고 크게 명성을 떨쳤는데, 토정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산해를 가지고 아무보다 낫다고 하지만, 착하고 착하지 않은 것은 현격(懸隔)하다' 고 했다.

승문원 권지(權知)에서 추천을 받아 사원(史苑)으로 들어가 한림이 되고 신미년에 순서대로 성균관 전적에 올랐다가 예조좌랑으로 옮겼다. 아버지 봉양을 위하여 해미 현감으로 나갔다가 사간원 정언으로 불러 들어가고, 병조좌랑으로 옮겼다가 얼마 안 되어 구부인(具婦人) 상을 당하였으니 보령의 무덤 곁에 여묘하고, 슬퍼하며 예를 다했다. 복제를 마치자 병조정랑에 임명되었다. 명을 받들어 여사가 되어 함경도를 돌면서 안무하고 돌아와 홍문관 수찬·교리·사헌부 지평·사간원 헌납을 거쳐 이조좌랑이 되었다. 이때에 동·서의 당론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전랑이 각자 좋아하고 싫어하는 인물을 고집하여서 서로 밑에 들려 하지 않았는데, 공이 홀로 편파적인 잘못이 없었으니 청의(淸議)가 중히 여겼다.

정축년에 수양(收養)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심상(心喪)에 복하고, 서천에서 여묘했다. 서천은 궁벽한 고을이라 시골 풍속이 매우 비루했는데, 공이 이르면서부터 그 덕을 보고 선행을 일으켜서 학문을 숭상하고 행실을 신칙할 줄 알았다. 성균관 전적에 임명되었다가 의정부 검상(檢詳)·사인(舍人)·사헌부 집의·사간원 사간·홍문관 응교·전한(典翰)·직제학 등 벼슬을 역임했다. 일찍이 야대(夜對)에서 당론이 매우 성하여서 사람을 쓰고 버림이 공평치 못함을 극론했다. 야대를 마치고 물러가려 하니 상께서 그대로 앉기를 명하시고 하문이 계셨다.

이것으로 일을 맡아보는 자의 크게 미워하는 바 되었으니 병이 있음을 고하여 벼슬이 갈려서 중부시정이 되었다. 이때부터 산반(散班)에 머물러 있는 지 거의 1년이 되었다. 삼사가 문성공 이이(李珣)를 모함하여 혈뜬었으니 상께서 노하시어 박근원(朴謹元)의 무리를 귀양 보내기를 명하였다. 공이 다시 집의에 임명되었다가 곧 승정원 동부승지에 오르고, 얼마 아니 되어 첨지중추부사로 벼슬이 갈렸다. 성균관 대사성·호조참의·사간원 대사간을 역임했다. 문성공이 몰하자 세상일이 크게 변했다. 김우옹이 부제학이 되어 입대(入對)하면서 문성공이 한 일을 비방했는데, 공이 우부승지로 입시하였다가 문성의 도덕과 학문을 크게 칭송했으니 상께서 무릎을 치시며 어여삐 여기고 감탄하셨다.

우옹이 상께 아뢰는 말씀이 있으면 문득 공에게 묻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 했는데, 공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아서 숨기지 않았으니 더욱 사람들의 뜻에 거슬렸다. 얼마 안 되어 특별히 대사헌에 임명되었으나, 시기하는 자의 중상으로 경상감사로 나갔다. 그 정치는 묵은 폐단을 없애고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자를 구휼하고 노인을 기르며 학교를 일으키는 것을 선무(先務)로 했다. 갈려 돌아온 뒤로 참판이 되기를 예조에 한 번, 형조에 세 번이었으며, 경조부(京兆部)의 아윤(亞尹)이 되기 두 번이었다.

다시 황해도 관찰사가 되어 나가 다스리는 방법이 한결같이 영남과 같았으니 사민(士民)이 덕을 사모하여 비를 세워서 칭송하였다. 기축년에 역옥이 일어나자 불러 들어가서 다시 대사간이 되었다. 경인년에 성절사가 되어 명나라에 갔다. 돌아와서 다시 헌부(憲府)의 장관이 되었다. 이때 역옥이 갈수록 확대되었는데, 공이 공평과 관용을 주장하고 일을 살펴서 진정시켰으니 위태롭게 여겨 두려워하던 자가 공을 믿어서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일찍이 공을 비방하고 혈뜬던 자가 이에 이르러 부러워하고 복종하여 모두 후덕한 장자(長者)라고 일컬었다. 이듬해 특명으로 또다시 황해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다. 이때 사회가 크게 일어나 한 시대의 사류가 많이 귀양 가고 쫓겨났다.

일을 논하는 자가 공을 탄핵하려 했으나 털끝만치도 흠잡을 것이 없으니 단지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닮았다’ 는 말로 혈뜬어 파직당하고 한가한 몸이 되었다. 오직 경사(經史)를 탐독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친한 이가 혹 공을 위로하면 공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탄핵하는 말에 나를 가지고 원망하고 닮았다 하니 나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하겠다’ 했다. 이보다도 앞서 왜추(倭酋) 수길(秀吉)이 그 임금의 죽이고 사신을 보내와서 통신(通信)을 청했을 때 조정신하로서 의논을 올리는 자가 많이 통신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공이 홀로 허락해선 안 된다고 하였다.

임진년에 왜구가 깊이 들어오니 공이 보령에서 서울로 달려갔으며, 며칠 후에 서용되었다. 공이 사온하려 예궐(詣闕)했는데 대가가 이미 서쪽으로 떠났다.

공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단기(單騎)로 뒤쫓았으며 호종(扈從)하여 동파역(東坡驛)에 이르러서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곧 이조참판이 되었다가 판서에 올랐다. 이때 적의 선봉이 점점 가까이 이르니 상께서 요동으로 건너가 내부(來附)하려 하여 신하들을 향해 뉘 즐겨 나를 따를까 했는데, 공과 이항복 등 몇 사람만이 따르기를 청했다. 천자께서 크게 원군을 동원하여 우리나라를 보전케 하셨는데, 이여송 제독이 군대를 요양에 머무르고 즐겨 앞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공이 명을 받들어 군문으로 달려가 속히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서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급함에 구해 주기를 호소했는데, 말이 극히 간곡하고 눈물이 소리와 함께 흘러 떨어졌다. 제독이 주식(酒食)을 갖추어서 대접하니 공이 말하기를 ‘군부(君父)가 피난 나와 계신데 의리에 차마 이것을 먹으랴’ 하고 이어서 뜰에 내려가 통곡했다. 제독이 감동하여 곧 군사를 몰아 강을 건너와서 평양을 회복하고 서울에 육박했다. 적과 상지(相持)한 지 오래고, 군량이 다하니 군대를 뒤로 물리려 했다.

상께서 근심하여 말씀하시를 ‘해서(海西)가 새로이 병란을 만나 공사(公私)가 모두 텅 비어서 남아 있는 것이 없는데, 이제 곡식을 거둔다면 백성이 반드시 견디지 못할 것이니 이를 장차 어찌하랴’ 하시니 조정 의논이 모두 말하기를 ‘이 아무가 일찍이 이 道의 관찰사가 되어 은혜를 끼친 바 있으니 가면 반드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여 공을 도검찰사(都檢察使)에 임명했다. 공이 그 지경(地境)에 이르니 늙은이와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두 손을 이마에 대고 말하기를 ‘이 감사께서 오셨다.’ 고 하면서 있는 곡식을 모두 기우여서 바치니 등에 지고 머리에 인 자가 길 위에 줄지어서 군량이 많이 모였다. 또 삼남으로 가게 했는데 공이 평소에 사민(士民)의 신복(信服)하는 바 되었기 때문에 그 당도했음을 듣고 사람들이 다투어 모여들어 일이 순조로웠다. 대군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군량이 떨어진 일이 없었음은 공의 충신(忠信)이 사람에게 감화를 줌이 깊어서 가는 곳마다 그 힘을 얻은 때문이다.

사직하여 벼슬이 이조판서로 갈리고 의정부 좌참찬에 임명되었다. 동궁을 배종하여 전주에서 홍주에 이르렀다. 갑오년에 큰 흉년이 드니 친척의 굶주리고 궁한 자가 서로 이끌어서 공을 찾아왔다. 공은 녹봉을 나누어서 이들을 구제하고 밥상의 밥을 덜어서 먹이기에 이르니 언제나 배부르지 못했다. 자체가 이를 민망하게 여겨서 말했는데, 공이 탄식하기를 ‘이런 때 밥을 먹는 것만도 다행이다. 감히 또 배부르기를 바라랴’ 했다. 동궁이 공에게 명하여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는 일을 맡게 했으니 밤낮으로 애태워서 일에 힘썼다. 친히 그 죽끓이는 곳에 임하여 해가 기울도록 먹는 것도 잊었으니 극심한 피로로 병이 생겼다.

동궁에서 의원을 보내서 진찰케 했는데, 의원이 거짓말하기를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했다. 공이 말하기를 ‘내 병은 나 자신이 알고 있다. 어찌 죽고 사는 일을 마음에 두랴’ 했다. 병이 위독하니 부인을 나가 있게 하고 집안일에 대해서는 언급함이 없이 단지 오늘의 변보(邊報)가 어떤지를 물었을 뿐이다. 4월 28일에 졸했으니 수가 56세이다.

부음이 조야에 알려지니 애석해 하지 않는 이 없으며, 백성 중에 저자를 과하고 눈물 흘리는 자까지 있었다. 상계서 애도하는 은전이 특별히 융숭하였다. 이 해 어느 달 어느 날에 보령 고만의 선영에 장사지냈다.

갑진년에 상계서 호종했던 여러 신하를 녹훈하셨는데, 공에게 충근정량효절협책효성공신(忠勤鄭亮效節協策扈聖功臣)의 호를 내리고 영의정에 추증하셨다. 공은 천자가 순수하고 도량이 너그러웠으니 그 용모에 접하고 그 사기(辭氣)를 들으면 후덕한 군자임을 알 수 있었다. 소시에 토정을 좇아 배웠으니 말과 행동을 한결같이 그 가르침에 따랐다.

토정이 높은 식견이 있어서 사람에게 허여(許與)함이 적었는데, 늘 공을 일컫기를 ‘그 효제충신(孝悌忠信)의 행실이 비록 공자의 문하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또 ‘오직 대인(大人)만이 적자(赤子)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 세상 사람이 비록 아름다운 자질이 있다지만 자라나면 차츰 본심을 잃게 되는데, 아무만은 기대할 수 있다’ 또 ‘왕공(王公)이 나이 어린 후사를 부탁할 만하고 뜻이 굳세어서 빼앗을 수 없는 절조가 있다’고 했다. 그 너그럽고 후덕한 속에서도 자연히 법도가 있어서 어긋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아버지를 섬기고 어른을 공경함을 한결같이 소학(小學)에 의거했다. 제사 때 음식을 드리고 술을 올리면서 눈물이 낮을 덮었으니 그 효성의 독실함이 이와 같았다. 평상시에 농짓거리 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고 게으른 빛이 몸에 나타나지 않았다. 외물(外物)이나 내 몸을 기르는 도구에 대해서는 뜻이 담박하여 마음에 두지 않았으니 대청의 토상(土床)은 이를 폐하여 불 때지 않고서 벗짚을 깔고 그 위에 앉았으면서도 마음이 즐거웠다. 오직 남을 이롭게 하고 물건을 건지는 일을 서둘렀으니 곤궁한 자가 있는 것을 보면 마치 기갈(飢渴)이 내 몸에 있는 것처럼 했다. 남에게 한 가지 선(善)이 있음을 들으면 기뻐서 일컫고 남의 잘못을 말하는 이 있으면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했다. 비록 하인이 허물이 있어도 경솔하게 꾸지람을 더하지 않았으며 종족에 대해서는 더욱 도답게 하여 성심으로 구휼했으니 친소(親疎)를 물론하고 모두 부형처럼 추대했다.

자제를 가르치되 일찍이 영진(榮進)을 위주로 하지 않았으니, 늘 말하기를 ‘뜻을 세우고 행실 닦기를 마땅히 옛 사람을 거울삼으라. 과거 보는 것은 몸 밖의 일이다.’ 했다. 공이 비록 충후(忠厚)를 마음으로 했지만 선악·시비를 가리는 마당에서는 뜻을 지킴이

확고하고 처신함이 구차하지 않았다. 조정에 몸을 세움이 30년에 가깝고 경악(經幄)에 출입하기 전후 10여 년에 충성되고 순박하고 정직했으며 늘 율곡을 대현(大賢)으로 받들어서 못사람의 비방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 정사(政事)를 펴는 일에 이르러서는 성의를 다하고 친절하고 공훈히 여기는 마음 가짐으로 하여서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가는 곳마다 사람을 덕화로 감복시켰으니 위급한 때 많이 여기에 힘입었다. 우계 성혼, 조헌 중봉, 송강 정철, 익성 홍성민으로 더불어 교분이 심히 두터워서 종시 변치 않았다. 경전의 뜻에 대해서도 그 심오한 것까지도 궁구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도의 근본이 확립되었다. 염락(濂洛)의 여러 가지 글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정통했으며, 더욱 역학에 조예가 깊었으니 이는 토정의 깨우침을 받아서 얻어진 것이다. 또 천문에도 밝았으니 신묘년에 위로 천상(天象)을 보고 아래로 인사(人事)를 살피고서 깊이 나라 일을 근심했는데, 왜변이 일어나서 그 말이 과연 징험을 보았다.

부인 덕수이씨는 매우 부도(婦道)가 있어서 집을 다스림이 근엄했다. 두 아들을 두었다. 경탁은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나 도사(都事)에 그치고, 경완은 생원이니 모두 일찍 죽었다. 사위는 세 분이니 맏이 현감 송승조는 내 숙부시고, 둘째는 수몽공이니 우리나라의 명신이며 막내는 별좌 정준연이다. 도사의 아들 준발은 진사이다. 그리고 준성·준생·준량이 있다. 준발의 아들 상우는 군수이다. 준성의 아들은 두장, 준생의 아들은 규장·익장, 준량의 아들은 성장이다. 군수의 아들은 정이고 그 막내가 바로 속이다. 안팎의 증손 현손이 많아서 이루다 기록하지 못한다. 만력 계해년에 선비들이 보령 청라동에 사당을 세우고 토정선생과 함께 제사지낸다.

금상 병인년에 사액하기를 화암이라고 했으니 성조(聖朝)의 어진 이를 높여서 보답하는 전례가 실로 유감이 없다. 명(銘)에 저 선묘(宣廟)의 시대 세도가 아름답고도 밝아 많은 인사가 사업을 일으켜서 날로 발전을 거듭했네. 우리 충간공 진실하고도 노성(老成)하셔 청렴했지만, 모나지 않았네. 아름다운 덕성(德性)간직하고 문장 또한 크게 이루어 나라의 큰 계획을 도와 뜻이 같고 도가 맞아 그 방법 무엇인가 성실하고 바르게 하여 상도(常道)에 따랐네. 임금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나라를 안정시켜 옛 사람의 사업과 일치해 시론(時論)이 도리에 어긋나 대현(大賢)이 욕되니 그 의리 밝혀서 두려움 없으셨네. 임진왜변에 임금을 호종해 나그네 신세. 비탈 언덕의 칩덩굴 그 마디 길게 자라나도 명나라 장수는 우리의 호소를 외면해, 달려가 진정(秦庭)에 통곡해서 三軍을 감동시켜 10만 정예가 강 건너 왔으니 하늘을 찌를 듯했던 사나운 불길도 숨을 죽여 식은 재처럼 변했네.

군사가 굶주려서 일이 난관에 부딪히니 지혜를 짜내고 힘을 다하여 손발이 못 박히고, 터지는 것도 돌보지 않았네. 세찬 비바람에 흔들리며 그 호소 애절해 몸이 죽고서야 그만두었으니 나라 일에 지쳐 쓰러졌네. 그대 아니면 뉘 이 같은 사업 이루랴. 성조(聖朝)께서 포장(褒獎)하고 선비들이 사당집 세워 백세 뒤에라도 이 글 여기에 남아 있으리. (한산이씨족보).

6) 황증묘갈(黃葺墓碣)

- 위치 :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벽동
- 건립연대 : 17세기
- 지은이 : 이호민(李好閔)

有明朝鮮國宣務郎禮賓寺宜長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黃君墓碣銘并序
 僕世居漢城之盤松坊。黃君實同鄰生。叩篋與遊。少於僕七歲。常肩隨焉。君早喪怙恃。養於堂叔黃參判松堂家。壬辰之亂。君避地忠清道之庇仁縣。每時節往來展視先塋。仍過漢城。得與僕見而慰焉。邇來闕然不得見者且累歲矣。昨其孫廷直袖所爲家牒來曰。先君於癸丑正月十七日逝。同年五月初四日。葬于藍浦縣甌山麓亥向之原。敢請一言。以表幽隧。僕就執其手曰。嗚。黃君亡且葬。且再墓耶。今而始使僕知。可知其鄉之僻矣。余忍無言。顧任其泯絕於千秋耶。取按其牒則君之先長水縣人。五代祖領議政翼城公諱喜。國初名相第一也。贈右議政判中樞府事諱致身。贈左承旨昌平縣令諱事敬。靈巖郡守諱應。贈軍資主簿諱允宕。是君之四代也。妣李氏。宗室杜城令巖之女。君少績文不早顯。遇亂不應舉。築室庇之山水間。號松齋。又號七友堂。蒔花種竹。蕭然有安貧樂志之想。人勸之仕則曰。有命存焉。朔望參廟。奉祭祀。謹供需。不苟用。見人凍餒。猶在己。分衣糧賑之。驗方貯藥。全活人疾病。遇鄉人。士論學。武談兵。農工商各以業。無忤於物。庚寅歲。松堂公奉使日本。君謂已見鞠。義不間於死生。從以行返。及壬辰春。松堂公亡未葬而賊至。君具棺槨衣衾。間道收窆。三年不與燕樂。其制行修飭。得於性者如此。丁酉庚子年間。總管使韓公孝純。巡察使張公晚連。辟公管軍糧採鐵等句當。事辦。啓授添注禮賓寺直長。上命授實職。注擬之間。君已逝。丙辰春。廷直以君命下而不及敘。上書言。命該曹查績。贈左承旨。經筵參贊官。配任氏封淑夫人。君之篤實。見信於既骨。而廷直亦至誠顯親。俱可尚已。君諱某。字文補。生於嘉靖庚申三月十三日。終於癸丑。得壽五十有四。任氏籍豐川。判書由謙之孫。進士瑞臣之女。只一子廷直是已。娶縣監朴滋女。生二男。大鳴。碩鳴。銘曰。騎款段。乘下澤。行鄉里。稱仁足。此馬少游平生語。而吾所爲君而嘖嘖者也。

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忠勳貞亮竭誠效節協策扈聖功臣延陵府院君李好閔 撰
折衝將軍行忠武衛司果兼知製教 吳靖 書

우리가 대대로 한성의 반송골에서 살았는데, 황공도 실은 같은 인근 동(洞) 출신으로, 나와 어릴 때부터 함께 놀던 친구였으나 나이는 나보다 7세가 젊어 항시 견수(肩隨)하였다. 공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당숙 황참판 송당 댁에서 자랐다. 임진년 왜란 때 공은 충청도 비인현으로 피신하여 살고 있었으나 매년 사시(四時)의 계절마다 선영의 성묘차 왕래하는 길에 한성을 지나게 되면 나와 만나볼 수 있어 서로 위안하였더니 근래에는 소식이 끊기어 상면할 수 없었던 것이 벌써 여러 해가 되었던 바, 작일(昨日)에는 공의 사자(嗣子) 정직(廷直)이 가첩을 소매 속에 넣고 와서 말하기를 선군이 계축년 정월 17일에 서거하시고 그해 5월 초나흘에 남포현 증산록 해향원에 안장하였다면서 일언(一言)으로 묘도에 음기를 표해 주기를 감청(敢請)하거늘, 내가 곧바로 그의 손을 잡고 이르기를, 아! 황공이여 졸몰(卒歿)과 장례가 이미 지난 지 두 돌이 되지 않았는가. 지금에 와서야 내가 비로소 알게 되니 가히 그 향리 먼 벽촌(僻村)임을 알겠도다. 내가 차마 말은 못하나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영원히 이 세상에서 공의 형적(形迹)이 없어 진다는 비통을 감당할 수 없도다.

그 계보를 살펴보니 곧 공의 조상 선대는 장수현인이다. 5대조 영의정 익성공의 휘는 희(喜)이시니 국초 많은 명상(名相) 중에서 제일이었다. 증직 우의정판중추부사의 휘는 치신이고, 증직 좌승지 창평현령의 휘는 사경이고, 영암군수의 휘는 응이고, 증직 공조 참의의 휘는 윤탕이니, 이분들이 공의 4세의 선조들이다. 어머니 이씨는 종실 두성령(杜城令) 이암(李巖)의 따님이다. 공은 소년 시에 문장시구가 능하였으나 일찍이 현달하지 못한 것은 난리를 만나 과거에 응하지 못 하였기 때문이다. 실가(室家)를 비인현의 경치 좋은 산수 사이에 축성(築成)하고 호는 송재 또는 칠우당이라 하였다.

이곳에 화초를 재배하고, 대나무를 심어 숙연(蕭然)이 안빈낙도의 사상을 습득하고 있으니 전후좌우에서 공에게 벼슬을 나갈 것을 권유하면 말하기를 운이 있으면 벼슬에 나갈 것이라 하였다. 매월 삭망(朔望)에 선묘(先廟)에 참배하며 제사를 봉양한 후에는 삼가 빈객에게 음식 접대하기를 구차히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입을 것이 없고 춥고 배고픔을 보면 마치 자기가 응분의 책임이 있는 것 같이 의류와 식량으로 구호해 주고, 사람들의 질병을 보면 몸소 경험한 약방문(藥方文)과 상비약으로 이를 치료해 주고, 고향 사람을 만나 서로 학문과 무예를 강론하며 병(兵)·농(農)·공(工)·상(商)을 담화(談話)하여 각자 업무로 삼게 하고, 남과 불평(不平)한 일이 없었다.

경인년에 송당공이 사신의 명을 받고 일본으로 갈 때에 공이 이르기를 ‘나를 이미 양육하여 주었으니 죽고 사는 것과는 관계없는 의리가 있다’ 하고 송당공을 따라 다녀왔다. 임진년 봄에 이르러 송당공이 서거한 후 아직 장례를 치루지 못 하였던 중에 왜적이 달려들었다. 공이 관곽과 의금(衣衾)을 갖추어서 셋길로 빠져나가 평장(窆葬)을 하고 3년 동안 연회와 향락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그 절제와 처신의 수식(修飾)함이 천성에서 나온 것이 이와 같았다.

정유 경자년 간에 총관사 한효순과 순찰사 장만이 공을 소벽(召辟)하여, 군량미와 채철(採鐵) 등을 관장하게 하니 공이 사무처리에 있어 정확판별하였다. 임금에게 사실을 아뢰고 예빈시직장으로 제수하기를 첨주(添注)하니 임금께서 실직(實職)으로 제수하라 명하시어 사실을 주의(注擬)하는 중에 공은 이미 서거하였다.

병진년 봄에 공의 외아들 정직이 명이 이미 하달되었으나 실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상서(上書)하였던 바 그 후 해당 조(曹)에 명하여 공적을 조사하게 한 후 좌승지경연참찬관으로 증직이 내려지고 부인 임씨도 숙부인으로 봉해졌다. 공의 독실한 신후(信厚)가 이미 죽은 후에 나타난 것은 정직이 또한 지성으로 현친(顯親)한 것이니 함께 가상한 일이다.

공의 휘는 줍이요 자는 문보니 가정 경술 3월 13일에 태어나고, 계축년에 별세하니 수는 54이다. 부인 임씨는 본관이 풍천이며 판서 유겸의 손녀요 진사 서신의 딸로 단 1남을 낳았으니 바로 정직이다. 정직은 현감 박자의 딸을 맞아 2남을 생하니 이름은 대명·석명이다.

명하여 가로되 관단(款段)한 말을 몰고 하택거(下澤車)를 타고 환향(還鄉)하니 향리 사람들이 출세하였다고 칭찬함은 이는 마소유(馬少游)가 평생을 두고 말한 것이나 나도 공을 위하여 크게 칭찬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장수황씨족보).

7) 이덕온사적비(李德溫事蹟碑)

- 위치 : 보령시 주산면 증산리 시루피
- 건립 : 1997년 6월
- 지은이 ; 남규희(南奎熙)

右承旨李德溫事蹟碑

公姓李諱德溫字土和龜村其號也系出璿潢世宗莊憲大王別子臨瀛大君諱璆玄孫曾祖輪山君諱濯祖益州君諱枝考湖南君諱雷妣贈縣夫人慶州鄭氏郡守漢元之女以明宗十七年壬戌生公公生

而穎悟於書過目輒誦及長博涉群書無不絜綱而領會宣廟乙酉中進士辛卯登文科壬辰四月日兵大舉來侵由東萊直擣京師朝廷震駭上決去邪計乘陰雨西幸公單騎扈駕大臣請建儲以繫人心上允之立光海君爲世子十月拜公學諭命陪世子入龍岡俄而海軍捷報連至明軍克復平壤權公慄大破幸州敵敵棄京城南徙癸巳十月公陪大大駕還都錄扈聖勳自是歷官禮兵曹郎司藝典籍修撰弼善善間出爲北青判官星州牧使丙午十二月移拜東萊府使時承大亂之後瘡夷未蘇兵餉俱罄公到府上疏陳安民備邊策上嘉納丁未入爲同副承旨尋陞右承旨戊申二月一日上大漸命大臣入廳遺教李元翼李恒福李德馨尹承勳柳永慶奇自獻諸大臣承命入侍上氣絕已久承傳色金鳳以大妣命傳一封書皮面書柳永慶韓應寅申欽許箴朴東亮徐洵韓浚謙七臣名而內書日不穀忝位自罪臣民今忽得大疾修短有數死生有命夫復何恨但大君幼冲不及見成長以此耿耿予百歲後人心難測萬有邪說願諸公等愛護扶持敢以此托之諸臣覽畢旋即封入光海即位大疑遺教爲大君後日地又疑臨海君長而逼志忑不安於是群奸揣知微意交章講竄柳永慶及臨海君朝議甚峻右議政沈喜壽領中樞李德馨大司憲鄭述上疏請全恩鄭仁弘受希奮爾瞻密喉上筭曰逆魁當加天討奈何前恩之說發於其間此非護逆則不有殿下也主喜甚擢拜仁弘右贊成曰卿疎可與日月爭光時中外洶洶永昌臨海之禍迫在眉睫公在喉院直入諫曰殿下初踐寶位未聞有德政鎮服人心唯以永昌臨海之根逼爲慮群小因乘機鴟張胥動以浮言必欲置殿下於不孝不友之地彼斗筲輩固不足算而天下後世謂殿下何如主也主勃然怒即命削黜爾瞻仁弘欲陷公不測畏清議而止公退隱于龜村先塋下自是賊臣當國一舉而殺臨海再舉而殺晉陵三舉而殺永昌四舉而殺綾昌五舉而戮延興之尸而廢母之論成噫亦慘矣公自廢處以後絕口不言時事日與村翁也老碁酒自吳公之季叔父灘隱公以三絕鳴于世亦棄官歸叔姪同開晨夕觴咏以擄其忠憤湮菀之思每興到意闌頂一簞笠掉小舟往來於廣津東湖之間人莫知其爲朝官也逮夫癸亥三月二日仁廟改玉翌日復公職公上疏亟正掘陵諸賊之罪辭嚴義正朝廷肅然繼而奏曰申本庸愚擢策平時出入臺侍歷敷清班往在戊申忝厝銀臺當宣廟賓天之日得預攀髯之列廢朝踐祚之初獲被削職之譴中間散置十六年于茲矣幸置聖上龍飛九五昆蟲草木莫不涵育於再造之仁臣亦得蒙天恩復敘舊職再見天日死無所憾第以臣今年六十有餘疾病沈痼百藥無效竊聞溫陽之地溫水出焉沐浴可以痊可云伏願殿下特給暇由使之往來沐浴則臣庶幾須臾無死得見太平之日月上覽之側然允之公即盡室大歸于藍浦之甌山別墅灘隱公亦營菟裘于公州之萬舍寄相距三舍地蓋叔若姪俱老白首相依爲命不欲骨肉遠離計也是年九月上聞公病可特除蔚山府使使之便養不就翌年甲子三月李括反犯京師大駕南巡次于公州公聞變馳詣幸在四月十七日扈駕還京上欲糜公以好爵使不遠離左右公即呈辭下野上眷戀不置每問公安在公杜門謝客托疾自廢日哦詩著書以終老有遺集二十卷類語四十卷藏于家乙亥十月十五日考終于正寢享年七十四葬于甌山左麓良坐之原公性聰明強記少從塾師學已聞風雅源流古今聲律高下之辨知所取捨而其識解透悟所自得者多既長屏去聲色射獵之好專用力於文詞蓋自詩三百篇楚辭

文選以及盛唐諸家無不沈浸酣飫將欲賁飾笙鏞以鳴國家之盛而一厄於龍蛇之亂再厄於昏朝之暴蹠踐戎馬之間竄逐荒寒之濱未嘗一日安於廟堂之上而公且窮之久而老矣其發於吟咏者多憫時病俗怨懟不平之思後之讀公詩者莫不掩卷太息泫然不知其涕之流落也然觀其在萊府條陳利弊招散亡籌防守則有寄託方面之材明辯倫常犯顏廷諍毅然爲昏朝之勁臣則有砥柱中流之節起廢入朝首討掘陵諸賊極其痛切則嚴於邪正之分仁廟慰留竟不出仕退處山林超然遐舉則明於去就之幾是皆人之所難能有也其文章英華之發於外者特其餘事耳烏足以此而多公哉配淑夫人順川朴氏護軍光元之女生三男長曰慎徽江界府使次曰慎徵丙子亂後常着平涼子不復出仕次曰慎微早卒慎徵娶贊成南復始女生子世龜能世其家

資憲大夫宮內府特進官原任奎章閣直學士侍講院副詹事宜春 南奎熙 謹狀

8) 김해수묘갈(金海壽墓碣)

- 위치 :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장곡
- 건립연대 : 조선후기
- 지은이 : 송시열(宋時烈)

通訓大夫牙山縣監金公墓碣銘 并序

昔新羅氏三姓相繼立。其金氏王子有別籍于光州者。其後連八代爲平章事。世號其洞爲平章。公其平章洞人也。與文元公先生爲同貫。而莫知其始分。都萬戶成雨。樂保寧土俗。遂居于青蘿洞。以討倭功。號稱將軍。自是世居青蘿。青蘿之金。其稱蓋久。高祖克堅生員。以長者見稱。曾祖鄰輔部將。善飲酒以自廢。祖忠恕有學行。考應天。以公從勳。贈持平。持平遊士亭李公門。李公期以遠到。兩世皆早沒。妣安氏。左議政貞愍公塘之曾孫。其考璠。以學行有名。公以萬曆辛巳。生於漢師之青坡里。五歲。卽喪二親。祖妣尹氏鞠養之。鳴谷李公奇其異常而曰。此子可教也。無何鳴谷沒。公從其子慶倬遊。自是聲譽益著。已而中鄉解。會尹夫人沒。公嘆曰。更爲誰榮。況世道大變。不可以汚身。遂廢舉樂弛置。蓋廢朝殺弟讎母時也。里閭有武人。其女入後宮。威福甚張。衆皆媚承。公唾鄙不與言。或以禍福開公。公曰。有命焉。時鄭畸翁弘溟以名家子弟。抗厲少許可。獨與公爲知己友。又遊文元公門。文元公甚愛重之。仁廟反正。鄉人薦其才行。李适叛。隣有聚徒應賊者。人心失其去就。公明言順逆之理。聽者喘汗。始知其向背焉。公遂倡率同志。從文元公迎拜大駕。事定。不以爲功。而向時幸亂之人。公多所掩匿覆蓋。人益賢之。守夢鄭公曄薦公于朝。丁卯胡變。文元公爲號召使。以公爲數邑倡義官。公竭力殫誠。勞勩備至。用文元公薦。授社稷署參奉。公始入京。聞人魁士。鮮不與遊。陞司饗院奉事。本院專掌進御之物。

公每監進。既已則不問其奇餘。吏輩服其清慎。遷濟用監直長。奸吏憚公。不可欺誣。以事罷去。公將歸。諸公惜其去。以詩酒送于江上者甚衆。仁穆大妃薨。國葬都監差公爲監造官。蓋伸其前事也。同僚皆以捶楚督急爲能。公獨不動聲色而事集。陞爲活人署別提。除青山縣監。政務慈詳。亦不畏強禦。事有不可。雖大官交言。一不以綴意。國家時有量田之舉。公能第上下。以實不欺。因是爲奸猾所陷。民間公罷歸。老幼攔道流涕。量使聞之。治其奸猾者罪。時朝廷屢經變故。中外相疑。有言湖西無賴輩結黨聚某處。勳威以內旨驗問公虛實。公對以無是。或怵之曰。他日事有不可知者。則公罪不可測。公曰。雖死。豈可希旨。以疑事誣人乎。丙子之亂。金文敬公將募兵勤王。要與公同事。又御史差公攝連山縣監。時賊勢益急。公已先避兵島中。道路梗塞。兩不得赴。俄有以行在事來傳者。公北向痛哭。屢日廢食。時湖右被兵尤甚。朝廷欲蘇其殘。選廉良吏。以公爲牙山縣監。卽除去威刑。專以澤物爲意。巡使以過於仁柔爲言。公猶不改。巡使曰。此老不以得失關心者。已而臺諫以徒善無能劾罷。物論惜之。公既歸。尤泊然無意於世路。人或勸之仕。則曰。豈可再辱乎。庚辰二月。昭顯世子自質館東歸。公曰。臣子悲喜之心。自不能已。遂俶裝西行。迎拜於駕前卽還。以是年三月二十二日卒。老幼貴賤。咸來哭弔曰。善人沒矣。公嘗曰。人以忠孝爲心。其本立矣。故終身佩服其先訓。始爲縣。年已五十矣。常深不泊之悲。與人言必流涕。其持身以正而接人以和。人有犯之者。則務爲含忍。然於財利衆趨之途。則處之甚截然也。嘗爲土亭立祠。有人乘勢。欲以不可於衆者賂享。公峻斥之。人皆代怖。而公固悠然不以爲意。嘗慕金河西義。遇仁廟諱辰。必素食。內弟有貧窮無託者。取而育之。以至舍業而後已。嘗語其子榮後曰。吾與爾俱以孤獨。顧先祀無託。故不能遂殉國之志。此吾所恨也。公諱海壽。字深源。夫人龍仁李氏。己卯黨人僉知弘榦之曾孫。父貞敏監察。公以嘗有原從勳。贈承旨。夫人受眞誥。男卽榮後參奉。四女婿僉使趙時亨。佐郎尹玷。忠義衛李後泰。府使閔昇也。側室男曰萬後參奉。娶縣監崔應夏女。生一男三女。男曰汝南奉事。女適朴泰長。具文海。金斗星。僉使男曰貴中。女適柳重發。佐郎男曰世興。女適李命深。李猶龍。餘幼。忠義男曰萬一。余從兄太僕宋公時榮律已甚嚴。見人有苟賤。若將浼焉。只與公相守窮。日夜若樂而不厭者。余因得納拜於公。竊意公取友端而愛刺甚也。後太僕公竟殉節於江都。未幾。公亦下世。今參奉託余以公墓之銘。俯仰疇昔。爲之流涕而銘之。銘曰。

金氏之先。其實羅王。及籍于光。世有平章。派別于保。是爲將軍。將軍九世。及公有聞。厥聞維何。孝義爲根。既有其根。條茂枝繁。業成于家。行著于群。存有令譽。沒有餘祉。我銘公墓。庶曰不愧。

9) 이시방신도비(李時昉神道碑)

- 위치 :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 건립연대 : 조선후기, 1958년 김노동 음기
- 지은이 : 송시열(宋時烈)

延城君李公神道碑銘 并序

延平府院君諡忠定李公諱貴。有三子。其李曰延城君諱時昉。字季明。延平有忠孝大節。嘗上疏訟粟谷諸賢之誣。而斥李山海之姦。天啓癸亥。與諸子同昇平金公瑩及忠義諸公詣西宮。奉仁穆大妃復其位號。以大妃命廢光海主。仁祖大王卽位。上承宣廟大統。於是彝倫復正。宗社再安。可謂不世之豐功大業矣。策勳並啓封號。丁卯。有虜警。先是公持大夫人心制。因适亂起復。出守州郡。爲工曹參判。至是上將幸江都。以公爲巡檢使。先往江都。整齊軍事。金公瑩以體使至。不得入軍門怒甚。

公曰。自 有主將約束。雖大駕至。必待標信而開門。大駕至。以命專管八路軍餉。時有訛言虜已入都城。公單騎馳往。歷謁宗廟。定疊亂民。船運用物。以至行在。戊辰三月。爲廣州牧。兼防禦使。遞入爲漢城府左右尹。癸酉。忠定公沒。丙子。以羅州牧使。陞爲本道監司。時朝廷調發南兵。以戍關西。公請募兩



이시방신도비

西民爲兵。而南方則出賦以餉之。朝廷不能用。時虜警已啓。公築笠巖城。以備緩急。其十二月。虜騎猝迫京邑。大駕幸南漢。公悉以軍兵屬兵使先發。又湊合奇零以繼之。議者皆言宜留本道。以爲兵使聲援。且鎮人心。公泣曰。主上安在。忍出此言。當決死於南漢城下矣。遂至安城。時諸道兵相繼敗衄。本道兵使金俊龍始頗據險殺賊。卒亦敗走。丁丑正月。公以兵授中軍。還駐公州。收合散亡。聞二元帥方在楊根之迷原。欲往赴之。至清州界。聞媾成虜去。上回鑾。公馳進請罪。上特命姑赴任所。及臺啓再發。遂配定山。庚辰蒙宥。旋拜濟州牧使。光海主先已處島中。辛巳七月沒。海路險遠。難於稟知。公率島中諸官。素服入臨。親自襲斂。厚庀無缺。仍請擅輒罪。時議皆稱處變之善。壬午病遞。冬爲廣州守禦使。拜刑曹參判。因事罷。甲申。復爲守禦使。公以爲伯氏方摠畿輔戎務。於事不便。陳情力辭。適有沈器遠逆變。而有言廣州階石下有凶書。意指公。公同伯氏待命。廷議反疑得書傳播之人。請拿問。上慮事漸難處。遂兩解之。自是公益加驚懼。辭職益力。上堅不許。後謂筮臣曰。往年凶書時。予謂延平之子必不然也。豈可疑我忠臣也。公適入侍。起拜涕泣

曰。臣兄弟出於凶書。臣等欲死而未能也。今承聖教。萬死無恨。上曰。卿等子弟使之處心。皆如卿等可也。乙酉。清人來告飢。嚇使輸粟。公領其事。卒亦無患。夏。昭顯世子薨。公受命敦 匠。爲戶曹參判。歲適大侵。公主賑濟事。皆得宜。公常以爲便民之策。莫先於大同。粟谷於海西。每結收米五斗。公私兩便。今則只收三斗而亦無不足。請先試於兩湖。疏入。上意善之而不果行。其後潛谷金相公堉竟用公議。湖民鼓舞。至於立碑頌德。遞爲刑曹參判。先是陞嘉義階。丁亥。以兵曹參判陞資憲。復管賑事。戊子。拜工曹判書。以前年賑廳所餘。別置常平廳。仍管其事。移判刑曹。己丑。受僨命西出。梟示邊將之行間於虜譯者。蓋慮蟻穴一開。堤防必潰也。五月。仁廟上賓。差山陵提調。以華元樂舉爲戒。一主於儉 約。九月。判刑曹加正憲。以副使使燕。時以流言。事機叵測。至則監守甚固。詰問本國事情。窘辱百端。公以死抵距。虜將以萬騎東出曰。如此而尚可諱乎。公又不動。最後以汗言謂之曰。金尙憲。趙綱。金集等。主論盡逐舊臣。悉用新人。將欲何爲。又問主論臺諫。公曰。我亦先朝舊臣。寧有是理。臺諫遞易頻數。不能記得。蓋公絕無怖心。故虜終不能屈。公聞清使將東出。密通本朝。使之先機善應。清使至。只取宗室女以去。而清陰諸公得免焉。上又特授守禦使。時延陽方掌訓局軍兵。公又固辭如前。移工曹。復還刑曹。有訟內奴婢者。上欲重究。公爭之曰。本曹詞訟。內奴婢十居五六。此非聖世事。嘗因臺彈。上答公辭疏曰。卿之盡誠。反致人言。移戶曹。專以革弊爲心。金自點謀逆伏誅。言者構公以親附逆臣。上曰。不諒其爲國盡誠。遽爾請罪。予甚駭異。大臣請姑遞度支。上又曰。若遞其職。是棄之也。司諫金佐明以臺啓爲非。金相公堉白上曰。其家三父子。世傳忠孝。豈有如臺啓之理乎。上曰。其家之世傳忠赤。予嘗歎賞。上既斥主論之人。而亦罷推公以鎮之。公久詣金吾待命。至是始出江舍。略進推緘曰。臣始與器遠。自點同參勳籍。死生以之。何事於親附。至於自點則兼有連姻之分。逆狀未著之前。不能隨衆憤罵。是常情之所不免。若以爲終始眷戀。則冤枉極矣。俄而敘爲籌司堂上。則入謝而還出江外。拜戶曹判書。時客使將至。卽命牌招。公不得已出仕。虜使去後卽呈告。批曰。卿家忠義。爲世所知。一時私論。誰敢逞焉。有罪無罪。惟予在。曷敢有越厥志。公遂惶恐視事。兼守禦使。因災異進言曰。弭災之道。不外於反躬修德。因陳時弊甚切。上嘉納。又進言曰。民之苦樂。係於守令賢否。雖未得一一擇差。大邑則請勿論職秩高下而差遣焉。又言救民之策。莫如省浮費存贏餘。以蠲民役。宮家橫占之弊。亦宜禁斷。上允之。時虜使頻仍。市民因弊。公貸銀布。使之取利。而只收其本。市民賴之。江都儲待。亦以便宜從事。又以爲司贍奴婢摠十九萬。而今收貢者只二萬。請刷出其隱漏。以補經用。國初雖行推刷。而又有辨正之規。今不可不並行也。以使事將西出。上使延陽權察公職事。亦異數也。兼摠管金吾。又移刑曹。以訊囚忤旨遞。乞暇省墓于湖西。忽有虹變。上下洶懼。卽還朝疏陳民瘼。又條上南漢機宜。又陳

常平廳罷置便否。又與大臣爭論錢弊。復判刑曹。以事遞。遞復入者凡三四。間以宗室訟。上責公無餘地。閔公鼎重疏論其未安。至曰漢高慢罵。四皓避匿。上面諭公曰。予今省愆矣。卿亦隨四皓而去。則誰與爲國事。蓋上歡謔之意藹然矣。時公西僦頻仍。熟見關防蕩然。嘗入侍謀議密勿。文正公宋浚吉以歲儉請減沿海米。公請均減峽邑。又吏胥與市民同爲姦濫。而市民金多獨免刑訊。公抵距僚議而並訊之。物情稱快。時有湖南大同議。公請如湖西。米數十斗之外。不可有加。而支用之節。一如皇明之制。俄而以事遞刑曹。爲工曹判書。復以湖南大同。忤大臣意。請急尤切。上每加慰諭。又命與諸臣改定貢案。蓋上於是時極欲更張宿弊。恢弘規度。公亦盡心區畫。以答隆知。而忽抱弓劍之痛。深山窮谷。無不奔走悲號。而公則有甚焉。每獨處涕泣不能已。顯廟卽位。兼判義禁。復議湖南大同。又方繕修南漢。而公已病矣。宋文正往問。則精神不亂。與語如平日矣。庚子正月十六日。以訃聞享年六十七。上特命禮葬。墓在保寧牛峙坐甲之原。自忠定公始雪父師之誣。終著宗社之功。蔚然爲文獻宗臣。而公與延陽樂有而喜書。爲文有氣力。弱冠取解。居上游。俄見試取不以公。輒自己專意經訓。立朝幾四十年。歷事三朝。盡心竭力。克勤克虔。受知君上。故歷變履險。身名不瑕。至其衰暮。誠盡而智益。髮短而心長。其所謨猷。皆可遵守。居度支則損上而益下。論戎兵則形隱而實著。然其區畫。動遭緯繻。竟不免齋志而沒。可勝歎哉。卒之日。上自搢紳。下至輿僮。無不歎惜齋咨。雖其素不悅者。其忠勤之實則終不能瑕疵。公可謂賢矣。延安之李。始自唐中郎將茂。茂從蘇定方平百濟。留仕而受籍于延。其後世爲衣冠族。本朝文康公石亨。以文章勳業。爲世祖名臣。越三世有諱。游趙靜菴門。選爲玉堂南床位。祖諱廷華。不仕。忠定公夫人張氏也。公配李氏。婦德甚備。其考學生守儉也。先公七年卒。四男恢。慣。恒。懣。恢。恒皆牧使。慣參判。懣縣監。三女適生員韓以明。承旨金世鼎。縣監李週。參判男義著。益著。奎著。益著縣監。牧使男彥著。爲後於伯父牧使公。二女適洪重楷。鄭覺先。縣監男謙著。升著。女適金鎮玉。內外曾玄。多不能盡錄。余自戊戌秋。孝宗大王猥處以帷幄。公每與從容。無非急先之務。己亥四月。同受明命。別設局議改貢案。而龍馭上仙。數月血泣相視而已。余旣去國。而公又逝去。追思疇昔。涕不勝拭。此豈獨爲私而已。公旣沒。猶夢告諸子以國事。古人云死而後已。公可謂死亦不已也。諸子守職繼述。皆如仁廟聖教。忠定公可謂有子有孫矣。今參判諸公託以墓道之文。顧何忍以老病辭乎。銘曰。

於維延城。忠定之胤。延陽之季。癸亥之歲。再安宗社。克明天理。繫公所助。人謂難兄。父曰能子。一家三勳。並耀麟閣。人莫敢擬。無平不陂。運值陽九。天翻地圯。公曰嗚呼。若之何其。惟盡我義。孜孜矻矻。忘寢與食。炳然忠智。孝廟初服。事有至難。於焉奉使。牢閉孤館。嚇喝萬端。不懾不懼。死拒拘問。鼎鑊無奈。卒全士類。從茲以往。國益艱虞。

曷酬聖志。惟民惟兵。于內于外。城池械器。心有人我。事異做說。孰知我瘁。暮年誠心。有進無返。死而後已。循初迄終。究厥云爲。公耳國耳。我撮其槩。以鐫斯石。以示無止。公歿後嘉其忠勳贈之以相諡之以忠靖朝家崇報之典恨者久矣 今祖馨氏獨自出力克竣刻役使此大碑屹然有立於是乎無憾矣神道之文既有兩宋文正之撰與書石亦運置用衛墓道其追遠之誠豈餘人之所可及也畧書立碑顛末如此墓階下未遑刻豎而書則有逸實爲後承之

1958年 戊戌 4月 上浣外裔安東金魯東謹書

10) 이무묘비(李袤墓碑)

- 위치 : 보령시 대천동 갈머리
- 건립연대 : 조선 후기
- 지은이 : 이수하(李秀夏)

果庵公墓表陰記

公諱袤字延之號果巖麗季有稼亭牧隱兩先生爲公十歲九歲祖皆入中朝爲翰林學士以道德文章名震華夏所謂天下皆知有韓山是已議政公諱山海號鵝溪參贊公諱慶全號石樓寔公之祖考皇考也妣安東金氏校理諱瞻女穆陵庚子生公公自幼聰穎絕倫議政公異之曰必帶吾犀帶矣昏朝廢舉仁祖改玉乃應命赴舉中別試丙子後以不得扈從不肯仕屢被徵召內而春坊臺閣疏言正君心輔儲貳外數郡俱有遺愛碑至孝廟賓天議禮者誤邦禮眉叟先生抗訴釐正以嚴宗統公亦與孤山尹公構疏草翌日尹公獨上其疏及尹公之遠竄相笑而別甲寅王大妃禮陟大王大妃服制斷以衆婦服顯廟大悟大漸之除有憑几遺教肅宗嗣位擢許文正公入中書群賢竝進公其一也屏居田廬十二年之餘躋大諫吏參國子長右參贊辭疏之批曰卿之文學飽聞久矣至拜工判禮判耆老社丕擬乞骸庚申戚臣構大獄驅搢紳入一綱公亦配北關至今爲黨禍者此也噫公每誦四勿箴與人言必曰道不同不相爲謨如非正氣所得豈能若是就此一款可以服公平生學力之深操矣壬戌上特教量移癸亥旋夢有還翌年甲子考終于保寧冠村正寢享年八十五子孫多不能記而今百許年後公之宗孫灝溟鳩財豎石請陰記於小子小子年衰文拙豈敢形容大君子德業之萬一哉謹就致祭文數三句特揭之固知僭妄之爲罪致祭文曰秋金氣義夜玉神精稽厥源淵名祖暨父已亥遏密柄臣亂統諸賢抗訴卜黜四種群起恭媚謂卿主張逮予臨阡先志斯述大哉王言小子復何敢贅說也

從五代孫漢城左尹秀夏 撰

과암선생묘갈음기

공의 휘는 무(袤)요, 자는 연지, 호는 과암이다. 고려 말에 가정 목은 두 선생이 계셨

으니 공에게 10세, 9세조가 되신다. 모두 중국 조정에 들어가서 한림학사가 되었고, 도덕과 문장으로 이름이 중국 천지에 떨쳤으니, 이른바 천하가 모두 한산(韓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곧 이것이다. 의정공의 휘는 산해요 호는 아계이며, 참찬공의 휘는 경전이며 호는 석루이니 실로 공의 조부요 아버님이다. 어머니는 안동김씨 교리 휘 침의 따님이니, 목릉 경자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려서부터 총명이 뛰어나니 의정공이 이상히 여겨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 서대(犀帶)를 띠게 될 것이다 했다. 광해조에는 과거를 폐하다가 인조가 반정하자 비로소 명령을 받고 과거에 응하여 별시에 합격했다.

병자 이후에 호종하지 못했다 해서 즐겨 벼슬하지 않다가, 여러 번 부름을 받아 안으로는 세자시강원과 대각에 있으면서 소를 올려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고 세자를 도왔고, 밖으로는 여러 고을에 나가서 모두 유애비가 있었다. 효종이 승하했을 때 예를 의논하는 자가 나라의 예법을 그르치자, 미수선생이 소를 올려 바로잡기를 청하여 종통을 엄하게 했다. 이때 공은 고산 윤공과 함께 소를 초 잡았는데, 그 이튿날 윤공이 홀로 그 소를 올렸다. 이 소 때문에 윤공이 멀리 귀양 가게 되자 서로 웃고 작별했다. 갑인에 왕대비의 예를 대왕대비로 올려서 복제를 중부(衆婦)의 복으로 결정짓자 현종이 크게 깨달아 병환이 위중했을 때 궐에 의지하여 유교(遺敎)를 내리기까지 해서 숙종이 즉위하자 허문정공을 발탁해서 중서(中書)로 들어가게 하자, 여러 어진 이들이 모두 조정에 나가게 되었으니 공도 그 중의 한 분이였다.

시골에 물러가 있는 지 12년이 지난 뒤에 대사간·이조참판·국자의 장관·우참찬에 올랐을 때 소를 올려 사양하자 비답을 내리기를 ‘경의 문학은 익히 들은 지 오래이다.’ 했다. 공조·예조의 판서에 오르고, 기사(耆社)에 들어가자 소를 올려 물러가기를 청했다. 경신에 척신이 큰 옥사를 꾸며, 진신(摺紳)들을 몰아 한 그물로 잡자 공도 역시 북관으로 귀양 갔으니, 지금에 이르기까지 당화(黨禍)가 된 것이 곧 이것이다. 아! 공은 매양 사물잡(四勿箴)을 외웠고, 사람들과 함께 말을 할 때 반드시 말하기를 ‘도가 같지 않거든 서로 일을 계획하지 말라’ 했으니 바른 기운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면 어찌 능히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이 한 가지 일만 가지고서도 공의 평생 동안의 학력(學力)의 깊은 조짐에 심복할 수가 있다. 임술(壬戌)에 임금이 특별히 양이(量移)를 지시했고, 계해에 용서를 받아 돌아와서 이듬해인 갑자에 보령 관촌 본집에서卒하니 향년 85세였다. 자손은 많아서 기록할 수 없고, 이제 백여 년이 지난 후에 공의 증손 호명이 재정을 마련하여 돌을 세우고 음기를 소자에게 청한다. 그러나 소자가 나이 많고 글이 서투르니 어찌 감히 대군자의 덕업을 만분의 일인들 형용할 수 있으리오. 이에 삼가 치제문 몇 구를 취하여 여기에 실으니 진실로 참람되고 망녕된 죄를 알겠다.

치제문에 말하기를, 가을 금(金)처럼 기개가 의기롭고, 밤의 옥처럼 정신이 정밀하다. 그 근원을 상고해 보면 이름난 조부와 그 아버지가 있도다. 기해년에 일이 막혀서 권세 잡은 신하들이 대통(大統)을 어지럽혔도다. 여러 어진 이들이 소를 올려 네 사람을 내쫓았도다. 무리들 시기하고 일어나 그 일을 卿이 주장했다고 했네. 내가 즉위하게 되자 아버님 뜻을 여기에 말하는도다 했으니, 크도다 ! 왕의 말이여 ! 소자가 다시 감히 무슨 말을 하리요.

종5대손 한성좌윤 수하 지음 (한산이씨족보).

11) 이유민신도비명(李裕民神道碑銘)

- 위치 :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 건립연대 : 1905년
- 지은이 : 김조순(金祖淳)

工曹判書贈左贊成李公諡狀(正憲大夫行工曹判書貞敏公神道碑銘)

英宗大王四年戊申春嶺南賊起將犯京師前工曹判書耆社李公時在湖西之藍浦縣慨然謂悔軒趙公觀彬曰吾雖老且病義不可偃息在家願與君同赴國難時道梗不能通公匹馬崎嶇山谷間詣闕奔問難已見上上溫旨畱之拜都摠管知義禁時年冬十二月得疾卒壽七十有一訃聞輟朝賜祭賻如例用奮武原從勳贈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知經筵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明年歸葬于藍浦篁洞壬坐之原從先兆也英廟嘗語及公教筵臣曰予恨未及枚卜此人嗟惜久之公諱裕民字寬甫舊字德裕青海之李出門下侍中贊成事襄烈公諱之蘭佐我太祖開國爲元勳以平建州功皇朝特封青海伯本朝仍以爲青海君配食太祖廟庭自是六世而有諱麟奇號松溪有文章節行工書法官同知中樞府事寔公高祖曾祖諱明老祖諱文柱官司僕僉正倜儻有志癸亥反正時與靖社諸臣多所規畫季父青興君重老亦參勳籍而公終辭不與世與趙滄江涑李掌令迥竝稱後贈兵曹參判考諱翮僉知中樞府事贈左贊成妣慶州李氏天休堂夢奎之後進士承孝女贈貞敬婦人皆以公貴也公以孝宗戊戌生少聰悟絕人讀禹貢一遍卽誦或勸治明經業一年盡七書肅宗丙子始中第入槐院序陞成均館典籍遷兵曹佐郎出監扶安縣監以治叙聞朝廷賜表裏獎之既三考以司諫院正言召移司憲府持平又拜洪州牧使勤於字惠嚴於東濕州有大堰曰合德灌民田屢千頃某宮家奉王旨將折受是地公力爭其不可牒觀察使至再三觀察使爲請於朝而特寢之州民頌德因是又承表裏之錫旋移臺職大臣以循良請仍任既去民豎銅碑以思之復在憲府以微事被賊臣趙泰億所搆蓋以趨向異見忤然也丁亥遭贊成公憂吉除憲職庚寅陞軍資監正出爲忠州牧使州地大俗悍吏猾號難治公正名分抑橫濫簿書立決無所滯又使訴者拘牒徑造庭自盡其情士民

畏而愛之吏不敢售其奸政既成觀察使當考績以百里太古爲目倉糴欠七萬餘石軍額缺且半千督其逋以罄虛簿填其代以免白徵不用杖不煩搜括巡撫李公晚成亟褒於朝上聞而嘉之命陞通政階癸巳拜義州府尹府臨邊上多富商巨賈每使行赴燕取官銀貸之分其殖以爲例公嚴塞之又立徵逋銀屢萬府中肅然明年擢拜本道節度使臺臣言其驟陞祖淳先祖忠獻公白上曰臣前年自燕回至遼東聞彼人稱新灣尹爲良牧及到鳳城始知李某之爲尹用是人爲節度使豈不使邊門增高乎然既有人言請仍灣府從之未幾入爲刑曹參議歷承政院同副承旨陞右承旨俄拜水原府使又以觀察使褒賜表裏公之蒙是典前後凡三上嘗作代柱帖公名在循吏中云復入銀臺已亥出爲驪州牧使先擢咸鏡北道節度使文官之居是任者李清江濟臣後始有公也至則謹邊備繕戎器恤軍民威名遠播地與建州隔一衣帶水種落之漁獵者不敢南向先春以內透無竊蓼之患焉公偉_仁美髯器度凝整神彩雋拔望之儼然有不可犯之色在官御下甚嚴吏校至不能識其面其威重如此辛丑以漢城府左尹召還尋移刑曹參判卽景宗初元也群凶得志以建儲爲案首竄四大臣將殺之次逐群賢之在廷者賊臣李眞儒遂誣公與寒泉李文正公同日被削出旣而誣獄大起忠良屠戮殆盡公自東郊轉之藍浦鄉廬杜門而臥若將終身甲辰英宗卽位進黜羣兇諸誣悉白公亦蒙叙拜同知義禁府事漢城府左尹掌隸院判決事時當更化之初丈巖鄭文忠公濬爲首相慨然將登進善類之貴存者援清城金公例擬公以訓練大將廟議不一竟未果論者惜之丁未以待從臣父陞嘉義又因大臣言陞資憲上特授公兵曹判書臺諫以驟陞論遞拜工曹判書入耆社是秋時事又變公不樂在京更歸湖鄉明年果有戊申之變初配江陵崔氏宣教郎行遠之女贈貞敬夫人先公三十九年卒繼配大邱徐氏通德郎宗誼女後公二十一年卒有一男四女男榕文科承旨女金錫福金應燁崔夫人出女徐寅達金穰徐夫人出承旨生三男七女慶泰劬正慶恆贈持平慶復女洪啓承縣監鄭述煥朴漢杰趙運慶祖淳伯父履基牧使金說澤監役宋繼孫金錫福一子一女金應燁二子三女徐寅達無后金穰繼子慶泰四男鳳達教官鵬達羽達文科承旨翔達慶恆五男星達生員中達天達雲達昌達一女金履庠慶復一男漸達二女金晦柱申光緝參議內外曾玄摠百有餘人公內行純備常以大夫夫人不及養爲至痛事贊成公定省之節志物之養洞屬無方及居憂哀毀踰節廬墓以終三年伯氏有貞疾事之如父凡藥餌衣食之供一皆躬給殯斂葬祭情文咸至其子又早死公憫其孀鳩俸祿以置祭田或有所匱必傾儲而贍之教子弟甚嚴未嘗假以色辭對之必問讀書勤慢禁妄言語交遊常曰父子雖主恩恩勝則必狎狎則誨不入也莫如以嚴爲先使自幼知父兄之可畏則提撕勤戒蔑不從矣平居恂恂有長者風日必早起盥櫛掃室端坐竟夕無跛倚治郡異績甚多人皆以神明稱之公絕口不自言雖子弟亦不敢問知也與人交汎愛而不設畦畛又能急於周卹寒者脫新而衣之飢者絕少而食之如不及也入朝三十餘年屢試中外自微至顯小心謹畏常以忠清爲立身之本雖冗簿漫訟必類首盡知不以名位之尊或有所忽不肯爲家人業屢典雄府歸裝輒蕭然時復稱貸家人或見於色公曰我本寒士少時僑人矮屋子使小奚婢拾松葉易米而食今受國厚恩持梁刺○亦多年矣忍更持官錢殖私產以爲妻孥地乎且以田園貴子孫何如清白傳家自龍灣

歸茅茨盡捲屋不蔽風雨或勸以易瓦公笑而不答退漁金公鎮商見公所爲每歡曰眞宰相也教官公將請易名于朝謂不佞通家而職太史屬以狀竊惟公之才器德行自有大過人者使公而盡其所蘊治可以垂紳笏談謨謨坐鎮廊廟之上危可以奮威武任捍禦爲國家干城然歷事三朝非不遇也起家至列卿非不顯也而其所試常在於治郡按闈之末終未得樹功名耀事業於一時何哉雖然公進於朝則忠獻文忠之所薦引也遜於野則辛壬諸賢之所遭也退漁名流也心服之不暇元陵明主也追憶其未究用然則雖并其循良之名而抹撥之固已傑然爲當世之偉人矣謹撰次如右以俟太常之裁擇

崇禎紀元三甲子原任吏曹判書兼知經筵實錄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提學知成均館事同知春秋館事奎章閣提學判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輔國崇祿大夫領敦寧府事永安府院君 安東 金祖淳 撰

完山後人 李元根 謹書 乙巳 八月 日 建立

이유민 신도비명(李裕民謚狀碑)

영조 4년(1728) 봄 영남의 도적들이 반란을 일으켜 장차 서울을 침범하려 할 때 전공조판서 이공 유민은 기로(耆老)의 나이로 호서 남포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회현 조관빈이 찾아와 이르기를 이인좌 도적의 무리들이 반란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자 공이 분개하여 이르기를 내가 비록 늙었지만 의로운 일에 어찌 집안에서 편히 쉬고 있으리오. 바라건대 그대는 나와 같이 서울로 올라가 나라의 위급함을 구하자 하고 일어나 길을 재촉하였다. 올라가는 도중 길이 험난하여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공은 한 필의 말에 의지하여 험한 골짜기를 따라 분주히 달려 마침내 대궐에 들어가 임금을 배알하고 나라의 어려움을 문후하니 임금께서 따뜻하게 맞이하여 머물러 있으라 하시며 도총부 도총관직의금부사를 제수하였다. 그해 겨울 12월에 병을 얻어 향년 71세로 서거하시자 조정에 일을 멈추게 하고 제문을 내려 조문하게 하고 분무원중훈을 봉하고 의정부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사 홍문관예문관대제학 지춘추관성균관판사 오위도총부도총관을 증직으로 내렸다. 이듬해 남포 황동 언덕에 안장했다. 일찍이 영조임금께서 경연관들에게 공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사람을 일일이 잘 살펴주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하시며 내가 이 삶을 애달프게 여기며 아끼기 오래 되었다고 하였다.

공의 휘는 유민이며 자는 관보이고 그 전의 자는 덕유라 했다. 공은 개국원훈 청해백의 후예이며 고조부 송계공께서는 절개 있는 행실과 문장이 뛰어났으며, 동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고, 고조 휘 문주께서는 사복침정을 역임하였으며 인물됨이 뛰어나 남달리 세 상일에 뜻을 두었고, 인조반정 때는 약관으로 숙부 청홍군을 따라 정사공신들과 함께 기획(規劃)하였으므로 참훈적(參勳籍)에 올랐으나 끝내 사양했으며, 창강 조속(趙涑),

우계 이후원 등과 더불어 교유하였으며 사후에 병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아버지 휘 핵은 첨지 중추부사를 역임했으며 증직은 의정부 좌찬성이다. 어머니 경주이씨는 천휴당 몽규의 후예로 진사 휘 승효의 딸이며 정경부인에 증직되었다.

모두 공의 신분을 높여 주었음이다. 공은 효종 9년(1658)에 출생했으며, 어려서부터 재주가 있었고 영리하여 남보다 훨씬 뛰어나 우공(禹貢) 한 편을 거침없이 그 자리에서 읽어 내려가므로 어떤 사람이 경서를 읽어 그 뜻을 밝혀보라고 하자 1년 만에 칠서(七書)까지 모두 읽어 내려갔다 한다. 숙종 22년(1696) 처음 과거 시험을 보아 대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을 거쳐 성균관 전적에서 병조좌랑에 제수되었고, 외직으로 부안현감을 제수 받고는 규칙을 잘 지켜 고을을 잘 다스리고 있다는 소문이 나서 조정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사간원 정언에서 사헌부 지평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또다시 홍주목사를 제수 받고는 성실과 근면 그리고 은혜로 다스렸으며 위엄으로 단속했다. 이 고을에 큰 연못이 있어 합덕(合德)이라 했는데, 이곳 수천 경(數千頃)의 전답에 물을 대주고 있었으며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것을 어느 궁가에서 임금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을 절수 받았다. 그리하여 공은 온힘을 다하여 관찰사에게 옳지 않음을 역설하고 간청하여 마침내 조정의 윤험을 받아 고을 백성들이 안심하고 편안히 살게 했으니 그 공덕을 찬양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이로 인하여 원로대신들이 어진 정치를 하는 고을 원이라 추천하여 나라에서 표창했고, 임기를 마치고 자리를 옮기게 되자 만류하며 추모하면서, 동비(銅碑)를 세우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랐다고 한다. 사헌부로 자리를 옮겨서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역신(逆臣) 조태구와 언쟁하다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도 있었다.

1707년 아버지 찬성공의 상을 당하여 관직에서 물러나 집으로 돌아왔다. 1710년 군자감시정으로 제수되었다가 곧바로 충주목사로 제수되었다. 이 고을은 큰 고을이어서 포악하고 천박한 관리들이 고을을 어지럽게 하고 있어 다스리기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공은 공정한 명분을 내세워 공평하게 다스려 횡포를 억제하고 관청의 문서는 즉석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재하고, 어떤 일에도 막히는 일이 없었으며 또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송사의 소장을 들고 관청의 뜰로 들어서면 스스로 뛰어나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실상을 감안하여 정성으로 처리해 주니 관리들로 감히 간사한 꾀를 부리지 못하여 정사가 바로 펴졌다.

하루는 관찰사와 백리 밖에 있는 옛 유적지를 자세히 살피고 돌아왔다. 또 한번은 곡물창고에 있는 쌀이 7만여 석이나 없어졌다. 군량미로 쓸 쌀이 태반이나 부족하게 되자. 공은 즉시 그들을 잡아들이게 하되 조금도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수색하여 잡아들여

형장을 쓰지 않고 자백을 받아 헛되게 꾸민 장부를 바로잡고 부족한 양곡을 채워 매우 게 했다. 이때 그곳을 순무(巡撫)하던 이만성이 이일을 조정에 상신하기를 이런 일은 높이 찬양하여 포상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 하여 임금이 알고 가상하게 여겨 통정대부로 품계를 올려 주라고 했다. 1713년 의주부윤으로 제수되었다.

이곳은 국경을 나란히 하고 있어 많은 부상(富商)들이 거액을 가지고 교역을 하고 있었다. 매년 교역 때마다. 출납관으로부터 은화를 빌어갔으며 관에서는 그 이익을 불리고 있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이것을 공이 엄하게 막았으며, 또 체납된 수만냥의 돈을 거둬들일 계획을 확고하게 세웠으니 부중(府中)은 숙연하기만 했다.

이듬해 본도의 병마절도사로 발탁하니 대신들이 말하기를 그 직품이 빠르다고 하여 따르지 않으려고 하므로 김창집이 나서서 임금에게 아뢰기를 신이 연전에 사은사로 청나라를 다녀올 적에 요동에 이르자 그 곳 사람들이 의주부윤은 참으로 양목(良牧)이라고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봉성(鳳城)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유민이 의주부윤으로 올바르게 기용되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금 북방의 문턱이 더욱 높아져 있는 이때에 그 사람을 절도사로 기용하는 것은 옳은 일이나 사람들이 이미 말들을 하고 있으니 부윤으로 그대로 있게 하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했다.

얼마 되지 않아 내직으로 불러들여 형조참의, 승정원 부승지, 우승지를 역임하게 했고 다시 외직으로 수원부사가 제수되었다. 그후 관찰사의 장계로 전후 3차례의 포상이 내렸으며 임금은 공에게 주석지신(柱石之臣)이라는 첩자(帖子)를 새로 만들어 주시면서 순리(循吏)라 하시며 모든 관원들은 이 사람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또다시 승정원으로 불러 들였다가 여주목사로 제수하였으나 갑자기 발탁되어 함경도 병마절도사로 제수되었다. 문관으로서 이 임무를 맡은 사람은 청강 이제신이 처음이고 이번에 공이 그 중임을 맡게 된 것이다. 대임을 받들고 임지에 도착한 공은 변방의 경계를 엄하게 방비하는 한편 군의 모든 장비를 수리하여 갖추게 하고 수고스럽게 애써서 일하는 군민들을 가엾게 여겨 위로하고 돌보아주었으니 그 명성의 위력이 널리 퍼져 멀리 건주(建州) 땅까지 미치니 물고기를 잡는 아이들도 두려워하며 감히 남쪽을 넘볼 생각을 하지 못하니 이른 봄에 파종하는 삼의 뿌리를 도적맞을 근심을 하지 않게 되었다.

공의 뛰어난 재능은 아름다운 수염으로 그 덕과 기량을 더욱 가지런하게 갖추게 하였으며, 그 고상한 용모는 여러 사람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우러러 보게 하였으니 공의 엄숙하고 품위있는 모습을 누가 감히 범할 수가 있을 것이며, 부하들도 엄격하고 바르게 다스렸으므로 공의 얼굴을 제대로 분별하기 어려웠다. 이와같이 공은 위엄있고 태도가 무거웠다. 1721년에는 한성부좌윤, 이어 형조참판에 제수되었다.

이 해가 경종임금이 즉위하던 해였다. 이때 노론과 소론의 당쟁 격화로 흉악한 무리 김일경 등이 앞장서서 4대신을 반역의 죄명을 씌워 몰아내고 조정에 남아 있는 어진 신하들도 모두 몰아내 귀양보내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때 공도 적신 이진유 등의 무고로 말미암아 한천(寒泉) 이재(李縉)와 더불어 삭탈관직되어 쫓겨났다. 이 무고의 옥사가 크게 벌어지고 조수처럼 밀려들어 충실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공은 동대문 밖으로 돌아서 고향인 남포로 와서는 두문불출하면서 계속 종신토록 할 작정이었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자신을 곤경에 처하게 하고 많은 대신들을 죽게 한 신임옥사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모든 것을 밝게 하였고 탕평책을 시행했다. 공도 무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동지의금부사 한성부좌윤으로 제수되었다.

세상이 새롭게 태어날 때는 장예원판결사로 있었다. 이때 장암 정호(鄭濞)가 영의정이 되면서 선량한 관리들을 불러들여 등용하고 있었다. 유배지에 있는 청사 김재로를 불러 대사간으로 기용하여 김일경 등의 무고한 사실을 상소하여 사형에 처하게 하고 이진유 등을 귀양 보내게 하고 4대신을 복관시켰다. 이때 공은 훈련대장으로 추천되었으나 조정 대신들의 의견이 고르지 않아 보류하고 있었음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1727년 공이 시종관으로 있을 때 공의 부친 품계를 가의대부로 올렸으나 대신들의 상신으로 자헌대부로 더 올랐다. 이어 임금이 공에게 특명으로 병조판서를 제수했는데 사헌부에서 승급이 빠르다는 의견이 있어 공조판서로 바뀌 제수했다. 그해 기로소에 입소했으나 가을부터 나라가 술렁거리 세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고향인 충청도로 내려왔다.

과연 이듬해 봄에 이인좌를 비롯한 반역의 무리들이 모반하는 정변이 일어났다. 첫 부인 강릉최씨는 선교랑 휘 행원의 딸로 정경부인이 증직되었고 공보다 39년 먼저 사망했으며, 두 번째 부인 대구서씨는 통덕랑 휘 종의의 딸로 공보다 22년 뒤에 사망했다. 공은 모친이 생존시에 행실이 순수하고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지만 모친을 오래 봉양하지 못했음을 항상 마음아파하고 있었으므로 아버지에게는 더욱 정성을 다하여 법도를 잃지 않고 봉양했으며 노환으로 돌아가시자 슬피 통곡함이 도에 지나쳐서 정신을 잃기도 했으며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고 여막에서 3년 시묘를 마쳤다.

또 형님이 병환이 있을 적에는 아버지를 대하듯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돌보았고, 특히 약은 물론 의복이나 식량 등을 넉넉히 보내드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몹시 애처롭게 슬퍼하고 몸소 장례를 담당하고 제사를 받드는 일도 돌보아주었다.

또 형님의 아들이 젊어서 죽게 되자 청상이 된 조카며느리를 가엾게 여겨 녹봉을 털어 제전(祭田)을 마련해 주었을 뿐 아니라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있는 것을 털어서

라도 넉넉하게 보태 주었다. 공은 자제들을 엄하게 가르쳤다. 언제나 속마음을 감추고 엄하게 했으며,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반드시 독서를 게을리 하지 말라 했고, 친구들과도 망령된 말은 하지 말라 일렀다. 부자(父子)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 준 은혜니 고맙게 여겨야 하고 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때로는 엄하게 가르치고 때론 후하게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우선 어려서는 엄하게 하여 부형의 두려움을 알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 후에 손을 잡고 이끌어 타일러 주고 훈계하면 멸시하고 따르지 않을 리가 없다고 했다. 공은 평상시에 참된 마음으로 다정하고 친절하여 덕망 있는 사람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으며 날마다 반드시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방안을 청소하고 그 자리에 단정히 앉았다. 저녁 때가 되기까지 한 다리를 의지하여 기대어 쉬는 일 없이 오로지 정사(政事)에 몰두했으므로 신기한 일을 많이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칭송을 하고 있었으나 공은 스스로 말하지 않아 비록 자식이라 할지라도 물어서 알려고 하지 않았다. 공은 사람과 더불어 사귄데 있어서도 사랑이 넘쳤으므로 귀하고 천함을 가리지 않았고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을 보면 새 옷으로 갈아입게 했고, 굶주리고 있으면 가엾게 여겨 두루 보살펴주었으므로 주변에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다.

공은 30여 년 내외직을 역임하며 작은 일에서부터 드러나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충청(忠淸)의 두 글자를 생각하면서 조심하고 삼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입신(立身)의 근본 마음으로 삼았으므로 비록 번거롭고 많은 송사가 있어도 반드시 참된 마음으로 정확하게 살펴서 근거로 삼아 일을 처리했을 뿐 명령을 내려 일을 처리하는 것은 없었으며 어떤 경우에도 일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처리한 것은 없었다. 집안 식구들을 위해 여러 고을을 다스리다가 갑자기 가벼운 차림으로 집으로 돌아와 숙연한 자세로 있으니 이웃 사람들이 눈치만 살피고 있는지라 공이 말하기를 나도 본래 가난한 집안의 선비로서 어린 시절에는 타향살이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랬듯이 나 또한 아들 딸이나 하인을 시켜 소나무 잎을 거두어 모아 장터로 나가 곡식과 바꾸어 먹고 살았으나 지금은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여러 해를 쌀밥에 고기를 먹으며 살아왔다.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라에서 받은 돈으로 사사로이 재산을 불린 것이 없고 처자식을 보호한 것 밖에 없다. 또 더하여 자손에게 물려줄 전원이 있는 것도 아니다 했으니 어쨌든 공은 청렴한 사람이다. 대대로 집안에 전해온 고향의 집에 돌아오니 초가의 지붕은 비바람에 헐려있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기와집으로 고쳐 살라고 권유했으나 공은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퇴어 김진상이 공의 하는 일을 보고는 언제나 탄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진재상(眞宰相)이다 하였다.

공의 증손인 교판공이 공의 시호를 받기 위해 청원할 때 나는 공의 집안하고는 선대 때부터 서로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지만 태사(太史)의 직에 소속된 사람으로 공의 정상(情狀)을 말했을 뿐이지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았다. 혼자서 조용히 생각해 보니 공의 재주와 도량은 보통사람보다 크게 뛰어나서 스스로 어질고 두터운 행실이 많은 사람이었다.

만약에 공으로 하여금 간직한 재주를 드러내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면 아마 그 때는 관복을 입고 조정에 나가 엄숙하고도 품위 있는 자세로 담론(談論)으로 계획하고 계책을 세워 정사를 잘 다스려 온 백성을 편안하게 했을 것이다. 혹여 임금이 위급한 처지에 처하게 되면 위엄을 떨치고 일어나 무관의 임무를 담당하여 변란을 막아 나라를 지켰을 것이니 가히 나라의 간성(干城)이라 할 수 있었으리라. 3대의 임금을 섬겼지만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차례로 벼슬이 올라 반열(班列)에 이르고 집안을 다시 일으켰으니 드러나지 않음은 아니었다. 어찌든 공이 맡게 된 일은 언제나 고을이나 다스리게 하고 변방이나 지키게 하는 등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일에만 종사하게 했으니 끝내 공명을 세워 이름을 떨칠 기회를 얻지 못했으니 이것을 어찌 공이 그 시대에 맞는 적절한 사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비록 그러나 공이 정계(政界)로 진출했다면 그때는 충직한 글로써 충신을 천거하여 끌어들이 신하된 도리를 다했을 것이다.

신임사화로 많은 어질고 충성스런 신하들이 재앙을 당했을 때 공은 겸손한 마음으로 고향에 내려가 있었다. 지나간 일을 뉘우치게 하는 것은 공을 속속들이 깊이 생각하여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은 순량(循良)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유명해졌으니 공이 지니고 있는 호걸스런 기상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공은 시대의 위인이라 할 만하다. 삼가 이와 같이 글을 지어 올리니 대신들께서는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노라

갑자년(1744) 원임 이조판서겸 지경연실록사 홍문관예문관대제학 지성군관춘추관사 보국승록대부 영돈녕부사 영안부원군 안동 김조순 지음 (靑海李氏世德).

12) 조규빈묘갈명(趙奎彬墓碣銘)

- 위치 : 보령시 미산면 삼계리
- 지은이 : 조관빈(趙觀彬)
- 건립연대 : 1814년(崇禎紀元後 甲戌)

從兄富平府使公墓碣銘 并序

昔馬伏波稱龍伯高。使嚴，敦輩效之。蓋以伯高有敦厚周慎之美故也。惟我先考。有兄子。

美質類伯高。嘗許以吾家佳子弟。曰故富平府使諱奎彬。字士聚是已。我趙肇自漢陽分派。貫楊州。上祖諱岑。高麗判中樞院事。入我朝有諱末生。領中樞府事兼兵曹判書寶文閣大提學諡文剛。獻英兩朝名臣。自是世襲主組。高祖諱存性。知敦寧府事贈領議政諡昭敏。曾祖諱啓遠。刑曹判書贈領議政諡忠靖。祖諱禧錫。槐山郡守贈領議政。考諱泰彙。榮川郡守。妣淑人安東金氏。縣監元厚之女。公以崇禎後辛酉九月十六日生。自幼端厚謹默。與羣兒遊。耻慢言褻戲。事父母一意順適。父母甚愛之。庚寅。中進士。癸巳。拜恭陵參奉。甲午。移童蒙教官。丁酉。陞掌樂院主簿。戊戌。移司僕寺主簿。差端懿王后殯宮都監郎。轉戶曹佐郎。庚子。拜掌隸院司評。又遷戶曹佐郎。肅廟賓天。差國葬都監郎。地部素多請託蹊徑。公前後居是職。人不得干以私。辛丑。出爲臨陂縣令。縣在兩湖間。素號難治。公至則威惠並行。吏民俱便。官貿之爲害於吏屬者。悉罷之。別設廳。自官給價取用。又捐俸餘錢數千緡。立馬以除新舊迎送之弊。居官纔周歲。治效丕著。壬寅。兇孽謀危國本。季父忠翼公與定策諸公邁禍。公遂棄官。屏居韓山庄舍。乙巳。我聖上登極。首雪誣案。復四大臣爵。公復爲掌樂院主簿。陞漢城府判官。仍除陝川郡守。值凶歲。將報災結。掌吏慮其減削請加報。公笑曰。初不實報。儻或順許。餘結將何用之。遂盡數載狀。丙午。陞拜富平府使。丁未春。以親嫌遞。卽除工曹正郎。遞復除掌樂院主簿。未幾。時事大變。善類進黜。公卽拂衣還韓山舊廬。閉門深居。不與人相從。逍遙於山崖海岸之間。而不復有當世之念。庚戌六月初五日。以疾歿。享年五十。八月。權窆于藍浦三溪新阡。十月。遷元配驪興閔淑人墓。合封於局內辛坐之原。閔淑人。判書趾齋鎮厚之女。副提學靜觀齋李公端相之外孫。生於辛酉三月初二日。歿於丁亥四月二十四日。性行淑哲。旣歸。婦道純備。甚得舅姑之志。內治有制。使丈夫不知寒溫飢飽。舉一男一女。男榮進。今郡守。女適俞彥鏡。繼配淑人全州柳氏。監司穉之玄孫。參奉完之女。生於庚午三月初八日。歿於乙卯十一月二十六日。葬于公墓後枕辛之岡。性峻潔。有女士風。有一男二女。男榮建。出繼從叔郡守興彬。女適縣監李度重。次適李商輔。榮進三男一女。男昌達生員。光達。恒達。女婿徐道修。榮建一男三女。皆幼。俞彥鏡二男。漢泰。漢釋。李度重四男。顯永。文永。餘幼。李商輔四男一女。皆幼。昌達一男一女。皆幼。俞漢泰三男一女。男洪柱。餘幼。嗚呼。余之兄事公餘三十年。知公莫如余詳。蓋公長德人也。接其貌。和而莊。聽其言。巽而直。與之處。愈久而愈可愛。內不設畦畛。外不修幅尺。而至於善惡是非之辨。毅然有不可犯者。美行根性。愛親不失赤子心。持喪以禮。推是而及於宗黨友朋。靡不得其歡悅。先考撫愛公甚摯。嘗置諸家。俾我兄弟同其業。公亦事我先考。無間所生。閱禍故。血泣冤號。如諸孤。公臨書。理解克明。治文。程法亦精。儕友期以早晚一第。而中值否運。不復赴舉。豈非命耶。治邑安靜澹泊。以擾民爲戒。以干譽爲耻。寬而不弛縱。惠而不姑息。修舉釐革。輒有成

效。在官雖無赫赫聲。而去後之思。口碑騰頌。此足以槩公之始末矣。趾齋閔公少許可。眼無勝人。而以公處甥館之故。慣識公有內美。嘗歎賞曰。趙氏諸少年。惟吾婿端慤恬雅。無世俗浮華之習。權公懽。誄公之文曰。生於綺紈之門。而有執謙之德。處乎朱墨之任。而無干名之習。亦豈諂公而虛獎者也。若使公策名揚廷。必有以做名德光門戶。而天之賦公者如彼。厄公者如此。佑善之理。一何難徵也。公之後既多而且令。無亦公厚積而不發者。在於是乎。公之胤榮進。請余爲碣文。不敢辭。遂爲之銘。銘曰。

懿哉吾兄。維古君子。先考曰善。趾翁云美。孝睦之行。廉謹之政。晦而不章。賢而無命。家運甚厄。公乃中闕。海山松篁。不沫遺節。於身不羸。于後有報。愷悌神聽。天理是靠。碑不諛辭。同堂之筆。公議攸載。百歲可質。

崇禎紀元後三甲戌五月六日立

13) 조현명신도비(趙顯命神道碑)

- 위치 :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벌뜸마을
- 건립연대 : 1988년
- 지은이 : 이유원(李裕元)

領議政忠孝趙公神道碑銘并序

國家膺亨泰之運上而哲辟御世下而賢良佐治時值搶攘必有文武全材如唐之裴晉公十拜相詔四登帥壇宋之韓魏公入則周公召公出則方叔召虎極一代之用垂光青汗我元陵朝名臣豐元趙公調鼎○樹斧鉞使邦國磐泰生靈奠麗仰贊五十年治平之化興裴韓并駕而無愧焉公歿後百年祀孫然三以公狀訪余於東墅退舍曰吾先祖大達之文宣徵於梧川相國而時事多艱迄今未遑子其銘之余曰古人刻銘置墓以嚮頌休也昔梧川公嘗於筵中論當世名碩曰臣不如趙某公之勳勞事業已有梧川公秦語載筆之士記之余以後生雖竭億立論豈有以易乎此哉謹按公諱賢命字時晦號歸鹿豐壤人高麗門下侍中孟爲始祖本朝有諱世助靖國功臣豐壤君再傳有諱希輔承旨贈吏曹判書有二子曰珉監役贈吏曹判書曰珩禮曹判書諡忠貞號翠屏翠屏弟二子相鼎進士出爲判書公諱珉後贈議政府左贊成寔公高祖曾大父王大父也 考諱仁壽號白賁堂早廢學業莊修甚篤薦拜蔭仕并不就贈議政府領議政豐興府院君妣贈貞敬夫人光山金氏承旨萬均女吏曹判書諡文貞號滄洲益熙孫禮曹判書諡文肅號青湖李一相外孫也公生以肅宗辛卯十月生之日議政公夢小兒具幘袍戴花謁始林廟始林君祖妣洪夫人外祖也人謂大人之象喜戲喜爲刀槍戰陣之狀嘗游泳於水暴漲漂流爲人所拯而訪其人終不得若神助也叔父舍人公命作詩公應聲輒對句作繁麗舍人公期以少年當貴也公初學魯不喜讀至忠義感發處不覺高聲朗誦丁亥患背痠甚厄及潰而愈自喜曰吾文理漸鬯留

心爲己之學不資師友門路大開以文山對策發汗如瀉文思水湧比之癸巳登司馬試時有勸見尼懷
 兩家書者公謝以見識不明及讀南溪藁始定是非己亥擢增廣文科未分隸被翰薦尋拜檢閱辛丑景
 宗卽位拜世弟侍講院謙說書上六條陳戒末曰邸下旣爲聖上之儲嗣則名雖兄弟實有父子之道當
 以事先王者事之以篤友愛惇人倫引文義拳拳致意世弟賜心經一部曰設書之言余欲體行此所以
 識壬寅三司求對甚急公以右史上入只命依啓公按筆曰兩啓皆允乎史臣不可不明白書之上乃下
 分析之教冬丁內憂公欲討鏡賊之罪于時與叔兄文忠公退守廬墓每歎趙泰耆首發保護東宮之論
 李光佐李台佐吳命恒徐命均趙泰億金東弼游尹淳諱公之斥鏡賊社稷有陰受其功者英宗乙卯服
 闋拜 奉教因翰薦事坐罷尋陞宗簿寺主簿遷兵曹佐郎除龍岡縣令軍役甚重設厚民所永革隣族
 弊摘奸讎山筒盖甌山有黃山禿串兩筒卽國初所築也宮任金時弘者以上之乳母子憑籍打量民失
 其利公以實報請臬示監司尹憲柱以公所論騰啓特下褒論兩筒復完時黨論起謗毀成風公踴涼不
 自得而獨尹公禮之甚盛曰此國器也丙午賊臣任徵夏投甌逼訐景廟極不遜搢臣將疎討徵夏罪以
 外官獨疎剴論略曰先王疾之淺深殿下當詳知於上而政之得失公議必尙論於後北面先廟者決不
 當肆口恣言於今日殿下之側自今欲論辛壬事者只可曰某臣有某罪可誅也可竄也不可以一言半
 辭讒及先王一如宋仁宗禁言太后時事疏徹時議大激論公遠竄不從後徵夏卒鞫死世以公爲特正
 之主論肇於此上眷注於文忠公宋忠敏寅明及公而爲時所遏丁未特授公持平文忠忠敏亦有除命
 公疎曰今所退黜皆前日以爲忠賢者今所進用皆前日以爲奸詐者人之忠邪賢奸自有定質殿下照
 臨之明乃反變化於朝夕者何也殿下但以一時喜怒欲驅駕一世人士孰肯甘心奔趨於呼聚喝散之
 下哉批有不知予之教公引避曰殿下今日之舉將以消破淫朋恢張公道也聖意所存臣豈不知因上
 萬言疎變化氣質也和協柄內也教養東宮也肅青宮禁也操切近習也屏遠玩好也撙節財用也容受
 直言也謹守法典也愛重官爵也消破朋黨也禮使臣隣也通言君德時政得失而其破朋黨之論尤極
 嚴正秋孝章世子嬪揀選拜文學命久任與諸僚陳戒敦孝友以厚德基勤學問以發睿智屏玩好以絕
 外誘慎動作以肅威儀推其躬行而導迪之遇事卽物而發明之冬纂輯祖鑑進于東宮上親製序文仍
 命刊印先是公患宮人名額之不減以顯廟先減御供之教書入上命汰已故宮人四十餘此非外臣所
 敢言而公建白之除南學教授戊申選弘文錄拜副校理移吏曹佐郎兼知製教漢學教授上幸私邸舊
 日丘史輩入謁公與諸僚雜言猥屑上褒論仍令出之三月逆賊麟亮等謀叛以金重器爲巡討使且遣
 近侍安集流民公請從事於君兼行安集左相趙泰億曰趙某非死於此賊者實得人矣翌日軍水原兵
 曹判書吳命恒以都巡撫出征巡討使及公當罷歸重器老昏顛錯無可恃公整頓軍務依朝令將還清
 州賊報踵至軍情洶洶約府使宋眞明同死告急於巡撫巡撫遂自沙斤川陣領兵來會公見而請從巡
 撫許之進振威地夜半平澤校自言護送罪人其所帶弓矢得兵營識號知清州賊之爲細作公曰祥信
 其言使過去而潛擊之一舉可盡都巡撫不聽良久南角警果捉白衣賊又縛假都事金聲玉公請盡斬
 都巡撫許之諸將相顧公怒叱之奮劔擊聲玉衆刀齊下公見甲冑在巡撫帳前以劔擊地曰欲走乎朴

從事文秀厲聲曰趙顯命無禮公割衣裾授李震完曰我社以此驗之既斬聲玉陣稍定公巡軍又捕白衣賊六七人斬之越三日破安城賊繼破竹山大聚之賊獲魁麟佐世胤等平民多雜於賊衆公躬自盤問所活甚夥都巡撫稱之自陣先歸道拜同副承旨四月都巡撫振旅還承命迎勞江上參三等勳有臺言上章辭勳不從拜副提學命進階嘉善封豐元君參會盟拜禮工曹參判大司成同知經筵成均館事內膳寺提調都巡撫吳公卒時有內宴公不可曰知悼子之喪杜簣鍊其君斷懸撤欵今此進宴宜審處之冬拜大司憲請改龜川李公世弼諡士論多之孝章世子蒙差嬪宮堂上宣惠廳提調備局有司堂上己酉拜都承旨有壬寅案分等之命公首發之李宗城宋相寅明亦繼而筵白也庚戌以宮房折受事袖備忘記入請還忤旨遞知申拜副摠管連薦江華留守慶尙監司俱己酉 點洪相致中白其大用宜宜外試竟受點於嶺伯賜甲冑以遣之辛亥夏大旱全省赤地公賑政有方以單騎督察列邑越壬子夏輟賑七十州以餓殍告纔六十餘嶺俗經亂淪陷起宿儒李萬敷李棖行訓長事入樂育齋疏請賜書籍豐動之修築道內旌門名賢墳墓頽圯者疎鑿堤堰煙塞者設倉於廷日浦儲穀壽萬應北路有事關北之憂賴公得紓因微事罷旋叙拜漢城府右尹差賑恤堂上監賑平倉癸丑湖南有謗書之變以公爲監司特命也甲寅應旨上六條曰涵養本源和協柄內正朝廷紓民力裕財用釐軍制語皆中窾上優納府城頽公改築未至半臺臣趙漢緯因浮謗請停上別論問其形便公悉陳本末更請竣役許之設四門墩俛俱合制度水軍分番無定制視嶺南輪番防其弊竇秋大臣奏公不可久外遞還上賜銀盃刻御書戒字蓋戒傷生也尋拜刑曹參判摠戎使公丁未後力辭清要在湖南又被衆螫懇乞投散及是有戎垣之任非公志也上嘗以弦韋戒公及李宗城李公每以公推重公爲李公先後之世謂行則異而志則同乙卯莊獻世子誕生大臣率卿宰請坤宮取以爲子因以和協保養縷言筵臣有訛傳聲教者鄭享復等投疏上莫知底定問公可處之道對以召諸臣詢其當日酬酌上從之申思喆等進言上教與諸疏異於是言根絕而搢紳之禍不作矣移拜御營大將俄擢刑曹判書秋客使壓境時關西伯缺公膺命星夜赴灣事竣拜吏曹判書守禦使丙辰疎曰臣時以詩書文墨事殿下而乃反裂棄官冕甘心於介冑弓馬之同歸每當橐鞬臨戎未嘗不自顧慙悼而既經將任又叨清要左右惟利豈忍爲此因納符歸鄉竟蒙罷旋叙復掌籌司惠廳拜左副賓客尋拜冢宰之任上臨軒督召公免冠請死復罷閏月叙拜禮曹判書兼帶如故尋除司譯院提調裴胤命疏語無倫公與宋忠憲及一家諸人待命金吾上鞫胤命拜漢城判尹都摠管賓客內醫院提調首薦文衡及訓將復拜御營大將力辭不就上下標信宜召尋裴右參贊因雷異勉保齋曰昨今年來就館者皆是新人酸醜不齊難保其和靖可爲日後之憂言所不盡殿下可以默念矣批以非卿誰爲予言此卿所不言予皆領會顧謂史官曰豐原之言斷斷血憂秉筆之臣宜有褒揚丁巳擢授判義禁鷺梁行習操別將閔昌基違期公欲陣前梟示上命棍治于書獎論曰得將帥之體卽陣中賜廐馬寵之嶺人金聖鐸爲其師李玄逸訟冤以護逆論公略言聖鐸與玄逸不同王獄之議焉失平且曰殿下之廷曾無一介張釋之耶疏入削公職請遠竄不從因有激惱下不敢聞之教公涕泣三日曰吾當生死向前待叙入朝參拜吏曹判書守禦使戊午除藝文館提學公會於筵中泣曰臣亡兄以元

戎兼文衡鬼神惡盈此爲終身慟也上惻然靳黠於訓將及文任至是忽有藝苑之除公復申益力上曰予忘之遞拜司宰監提調己未拜知經筵以端敬王后復位都監堂上加崇祿除左參贊觀象監提調復拜吏判遞拜判敦寧府事兼御營大將庚申連拜戶工曹判書司僕寺提調遭李聖海誣謫公疏曰臣之所以進退者曰蕩平是也始臣亡兄得此說於先王而授之於臣概嘗以爲此說行則朝紳之禍熄而國脉延於無窮不然則國之厄亡可立而待臣之所以立心持論者本領如此故入而告於殿下者此也出而言於朋僚者此也發之於政事措施之間者亦此也行之十年卒無成效不過竊取許多爵祿而已上論之以勳威勉之以兄弟爲國之忱未幾李河述鄭實疏出俞相拓基秉軸時事漸變遞度支旋拜兵曹判書疏曰臣兄以大忠至誠事殿下追未究之志業答未報之恩遇實臣之責而今日求退亦述臣兄之志而蹈臣兄之轍耳三司發趙泰耆追奪啓上嘅朝象不協伏於眞殿門外時大雨袞衣盡濕禁中震盪公與大臣排入曰不可使君上辱於泥塗中將訴于慈殿宦官不敢入告公張目叱之曰不入者當斬須臾有教諭就小堂以都監勞陞輔國賜府院君之號左右相請上尊號公謂右相曰吾爲小人則右相不獨爲君子不參庭請上疏力諫蓋以日月之明非有資於模畫之力戊申丁巳嘗挽諸議慮或有累於聖德而然也秋幸松都公節制訓禁兵扈駕豐德府使李重泰罪關斂民命公臬示公告以先廂陳已發且言所犯非斷死遂寢九月進公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閔亨洙稱龍澤天紀之冤公率亨洙請對曰此事不究覈聖上皎然之心無以暴白於萬世宜鞫龍澤之子上許之壬戌閔昌洙以其弟亨洙未徹疎附陳以爲龍紀等交通宦寺亦忠也公言交通非忠也宜嚴防上還給昌洙疎鞫配之癸亥洪啓禧誣論朴公文秀欲中公公斥啓禧駭妄狀因韓億增疎下嚴教公曰妖弒之干正氣也上天赫怒雷霆以擊之旣擊之天開日朗寂然若無事聽其聲而咸懼者以其發之不數也殿下赤臣等之天也鄭實投書持公甚島配之命公爲清陽使公辭上手書不許夏咎 進良役實摠堦良役侵徵之弊嘗建請查正各衙門募屬量宜定額至是頒布中外趙重晦以頻幸私廟言上震怒公求對不得趙台祥言公不罪重晦公先論重晦且論台祥欲脅大臣以殺言官甲子請有閔百祥島配爲父訟冤輒罹重罪恐傷孝理之治也乙丑親鞫洪啓億玉體戰掉御衣振搖公泣而諫曰殿下鞫尹汲韓翼 等後有愧過禁川橋之教臣知殿下必悔也玉色稍降鞫事即勒公每有獄不存恩怨惟其當否雖牽裾泣諫必使吾君無過卽公忠於上而德之厚也丙寅宋左相言議稍變公遂決退遞相職拜領敦寧府事五月重拜相職兼內醫院都提調朴弼周以山林請改大訓公斥之上使公同對許歸弼周大訓不改也公咎末救趙泰耆搢紳疏出上擊諸人者臣金有慶誣公峻公對舉痛卞尋解相職丁卯仁元王后回甲尊號都監差都提調上幸永禧殿歷臨忠勳府把守將領楊挺臣以無將令欄住龍旂兵判李周鎮欲諱校屬之罪反治挺臣公劄曰把守將之不開門乃其職也今此遐遠武夫能知細柳門卒之事可嘉而不可罪也秋陸拜左議政因雷變劄曰沿邑別給溢災以賑聽穀三萬石分畿湖兩道春賑前減價散賣以救民急宜矣且曰賑恤白給固善矣而朱子浙東富弼青州之賑皆設粥費多而難繼故也請二月設粥三月白給戊辰上臨和平翁主喪公咎 曰傳曰子之所慎齋也大享清齋之時豈不大有未安乎因嚴教復咎曰哭之而死者

無聞哀之而死者不起殿下雖○夜哭日三臨徒損聖體而已因虹變應旨進筭曰保畜聖躬教諭東宮矯革民弊愼惜爵賞振勳臺風登人進材防微杜漸也鞠政罪人文書見失公上筭論之有一重臣筵中言公無事中生事朝廷空虛公卽日出城聞世子聽政聯筭五條仰勉領相金在魯拔李公宗城於吏判薦望公力爭累日上竟特授後公薦李公輔導胄筵遞其銓啣秋宋瑩中有凶疏公暴前筭字句之捏誣世子手書有躬往之教執公手入于大朝慰勉備至冬釋負以陳賀使赴燕庚午陞拜領議政上將行戶錢至於臨門流涕公以減布笏記六七條以達聞東宮好翰墨公曰心不可兩用欲爲修齊治平之業而乃可游心於末藝小技乎十月宗臣等請尊號於大朝及東朝公欲諫之上幸溫泉還有雷雪之異公曰不可效數三宗臣媚悅之習筭語峻正上遞公職連下載嚴之教人莫敢復言李公宗城卽夜草疏救公時元景夏連上筭請尊號汲汲不已公在胥命又上筭爭之辛未賢嬪喪加漆命親屬入參世系書入公筭曰外朝少臣何爲出入於深嚴之地且臣家世系宜自喉院書入壬申以議政公卒逝之歲疏乞侍墓禮家所疑而公斷而行之公積被黨人之交攻又遭賢嬪喪慟慨成疾竟於是年四月卒壽六十二上震悼撤朝賻如例隱卒惻恒褒以忠孝親爲文祭之卽命賜諡太常以慮國忘慈惠愛親議曰忠孝上可之又以孝命旌其閭哀榮備矣初葬楊州海等村辛亥遷奉于藍浦北面聖住山卯坐原初配贈貞敬夫人漆原尹氏縣監志源女壬申生壬辰卒有昌容淑行無育繼配貞敬夫人安東金氏都正聖游女壬申生壬戌卒溫儉慈仁未嘗見叱嗟婢御祔公左右有六男一女男長曰載得蔭左尹豐城君聚參判曹命教女生潞鎮洗馬娶佐郎任顯中女生雲喜娶柳師和女繼娶沈雅鎮女系子建和進壯娶李集華女生然三今忠勳都事娶尹滋元女繼娶李潤孝女生增娶直長鄭基洙女繼娶洪益燮女長派也其二男曰載翰副提學丙申論典禮被罪甲子復官三男曰載履出系四男曰載天縣監五男曰載天縣監六男曰載陽早沒女曰徐命誠系子徐瑩修判書載翰子方鎮憲鎮出系純鎮出系鳳鎮女李相履鳳鎮子雲榮子信和側出男載則直長系子耆鎮子雲英武科載默出系載旭載得二子脩鎮早沒次溫鎮出系衍鎮女府使李啓遠衍鎮子雲九子萬和協和潞鎮女李仁永俞擊柱庶女鄭復裕李勉敬雲喜二子中和女朴志壽申命杓建和女尹相宇中和子然杓女洪在南衍鎮女縣監尹永錫載田系子溫鎮系子雲綿載天子沆鎮系子雲維載天二子曰忠鎮子雲維出系雲絳然三二子壻然杓二子一女雲綿二子一女雲絳二子然三二女一壤女俱幼內外雲仍總百餘人公稟質重厚器量弘淵接物有先見之明處事有長遠之慮甫十歲隨諸兄携篋兵舍大夫人撫而泣送之公始拜議政公墓之慟結轡事大夫人不以愛弛教公或倦讀自叩脛以警由是感於心而行愈篤親有誨終身服之親有愛終身敬之親有賜終身佩之三年守墓攀號如一日孝也始祖墓在豐壤給財庵僧辦供歲祭林川設義庄稷廣州設小宗稷立別廟於忠貞公舊宅奉忠貞公東岡公文忠公影幀使子孫守之孝之追先也病兄促歸齊送印符疋馬徑還友也同堂弟東谿龜命清修能文章及沒系以己子刊行其詩文楸下會宗衙軒花樹友之及遠也偕居江干遞裘而出拾薪而○居約而處貧也設耆英會於名吾亭修重甲稷於墨溪庄倣前代盛事也臨事以誠勤處腴而不淫平素操執也嶺郡伸冤婦湖縣戮奸男折獄明訟也煥乎昱昱而不自名焉者其文

也敵愾王室而不自功焉者其武也公之遭際肇於文忠公辛丑之疏上教予在潛邸見其疏而已心異之者是已洪範傳云無有淫朋無有比德惟皇之作極也我英宗大王居敬窮理闡明出治之本源爲群下標準之極時則公居田龍之地丙寅一疏起於文忠之後枉直輕重自露於鑑空衡平之下疇敢眩以是非哉公休戚王室心存士流雖淄澠中坻餘波四射獨毅然中立邸柱玉樞不足喻其鎮靜也所以五長銓部七登戎垣四掌金穀三理蕃邑 五入中書一爲元輔而削平畛域調適甘酸滾滾消融漸見和平氣象寔公之力而身受鐵券凌烟丹青其非一片靈臺高山巨壑者乎晉公佩安厄二十年而未及見牛之黨魏公做得宰相事業而未及見朔蜀之黨至若進退分裂東西侵蝕 者裴韓之所無而公之所當也裕元昔年拜公像於忠貞故宅廣頹豐頰氣宇雋偉望之包括巨細蓄積經綸收之若淵深海廓放之則雲興雨泄爲當世碩德蓋臣詩曰文武吉甫萬邦爲憲公之謂也銘曰天有台魁垂光灼爍豐壤世家珠璧干鏤文忠文孝王室是作忠孝晚節世道恢廓崇深嶽瀆噌吰鍾鏞上贊君德疇任謇諤下鎮鼎競疇同築燹木繆草蔓焰熏金鑠后執厥中來汝純恪純恪維何公來立脚公拜進言漢甘宋洛爭也君子處之有綽旋斡文濟在我忖度宣力撫稟運我圖略明良盛會一堂酬酢馬匹之亡松立于壑哭退殯宮訃徹震愕士友踴涼朝野寂寞格穹協衆丹楔炳若金珥圖函紀功麟閣貽厥後孫繩繩爾爵兩配同原聖山幽托作銘與榮百世不作

領議政李裕元撰

14) 이창수묘비(李昌壽墓碑)

- 위치 :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남전
- 건립연대 : 1777년
- 지은이 : 이병정(李秉鼎)

有明朝鮮崇政大夫行吏曹判書諡文憲李公昌壽墓

府君諱昌壽字德翁姓李氏 寧海君瑋以 世宗別子始受封諡安悼 安悼之孫曰江寧副正諱棋道學名世與趙靜庵諸賢同編黨籍於府君爲九世祖 高祖諱時萬全南道觀察使 贈吏曹叅判 曾祖諱伯麟司憲府持平 祖諱彥維星州牧使俱 贈吏曹判書 考諱敏躋綾州牧使 贈左贊成 妣 贈貞敬夫人楊州趙氏應教諱泰一女 府君實綾州公從父兄 懿陵叅奉 贈領議政諱泰躋之子 禮曹判書貞孝公諱彥綱之孫正言漆原尹公諱志和之外孫 出爲綾州公後所後兩世之馳爵用府君恩也 府君以 肅宗庚寅三月一日生 英宗乙卯中生員試 庚申魁調聖科 丙寅通政 乙亥嘉善 戊寅嘉義資憲 己卯正憲 乙酉崇政 始由典籍歷 正言.獻納.司書.弼善.修撰.校理.應教.執義.奉常正兼 司書弼善.輔德校書校理.東學教授.文臣宣傳官.備邊郎及擢承旨.歷大司諫.大司成判決事.大司憲都承旨.副提學.吏.禮曹叅議.叅判.判書.兵.刑曹叅議.判書.戶曹叅判.判書.工曹判書.漢城左尹

判尹.議政府左右叅贊.敦寧府知事判事兼兩館提學.同知.成均經筵春秋.世子賓客.都摠官判義禁備局有司槐院惠廳提調.守禦使.間出爲全羅.平安兩道觀察使.忠州.安州牧使.安州則 特補也.今上元年丁酉正月二十日卒于正寢計 聞輟朝賜弔祭賻如禮三月十九日葬于 藍浦藍田里坐亥原 前配大丘徐氏判書命彬女 生以辛卯卒于丁巳 贈貞敬夫人 後配晉州柳氏生員統女 封貞敬夫人 一男一女 男秉鼎 女適前副提學徐有本 自左幄經已被 英考心膺之寄 嘗見稱以忠直 逮升卿列 聖眷彌隆數倚欲以爲相而 願府君 持論峻正 尤惓惓於扶士林 嚴隄防隨事抗爭 屢躓不悔以 此浸忤 上旨竟未得大究厥用然 當丁亥筮訟微士也 天怒遽震責教甚嚴而 旋燭其斷斷 若忱亟令史官 抹去于 日記既 又痛斥宵人之秉機逞毒於府君至登 宸章方壬辰光佐等之復爵上以府君素峻於懲討 再刊名仕籍而 及府君謝病家居則頻 命扶掖入對賜以 御詩禮陟前數日猶問 府君顏貌寢食 諄諄不已 噫 府君遭際休明 入朝四十年終始一節孚于 上下故我英考眷遇之篤摯如此而世之論府君者 亦莫不以純忠 完名歸之 是豈不宵所敢私也 嗚呼痛哉

不肖孤秉鼎 泣血謹記

崇禎紀元後三丁酉 九 月 日 立 前面 集蔡邕字 陰記 集柳公權字

15) 조병덕묘갈(趙秉惠墓碣)

- 위치 : 보령시 미산면 삼계리
- 건립연대 :
- 지은이 : 申應朝

肅齋趙先生墓碣銘并序

公諱秉惠字孺文學者稱肅齋先生楊州趙氏在麗有諱通至贈判中樞院事諱岑家漢陽孫諱誼書雲觀正及太祖定鼎都漢陽移于東郊不仕生諱末生事我太宗世宗典文衡領中樞兼本兵長諱文剛七傳而諱存性知敦寧府事贈領議政諱昭敏生諱啓遠刑曹判書贈諱忠靖生諱禧錫槐山郡守贈領議政又三傳而諱榮進刑曹判書諱定獻諱昌達大司諫贈弘文館副提學諱鎮大榮川郡守 贈吏曹參判諱最淳同中樞贈吏曹參判寔公之高曾祖考也妣恩津宋氏府使聿修齋厚淵女同春文正公六世孫也以正宗二十四年庚申二月十八日公生于漢師皇華坊聚賢洞之第生而有異質識者知其將大受也 初參判公行誼孚于家母夫人顯德有自來公濡染有素早自發憤爲學乃謁梅山洪文敬公直弼而請學人以文敬公命贊見老洲吳文元公熙常自是往來兩門沈潛闡釋日以廣拓襟溪李公鳳秀

穎而任公魯皆折輩行待以少友洪鰲純以文敬公肖嗣聞道特早公最與之相善也先是參判公卜築於藍浦三溪公樂之晦跡不出日與學子講習其中以終焉憲宗時有謂公不宜長處林下欲授以識以參判公未仕力辭哲宗三年壬子年五十三文敬公薦公朝初授將作郎選入經延除司憲府持平降召旨公不敢應命陞掌令上疏辭不就自此至今上七年凡十九年間除書及敦召無虛歲公自以身既不出言亦不可出而恩禮不敢虛辱以疎陳戒者屢而以人主一心爲萬化之原以講學爲莫急之先務蓋寓世臣畢義盡忠之願冀有少裨益而竟無補焉則公亦終不可出矣前後三爲掌令再爲執議進階通政大夫工曹參議同副承旨爲吏曹參議者二刑曹參議擢嘉善大夫同知義禁府事特進官戶曹參判哲宗十三年壬戌三南民困於剝割相聚爲亂上命鄉士大夫集議堂敦勉公造朝公請節儉以裕民時西洋妖術陷溺人心其禍甚烈公以爲此之不殄人類化爲禽獸而國不可爲矣極言正學熄而邪說作崇儒重道爲今日息邪之大本纒纒千百言嚴主痛切公每有疎上未嘗不嘉納而終未有施諸行事者公每愀然曰由我而使朝廷致有虛禮豈非上正父有所捐者耶今上六年己巳壽躋七十上特致異數上疎公自是年有疾以庚午二月二十日疾革命題主但稱徵士肅齋戒子孫以躬耕讀書一遍存順沒寧是吾志也焉信好學守死善道君輩宜勉之以手整冠者屢恬然而逝傷悼賜賻祭命京外所可尤喪門人加麻者五十餘人所管祠院各致致祭奠以五月上巖里柿木洞翌年辛未二月十五日遷封于同岡向午之原後四年甲戌大臣請加超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成均館祭酒五衛都摠府都摠官翌年乙亥德博文曰文夙夜儆戒曰敬公貌癯而清眸明如星昭朗而豈第王溫而金精每日早起蹟鉤深精思明辨爬剔別刮不遺餘力濯舊來新益致其精衆說紛羅會而通之端緒交析而條理整然鍊累寸積一階級循序凡仁智之異見議論之參差莫不援引證據解遺恨禮家之同異得失皆本之三禮旁及諸家斟酌其宜於古今因變時世泐襲人有問經諸書自漢儒註疎至澹洛關閩無不淹貫尤洽熟於朱子全書教人先讀小學書次及入頭初徑而必令習辨爲己爲人之分深厭近世文勝質亡有以文字來求者則曰與我論小學家禮則可矣若著述乃立言者事吾何與焉蓋有爲而言也公事親有至性年二十丁宋夫人憂毀極幾不全其喪參判公年五十五已耆艾矣而致哀如前喪而執禮尤嚴制除上墓必哭御家閨門肅然內外斬斬訓飭子弟先行檢尙儉約不以文藝榮利爲急自奉甚薄食無兼味冬夏布褐而已配光山金氏縣監在宣女沙溪先生九世孫也正宗庚申六月三日生十七歸于公純祖三十四年甲午正月二十六日壽三十九先公三十七年而

歿繼配德水李氏命信女文獻公苻之後純祖十七年丁丑四月七日生哲宗十四癸亥十月十四日壽四十七先公八年而歿俱贈貞夫人皆初葬三溪及是竝遷祔男明熙前參奉章熙今參奉金婦人出聖熙忠熙前校理出爲從叔父秉璋後李婦人出明熙一男重燁出奉郡守公祀女適李秉洪章熙一女適李徹翼庶子有聖熙一男天忠熙一女適李重五庶女幼公之學專用力於居敬窮理以踐其實日夕慥慥不知年數之不足及其成德平易明白表裏洞徹體具而可適於用行立而爲範於世格君定國尊主庇民及其所學而不見施於當世此非公所可與也而後之讀公之文者不能無遺憾於斯矣文集方收

輯成秩姑未行於世應朝甚陋而公不鄙棄之敢忘其僭猥而與役於公之狀今於表隨之文年益耄思益荒論叙無次第愧負實多矣繫之以銘

傳道在人 厥或鮮克 維時有作 牖我髦士 公乃得師 躬承旨訣 恐負託付 志勸思苦 道未嘗亡 而以不彰 老洲梅山 王鑰鐵關 爲之依歸 心探精微 彌自進修 任重道悠 在彥攸集 孰有如公 胡不羽儀 於公何憾 或出或處 終始一德 門路純正 刻文于墓 徒弟華華 日章日新 求矢幽貞 余此民生 其義則同 衿紳所宗 淵源端的 庸昭無極

上之十七年(高宗)庚辰季冬崇政大夫前行禮曹判書兼弘文館提學 東陽 申應朝 謹撰
檀紀四千二百四十二年己酉遷窆于保寧郡岬山面三溪里達山後麓亥坐原

16) 이석구송덕비(李錫九頌德碑)

- 위치 :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 건립연대 : 1932년

前參奉李錫九頌德碑

姿厚性善 好德喜施 萬口成碑 百世靡虧

李參奉錫九氏瑱璜舊派簪纓華胄氣宇弘遠性度沉默持以檢身忠厚勤儉初無纖豪矜飾之色待人接物圓滿坦率系設畦畛驕傲之態又好施與窮交貧族中冠昏喪祭率多叔助承襲父祖基業擴大增益而絕無招誘趨利之譏凡於田畝管理人及小作權苟無大過功不轉換移易或至父子相繼兄弟相傳雖有孤寡無依耕種不良特垂矜惻仍舊許作使之安堵歟故多有種籽請求春隨卽須給並無利息而只推來租穀包之輸出也自擔任費不令貽弊此其慈善性事行之大概也余輩俱叨小作之人咸被其惠欲報末由相與詢謀各出義務醵金立石以圖永久不忘之資焉

壬申南至月 日 建立 春青蘿面小作人一同

17) 유격장군계공청덕비(遊擊將軍季公清德碑)

- 위치 :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 건립연대 : 1598년 4월
- 지은이 : 安大進

欽差統領浙直水兵遊擊將軍季公清德碑

通德郎前判官陪臣朴思齊書

林守榮

督陣旗牌官 周煥張邦達

把總 陳子秀戴起龍

前營千總 丁文麟

把總 楊永龔璉

左營千總 朱守謙

中軍官 王啓予

右營千總 江麟躍

把總 許龍施勝

後營千總 吳惟林

把總 候應連陳國敬

監官保助將軍訓練正 陪臣

欽惟

聖天子御寓之二十年海寇犯東邊不月已據平壤

天子赫然怒若曰朝鮮朕東藩世虔職貢不解朕視之如內服蠢茲倭曷敢侵軼其疆土若無中國者然必急救毋緩於是大發南北兵越明年正月掃平壤四月復王京賊酒震疊犇北喙息於竝海千里之外猶復信然不已屯蜂結蟻假和詐緩遲延五六載

天子思益奮調兵船若干艘以截海路特命將軍實爲其帥將軍姓季諱金字長庚別號龍岡浙江台州府松門衛人中隆慶戊辰科武進士歷浙江廣東山東參將統帥浙直水兵三千船士一皆當百鯨濤萬里天風送便乃以上年仲冬湖面未下碇海颶猝起多船滄沒將軍色不動規本國篙工凍濕者解衣衣之仁之至渥也以至下卒見人藍縷無衣褐輒爲之製套化至神也逮及解纜下營無譁若御枚晝聽襖靄夜警刀斗而已令至肅也要酒饌者銀布有準尺童莫之欺不待阿蒙之斬覆鎧推其廉也男女偏側不相猜貳而罔敢侵犯風誘御以簡也將軍從旱路在南留丁朱兩千總以視餘卒兩千總咸能體將軍意毋動威素行也湖南再經賊駝馱不受遞者盡籍其牛馬齒毛各令討還由是遠近悅服翕然無異辭德施普也將軍既仁而化令以廉簡威與德並濟得三千同德之士其與田家之五百孰爲之多少於以仗

皇靈征老寇特在破竹中行見臬秀吉於檣竿落颿前浦重尋舊寨寧不趨與是宜豎石通衢以爲陵師倡而城中父老皆欲私之曰我獨有將軍惠且西海神最獐舟行過此者禱之假其威以求福不赤可乎是爲銘銘曰

氏分魯三 季爲徵音 秋陰屬殺 名應西金 太白八月 敵可摧兮 永配諸賢 照後來兮
萬曆戊戌孟夏 日立 奉正大夫戶曹佐郎兼承文院校理陪臣 安大進撰

흠차통령절직수병유격장군계공칭덕비 <해역문>

경건히 생각하건대 성천자(聖天子)가 천하(天下)를 다스린지 스무해가 되는 해, 해구(海寇)가 동쪽을 침범하고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이미 평양을 점거하였다.

천자가赫然(赫然)히 노(怒)하여 말씀하시기를 조선(朝鮮)은 짐의 동방(東方)의 번방(藩邦)으로 대대로 정성스럽게 직공(職貢)을 게을리하지 않아 짐의 내복(內服)과 같이 여겼거늘 버리지 같은 왜(倭)가 감히 그 강토(疆土)를 침범하여 중국(中國)이 없는 듯이 여기고 있으니 반드시 급히 구원하여 늦추지 말 것이라 하고 이에 남북의 군사를 크게 발동(發動)시켜 다음해 정월엔 평양(平壤)을 소탕하고 사월엔 서울을 수복하였다.

도적(盜賊)은 이에 깜짝 놀라 도망하여 해외(海外) 천리나 되는 곳에서 숨을 헐떡이면서도 그래도 다시 으르렁대며 벌떼마냥 둔(屯)치고 개미떼마냥 뭉쳐서 화평(和平)을 가장하고 간사스럽게 늦춰서 5~6년을 끌었다.

천자(天子)가 더욱 분노하여 얼마쯤의 병선을 마련하여 해로(海路)를 끊으라고 특별히 장군에게 명령하니 실로 그 장수(將帥)되는 장군(將軍)의 성은 계(季), 이름은 금(金), 자는 장경(長庚), 별호는 용강(龍岡)으로 절강성(浙江省) 태주부(台州府) 송문위(松門衛) 사람이다.

용경년대(隆慶年代) 무진년(戊辰年) 무과진사(武科進士)로 절강(浙江), 광둥(廣東), 산둥(山東)의 참장(參將)을 역임하고 절강직예수병(浙江直隸水兵)을 통수(統帥)하니 삼천 명의 정예수병들은 모두 일당백(一當百)짜리였다.

파도(波濤)치는 만 리 길을 강풍(強風)부는 속에도 편안히 온 것은 작년 동진달이었는데 해면(海面)에 미쳐 닻을 내리기 전에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어 많은 배가 가라앉았다. 그러나 장군은 얼굴빛을 변치 않고 데리고 온 사공을 살피 얼었거나 젖은 자는 옷을 번갈아 갈아 입혔으니 인자함이 지극히 흠족(洽足)함이었다. 하졸(下卒)들에게 이르기까지 사람이 남루(襤褸)하거나 옷이 없는 이를 보면 문득 이를 위하여 들썩우는 것을 만들었으니 변화(變化)가 지극히 신묘(神妙)함이었다.

닻을 감고 진영(鎭營)을 떠남에 미쳐서는 재갈을 물린 것처럼 낮에는 노젓는 소리 [襖靄¹⁾] 만 들리고 밤에는 조두(刁斗)로 경계하는 소리만 들릴 뿐이어서 시끄럽지

1)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금호자고(金壺字考)의 자음(字音)에 대한 변증설」(고전간행회본 권59) '款乃' 음은 오애(襖靄)인데 노젓는 소리이다. 라고 했다.

않았으니 명령은 지극히 엄숙(嚴肅)함이었다. 술이나 음식이 필요할 땐 값을 치르는데 돈이나 필목으로 준가(準價)함이 있어 어린아이라도 속이지 아니하고, 민폐를 끼친 자를 참형에 처한 아몽(阿蒙)의 엄한 군율(軍律)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으니 그 청렴함을 알만 하였다. 남녀들이 서로 가까이 어울려도 서로 시기(猜忌)하거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감히 풍기(風紀)를 침범하지 아니하였으니 통어(統御)하기를 간결하게 함이었다.

장군이 육로(陸路)를 따라 남으로 가 있고, 정(丁), 주(朱) 두 천총(千總)을 머물게 하여 남은 군졸을 보살피게 하였는데 두 천총이 다 능히 장군의 뜻을 체득하여 동요가 없었으니 위엄(威嚴)이 평소에 행해졌음이다. 호남지방이 다시 난리(亂離)를 겪음에 짐을 날라주고도 대비(駄費)를 못 받는 사람들에게겐 모두 우마치모(牛馬齒毛)를 문적에 기록하고 각기 따져서 환급(還給)하게 하였으니 이로 연유하여 원근간(遠近間) 열복(悅服)하고 모두 탄 말이 없었으니 덕이 널리 퍼짐이다. 장군은 이미 인자함, 조화(調和)로움, 명령의 엄숙이며 청렴과 간결(簡潔), 위엄(威嚴)과 덕성(德性) 아울러 3천명의 동덕지사(同德之士)를 지냈으니 <외연도에서 제향(祭享)을 받는> 전횡장군(田橫將軍)과 그 휘하의 오백동덕지사(五百同德之士)와 누가 더 많고 누가 더 적으나.

이에 황제의 영험으로 늙은 도적을 치는데 특별히 대가 쪼개지듯 하는 중에 있으니 옛터(성)를 다시 찾아 닳을 내렸던 전의 포구에서 장대에 매달린 수길(秀吉)의 목을 보게 되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에 마땅히 비석을 네거리에 세워 陵師³⁾로 여기는데 성중(城中)의 부로(父老)들은 사적으로 말하기를 모두 자기만이 장군의 은혜를 독차지해야 한다 하고 또 서해(西海)의 해신(海神)은 가장 영맹(靈猛)하니 배타고 여기를 지나서 이들이 이에 기도하고 장군의 위엄을 빌어 복을 기구(祈求)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니 이 또한 가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를 위해 명(銘)하노니
 성씨는 노(魯)나라의 삼성(三姓)에서 나뉘져
 계(季)는 미음(微音)이 되고
 가을은 살기(殺氣)에 속한다는데
 이름은 서쪽 금국(金局)에 속하네

2) 아몽(阿蒙)은 여몽(呂蒙)을 말한다 삼국 시대 오(吳)나라 여몽이 형주(荊州)에서 관우(關羽)의 군대와 싸울 적에 민가에 들어가서 약탈하지 말라고 군령(軍令)을 내렸는데, 군사 하나가 샷샷 하나를 민가에서 가져와 갑옷을 닦자, 군령을 범했다는 이유로 눈물을 흘리며 목을 베니, 군중이 진울(戰慄)하며 길에 떨어진 물건조차도 줍지 않았다는 기록이 《삼국지》 권54 오서(吳書) 여몽(呂蒙)에 보인다

3) 제(齊) 나라 군사. 제 환공(齊桓公)이 초(楚)를 정벌하고 군대를 소릉(召陵)에다 임시 주둔시켰었음. 《春秋 僖公 四年》

금성(金星)이 반짝이는 가을달 팔월(八月)엔 4)

왜적(倭敵)을 가히 무찌르리

영원(永遠)토록 여러분을 배향(配享)하리니

두고두고 뒷날을 밝게 비추시라

〈황영주 역, 대보문화 제2집5〉

질직수병유격장군계공칭덕비 〈해역문〉

18) 성동리제방사실비(城洞里堤防事實碑)

- 위치 :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안성굴 입구
- 건립연대 : 1933년
- 지은이 : 윤명오(尹命五)

城洞里堤防事實碑

蓋城洞一區以雲峰來脉平遠廣開插川東來北馳流于入海爲城洞水岸之所以界也又一小支側出流于村前卽一灌溉之溝也屢經大水連陸橫斷里古爲患築堤繼持中至破壞川口漸廣每當夏潦洪流氾濫侵害家屋或至四五尺人命濱危況至昭和四年春慶南線鐵橋架設沮害本里水口延築七十餘間堤防者乎里爲憂陳情府道郡面矣郡守金容誠屢報本道朝會慶南社自諧社深燭地形撤二十間築堤其餘五十間尙延袤鐵橋水之淳滯理固然矣面長黃始顯極陳形便于慶南社打協水害防禦之策該社延拖歲月五年六月代表任性淳金珀濟面質于本道矣後十餘日水產課長冒暑踏查時郡守面長警官入會使管區主任石塚實測八百二十餘間堤防計算一萬五千圓工費矣追後編成五千圓補助豫算但以地方費不足不則支發六年春郡守趙豐鎬課長杉山又繼審查數月廖廖代表二十一人面陳于本道確得道補助承認到付郡面趙郡守黃面長依道指示案來石塚再作八百二十間以九月末日付上申果蒙四千圓補助矣但水岸之異議工事遷延而杉山猝變設計亦一魔障也元川排流水域天作之形不容人力者也至若設計原案則歷代課長所以目睹實地丁寧指揮者也至於異議又非設計後始起者也昔日垣岸歷史昭然在目則今此復舊建築有何不可但因若干土地沮遏巨後是可得乎面長李益鎬任事於難關力主解紛建設臨時濟衆橋二十二間又築堤防七百九十八間元狀雖不盡復從此庶免巨漫豈不幸哉夫役也七年九月十七日始八年三月九日竣工此其始終顛末之大略也今當竣役不可無傳後伐石紀績任君性淳囑余記之以其衰謝難任操觚之役辭不獲已撮要旨叙實蹟如右云爾

4) 이 부분을 노승석은 ‘八月’을 ‘八月’로 보아 ‘태백성(太白星,長庚)이 달에 드니’로 해석했다.

5) 황영주의 초역(1992)에서 미비된 부분을 노승석 역(2008)과 고전간행회 자료를 참고로 보완하였음

通訓大夫丹陽郡守坡山尹命五記 前參奉吳昌植書

代表 任性淳 吳炳允 吳亨植 任衡淳 任祥準 任碩鎬 吳炳郁 金珀濟 金麟濟 任○宰 任興準 任璣宰 金信濟 李鍾林 金商彥 白南用 吳炳熙 吳炳壽 吳炳翊 金冕濟 任哲宰 金商哲 金達濟 吳祥圭 任喆宰 金龍濟

昭和 八年 五月 日 立

성동리 일대의 대체적인 모습은 운봉산의 맥이 뻗어 내려 오다가 이윽고 평평해지며 들판이 멀리까지 넓게 펼쳐진다. 그 사이를 커다란 내가 동쪽에서 흘러와 방향을 틀어 북쪽으로 치달려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로 인하여 성동리와 수안으로 경계가 나뉘게 된다. 또 하나의 작은 지류가 곁에서 나와 마을 앞을 흐르는데 일종의 관개수로인 셈이다.

큰물이 자주 나 마을을 휩쓸고 지나감에 마을에서는 예전부터 커다란 근심거리로 여겼다. 제방을 쌓아 유지해 오던 중 냇가의 입구 쪽이 무너져서 점점 넓어지자 여름철 장마철만 되면 냇물이 불어 넘쳐 가옥이 네땀 자씩이나 침수되고 주민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소화 4년(1929) 봄 경남선의 철교를 가설하여 성동리의 수구에 70여 간을 연장하여 제방을 쌓는다고 하니 마을에서는 침수를 우려하여 총독부와 충남도청·보령군청·웅천면 등에 진정하였다. 김용성 군수가 여러 차례 도에 보고하고 철도회사인 경남사에 조회하니 회사에서는 지형을 자세히 살펴 20여 간을 축소하여 나머지 50간만 막는다고 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철도회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지만 철교의 구간이 늘어나므로 물이 막혀 제대로 빠지지 않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황시현 면장이 경남철도회사에 그러한 상황을 극력 진정하고 수해방지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회사는 마냥 세월만 끌고 있을 뿐이었다.

이듬해인 소화 5년(1930) 6월 주민대표인 임성순과 김박제가 도에 서면으로 질의하니 열흘쯤 되어 수산과장이 더위를 무릅쓰고 현장답사를 나왔다. 군수와 면장, 거기에 경관까지 입회한 가운데 구역을 관할하는 이시스까 주임에게 실측하게 하니 820간의 제방을 쌓는 데, 15,000원의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하였다. 보조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곧바로 지급 발송하지 못하고 추후 5,000원을 편성하기로 하였다. 소화 6년(1931) 봄 조풍호



성동리제방사실비

군수와 스키야마 과장이 또 심사하였으나 몇 달째 아무 소식이 없자 주민대표 21명이 도에 서면으로 진정하였다. 보조금의 승인이 확정되어 군과 면으로 하달되자 조 군수와 황 면장은 도에서 내려온 지시안 대로 일본인 주임인 이시스씨가 다시 820간의 제방을 설계하여 9월 말일부로 上申하니 과연 4,000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수안지역의 주민들이 이의를 하여 공사가 늦어지고 스키야마 과장이 설계를 갑자기 변경한 것이 하나의 장애가 되었다. 성동리 마을 앞을 흐르는 지류가 아닌 본류의 물을 제방공사를 하기 위하여 돌려 흐르게 할 때 성(城)은 천연의 모습이어서 아무런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었다.

설계 원안 대로 하는 것은 역대 과장들이 실제 똑똑히 본 바이고, 또 그렇게 지휘한 것이다. 수안 사람들이 이의를 하고 비난까지 하는 것은 설계 후에 비로소 제기한 것이다. 전날 원안(垣岸)의 역사(役事)가 아직도 눈에 또렷이 남아 있거늘 지금 이렇게 무너졌던 제방을 복구하여 쌓는 일이 어찌 잘못이란 말인가. 단지 약간의 땅 때문에 이게 어디 될 법이나 한 일인가. 이익호 웅천면장은 난관에 부딪친 일을 책임지고 분쟁을 힘써 해결하며, 임시 제중교 22간을 건설하고 790간의 제방을 쌓았다. 본래의 모습대로 다 복구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큰 물로 가옥이 침수되는 화는 면하게 되었으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

본 공사는 소화 7년(1932) 9월 7일 착공하여 이듬해 3월 9일에 준공되었다. 이상이 성동리 제방공사 전말의 대략이다. 이번에 공사를 마치며 그 내용을 뒷날에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돌을 다듬어 새겨 둔다. 임성순 군이 나에게 글을 지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미 노쇠한 몸으로 붓을 잡을 만한 형편이 못됨을 들어 사절하였으나 한사코 사양할 수만도 없어 부득이 그 요점을 들어 사실대로 위와 같이 기록한다.

통훈대부 단양군수 파산 윤명오 지음

전 참봉 오창식 서

소화 8년 5월 일 세움

(역 : 송하순, 보령문화 제12집)

19) 영천기(靈泉記)

- 위치: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아미산 상대암 내
- 지은이 : 조익순(趙翊淳)
- 건립연대 : 1917년

靈泉者何爲也山之毓精水之所源也 余讀書于峨嵒山上臺菴 旣而天旱井水枯竭乃與學徒李冕雨任正宰趙源長趙秉文金達濟金始元李景雨李相虎朴萬和鑿臺下數十石壁下得泉泉水冽冽味甘而寒余飲而樂名其泉曰靈泉諸君曰鑿之者諸生之力也名之者先生之功也功力俱到宜以記爲余曰諾且茹水而足矣況與斯菴之主人免雪水之飲則幸也今從我者文源漸進如泉之始達奚比一靈泉遂於是乎



영천과 영천기(미산면 용수리 상대암)

20) 화암서원유허비(花巖書院遺墟碑)

- 위치 :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화암서원 내
- 건립연대 : 1914년
- 지은이 : 김완진(金完鎭)

花巖書院卽土亭李先生文康公諱之菡鳴谷李先生忠簡公諱山甫天休堂李先生諱夢奎三賢俎豆之所舊在保寧郡靑蘿洞花巖川上今稱書院卽是己○在二百二十九年湖西儒紳敬慕三先生杖屨遺躅并建書院而享之因蒙賜額後至四十九年前因朝命毀撤於其址設壇而祀之至今年久廢弛竝其遺墟將歸泯沒余爲是懼鳩財募工就其遺墟鐫石而立之建閣而護之庶幾三先生之道德學行彌久彌章而永爲式於此鄉也夫

檀紀四二四七年 二月 日

保寧郡守 金完鎭 謹識

21) 영암비구창금강암비명(玲岳比丘創金剛庵碑銘)

- 위치 :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양각산 금강암 내
- 건립연대 : 조선초기

朝鮮

太祖康憲大王王師無學門人玲岳王上人覲肇确

倩銘於余曰融未知其由安敢爲哉其哉

三適彌峰洞山而執侍數載四五七辰謁無

本寂中心已寧自爾志筌越乙酉春討金山

迺觚孔角斧又於山之陽一里許覩得靑石

彌勒像之曰然則金剛之意明矣轆轤 · · · · ·
 遠塵土而捷之高蹈物表飽清閑而樂之獨 · · · · ·
 心也今玲岳觀奧而開基此因悟心而卓庵 · · · · ·
 明王亦奧宜哉銘曰山林 · · · · ·
 王壺涵冰師之其清塵匣拓鏡師之其明始於峰 · · · · ·
 縵絕彼離微花自開落鳥弗尋飛指地一片維庵其 · · · · ·
 之青有鍾神秀維山之靈斲成石佛以比天真中能 · · · · ·
 住道場度人已罄
 永樂十年壬辰季冬上澣
 宮主權氏顛堂主判漢城權弘翁主李氏

22) 영보정효등왕각체계해현판(永保亭效騰王閣體癸亥懸板)

- 원 위치 :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영보정내
- 현 위치 : 보령시 주산면 증산리 시루피
- 지은이 : 李德溫(1623년 지음)

永保新營扶餘舊國途沿內浦鎮臨外洋面嗚呼而背伽倻戴六鰲而浮三島秦童採藥地勢接方丈之山漢使乘槎河流連廣寒之界形勝一二氣像萬千冠蓋填鶴嶺之程甌負通魚鹽之市御使張綱之星彩旌節屢臨方面范滂之風栽輜軒每至騷人墨客斗酒百篇漕泊商船舳艫千里砂籠鳳翥庾開府之牢騷鐵軸龍驤王將軍之戰艦登南昌閣暫駐征鞍對北海樽敞開宴席清秋將半霽月初圓海山染而錦繡紅潮水澄而玻璃碧巡簷楹而徙倚賞風景而淹留臨百尺之高樓俯千層之疊浪畫欄飛出鷗鷺拓枝粉堞周遭烏啼擊析醉或不省樓黃鶴之欲槌怒猶未夷潮白馬之何壯攘珠箔拓玉窓日日照其觀瀾川瀆流而朝海氣蒸雲夢之澤影落馮夷之宮隔岸成村織綃瀉珠之室迷津海纜估酒釣魚之船水落澄波烟迷遙澈天光共雲影徘徊牧笛與漁歌互答清詞數曲響咽屋樑之塵鼓角五更聲悲戍樓之月幽襟暫暢長嘯復舒寶篋涼而秋風輕錦帳寒而夜霜重征南無事不下益州之船望北有心長懸魏闕之眼江山古風月新償夙願於平生志壯遊於今日泛梗身世覺寒暑之易逝依樓行裝歎東西之難定失途道於地角指鄉關於天涯泰山杳而五雲深楚天高而七星遠東風草綠緣恨欲去之王孫春樹花紅每悲思歸之杜宇望長安而西笑懷美人而北吁嗚呼人無哲愚時有利鈍賢猶跡晦聖亦轍環謗臥龍於隆中惟昭烈帝聞歌鳳於門外曰文宣王所賴上有明君下多良佐河清海晏聖應千一之期水麗山明國有百二之勢祝南山而舞蹈酌北斗而詠歌邊境無虞馬歸牛放昇平有像國泰民安舉目山下豈効伯仁之泣處身江海誰懷仲淹之憂某早志桑蓬晚誤書劍茲母投杼若曾參之同名私從裝

珠慕范蠡之變性南溟水濶沽魚戢鱗北極路修羈禽斂翼非江淹之彩筆覆字安之錦衾此日華筵叨排受簡他年畫棟濫揭篇詩李白清高咏鳳凰而遛跡崔灑偃蹇題鸚鵡而流名嗚呼槐市光陰桑田朝暮白鶴華表青蛇岳陽咏月吟風辭雖乏於幼婦探奇選勝興不淺於老夫敢効捧心自取抵掌繼以四韻資之一吟詩曰何年結構湖之渚高棟翬飛簷鳳舞估客船迴竹嶼烟漁翁網港蘆洲雨江涵天影水悠悠月色波光春復秋樓上洞賓人不識一聲長笛舊風流

天啓癸亥 承旨 李德溫 縞

영보정은 새 수영에 있는데 옛 백제의 관도이다. 길은 내포땅에 이어지고 진영(鎭營)은 먼 바다에 임하였다. 넓은 바다를 면하고 가야산을 등지니 천제(天帝)가 아꼈다는 육오산(六鰲山)을 머리에 이고 삼신산(三神山)이 떠 있는 격이다. 진시황이 동자(童子)들을 시켜 삼신산(三神山)으로 불사약(不死藥)을 캐러 보냈었다니 지세는 신선들이 산다는 방장산(方丈山)에 접해 있음이 분명하고, 하늘나라 사신들이 때를 타고 왕래했는지니 물길은 달나라 지경에 연해 있음이 분명하다. 뛰어난 경치의 한 둘이 천태만상으로 변하고, 고관이며 벼슬아치들의 수레가 하고개 고갯길을 메꾸는가 하면 짐바리 짐꾼들도 저자를 누빈다.

후한 시대의 어사 장강(御使張綱)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 절도사로서 별과 같이 반짝이는 깃발을 앞세우고 여러 차례 이곳으로 소임차 부임해 왔는데, 얼굴이 반듯하며 의젓하고 고상한 풍채였다. 신임 사또가 유현(輜軒)을 타고 도입할 적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이 고장 문사(文士)와 명필(名筆)들이 모여 술을 말로 마시고 시를 백 편씩 지어 내곤 하였다.

가거나 머물러 있는 장삿배들은 뱃고물과 뱃머리가 이어져 천 리나 될 만큼 번화(繁華)하고, 이 배에 매달린 등롱(燈籠)들의 봉황이 나는 듯한 화사함에도 경개부(庚開府)라는 사람이 자기 갈 곳을 가고자 하는 일념에서 높은 벼슬과 극진한 대우에도 불만(不滿)하였다는 듯, 이 사또의 마음에는 차지 아니하고, 예리한 무기와 용맹한 군사를 실은 군함을 거느렸던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 나오는 왕장군을 생각하며 절도사로서의 직분을 유념한다.

왕발이 남창의 등왕각에 올라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잔치상을 대했을 때마냥 널리 연석(宴席)을 베풀니 맑은 가을도 반으로 접어 들어 8월 열나흘 둥근 달에 산과 바다는 물들여져 비단같이 곱고 조수는 맑고 맑아 유리마냥 푸르다. 처마 밑을 따라 거닐다가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는 멈추어지는구나. 백 척이나 되는 높은 누각에 올라 천 겹이나 되게 겹쳐 밀려오는 파도를 굽어본다. 단청한 난간이 선명하게 돋보여 올빼미는 놀라서

나뭇가지인 양 헤쳐대고 회 바른 성가퀴 둘레엔 까마귀가 까옥대며 야경꾼마냥 맴돈다.

술자리가 무르녹아 나도 술에 취해 혹 인사불성이라도 되어 이태백이 술에 취해 황학루를 부수려던 거조(擧措) 같은 것이나 나오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면 노한 사람들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몰려들 텐데 격분한 오자서가 백마를 타고 파도를 헤치며 달려들 듯 할 터이니 얼마나 굉장하고 훌륭한 장관일까.

주렴을 걷고 옥창(玉窓)을 여니 햇살이 비치는 물너울이 보이는구나. 개울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니 그 정기는 멀리 운몽의 호수까지 뻗치고 그 울림은 수신(水神)이 산다는 용궁에까지 깊이 이어지겠구나. 언덕을 사이에 두고 마을이 이루어졌는데 비단을 짜거나 구슬을 꿰는 일을 하는 집들이다. 닻을 풀고 나섰다가 배 댄 곳이 없어 해매는 장삿배며 고깃배들이 흥성거린다. 썰물에 물결은 잔잔하고 맑은데 연기는 흩어져 멀리멀리 퍼져 간다. 햇빛은 구름과 함께 머뭇거리고 목동들의 피리소리는 어부들의 뱃노래와 화답한다.

칭아한 시조 몇 곡에 대들보의 먼지도 흐느끼는 듯하고 첫새벽 고각(鼓角)소리에 망루에 비치는 달빛도 슬퍼하는 듯하구나. 조용한 마음을 잠깐 풀어 시원하게 긴 한숨 내뿜어 본다. 돛자리가 서늘하게 느껴지니 가을바람이 가볍게 불어 스며들고, 비단휘장이 차갑게 느껴지니 무서리가 내렸나보다. 나라 일이 바로잡혀 안정되었으므로 나라 일을 위하여 어디 갈 곳도 없지만 임금 계시는 북쪽을 바라보고 흠모하는 마음이 있어 늘 대궐에 마음을 두고 있다. 강산은 옛날 그대로이건만 달빛은 새롭구나. 일찍부터 평생에 원하던 것을 채우기라도 하듯 마음놓고 장쾌하게 오늘을 놀았다.

조정을 떠난 부평초와 같은 신세로 이제 세월이 덧없이 흘러갔음을 깨달으면서 이 영보정에 앉아 있는 나그네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망설인다. 조정에서 출사를 권해 오는데 출사를 할 것이냐 은둔(隱遁)을 할 것이냐를 걱정하지 못하고 한탄하는 것이다. 나는 한때 실각하여 벼랑에서 길을 잃고 하늘가에서 고향을 불러보기도 하였다. 그때 산은 아득하여 오색구름만 자우룩하였고, 하늘이 높아 북두성은 멀기만 하였다. 그렇듯 내 마음의 임금은 멀기만 하였다. 동풍이 불어와 풀잎이 파릇파릇해지면 볼모가 되어 타국으로 끌려간 왕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함을 얼마나 한스러워했겠는가. 나무에 물오르고 꽃이 피어날 적마다 귀향길 생각하는 두견새도 슬퍼한다는데… 나도 서울을 바라보며 좋은 소식 들려오면 즐거워하였으며 임금을 사모하여 북쪽을 바라보며 탄식하였다. 아! 사람이면 지혜롭고 어리석음이 따로 없고 시운도 이(利)와 불리(不利)가 있어 현명하다는 사람이 실수하는 일도 있고 성인도 또한 때를 못 만나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천하를 두루 돌아다녔다. 와룡선생을 용중산(隆中山) 남양으로 찾아간 이는 소열황제요, 봉(鳳)의 노래를 거리에서 들은 분은 공자님이셨다.

바라는 바는 위로 밝은 임금이 계시고 아래로는 어진 보좌의 신하들이 많이 있어 황하수가 맑아지면 천하가 태평해진다는 말과 같이 황하수가 맑아져 천하가 태평하듯 온 나라가 평안하다. 성스런 왕께서도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천 가지의 생각 중에는 한 가지의 취할 점은 있다는 말과 같이 하찮은 사람의 이야기라도 택할 말은 택하시어 백성의 기대에 부응하셔서, 산 푸르고 물 맑은 아름다운 강토에 백분의 2의 세력을 가지고도 방비할 수 있는 힘을 갖추어 두고 있으니, 서로 축복하며 춤추고 술을 따라 서로 권하며 노래를 읊는다. 변경에는 걱정거리 없으니 군마도 돌려보내고 소도 모두 풀어주어 태평세상의 참모습으로 나타나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평안한 것, 이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다. 눈을 들어 폭정에 시달리는 산하를 보고 옛날에 주백인(周伯仁)이라는 사람이 왕실이 쇠약하여 정사가 불안한 것을 보고 울었다는데, 그 격한 정열을 내가 어찌 본받겠으랴마는, 관직을 떠나 시골집에 살면서는 범중엄(范仲淹)이라는 사람이 천하를 걱정하였다고 하듯 나도 걱정은 크게 하였으나 누가 이 마음을 생각하랴.

나는 일찍이 큰 뜻을 품었으나 늦게는 잘못되어 글이나 읽고 글씨나 쓰게 되었다.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짜던 북을 던지고 도망한 증자(曾子)의 어머니가, 알고 보니 사실은 증자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의 소행이었다는 고사와 같이 나에게도 엉뚱한 일이 있었으며, 왕의 사람됨이 오죽하지 않아 이를 버리고 가족과 함께 살림을 챙겨 변성명을 하고 망명한 범려와 같이 나도 하향하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 남쪽 바다에는 물이 칠령이는데 나는 물 마른 웅덩이의 물고기마냥 숨 죽인 채 엎드려 있고 북쪽으로 가는 길은 흰하게 닳여 있지만 나는 조롱 속의 새마냥 웅크린 채 있노라.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나는 이를 포기(拋棄)하는 것이다. 강엄(江淹)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녔던 오색의 붓을 내 주고는 문재(文才)가 절핍(絕乏)되어 글을 못 짓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못 되지만, 자안(子安)이라는 사람이 수재라 하여 많은 사람의 선거(選舉)를 받으면서도 벼슬을 사양하고 이불을 쓰고 집에 누워 있었다 하듯이 나도 세속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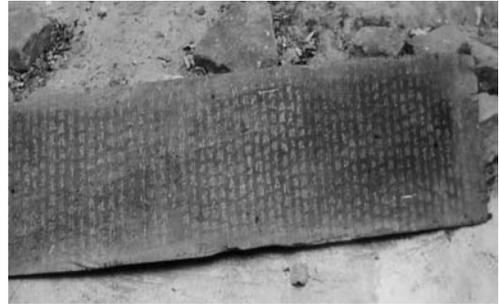
오늘 이 화려한 연석에서 나의 글이 분수에 넘치게 간탁(簡擢)을 받아 후일 영보정 대들보에 외람되게 편액으로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태백은 인품이 청렴하고 고결하여 봉황대(鳳凰臺)라는 시를 읊고 그 명적(名蹟)을 남겼거니와 최호(崔灝)라는 사람은 사람됨이 방만하고 방자하여 앵무(鸚鵡)라는 명시를 짓고도 그 명성은 떨치지 못하고 사라졌으니, 아! 이 혼잡한 세월 속에 세사(世事)는 조석(朝夕)으로 변천한다. 시를 읊고 노래를 부름에 아녀자(兒女子)들에게는 그 사장(辭章)이 통함이 적을지라도 아름다운 정치와 이름 있는 명소를 찾는 흥취가 이 노부(老父)에게는 알지 않기에 왕발(王勃)의

등왕각서(騰王閣序)를 본떠서 손뿔장단으로 사운(四韻)을 이어 시 한 수를 짓노라.

글로써 말하노니

어느 때 지었던가. 이 물가의 정각을
높은 대공 추녀 끝엔 봉황이 춤추듯
장삿배는 대섬 쪽 안개 속으로 드나들고
어부는 갈대섬 듣는 비에 그물을 건네.
강은 하늘빛을 띤 채 물너울만 넘실대고
달빛 잔잔한 물결 위엔 세월만 흘렀구나.
다락 위의 신선을 알아보는 사람 없어
한 곡조 첫대소리만 옛 풍류 그대로세.

(출전: 대보문화1집, 황영주 역)



영보정효계해현판(1997, 주산면 증산리)

※ 이 현판은 선조 때 우부승지를 역임한 이덕온(李德溫)이 광해군 때 주산면 증산리에 낙향하여 살면서, 오천에 있는 충청수사와 가까이 지내던 중, 글을 지어 직접 제작하여 기증하여, 영보정에 게시되었는데, 수영 폐영 후 그의 후손이 회수하여 집에 보존해왔고, 주산 증산리의 전주이씨 종가 댁에 보존되고 있다가 최근 도난 당하였다. 30cm×160cm 크기에 목판 음각 현판이다.

23) 영보정기(永保亭記)

- 지은이 : 이의무(李宜茂)
- 시기 : 1510년

歲甲子春。咸川君李公諱良。以廉選爲忠清道水軍節度使以寵之。重其任也。既視事。政通人和。無不樂爲公用焉。營之北隅。舊有客館曰涼廳。爲風雨所壞。不修者久矣。公乃謀於僚佐。撤舊而亭之。扁曰永保。又作永保亭歌詞。以寓夫忠君憂國之意。人皆樂公之能樂其樂也。是亭也據層崖之上。斷岸千尺。俯瞰長江。洪波萬頃。峯巒周遭。翠屏低列。西望海門。水天相接。島嶼微茫。出沒於煙雲杳靄間。斯實江山之勝槩也。一日。監司許公。駐節于斯。以相從容宴飲以樂之。賓僚之在席者五六輩。亦一時之名勝也。酒既半。席上有執盞而復於公者曰。江山勝槩。天地間常有。而人之樂此勝槩者。不常也。公以萬夫之長。當大平無事之時。高牙大纛。能樂此勝槩。夫豈偶然哉。況今日之所與共之者。無非一時名勝。而江山萬象。亦若欣欣然感於知己。舉皆呈露於几席之上。豈非天慳地祕。以待其人。而使公能樂其樂也。然人知公之能樂其樂。而不知公之能保其樂也。知公之能保其樂。而不知公

之永保斯樂於無窮之意也。苟不知公之心。則江山勝槩。亦徒一物而已。其能使人永保之哉。他日繼公而來者。登公之亭。歌公之歌。一唱三歎。聖恩流布。萬世興之調。則當知我公之心也。公以爲何如也。公曰。諾。命洪州牧使德水李宜茂。爲之記。

영보정기

갑자년 봄(1504. 연산 10)에 함천군 이량이 충청도수군절도사가 되었는데, 이것은 임금의 총애가 있어 중하게 맡겨진 임무였다. 이미 임금께서는 정무를 보아서 정사에 능통하고 사람들을 화합하셨으니 공을 임용함에 즐겁지 아니함이 없었다. 수영의 북쪽 모퉁이에 오래된 객관이 있었는데 양청(涼廳)이라 하였다. 비바람에 파괴되어 수리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에 공이 관원(官員)들과 의논하여 옛것을 헐고 정자를 지어 현관을 걸었으니 영보(永保)라고 하였다. 또 영보정 가사를 지어 충군우국의 뜻을 비유하였으니 사람들이 모두 공이 즐거움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였다.

이 정자는 층층 절벽 위에 있어 깎아 내린 듯한 언덕이 천 척이며, 큰 강이 내려다보이고 한없이 넓은 바다와 산봉우리들에 둘러싸여 있고, 아래에는 이끼 낀 초록색 바위들이 널려 있다. 서쪽 바다 입구를 바라보면 바다와 하늘이 맞닿아 있고, 섬들이 아득하게 보이며, 연기 구름이 아득한 안개 사이로 출몰하니 이것은 정말로 강산의 뛰어난 경치이다. 하루는 감사 허공이 여기에 머물면서 서로 만나 잔치를 베풀고 이를 즐겼는데 손님들 오욕 명도 함께 자리하였다.

역시, 한 때의 명사들이었다. 술기운이 무르익어 자리 위의 술잔을 집었다 놓았다 하며 공이 말하기를 강산의 뛰어난 경치는 천지간에 항상 있는 것이지만 사람이 이 뛰어난 경치를 즐기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공이 모든 이의 어른으로서 태평무사 시에 고상하고 우아하고 도량이 넓게 이 뛰어난 경치를 즐기니 어찌 우연이겠는가? 하물며 오늘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한 시대의 명사들이 아닌 사람이 없으니 강산 만상도 또한 지기(知己)들에게 감동되어 기뻐하는 것 같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깨석 위에 모두 드러내고 있으니 이 어찌 하늘이 아끼고 땅이 감추어 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을 기다렸다가 공으로 하여금 그 즐거움을 즐기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공이 그 즐거움을 즐기는 것만 알지 공이 그 즐거움을 보존하려는 무궁한 뜻은 알지 못한다.

공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강산의 뛰어난 경치도 또한 하나의 일물(一物)에 불과할 뿐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훗날 공을 이어 오는 사람이 공이 지은 정자에 올라 공이 지은 노래를 부르고, 일창삼탄하고, 성은이 유포되어

만세토록 흥하기를 바란다면 곧 마땅히 공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공은 어찌 생각하는가? 하니 공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홍주목사 덕수 이의무에게 명하여 이를 기록하게 하였다. (역 : 황의천)

24) 영보정중수기(永保亭重修記)

- 지은이: 신익성(申翊聖)
- 시기 : 1642년

湖西之近海郡縣。謂之內浦。內浦一帶。山勢澶漫。委爲畚落。而獨烏棲山奇拔馳驟。勢若渴龍赴海。於其所止。昂然舉頭。千尋蒼壁。突入水中。自成城塹。周遭數里。因其天險。縈以粉堞。剗爲麗譙者。水軍節度使之營也。安眠圓山孤巒諸島。扞蔽如屏障。比衆結已寺浦洪陽新邑諸山。環拱如簪笏。海潮從島嶼間奔涌而入。與上流通。滙爲萬頃之湖。据城之高。壓湖之廣。冠以飛閣者。永保亭也。湖心雙島。對峙如畫。泛浮於煙波杳靄之中。若丸若彈。龍馬有時而出。噴雪騰空。若眩若幻。登斯亭者。飄飄然有凌雲之想。殆非埃壘之境也。以是亭之名聞於國中。征倭之役。天朝舟師來泊亭前。其將領多江南人。皆以爲形勝勝於岳陽。然則亦可謂天下之勝也。余於庚辰秋。乞恩休沐。留憩斯亭。日夕徘徊。心甚樂之。亦不能無慨然者矣。不變者天險也。易毀者人功也。海山之奇觀如新。薨桷之丹雘已故。雨簷霧棟。又將傾而圯也。興廢而重新之者。必有其人也。其明年夏。湖西水關馳使者修辭。謁余以永保亭重修記。余進其使者問之。曰。亭之建久矣。弘治甲子。咸川君李公良來莅此鎮。輟廢館而亭之。始揭扁焉。蓮軒李公宜茂爲之記。七十年而爲萬曆甲戌。李公昕因其舊而修之。于今六十有八年矣。柱椽之朽者易之。欄檻之壞者改之。瓦縫輒鋪門扉皮閣。罔不整飾。梳題板刻。燦然增彩。余問其費。曰皆出於節帥之損俸。未嘗煩一卒力也。余乃莞爾曰。余固知興廢而重新之者有其人也。余曾入湖西界。稔聞水關之爲治。自律甚莊。不畏強禦。體統之所當持者持之如法。軍政之所當申者申之如令。入其營。樓船截海。懷若對壘。褊裨交藝。技窮穿楊。凡隸於鎮者。莫不趨令。樂爲之用。余已識其爲治能知後先輕重。亭之不治。非不能也。夫爲將之道。體統立軍令肅。器利而士勇。然後事多暇。暇則亭榭可治也。賓旅可館也。此周書之所以謹著也。其爲治也。豈不井井有條哉。足徵其政之成也。治之如是。則天險可保也。人和可保也。亭觀之樂亦可保也。後之爲治者。如帥之治。則可以永保其樂於無窮矣。節帥名震益。驪輿人。丙子之亂。以宣傳官奉符徵勤王兵於湖西。冒萬死超長圍。入南漢城中。復齎檄出城。遍諭元帥諸軍。復命不踰時。時余摠禁旅。侍上左右。見上獎其忠勇。進秩賜緋。未數年。自郡守躡躡節鎮。不世之遇也。知帥事

之終始者。宜莫如余。而余嘗登斯亭。以興廢重新之責。有所期望焉。則敘列顛末。不敢以不文辭。是爲記。

영보정 중수기

호서근해의 군현을 내포(內浦)라 이른다. 내포 일대의 산세는 완만하여 영락없이 옷자락을 드리운 것과 같다고 할 만한데, 유독 오서산만은 우뚝하게 솟은 모양이 마치 목마른 용이 바다에서 일어나 그 곳에 이르러 불쑥 머리를 쳐들고 있는 것과 같다 하겠다.

천 길이나 되는 푸른 절벽은 물속으로 곧두박질하여 저절로 성참(城塹)을 이룬 듯한데, 그 천험(天險)을 의지하여 분첩을 둘러치고 성문이 세워졌으니 여기가 수군절도사의 영(營)이다.

안면·원산·고만의 여러 섬들의 병풍이 마냥 막아 서있고, 사포·홍양·신읍·결기의 여러 산들은 예복을 입고 공수(拱手)하듯 에워싸 있으며, 조수는 섬 사이를 따라 포구로 달려들어 돌아서 만경(萬頃)의 호수를 이룬다. 여기 성의 높은 곳에 자리 잡고 바다의 광폭(廣幅)을 바탕으로 머리 위에 쓴 갓모양 날아갈 듯 높이 세워진 누각이 있으니 바로 영보정이다.

호수처럼 잔잔한 앞 바다의 두 섬은 그림같이 마주하여 안개 속에 두둥실 떠 있어 탄환이 튕긴 듯하고, 용마(龍馬)가 때로 나타나 눈(雪)을 품고 하늘로 오르니 아찔하고 어지러운 것이 꼭 꿈을 꾸는 것만 같다.

이 정각에 오르는 사람은 가슴까지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멀리 두둥실 떠 있는 구름을 벗하는 기분이 되어 거의 티끌에 묻힌 인간세상을 벗어난 느낌이 들게 한다. 그리하여 이 영보정의 이름이 중국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지난 임진란 때 왜적을 치기 위하여 온 명나라 수군이 바로 이 영보정 앞에 배를 대었을 때 그 장수들이 대부분 강남 출신들이었는데, 그들 모두가 여기 경치의 아름다움이 중국 악양루(岳陽樓)보다 훨씬 낫다고 칭찬해 마지않았으니 천하의 절승(絶勝)이라 일컬어도 좋으리라!

내가 경진년(1640) 가을에 휴가를 얻어 이 정각에서 오래 쉬어 갔는데 그때 아침저녁으로 거닐면서 마음이 몹시 즐거웠으나 한편으로는 서글픈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려웠다.

변하지 않는 것은 천험(天險)이요 망가지기 쉬운 것은 인공(人功)이라 산과 바다의 빼어난 경관은 그대로인데 용마루의 기와며 서까래의 붉은 칠은 다 바래고, 처마며 기둥도 다 기울어 무너지려는 참이었다. 그 낡아 부서진 것을 다시 새롭게 일으킬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겠다고 느꼈었는데 그 이듬해 여름 수군절도사가 사자를 보내어 나에게 영보정을 중수했다고 알려 오며 그 중수기를 써줄 것을 청하였다.

내가 그 사자(使者)를 불러들여 사연을 물으니 그는 말하기를 “정각(亭閣)을 세운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홍치 갑자(洪治甲子, 1504)에 함천군 이량(咸川君 李良)이 이곳 진영(鎭營)에 도입하여 객사를 헐고 정각을 세워, 처음으로 편액을 걸게 되었고, 연현 이의무(蓮軒 李宜茂)는 글을 지어 기념하였는데, 이로부터 70년이 지나 만력 갑술(萬曆甲戌, 1574)에 이흔(李昕)이 이 정각이 오래 되었다 하여 다시 수리하였으니 지금부터 68년 전 일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기둥이며 서까래의 썩은 것은 바꾸고 난간의 망가진 것을 고치며, 기와는 떼우고 벽돌은 채우며, 문짝·선반·현판까지 아름답게 조각을 해서 꾸미니 대단히 찬란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기에 나는 그 경비를 어떻게 마련하였느냐고 물으니 그는 “모두 사또께서 자신의 녹봉을 털어서 썼을 뿐 누구 한 사람의 힘도 들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내가 진작에 무너지면 고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더니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였다.

내가 전날 호서지방에 갔을 때 수군절도사가 군사를 다스림에 있어 대단히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귀에 익은데, 스스로를 억제함에는 매우 엄하고, 세력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체통을 지키기를 법을 지키듯 하고, 군무(軍務)를 펴에 있어서는 꼭 령(令)에 따르도록 하였었다.

그 영(營)에 들어서니 크고 작은 배들이 바다를 나누듯이 줄지어 떠있어 그 늠름하기가 누벽(壘壁)을 마주하는 것 같았고, 휘하의 비장(裨將)들도 훈련에 열심히 임하여 기량이 극진하고 활숨씨가 훌륭하였으며 진(鎭)에 딸린 모든 사람이 영을 따르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그 부려짐을 오히려 즐거워들 하였다.

나는 이미 그가 다스리는 법도의 선후와 경중을 알고 있어 정각을 고치지 아니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개 장수된 자의 도리는 체통을 세워 군령을 엄하게 하고, 병기를 예리하게 다듬어 놓으며 군사들을 용맹하게 단련시켜야 한다. 그런 후에라야 다른 일을 돌볼 겨를이 생기고 겨를이 있어야 정각도 고칠 수 있고 오신 손님도 묵을 수 있게 할 것이니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관(周官)을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다스림이 어찌 질서가 정연하고 조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 정사(政事)의 치적을 징험(徵驗)하기에 넉넉할 것이다. 이같이 되면 천험(天險)도 보전할 것이고 인화(人和)도 보전할 것이며 정관(貞觀)의 치적도 보전할 것이니 후일의 목민관들이 이 장수의 다스리던 법대로 한다면 그 즐거움이 무궁할 것이다.

이 수군절도사의 이름은 진익(鎭翼), 성은 민씨(閔氏)이고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병자란(1636) 당시 선전관으로서 병부(兵符)를 받들고 호서지방으로 나가 근왕병을 징집하고 만사를 무릅쓰고 적병의 긴 포위망을 넘어 남한산성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격문을 돌리려고 성을 나와 원수부 관하의 여러 군(軍)을 두루 찾아 유시(諭示)하고 복명(復命)하며, 직분을 어기지 않았다.

당시 나는 군사를 총괄하고 있었기에 임금을 모시고 모든 것을 보았는데 주상께서는 그의 남다른 충성과 용기를 높이 평가하사 가까이 불러 비단을 하사하였으며, 몇 해 지나지 않아 군수 자리에서 수군절도사로 벼슬을 올리셨으니 그렇게 파격적인 승진은 흔치않은 특별한 대우였다.

이 장수에 대하여 모든 일을 아는 데 있어 나만한 사람이 없고, 또 내가 전에 이 영보정에 올라 그 남아진 것을 개수(改修)하여 새롭게 꾸미기를 바란 적이 있었으므로 그 전말(顛末)을 글로 엮는 데, 서툴지만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여기에 기록하노라.

(출전 : 대보문화 1집, 번역 : 宋河純)

25) 영보정후기(保寧縣永保亭後記)

- 지은이 : 송시열(宋時烈)
- 시기 : 조선후기

亭之興廢。前記詳矣。上之七年辛酉。以閔侯晟爲水軍節度使。亭在營之北偏。侯見其圯毀而歎曰。是吾先人之所重建者也。余今繼守其職。而不繼其事。徒有資聚。則是不惟不勤於公。而亦不孝於家也。遂捐俸鳩工。仍舊爲新。蓋起自今年七月。訖于八月望日。而營下之人。無有告病者矣。或疑歲侵之日。工役非宜。余謂宋之先賢。多以凶年故爲土工。今侯兼所以活飢民也。非直亭役之爲急也。況侯此舉實出於繼述之孝。則民孰不興感而子來哉。既感其孝。則忠義之心。亦豈不因此而生乎。苟如是。則雖或勞民而爲之。所益可續其所損。矧乎飢民由此而不死。則孰不曰一舉而兩得也。侯之先人名震益。嘗以忠清兵使。當聖考之溫幸也。迎駕於境上。而用周亞夫 故事。先驅至而不得入。駕臨營外。然後始承上命而開門。上嘉之。爲賜上乘以褒之。侯之家法如此。吾知侯於後日。必能效忠樹功。不但以一亭爲繼述之事。吾復有一語。願卒以告侯也。侯既新斯亭矣。願於良辰勝節登斯亭也。與管下軍民。北望楓宸於雲天之外。稽首拜手而誠心祝釐。則凡在軍民之伍者。其愛君殉國之心。必將油然而興矣。然則豈不勝於如雲之帆檣。蔽海之旌旗乎。未知侯以爲如何。

26) 영보정연유기(永保亭宴游記)

- 지은이 : 정약용(丁若鏞)
- 시기 : 조선후기

世之論湖石亭樓之勝者。必以永保亭爲冠冕。昔余謫海美。嘗有意而未至焉。乙卯秋。始從金井獲登斯亭。豈於亭有分哉。余方以好奇遭貶。然凡天下之物。不奇不能顯。觀乎永保之亭。知其然也。山之在平陸者。非尖削峻截。不能爲名。唯突然入水如島。則雖培塿之隆。亦奇也。水之由江河而達于海勢也。雖泓渟演漾不足稱。唯自海突然入山爲湖。則不待波瀾之興而知其奇也。姑麻之山。西馳數十里。蜿蜒赴海中。如鶴之引頸而飲水。此所謂山之突然入水而如島者也。姑麻之湖。東匯數十里。環以諸山。若龍之矯首而戲珠。此所謂水突然入山而爲湖者也。永保之亭。據是山而臨是水。以之爲一路之冠冕。則曩所謂物不奇不能顯者非邪。時節度使柳公心源爲余具酒醴。而太學生申公宗洙詩人也。值中秋月夜。汎舟姑麻之湖。轉泊寒山寺下。復有歌者簫者。與登寺樓。令作流商刻羽之音。余遷客也。愀然有望美人天一方之思。竝書此以爲永保亭記。

세상에서 호수·바위·정자·누각의 뛰어난 경치를 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보정(永保亭)을 으뜸으로 꼽는다. 옛날에 내가 해미(海美)에 귀양갔을 때, 마음은 있었지만 가보지 못했다.

을묘년 가을에 나는 비로소 금정(金井)으로부터 이 정자(亭子)에 오를 수 있었으니, 어찌 정자와 인연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때 기이한 것을 좋아함으로 인해 좌천되었었다. 그러나 천하의 사물이 기이하지 않으면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을 영보정을 보고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산이 육지에 있는 것은 깎아 세운 듯 뽕족하고 잘라 놓은 듯 우뚝하지 않으면 이름이 날 수 없으나, 갑자기 물 가운데로 들어가 섬처럼 되어 있으면 작은 언덕처럼 조그맣게 솟아오른 것이라도 기이하게 보인다.

물이 강하(江河)에서부터 바다로 흐르는 것은 부득이한 사세이므로, 비록 깊은 물이 넘실넘실 흘러가더라도 칭찬하기에 부족하나, 갑자기 바다에서 산 속으로 들어가 호수가 되면, 그 물결치는 흥취는 기대할 수 없지만 그것이 기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마산(姑麻山)이 서쪽으로 몇 십리를 내달아 꿈틀거리며 바다 가운데에 다다랐는데, 마치 학(鶴)이 목을 길게 빼고 물을 마시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이른바 갑자기 물 가운데로 들어가 섬처럼 된 것이요, 고마호(姑麻湖)는 동쪽으로 돌아서 수십 리를 흘러 나가는데, 여러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용(龍)이 머리를 들고 여의주(如意珠)를

희롱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이른바 물이 갑자기 산 속으로 들어가 호수가 된 것이다. 영보정은 이 산에 의지하고, 이 호수에 임해 있기 때문에 이 지방의 으뜸이 된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사물(事物)은 기이하지 않으면 이름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때 절도사(節度使) 유공 심원(柳公心源)이 나를 위해 술을 준비했고, 태학생(太學生) 신공 종수(申公宗洙)는 시인인데, 그와 함께 가을 달밤을 맞아 고마호에 배를 띄웠다가 길을 바꾸어 한산사(寒山寺) 아래에 배를 대었다. 여기에는 또 노래하는 사람과 피리 부는 사람이 있어 그들과 더불어 절의 누대에 올라 좋은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나는 귀양온 사람이므로, 근심스런 모습으로 저 하늘 한쪽에 계시는 임금[美人]을 우러러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마음 또한 여기에 같이 기록하여 영보정기(永保亭記)로 한다.

(역 : 민족문화추진회)

27) 해산루현판(海山樓懸板)

- 위치 :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해산루
- 지은이 : 송문술(宋文述)
- 시기 : 1797년

御製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鄉飲儀式鄉約條例繪音

王若曰予聞之夫子觀於鄉而知王道之易易觀政在朝觀俗在野政之所及者淺俗之所得者深故善乎觀人之國者必先其野而後其朝肆予膺天之嘏恭逢慈宮週甲期與八方臣庶共其樂尊年錫類之典無所不用其極而觀於朝廷無可紀觀於野俗不維新惟予一人否德不敢比先王觀也每中夜以思忘寢屢興憫近俗之難矯慨初心之多負予之所自期豈欲如斯而止乎哉人心安則逸逸則玩玩則縱而浪遂至沉酣參養於積累昇平之樂而幼違參養之正長乏師受之益指拘檢爲迂詭視靡誕爲活計自少至老若不如天叙天秩之有典有則三杯揖讓固尙矣風流之篤厚亦難乎一變而至夫愛親者不敢惡於人敬親者不敢慢於人以其廣敬而因本也故虞夏商周之相承富德親爵之有殊而齒則不遺者蓋年之爲貴次於事親也凡今之人不畏遺年也故其弊也爲五品之不遜 經曰先王有至德要道而順天下故忠可移於君順可移於長治可移於官傳曰人人親其親長其長而天下平廣敬因本之責予方反求之不暇而物候窮則天根露習氣盡而真情見意者時雍日新之機迨其今乎小學一書卽學校始教之次第節目也以予寡昧尙賴先代王導迪之恩記在童習之年粗效日講之力世之子弟雖不及遍通六經或庶幾勉勉持循於做人樣子而邇來學日益渝教日益弛此書隨而束閣予爲是懼爰命

內閣之臣就訓義而考證之且三綱二倫行實等篇爲輔治勸世之具與小學書不可偏廢釐爲一編命之日五倫行實予又思之 一日禮行風動四方惟鄉飲酒近之是禮也休老而勞農導歎而序齒明貴賤而辯隆卑正身安國之要率是以興也粵我世宗盛際創行養老宴三綱行實之頒下亦在其時民到于今舉切親賢樂利之思而不能諉予小子其敢不修述焉然鄉約之於化民成俗亦易爲力朱夫子蓋嘗月朝讀約三代之制如復可見予故日因今之民變古之俗被之以仁義示之以本實鄉約之效不差於鄉飲酒此規亦不可不講而明之機務之暇彙成鄉飲儀式鄉約條例欲其委曲周摯文質俱備偕我同胞之民油然起感肅然知序苟使是舉不歸於徒法徒言則何頑之敢梗何愚之不明乎咨爾有衆毋侮古訓毋迂予言俛焉孳孳惟茲飲茲約是講是遵其君子若生而三古而秉周禮其小人若捧乘矢而遊豐圃一切知菽粟可法而親親長長之不可斯須去以爲人乎何暇他求卽此而民志一世教靖予與爾衆共享無疆之祚以對越天地之耿光以丕承祖宗之謨烈尙克時忱其永有賴觀乎朝野彬彬改觀則受豐福而享勳力其在斯乎其在斯乎故曰老老而民興孝又曰老吾老而及人之老值三元之嘉會祝萬壽於慈宮仰瞻韶顏喜騰難老推而廣之休寧羣老羣老之休且寧顧不係於豐年之多稔乎故勞農爲休老之本四日得辛則熟十日得辛則稔熟既驗於昨歲稔可占於今年天以錫我康功我亦勤茲田功後志之應庶可質諸歲歲年年如作如今以至萬斯年無畝農夫之慶人子之慶也人子之慶朝廷之慶也仍傳曰此綸音下諭于方伯居留之臣俾各遵行仍令國子長示于諸生京兆尹頒之坊曲待印書諸本獻御亦爲宣賜京外

上之二十一年正月初一日

保寧縣監臣宋文述謹書

임금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들으니 공자께서는 ‘민간의 풍속을 보면 왕도의 쉬운 것을 알 수 있다. 정치하는 것은 조정에서 보아야 하며, 풍속은 민간에서 보아야 한다. 정치로 인하여 미치는 바는 얕으나 풍속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바는 깊기 때문에 남의 나라의 다스려지는 것을 잘 보는 사람은 반드시 민간에서 먼저 보고, 그 조정은 뒤에 본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하늘이 주신 복을 받아 공손히 자궁(慈宮)의 화갑날을 맞이하여 온 나라의 신하 및 백성들과 그 즐거움을 같이 하기를 바란다. 나이 많은 사람을 높이고, 착한 사람을 상 주는 법을 극진히 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그러나 조정을 보아도 기록할 만한 좋은 정치를 한 것이 없고, 민간의 풍속을 살펴보아도 새롭지 못하다. 오직 나 한 사람은 덕이 없어 감히 선왕의 훌륭한 업적에 비교할 수도 없어 매양 밤중에도 이러한 생각으로 잠마저 잊어버리고 자주 일어나 앉아 근래의 풍속을 바로잡기 어려움을 민망히 여기며 처음 먹은 마음에 많이 어긋나는 것을 개탄하게 되니 내가 스스로 기약한 바가

어찌 이와 같음에 그치고 말기를 바라겠는가.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다면 즐기려고만 하게 되고, 즐기다 보면 장난이나 일삼게 되고, 그렇게 희롱을 좋아하면 결국은 방종하고 낭만하게 되어 마침내는 얼근히 술에 취하여 마냥 세상이 태평할 것 같은 무사안일 속에 지내게 되어 어려서 교양을 어기고, 장성하여서도 스승의 유익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언행을 단속하여 경계하고 타이르면 세상물정에 어둡고 괴벽하다고 지적하며, 이익에 끌리고 허탄한 것만을 보면서 살아가는 계책으로 삼게 된다.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만약 하늘이 낸 질서와 하늘이 낸 법칙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면 술 석 잔을 마시는 데도 공손히 사양하는 예법이 있다는 것은 진실로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풍류가 독실하고 관후하게 한 번 변하기란 어렵다. 더구나 무릇 아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감히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이를 공경하는 사람은 감히 남에게 거만하게 굴지 아니한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그 공경하는 마음을 넓혀서 근본을 좇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하·상·주나라들이 서로 이어가면서 덕 있는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벼슬 높은 사람을 친근히 한 것은 비록 다르게 하였으나 나이 많은 사람을 잊지 아니한 것은 대체로 나이 많은 사람 대접하기를 아버지 섬기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긴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늙은이 잊어버리기를 조금도 꺼리지 않게 되어, 그 폐단은 오류에 대하여도 불손하게 되었다.

효경에서 말하기를 선왕은 지극한 덕과 소중한 도로 천하를 순하게 다스린 까닭에 충성하는 마음을 임금에게 옮길 수 있었고, 공손한 도리를 어른에게 옮길 수 있고, 다스리는 정치는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옮길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전(傳)에서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아버이를 아버지로 섬기고,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면 온 천하가 태평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 공경하는 마음을 넓히고 근본을 따른다는 책임을 내가 바야흐로 반성하여 구하기에 다른 겨를이 없으니 물후(物候)가 궁하면 천근(天根)이 발로(發露)되어 습기(習氣)가 다하면 진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때로 화평해지고 날로 새롭게 되는 기회가 이제부터 시작된다 하겠다.

소학 한 편은 바로 학교에서 처음 가르치는 순서와 절목이다. 덕도 적고 식견도 없는 나로서도 오히려 선대왕(先代王)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에 힘입어 어려서 배울 때에 날마다 익힌 힘을 대강 거두게 되었었다. 세상의 자제들이 비록 6경을 두루 통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람이 되고 자식의 모양을 갖추 수 있다는 이 소학만은 더러 힘쓰고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학문이 날로 퇴색하고 교화가 날로 헤이해 지게 되면서 이 책 소학도 선반 위에서 먼지나 뒤집어쓴 채 잠자게 되었다. 나는

이것을 두렵게 여겨 내각의 신하들에게 명하기를 ‘훈의(訓義)에 따라 고증하라’하고, 또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등의 책은 정치를 돕고 세상일을 장려할 도구가 되니 소학과 함께 그냥 묵혀 두지 말고, 한 책으로 정리하여 『오륜행실(五倫行實)』이라 이름하였다.

나는 또 생각하건대 하루만 예를 행하여도 온 사방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듯 하는 것은 오직 향음주(鄉飲酒)만이 그러할 듯싶다. 이 예법은 늙은이를 쉬게 하고 농사 짓는 사람을 위로하며, 기쁜 마음으로 인도하고 연치(年齒)대로 질서를 정하여,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밝히고, 높고 낮은 것을 분별하게 되어 몸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요점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된다.

우리 세종임금의 융성하던 시절에 양로연을 처음 행하였고 『삼강행실도』를 처음 반포한 것 또한 그때 있었던 일이다.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모두 어진 사람을 친근히 하고 이로운 일을 즐거워하는 생각이 절실하여 잊을 수 없게 하니 소자(小子)인 나로서야 어찌 몸을 닦아 계술(繼述)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향약도 백성을 교화하고 좋은 풍속을 이루는 데, 효력을 잘 발휘하므로 주부자계서도 일찍이 매월 초하루가 되면 이 향약을 읽고 삼대의 제도를 다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여기셨다. 나는 그러한 까닭에 말하노니, 지금의 백성을 옛날 풍속으로 변화시켜서 인의(人義)와 덕화(德化)를 입게 하고, 근본과 실상을 보여준다면 향약으로 가르치는 효과는 향음주와 다름없는 것이니 이 규약도 또한 강론하여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무(政務)를 보는 여기에 여러 향음의식과 향약 조례를 모아서 여러 가지로 곡진하게 하고 두루 지극하게 하여 문체와 바탕을 구비하게 하여 우리 동포 백성들과 함께 몽클한 감동이 일어나고 숙연히 질서를 알도록 하는 바이다. 진실로 이것을 잘 시행하여 한갓 법이나 말로 돌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완악(頑惡)한 사람이라도 지각이 밝아지지 않겠는가.

아! 너희 여러 백성들은 옛 사람의 가르침을 업신여기지 말고, 나의 이 말을 우환(迂闊)하다 하지 말고, 부지런히 힘써, 오직 이 향음주와 향약만을 강론하고 준수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속속(菽粟)은 버릴 수 있을지라도 아버이를 어버이로 섬기고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는 도리를 잠시라도 버려서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안다면 그 무엇을 다른 데에서 구하겠는가. 바로 여기에서 백성들의 뜻이 한결같아지고 세상의 교화도 맑아지게 될 것이다.

나도 너희 여러 백성들과 한없는 복을 길이 누리서 천지의 밝은 빛을 대하고 조종(祖宗)의 가르침을 잘 계승할 것이다. 만일 이런 때일수록 더욱 정성껏 길이 서로 힘입을 수 있게 하여 조정과 민간을 살펴보아 면목을 일신하여 모두 빛나게 한다면 풍성한

복록을 받고 공훈도 길이 누리게 될 것이니 그 모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말하기를 늙은이를 늙은이로 대접하여야 백성들 사이에 효도하는 기풍이 일어난다 하였고, 또 자기집 늙은이를 늙은이로 대접하여 남의 집 늙은이에까지 미친다 하였다.

이제 삼원(三元)의 좋은 때를 만나 자궁(慈宮)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잔을 올리며 환하신 얼굴을 우러러 살피니 그 정정하심에 기쁜 마음이 용솨음쳐 오른다. 이 마음을 밀고 넓혀서 나라 안의 모든 늙은이를 편안히 쉬게 하리라. 이 여러 늙은이를 쉬게 하고 편안하게 하자면 다만 풍년이 들어 곡식이 넉넉해야 함에 달려 있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농사에 힘쓰는 것이 늙은이를 편안하게 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대개 초나 흥날이 신일(辛日)이면 곡식이 잘 여물고, 열흘날이 신일이면 풍년이 든다고 하였는데, 작년에 곡식이 잘 여문 것을 경험하였으니 올해에 풍년이 들리라는 것은 쉽게 짐칠 수 있겠다. 하늘이 우리에게 풍년을 내리시니 우리 또한 이 농사에 부지런하면 우리가 바라는 뜻이 해마다 작년과 같이 올해와 같이 만대에 이르도록 끝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농부의 경사는 사람의 자식된 자의 경사이며, 자식된 자의 경사는 온 나라 조정의 경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곧 전교(傳敎)를 내려 말씀하시기를 과인이 이 말을 방백으로 나가 있는 신하들에게 유시(諭示)하여 제각기 잘 준행토록 할 것이며, 또한 국자감의 장(長)으로 하여금 여러 학생들에게 보이게 하고, 경조윤(京兆尹)은 동네 마을마다에 모두 반포토록 하라. 여러 부(部)가 인쇄되기를 기다렸다가 주상전하께도 올리고 경향 각지에 널리 배포하였다.

주상전하 21년(1797) 정월 초하루 보령현감 신 송문술은 삼가 쓰다.

(역 : 송하순, 대보문화 제4집)

28) 보령현각청영선이혁기(保寧縣各廳營繕釐革記)

- 위치 :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해산루
- 지은이 : 방효함(方孝涵)
- 연대 : 1868년

大凡邑以城郭爲固官以佐令爲威而至若官舍之侈儉係於爲邑之豐凶吏胥之衆寡在乎治務之繁簡雖在斗邑亦有治簿之具則公廨各廳之模大小同然無此則豈可以發號施令百度畢舉者也余以無似之質猥何聖明之恩寄以百里之命分憂以來夙夜憂懼思所以一念各報而智術短淺才猷蔑如其於安民祛弊之方未敢나縷其萬一一則勒悚惶若蹈淵水下車之初觀乎邑治則如斗小局十室其

殘百幣俱瘠莫可著手而至於東軒已有前人之移建制度如新所謂公廳想有當初之創設而頽圯年久形址無驗則胥吏之治簿靡所奴令之聽鈴無處豈可曰有邑之貌樣乎余還不勝慨咄意欲捐廩補幣則幣非一端而廩且至殘以此經紀則可謂胥井之求解渴龜背之索成氈故計不獲已乃捐自己已之私儲募匠而鳩財董役而陶瓦并時豎建者則作廳也刑廳也奴令廳也懸鐘閣也而且夫客舍內外三門校宮監飯所及內衙區舍以至海倉也司倉也將廳與鍊武廳海山樓等所棟榱之朽折者易以葺之階砌之傾圯者修以築之丹雘之漫渙者改以繪之一新改觀革斯飛斯翠薨參差輪焉奐焉粉牆炫燿稍成縣治之樣漸就屋宇之稠雖此至殘之邑頗有百堵之興使幾十年未了之債翻成一朝永久之基工雖浩大民不知役廳既敞軒吏亦胥悅是所慰幸而自來廳用之貧之推可認得故又捐出一千一百十八金以爲各廳補弊之資只其各樣軍錢黃口白骨無里無之而物故滋多填額無人洞任里總非徒擁虛名而徵實番而已其所役名貧富不同重歇顯殊則哀彼殘泯氓亦豈不冤枉乎不得不念故各面里搜括閑丁填充近千名虛伍并與老除頤給無論重歇平均排定而又捐一千一百四十金派分於三十八統殖利充補無至軍納欠逋之弊又捐給百有餘金於馬兵及砲手廳一以爲修補永久之方一以爲安接萬一之助校宮院堂係是所重之地而位土既薄殖財無物春秋釋奠之享多士供億之需每患不逮貽逋於庫直輩則亦非慕聖尊賢之道徒爲忝齋愧儒之事故各出付百金之財以作補弊之資如無日後染指之歎則亦非幸且幸歟且以面掌輩言之此是爲民厭避之役而未免抑勒使之者也每朔數三次及課而入邑底則慟俺數日茶飯之債亦爲添逋之端在所當念故出給一百五十金以爲暹都家宿食之資在面任得不爲使易者乎然而余非當於財而費於不緊之地資也期欲革此痼瘼永尊磐泰俾茲愚昧之誠要作報答之地而若其他出則鑄補之方難以枚舉而欲強於難強則此無異山木之給野火勺水之付尾閭其果易爲哉今余之營繕既勤設施有條而舉實揭板者非欲誇耀耀自己之功欲使後來君子踵此而更有修舉之道則顧此海隅之僻邑永作完司之局豈非茲邑之幸歟呼 謹識

同治七年戊辰八月 日

通政大夫行縣監 方孝涵 撰

29) 원흥주등6군상무사묘사중건기(元洪州等六郡商務社墓祠重建記)

- 위치 : 보령시 청소면 원죽리 흥도원
- 시기 : 1932년
- 지은이 : 집장 김재호(金在鎬)

述夫天有四時^{호고} 地有四原^{호며} 人有四民^{호니} 惟○商務社之名稱이 未知何年代之創始이 나 僻處湖西之一隅^{호야} 病救死葬之原義와 敬上接下之美俗이 傳來于數百年之久^{호니} 名

雖四民之末이나 敦孚愛敬遺例何 羨道家仙釋之澹(澹)然哉아 然而各方異姓之必閑散과 無依流離之同僚로 不幸罹疾於路傍이나 無人救護於藥餌호고 命殞於溝壑이나 誰能斂埋於北邙이 리요 言念及此에 天府之良性和好生惡死之仁愛로 豈不長大息而涕淚耶 近自數十年前으로 列位諸先生 各攄一視同仁之義로 各捐私力호야 買受紅桃源一麓호니 可以埋葬於閑散遺骸요 若干田土를 共營保存호니 以爲節祀之一盃로다 俱物交易은 都市港灣을 爲主호나 及其惟病垂之境則人皆願入於紅桃源호니 此實感泣於 先輩之遺跡이로다 有始無終은 反不如不爲요 無后繼續도 遺感萬千일스 墓舍之破壞는 人皆憶昔之盛儀요 田土之剩餘도 不無時事之不○라 晚近節祀之不齊와 聖意之疎忽을 誰不慷慨而痛嘆이리요 物久則必變호고 遂賤先舊之遺志도 人之常情也라 往在庚午之歲에 特念閑散諸僚之渴望과 繼承 先生之遺跡호야 諸位重役이 協同重建코자호얏으나 事物이 變遷호고 人心이 區測호야 當年の 未能準誠으로 翌年の 專務督勵期圖成功之望而 遞任之期가 迫頭故로 今春花辰의 勤務竣畢而 各處所義捐도 陸續完了故 會同各處所曾經과 時任諸僚호고 義捐芳名을 左記懸板호며 已奏眷愛之樂호니 事雖微些나 誠則臻矣라 嗟乎後人아 繼而重修則 我社之美名遺俗은 不朽千古하고 永訣孤魂도 無減於歲一酌之慰호리니 敢不美哉며 誰不與起哉아

歲壬申(1932)暮春元六郡商務社接長 金在鎬識

기술하노라. 무릇 하늘에는 사시(四時)가 있고, 땅에는 사원(四原)이 있으며 사람에게는 사민(四民)이 있는데, 오직 상무사(商務社)의 명칭이 어느 연대에 창시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구석진 호서의 한 모퉁이에 병이 들면 구해주고, 죽으면 장사지내 주는 후의(原義)와,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대접하는 아름다운 풍속이 수백 년 전래 되기가 오래되었으니, 이름은 비록 사민의 말단이지만 돈목하고 서로 믿으며 사랑하고 공경하는 유례는 도를 지키는 집안이나 신선, 석가의 담담한 모습에 무엇이 부러울 것인가? 그러나 각기 다른 지역과 다른 성씨들은 반드시 한산인(소속 없는 사람)이며, 서로 떨어진 동료에 의탁하지 못하여, 길가에서 병에 걸려 불행해져도 약으로 구호해 줄 사람도 없으니,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면 누가 북망산천에 매장해 주겠는가.

말과 생각이 이에 미침에 조정(朝廷)의 여진 마음과, 사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는 본성으로 어찌 길고 크게 탄식하여 눈물 흘리지 않겠는가? 지금부터 수십 년 전 여러 선생들께서 일시동인의 뜻으로 각자 성금을 내어 홍도원의 한 산기슭을 매입 하니 떠돌아다니는 유해를 매장할 수 있었으며, 약간의 전토를 함께 경영하며 보존하니 제사의 한잔 술이 되었다. 물건을 갖추어 교역하는 것은 도시 향만을 위주로 하지만 병이 들어 죽음의 지경에 이르면 사람들은 모두 홍도원에 들어오기를 원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실로 선배들의 유적에 감사하며 눈물 흘릴 일이다.

시작이 있고 끝이 없음은 도리어 하지 않은 것만 같지 못한 것이요. 후사가 없는 것이 계속되는 것도 유감천만인데, 묘사가 파괴되면 사람들 모두 옛날의 성대한 모습만을 추억하게 된다. 전토의 나머지 경작도 세상일이 여의치 않아 최근에는 제사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성스러운 뜻도 소홀해지니 누가 강개하며 한탄하지 않겠는가? 물건도 오래되면 반드시 변하고, 선배의 유지(遺志)도 천해짐에 이르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지난 경오년(1930) 모든 한산 동료들의 갈망을 특별히 생각하고, 선생의 유적을 계승하여, 여러 중역들이 협동하여 중건하고자 하였으나 사물이 변천하고 인심이 예측할 수 없어 그해 성의를 갖추지 못하여, 다음해에 오로지 일을 독려하여 기한을 도모하여 성공을 바랐고, 체임 기간이 박두한 까닭으로 금년 봄 꽃피는 달(3월)에 일을 힘써 마치게 되었고, 각 처소의 의연도 계속되어서, 일을 완료한 까닭으로 각 처소의 원로와 현임의 모든 동료들이 모여서 의연한 사람들의 이름을 현판 좌측에 기록하고, 서로 보살피며 사랑하는 즐거움을 이미 말씀 드렸으니, 일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정성이 모여진 것이다.

아, 후세 사람들이여 계속하여 중수하는 것은 우리 상무사의 아름다운 이름과 옛날부터 전해오는 풍속을 천고에 변치 않게 하는 것이고, 떠나 보낸 고향들에게도 해마다 한잔 술의 위로함이 없어지지 않게 함이니 감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으며 누가 함께 일어나지 않겠는가?

임신년 3월 원육군상무사 접장 김재호는 는다. (역 : 황의천)



원홍주등6군상무사 묘사 중건기

5. 문집

광현시집 구촌집 금암유고 기죽당집 김선생우정집 난국재집 노오재집 노은유고 돈암이 선생집 매곡고 매정고 병오일기 사가집 삼호당실기 삼희당선생집 석람시고 석루유고 성당집 소매유고 소산시집·소산사집 송암선생문고 숙재집 심당집 아계유고 옥담삼공유고 옥산세고 옥서실기 우가현유고 울재고·울재잡고 이재선생실기 인재집 장옥난고 정수재집 주계시집 추강집 토정유고 파산세고 한성재유고 흥경일기

1) 광현시집(光軒詩集)

이우명(李遇明 1804~1863)의 시집이다. 이우명의 본관은 연안이고, 자는 경소(景昭), 호는 광현(光軒)이다. 보령 청라에서 살았다. 그는 공주 공암의 충현서원에서 강재 송치규(剛齋 宋禔圭)에게 배운 강재 문인이다. 그 후 고향에서 시를 지으면서 유유자적한 처사적 삶을 살았다. 광현시집은 2004년 이봉규(李鳳揆)에 의해 발굴되었다.

총 98쪽의 필사본인데, 이우명이 생전에 정리한 것으로 보이며 유일본이다. 여기에는 180여 수의 시가 실려 있다. 시는 증시(贈詩) 회갑운(回甲韻)과 같은 하시(賀詩), 산수시(山水詩) 독음(獨吟)이 대부분이다. 시는 감각이 섬세하지는 않으나 담담하게 자신의 감정을 읊은 점을 높이 살 수 있고, 전고(典故)가 많은 점에서 옛 시구를 그대로 습용(襲用)한 점이 눈에 띈다.

시문 속에서 그가 교유한 인물들이 상당히 많음을 찾을 수 있는데, 특히 당대 문장가로 영의정을 지낸 남공철(南公澈)을 비롯해서, 이조참판을 지낸 김양순(金陽淳), 대사성 김우순(金遇淳) 등이 있고, 그 중에서 김우순, 규남 하백원(圭南 河百源), 이희길(李熙吉), 이만재(李萬在), 조백영(趙百榮) 등과 수창한 시가 많다.

2) 구촌집(龜村集)

이덕온(李德溫 1562~1635)의 문집이다. 이덕온은 조선 중·후기의 학자이며 본관은 전주. 자는 사화(士和), 호는 구촌(龜村)이다. 1591년 과거에 급제한 후 임진왜란 때는 평양까지 왕을 호종했고, 승지에 올랐으나, 광해군이 즉위하고 영창대군을 탄압하자 이를 직간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관직을 삭탈당하고 보령 증산리에 은거했다. 인조반정 후에 나라에서 출사를 권유했으나 나가지 않았다.

구촌집은 현재 1책으로 150여 쪽의 분량이며, 권1·권2는 원래 없는지 유실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권3·권4에는 시 250여 수가 실려 있다. 권5에는 문(文)으로 소(疏) 3편, 인(引) 3편, 상량문 1편, 서(序) 1편, 영보정효등왕각체계해현판(永保亭效騰王閣體癸亥懸板) 1편 등이 실려 있다.

영보정효등왕각체계해현판은 오랫동안 충청수영의 영보정에 편액으로 걸려 있었던 명문장이었다. 문집의 앞에는 숭정사기유(崇禎四己酉)에 임규직(任圭直)이 쓴 서문과, 맨 뒤에는 후손 이승규(李昇圭)의 발문이 있으며, 1936년 이승규가 발행했다.

3) 금암유고(錦巖遺稿)

임태석(任泰奭 1857~1944)의 문집이다. 임태석의 본관은 풍천이고, 자는 남숙(南叔)이며, 호는 금암(錦巖)이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 10세에 『십구사략(十九史略)』을 읽었다. 사종형인 임태연(任泰彦)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홍산현감 정인화(鄭寅和)가 시행한 백일장에 합격하여 이름을 날렸다. 집안이 어려워 잠시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김광희에게 나가 경서를 배웠다. 과거를 포기하고 오직 학문에 전념하여 후진을 양성하다가 세상을 떠나니 향년 87세였다. 금암유고는 3권1책이며 1946년에 쓴 조익순(趙翊淳), 임선호(任宣鎬), 임성순(任性淳)의 서(序)와 1947년에 임시재(任是宰), 임세준(任世準)이 쓴 발문(跋文)이 수록되어 있다.

권1은 시로 모두 203수이다. 대부분 초야에 묻혀 학문을 연마하는 저자의 삶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권2는 서간으로 정재 김광희(靜齋 金光喜), 돈간재 조진학(敦良齋 趙鎭鶴) 등에게 학문적 질의와 문안인사를 담고 있는 서간 25편, 기문 2편, 저자의 9세조 임백기(任百期)와 부친 풍백(豐白)의 묘표 2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3은 부록으로 송암 조익순(松庵 趙翊淳)이 지은 저자에 대한 행장과 묘갈명병서, 아들인 세준(世準)이 지은 묘지, 조익순, 신현갑, 임성순, 임덕호, 임선호 등이 지은 제문 6편과, 이들과 함께 모두 26명이 지은 만사 29수를 담고 있다. 금암유고는 보령 주산에서 활동하며 시와 경학에 능했던 선비의 진솔한 삶을 보여주고, 보령지역에서 당대에 문학과 교학활동에 힘썼던 이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기록이다.

4) 기죽당문집(淇竹堂文集)

조선 말기의 학자 박영휘(朴永徽 1848~1891)의 시문집이다. 박영휘의 본관은 밀양이고, 자는 원덕(元德)이며, 호는 기죽당(淇竹堂)이다. 보령 도화담에서 살았다.

본 문집은 1907년 저자의 아들인 박규화(朴奎和)·박원화(朴元和) 등이 편집·간행한 것이다. 권두에 김상덕(金商惠)의 서문과 권말에 조동현(趙東賢)·김현목(金顯穆)·박원화(朴元和)의 발문이 있다. 2권 1책의 목활자본이다. 권1, 2에 산수를 유람하면서 지은 시와 만시(輓詩) 24수, 서(書) 1편, <기죽당기(淇竹堂記)> <양각산기(兩角山記)> 등 기(記) 2편, <순경지문출이사론(荀卿之門出李斯論)> 1편, <이기선후설(理氣先後說)> <미발설(未發說)> <정설(政說)> 등 설(說) 3편, <기천문(祈天文)> <기우제문(祈雨祭文)> 등 제문 3편, <경천군(警天君)> <극기복례(克己復禮)> <자경총론(自警總論)> 등 자경편(自警編) 4편, 유교경전과 성리학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적은 잡저 6편, 1886년 속리산을

유람할 때 주자의 성체심용론(性體心用論), 태극권(太極圖) 등에 대해 논한 <일기(日記)> 1편, 부록으로 저자의 형인 박영헌(朴永憲)이 지은 제문(祭文), 조카 박윤화(朴胤和)가 지은 고유문(告由文), 조카 박초화(朴楚和)가 지은 가장(家狀), 전우(田愚)가 지은 행장, 신응선(申應善)이 지은 묘갈명, 김복한이 지은 묘지명, 안병찬(安炳瓚)이 지은 <기죽당기(淇竹堂記)>, 조정순(趙靖淳)이 지은 <경양계입의(景仰契立議)> 각 1편이 수록되어 있다

5) 김선생우정집(金先生憂亭集)

김극성(金克成 1474-1540)의 문집이다. 김극성의 자는 성지(成之), 호는 우정(憂亭) 또는 청라(蘿羅), 본관은 광산이다. 1496년 생원시와 1498년 문과에 잇달아 장원급제하여 성균관전직(成均館典籍)에 제수된 이후, 중종반정으로 공신에 오르고, 병조판서, 의정부좌찬성, 우의정에 이르렀다. 교류인물로는 문집 뒷부분의 <제문>과 <만사>를 지은 이들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들 중에는 이정구(李庭龜)·이언적(李彦迪)·김안국(金安國)·권발(權撥)·윤은보(尹殷輔) 등이 보인다. 김극성의 시문은 유실되어 오랫동안 수습되지 못하다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00여 년 후에 조창호家에서 8대손 생원 김계환(金啓煥)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어, 간직되어 오다가 10대손 양흠(亮欽)이 간행하려 했으나 간행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이것을 양흠의 손자인 영수(永秀)·헌수(憲秀) 등이 정구석(鄭龜錫)에게 교감을 부탁하여 시율(詩律) 600여 수와 잡문 7편을 4권으로 정리하고, 여기에 부록 2권을 덧붙여 모두 6권 3책으로 편집하여 1860년 경 활자로 간행하였다. 권두에 송래희(宋來熙)의 서문과, 권말에 정구석의 발문이 있다. 권1~권4는 시 670수, 잡저 7편, 권5~권6은 부록으로 교서·행장·가장·시장·행장·신도비명·사제문 각 1편, 제문 16편, 만장 41수로 구성되었으며, 끝에는 광산김씨 10대손인 광세(光世)로부터 20대손인 극성(克成)에 이르는 가계와 그들의 약력이 적혀 있다.

6) 난국재집(蘭菊齋集)

이예환(李禮煥 1772~1837)의 문집이다. 이예환의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치화(致和)이며, 호는 난국재(蘭菊齋)이다. 보령 웅천 수부리 수안에서 태어나 15세에 오서산의 성당 정혁신(鄭赫臣)에게 찾아가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고향인 수안으로 돌아와 후진 양성에 전념하며, 고을의 유교문풍을 진작시키는 데 앞장섰으며, 효도와 우애를 실천하며 처사적 삶을 살았다.

난국재라는 호는 성담 송환기(性潭 宋煥基)가 그의 지조가 맑음을 칭송하는 의미로 지

어준 것이다. 난국재집은 1851년 손자 규현(圭鉉)에 의해 2책 4권으로 만들어졌고, 1991년 이병권(李秉權)에 의해 번역되어 재발행되었다. 서문(序文)은 홍직필(洪直弼)과 김면근(金勉根)이 썼고, 권말에는 하백원(河百源)의 발문이 있다. 권1에는 부(賦) 1편, 시(詩) 86수, 권2·권3에는 서(書) 16편, 권4에는 27편, 서(序) 3편, 발문(跋文) 1편, 잡저 7편, 행장·묘표·전(傳) 등 9편, 부록으로 저자의 행장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서간은 조문호(趙文鎬), 조병덕(趙秉惠), 조병헌(趙秉憲), 정규환(鄭奎煥) 김석주(金碩柱) 등 다수의 인사와의 경전 및 성리학에 관하여 논의한 내용이다. 시는 도덕이나 자연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 주류를 이룬다.

7) 노오재집(老梧齋集)

임태희(任泰希 1830~1892)의 시문집이다. 임태희는 본관이 풍천이며, 자는 경삼(景三), 호는 노오재(老梧齋)이다. 주산면 금당에서 태어났다. 전제 임헌회의 문하에서 경사(經史)를 수학했다. 평생 과업(科業)을 끊고 <심경(心經)> <근사록(近思錄)> <성리전서(性理全書)>를 공부하며 후학을 양성하였다. 궁행 실천에 힘을 써서 조상과 부모 모시기를 극진히 하였다. 책은 3권 1책의 신연활자본(新鉛活字本)으로 1921년도에 발간되었다. 서(序)는 족손 임원호(任元鎬), 발은 조카 임흥준(任興準)이 썼다.

권1은 시 125수인데, 거의 칠언율시로 수연시나 만시(輓詩)가 대부분이다. 권2는 조선말 정승을 지낸 조두순, 문중의 학자 임헌회 등에게 보낸 서간, 백증조(伯曾祖) 임성윤(任聖尹) 행록 등 4편의 행록, 임은모 효행 정려기 등이 들어 있다. 권3은 부록으로 문인인 김상우(金商雨)가 기록한 유사(遺事) 조익순이 지은 행장이 수록되어 있다.

노오재집은 풍천임씨 가문사와 관련된 많은 글을 담고 있으며, 또한 저자의 시적 성취가 상당하여 문학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근현대 보령과 남포지역에서 활동한 유림들의 면모와 문학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문집이다.

8) 노은유고(老隱遺稿)

임학준(任學準 1850~1930)의 문집이다. 임학준의 자는 홍여(弘汝), 호는 노은(老隱)이며 본관은 풍천이다. 주산면 황율리에서 살았다. 음직으로 군사마(軍司馬)에 올랐으나 한말 일제 침략기에 고향으로 은거했다. 이어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아미산 상대암에 들어가 은거했고 고종황제가 서거하자 고종과 부친 임태하(任泰夏)의 영정을 모시고 삭망으로 분향하며 술일을 먹으며 자정생활 하다가 81세로 세상을 떠났다. 사후에 후손과 지역

유림들이 상대암에 고종황제, 부친 임태하, 임학준의 영정을 모시고 상대사(上臺祠)로 이름하고, 제사를 지내며 그 절의를 기렸다.

이 문집은 공식 발간된 것이 아니고 후손이 필사해 둔 것이며, 1책 126쪽의 분량이다. 조익순이 쓴 서문(序文), 시(詩)·만(挽)·가(歌)·문(文)·소(疎)·장(狀)·발(跋)·찬(贊)·설(說) 등 본문, 그리고 부록으로 되어 있다. 시는 10제 14수를 수록하고 있으며, 내용은 주로 을사조약이나 군대해산령 등 시국과 관련되거나 또 고향에서 은거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촉발된 정취를 담아내고 있다.

만(挽)은 곧 만시(輓詩)로 최익현, 이준, 안중근에 대한 것으로 순절한 인물들을 애도하고 있다. 가(歌)는 입산가(入山歌) 등 2편이며, 문(文)은 팔도 유림들을 대상으로 일본에 저항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 격변의 시기에 처한 지식인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부록은 임학준을 상대사에 봉안하는 내용의 축문이나 통문 등의 내용이다. 아미산 상대암의 내력을 알려 주고, 격동기를 살아간 지식인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문집이다.

9) 돈암이선생문집(敦庵李先生文集)

이응복(李應復 1880~1955)의 문집이다. 이응복의 자는 겸오(謙五)이고, 호는 돈암(敦庵)이며, 본관은 완산(完山)이다. 보령시 웅천읍 평리에서 태어났다. 조부 이정문(李正文)의 영향으로 남당 한원진의 학문적 경향을 따랐고, 이후 삼희당 윤석봉을 만나면서 화서학파의 학통이 융합되었다. 돈암문집은 1권 6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인인 오현규(吳顯圭), 손자인 이주훈(李胄薰)의 노력으로 2003년 6월 출간되었다.

제1집은 시고(詩稿)로 〈회고(回顧)〉 〈야화(夜話)〉 등 162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여기의 시에는 노승석의 번역이 첨부되어 있다. 제2집에는 〈봉우유회(逢友有懷)〉 〈송족인(送族人)〉 등 100여 수의 시가 실려 있다. 제3집에는 〈화동유고합벽서(花東遺稿合壁序)〉 〈집성당속수계제성록서(集成堂續修稷齊誠錄序)〉 등 서(序)가 4편, 〈제면암선생문(祭勉庵先生文)〉 등 10편의 제문, 〈운포기(雲圃記)〉 등 3편의 기(記)가 수록되어 있다.

그 외 〈도계조공행장(道溪趙公行狀)〉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이 실려 있다. 제4집은 서간문으로 김창제(金昶濟), 최원식(崔元植) 등에게 보낸 67편이 수록되어 있다. 제5집은 10여 편의 수연축시(壽筵祝詩)이고, 제6집은 만장 21편이다. 이 문집은 전체적으로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는 않지만 번역이 일부 수록되어 있어 저자의 시세계를 엿보는 데 용이한 한문학 자료이며, 근현대 보령지역 유림들의 활동과 교유관계 등 지역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 매곡고(梅谷稿)

이우규(李禹奎 1838~1898)의 문집이다. 이우규의 자는 경회(景會), 호는 매곡(梅谷), 본관은 서천(舒川)이다. 매호(梅湖) 이민정(李敏政 1806~1856)의 아들로 가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어릴 때부터 한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평생 후진 양성에 힘을 쏟았다. 본래 매곡고는 필사본으로 가전되다가 서천이씨 퇴천공파 종중에서 『퇴천세고(退川世稿)』를 2000년 1월 4×6배판 하드커버로 간행하면서 필사본을 그대로 영인하여 이에 수록하였다.

『퇴천세고』는 천(天)·지(地)·인(仁)의 3책으로 되어 있으며, 매곡고는 천(天)에 수록되었다. 매곡고는 상·하로 나뉘어 있는데 상(上)은 시편으로 400여 수가 실려 있으며, 대략 창작 시기별로 분류되어 있다. 하(下)는 문편으로 일상의 소회를 적은 글, 기문(記文) 13편, 서(序)류 3편, 고문류(古文類) 2편, 경학 관련 문장 등 여러 종류의 글이 혼재되어 있다. 본 문집은 비록 초고이지만, 성리학 연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수창시(酬唱詩)와 시체(詩體)는 한시창작활동 연구에 있어 유용한 자료이다.

11) 매정고(梅庭稿)

이석진(李錫晉 1864~1948)의 문집이다. 이석진의 자는 후삼(候三) 호는 매정(庭稿) 본관은 서천(舒川)으로, 홍성에서 태어나 보령시 천북면 사호리에서 활동했다. 그는 10세에 이미 5경에 통달했으며, 학문적 연원은 송시열에 잇닿아 있었고, 운평(雲坪) 송능상(宋能相)을 특히 존모했다. 본래 매정고는 후손에 가전되다가 서천이씨 퇴천공파 종중에서 『퇴천세고(退川世稿)』를 2000년 1월 4×6배판 하드커버로 간행하면서 필사본을 그대로 영인하여 이에 수록하였다. 『퇴천세고』는 천(天)·지(地)·인(仁)의 3책으로 되어 있으며, 『매정고』는 지(地)에 그의 아우인 이석태(李錫泰)의 소매고(小梅考)와 함께 수록되었다. 3권으로 구성되었다.

1권은 시 275수가 수록되었고, 2권은 서간문 163편, 서(序)·기(記)·통문(通文) 등 18편이 수록되었다. 서간은 아우인 석태(錫泰), 김상덕(金相憲), 김민제(金敏濟), 김병식(金炳軾), 이종순(李鍾淳), 김사구(金思九) 등에 보낸 것이다. 권3은 잡저(雜著)·산록(散錄)·부록(附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잡저는 주로 천문에 관련된 내용이다. 본 문집은 다양한 시체의 한시를 수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잡저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우리나라 천문학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12) 병오일기(丙午日記)

유준근(柳濬根 1860~1920)이 대마도 유배 시 지은 일기 형식의 글이다. 유준근은 보령시 내항동 출신으로 자는 순경(舜卿) 호는 우록(友鹿)이다. 본관은 전주이며 면암 최익현의 문인이다. 1906년 5월 민중식이 이끈 홍주의병에 유병장으로 가담하였다가 의병이 실패로 끝나자 일본군에 잡혀 무기형을 언도받고 대마도로 유배되었다가 4년 만에 석방되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상경하여 순종의 복위운동을 도모하기도 했고, 파리 장서운동에서는 유럽대표 137인 중의 한 사람으로 서명하기도 했다.

병오일기는 필사본 69면으로, 유준근이 다른 9명의 홍주의병 의사들과 함께 대마도에 유배생활할 때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1906년 6월 19일부터 씌어진 것이며, 애국지사들의 대마도 유배 당시 자신들의 감회, 일본군이 애국지사들을 대하는 태도 등이 기록되어 있어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유준근의 손자 유궁수(柳肯秀)가 소장하고 있는데, 현재는 병오일기로 표제가 되었으나 이것은 나중에 누군가가 다시 만든 것으로 보인다. 국사편찬위원회 수집본에는 마도일기(馬島日記)로 되어 있다. 당시 함께 유배생활을 했던 문석환 등도 마도일기를 남겼다.

13) 사가집(四可集)

유호근(柳浩根 1853~1925)의 문집으로 보령에서 간행된 신연활자본(新鉛活字本)이다. 6권 3책으로 유호근의 제자인 김노동(金魯東 1899~1958)의 주선으로 동문인 정찬호(鄭燦好)·이홍직(李洪植) 등의 도움에 힘입어 1958년 간행되었다. 서문은 1925년 유호근 자신이 썼고, 발문은 1958년 이응규(李應珪)와 김노동이 썼다. 권1에는 사(辭) 1편, 가(歌) 5편, 시 159수가 실려 있다.

시는 위관 김상덕, 지산 김복한 등과 관련된 것이 많다. 권2에는 상면암최공익현(上勉庵崔公益鉉) 등 27편의 서(書)가 실려 있는데 동료 또는 제자들에게 주는 답장에는 상대방의 질문이나 견해에 대해 긴 대답과 평을 신고 있다. 권3에는 서(序) 13편, 기(記) 5편, 제발(題跋) 12편, 명찬(銘贊) 12편 외에 혼서(婚書)와 상량문이 각각 1편, 제문 19편이 실려 있다. 권4에는 애사(哀詞) 1편, 고축(告祝) 3편, 잡저(雜著) 19편이 들어 있다. 이중 잡저에 들어 있는 〈토동아일보문(討東亞日報文)〉은 당시 동아일보에 실려 있는 글이 하늘의 이치를 없애고 하늘의 뗏뗏함을 지극히 어지럽히고 있으니 필자의 성명을 알 수 있다면 공론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격한 심정을 드러냈다.

권5에는 잡저 3편, 묘지명 2편, 그리고 유사(遺事) 2편이 들어 있다. 잡저에 들어 있는

수특록(修慝錄)은 자신에 대한 회고와 겪은 사건에 대한 기록이고, 호려쇄기(壺旅瑣記)는 춘추지법(春秋之法)과 이남규(李南珪)를 비롯한 의로운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권6에는 행장 7편과 전(傳) 2편이 실려 있다. 한말 남당학파의 문인으로 이름이 있던 유호근의 사가집은 당시 한문학의 수준을 가늠하고 김복한 등을 중심으로 한 호서지역 남당학맥 인물들의 활동과 교유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14) 삼호당실기(三乎堂實記)

임태하(任泰夏 1822~1892)의 저술이다. 임태하의 자는 득중(得中), 호는 삼호당(三乎堂)이며 본관은 풍천이다. 주산면 황율리에서 살았다. 평소 효가 학문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한 사람으로 이를 실천했다. 삼호당실기는 1책 100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익순과 이중명(李重明)이 쓴 서문, 가장(家狀), 행장, 신도비명병서, 묘지명병서 묘갈, 묘표, 삼호당서(三乎堂序), 삼호당기(三乎堂記), 상대재실기(上臺齋室記), 제문, 만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아들 임학준이 가장(家狀)을 쓴 것을 비롯해서 최익현, 김지수, 윤석봉, 조익순, 송병순(宋炳珣), 김복한 등 당대의 쟁쟁한 명사(名士)들이 삼호당 임태하를 기리는 글을 썼다. 이로써 삼호당실기는 임태하의 생애와 당대 유학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알려주고 있다.

15) 삼희당선생집(三希堂先生集)

윤석봉(尹錫鳳 1842~1910)의 문집이다. 윤석봉의 자는 운서(雲瑞)이고 호는 삼희당(三希堂)이며 본관은 파평이다.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나 중암 김평묵 문하에서 수학한 후 1890년대 보령 웅천에 낙향해서 주자와 송시열의 영당인 집성당(集成堂)을 건립하고 지역의 문풍 진작과 위정척사의 학풍을 진작한 화서학파의 학자이다. 민중식의 흥주의병에 가담하기도 했다.

삼희당선생문집은 전체 12책 24권의 방대한 분량이다. 정식문집으로 간행되었다기보다는 문집을 간행하기 위한 전 단계로 그의 손자 윤주하(尹柱河)가 윤석봉의 저술을 필사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문집의 중간에 두주(頭註)로 삭제할 내용을 표시한 것도 있고, 일부 교정한 부분도 발견되며, 목차도 정식으로 정리되지 못했다. 2002년 황의천(黃義千)에 의해 경기도 양주의 윤석봉 후손가에서 발굴되었다.

권1에는 가(歌) 4수, 사(詞)·부(賦) 각 1편이 수록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시이다. 권2와

권3도 시를 수록하였다. 시는 삶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자잘한 일, 시대의 암울함을 표현하는 내용, 중암과 화서의 운을 차운하여 학문 연원을 알게 해 주는 내용 등 다양하다. 권4에는 소(疎) 7편이 수록되었고, 권5에서 권14까지는 모두 서간이다. 중암 김평묵에게 22편, 성재 유중교에게 30편, 면암 최익현에게 10편, 연재 송병선에게 3편 등, 혼란한 시대 상황에서 유교의 수호와 세태에 대한 염려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 외 일가친척 및 백관형·윤명오·유인석·이응규·장후재·이정직·조구원·유호근 등 경기도와 보령 지역의 다양한 유림들에게 보낸 서간들이다. 권16과 권17에는 기(記)가 수록되었고, 권18에는 서발(序跋), 권20, 21에는 제문, 권22에는 묘갈명·묘지명·묘표·행장, 권23에는 잡저가 수록되었다. 유석봉의 폭넓은 활동 범위와 보령지역 화서학과 인맥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16) 석람시고(石藍詩稿) · 석람고(石藍考)

김광제(金光濟 1866~1920)의 시집이다. 김광제의 초명은 홍제(弘濟 또는 洪濟), 자는 덕재(德在), 호는 동양자(東洋子), 시호(詩號)는 석람(石藍)이다. 보령시 웅천읍 평리에서 태어났다. 무과에 올라 동래 경무관 등을 역임했으나 을사조약 후 벼슬을 버리고 1907년 대구에서 출판사인 광문사(光文社)의 사장으로 있으면서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였다.

1990년 독립유공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석람시고는 필사본으로 22면이고, 석람고는 필사본으로 47면이다. 이 시집은 1997년 5월 석람김광제선생 유고집발간위원회에서 발간한 『민족해방을 꿈꾸던 선각자』라는 책에 영인되어 수록되었다. 석람고에는 저자의 나이 17세부터 지은 시 126수가 수록되어 있다. 석람시고에는 1884년~1895년까지의 시 50수를 담고 있다.

이 시집은 항일운동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저자가 시정(詩情)에 흠뻑 취해 있던 젊은 시절 시인으로서의 색다른 모습 등 다양한 인간적 면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17) 석루유고(石樓遺稿)

이경전((李慶全 1567~1644)의 문집이다. 이경전의 자는 중집(仲集) 호는 석루(石樓), 본관은 한산이다. 부친은 아계 이산해이다. 1590년(선조 23)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1608년 영창대군의 웅립을 피하는 유영경(柳永慶)을 정인홍(鄭仁弘) 등과 함께 탄핵하다가 강계에 귀양 갔다. 이해 광해군이 즉위하자 풀려나와 충흥도·전라도의 관찰사를 지내고,

1618년에 부친 이산해가 받았던 한평군(韓平君)을 습봉(襲封)하고 좌참찬에 올랐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주청사로 명나라에 가서 인조의 책봉을 요청하였다. 이어 한평부원군에 진봉되고, 1637년에 장유(張維)·이경석(李景奭) 등과 함께 삼전도(三田渡)의 비문 작성의 명을 받았으나 병을 빙자하고 거절하였으며, 1640년 형조판서를 지냈다. 문필이 뛰어나 이름이 높았다. 석루유고는 4권 4책의 목판본이며, 아들 이무(李袤)가 병자호란에 없어지고 남은 원고를 모아 편집하여 간행하였으나, 간행 경위는 서문과 목차, 발문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다. 표제와 편심제(版心題)는 ‘석루집(石樓集)’으로 되어 있지만 권수제(卷首題)는 ‘석루유고(石樓遺稿)’로 되어 있다. 권1·2·3에는 시, 권4에는 소(疏)·차(筍)·제문(祭文)·기(記)·발(跋)·설(說)·명(銘)·인(引)·상량문·서(序)·책(策)·부록이 수록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시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18) 성당집(性堂集)

정혁신(鄭赫臣 1719~1793)의 문집이다. 정혁신의 자는 명준(明峻). 호는 성당(性堂), 본관은 경주이다. 어려서부터 효친(孝親)을 알았고 문예(文藝)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1750년에 향사(鄕士)들이 그의 효행을 현에 천거했다. 생업을 돌보지 않고 학문에 전력하였는데 1764년에는 가족을 이끌고 보령 오서산(烏棲山)에 들어가 양성당(養性堂)을 짓고 공부하였다. 1780년에 향사(鄕士)들이 경술(經術)로 천거하였고, 1787년에 암행어사가 그의 학문이 뛰어나다는 소식을 듣고 조정에 알렸다.

왕이 광릉참봉(光陵參奉)을 제수했으나, 병을 핑계로 사양했다. 1790년에는 원자(元子)탄생을 경축하면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使)를 제수했다. 1793년 성당정사(性堂精舍)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남당 한원진의 학문을 따랐고, 그의 제자들에 의해 호서지역에 남당의 학맥이 전파되게 되었다. 성당집은 5권 2책으로 되었으며, 1845년 외손 김박연(金博淵)이 유문을 편집하고, 손자 정호건(鄭浩乾)·호곤(浩坤)이 간행했으며 매산 홍직필(梅山 洪直弼)이 찬한 서문(序文)이 있다. 권1에는 시 98수, 권2에는 서 23편, 권3에는 서(序) 2편, 祭文 5편, 行狀 2편, 戬文 4편, 권4에는 잡저로 자경문(自警文), 하락이수변화출입설(河洛理數變化出入說), 대학경의일득록(大學經義一得錄), 부록으로 문인퇴기(門人退記), 호서암행어사심환지서계별단(湖西暗行御史沈煥之書啓別單), 전교(傳敎), 이조초기미지(吏曹草記批旨), 제문(祭文), 행장(行狀)이 있다. 제문은 문인 조진호(趙鎭祐)·이건운(李健運)·이문복(李文福)·박도환(朴道煥)·이시덕(李時德)·이상문(李相文)·이예환(李禮煥) 등이 쓴 것이고 행장은 외손 김박연(金博淵)이 썼다.

19) 소매유고(小梅遺稿)

이석태(李錫泰 1885~1967)의 문집이다. 이석태의 자는 형구(亨九) 호는 소매(小梅) 본관은 서천(舒川)이다. 매곡(梅谷) 이우규(李禹奎 1838~1898)의 아들로 홍성에서 태어나 광천에 덕명학교(德明學校)를 세우고 교편을 잡기도 했으나 일제의 침탈로 물러나 서산 부석면에서 한학을 교육하며 일생을 보냈다. 문중에서 발간한 『퇴천세고』의 지(地)에 그의 형인 이석진의 매정고와 함께 수록되었다. 3권 1책이다.

1권은 시로 243수이며 주로 지인들과 교류하며 지은 증화운시(贈和韻詩)가 대부분이다. 권2는 서간문이 총 133편으로 주를 이루며 이 중 수곡(水谷) 이종순(李鍾淳)에게 보낸 것이 19편으로 가장 많다. 권3은 잡저로 주로 천문과 역법에 관한 의문점을 백씨인 이석진(李錫晉 1864~1948)에게 질의하기 위해 올린 편지 9편과 사호(沙湖)에서 유거한 이석진의 삶을 기록한 사호유거기(沙湖幽居記) 등이 있다. 부록편에는 오완근(吳浣根)의 만시(輓詩)와 제문, 저자의 아들 이지풍이 기록한 저작의 약적(略蹟) 등이 기록되어 있다.

본 문집은 서산지역에서 후진 양성과 교육에 힘을 쏟은 유학자의 교유관계와 삶을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형제간에 나눈 천문역법에 관한 기록은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 준다.

20) 소산시집(蘇山詩集) · 소산사집(蘇山私集)

조일원(趙一元 1860~1950)의 시집이다. 조일원의 자는 문유(文有) 호는 소산(蘇山)이며 본관은 한양(漢陽)이다. 보령시 화산동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문학에 재질이 돋보였으며, 운포 이민보(雲圃 李敏輔)와 기정 안중수(起亭 安宗洙)의 문하에서 수학했고 영호남 및 관서지방을 두루 여행하며 시문을 지었고, 1891년 증광진사시에 합격했다. 일생을 고향 보령에서 지역의 선비들과 교류하며 우국지사로서 지냈다.

시집은 3권으로 표제를 소산시집이라 하였고, 앞에 단편의 일화(逸話)가 씌어 있다. 시는 작품의 창작 순서대로 기록되었다. 시집에 수록된 시는 총 670여 수이다. 권1에는 시집 총목차가 있고, 경오년부터 정유년까지 지은 작품 21여 수가 수록되었다. 시는 경물과 역사 고적을 읊은 작품들이 많다. 특히 일제의 침탈이 자행되는 시국을 그는 시로 통분을 자아내고 있다. 권2에는 정유년부터 경오년까지의 작품 280수가 수록되었는데, 산천을 읊고 지산 김복한, 면암 최익현, 북암 이설 등 사우들과 교류하면서 지은 작품과 시속을 근심하는 작품이 들어 있다. 권3은 신미년부터 정해년까지 지은 작품 180수 정도 실려 있다.

『소산사집(蘇山私集)』은 문집이다. 문집은 원(元)·형(亨)·이(利)·정(貞) 4권으로

표제는 소산 사집(蘇山私集)이다. 권1에는 만동묘에 관원을 설치하기를 요청하는 소(疏)1편, 김복한·이설·대원군 등 사우들에게 보낸 서(書) 11편이 있다. 주로 일제의 침탈행위를 통분하며 시국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성리학과 의리에 관한 내용이다. 이밖에 제문 13편, 축사(祝辭) 1편, 고유문 5편, 비문 1편, 기타 1편 등 총 33편의 글이 실려 있다. 권2에는 서 3편, 기문 3편, 서발(序跋) 4편, 묘지 7편, 묘갈명 7편, 묘비 4편, 장(狀) 4편이 있으며, 기타 5편 등 총 37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3은 서 묘갈명·묘비문·서발 등 45편의 글이, 권4에는 비문을 비롯하여 편지·서발문·기 등 70여 편의 글이 실려 있다. 편지는 주로 학문을 권장하거나 묘도문자 및 시문 등을 상의하는 내용이다. 소산문집은 정리되어 간행된 문집은 아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한 선비의 구한말 망해가는 나라에 대한 걱정과 일제에 대한 통분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21) 송암선생문고(松菴先生文稿)

조익순(趙翊淳 1868~1952)의 문집이다. 조익순은 본관은 양주이고, 자는 필삼(弼三), 호는 송암(松庵)이다. 부친은 숙재 조병덕의 제자인 돈간재 조진학(敦良齋 趙鎭鶴)이다. 일찍이 부친에게 수학하여 한학에 정통한 한학자로, 전통적 유교질서를 지키려 노력했고, 후진을 교육하는 데 힘썼다. 많은 문장이 송암문고에 남아있는데, 송암문고는 서문이나 발문이 없어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현재는 그의 손자 광희(光熙)가 정리한 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집을 만들기 위해 초고(草稿)로 정리한 필사본 유일본이다.

후손 조중원(趙重元)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2001년 황의천이 발굴했다. 전체 4권 4책으로 되었다. 권1에는 시(詩) 35수, 서(書) 95편이 실려 있다. 권2에는 서(書) 45편, 서(序) 16편, 기(記) 21편, 발(跋) 2편, 서증(書贈) 4편, 통장(通狀) 10편, 봉안문(奉安文) 2편, 장문(狀文) 3편, 사(辭) 3편, 설(設) 7편, 축문(祝文) 2편이 실려 있다. 권3에는 제문(祭文) 12편, 잡지(雜識) 4편, 행장(行狀) 8편이 실려 있다. 권4에는 행장(行狀) 11편, 묘갈명(墓碣銘) 9편, 묘지(墓誌) 5편, 전(傳) 4편이 실려 있다. 전체적으로 시(詩)보다는 서간·제문·행장·묘지 등이 많아 근대 보령지역 유림들의 친분관계나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이다.

22) 숙재집(肅齋集)

조병덕(趙秉惠 1800~1870)의 문집이다. 조병덕의 자는 유문(孺文), 호는 숙재(肅齋),

본관은 양주(楊州)이다. 매산 홍직필(梅山 洪直弼), 노주 오희상(老洲·吳熙常)의 문인이다. 보령 미산면 삼계리에서 살았다. 1852년(철종 3) 음보(蔭補)로 지평이 되고, 1859년 이조참의를 거쳐 호조참관에 이르렀다. 한말의 거유로서 문하에 많은 제자를 거느렸다. 문집인 숙재집은 26권 1책으로 되었다.

권1에는 각체시(各體詩) 80수, 권2에는 소 10수(有駟召之命後辭掌令疏, 辭遷陵輓章製述及經 筵官疏, 奉慰仍辭免輓章製述疏, 亞卿晋秩後辭召命疏 등), 서계(書啓) 6수(假注書金鼎獻宜別 諭後附奏, 藍浦縣梁柱石宣敦諭後書啓 등), 의(議) 3수(經筵繼講冊子稟定議 등)이며, 이 중 소(疏)는 모두 그가 재야 학자로서 국왕이 부르는 유지(諭旨)를 사양하는 글들이다. 권3에는 서(書) 28수(上親庭 등), 권4에는 서(書) 34수(上老洲吳先生, 上梅山洪先生 등), 권5에는 서(書) 28수(上襟溪李丈鳳秀, 上山泉金丈命喜, 上族叔心菴相公 등), 권6에는 서(書) 24수(與申參判幼安應朝 등), 권7에는 서(書) 27수(與洪憲文一純 등), 권8에는 서(書) 32수(與洪憲文 등), 권9에는 서(書) 7수(答李景學在 7首), 권10에는 서(書) 30수(答蘇純汝輝冕 22首 등), 권11에는 서(書) 42수(答尹天賚弼鉉 12수, 答朴元吉亨求 7수 등), 권12에는 서(書) 49수(答李士九鼎榮 등), 권13에는 서(書) 27수(答李士蘊鎮玉 등), 권14에는 서(書) 38수(答田想默致淵 16首 등), 卷15에는 書 32首(答洪一厚子坤 4首 등), 卷16에는 書 44首(答金基勉敬熙 6首 등), 권17에는 서(書) 33수(答趙鎮鶴聖 16首 등), 권18에는 서(書) 21수(答申春朝季晦, 答李相集成老 등)가 수록되어 있다.

서(書)의 내용은 안부서신 이외에도 경학 의례에 대한 문답이 많다. 그와 서신을 주고 받은 홍직필, 임헌회, 전우 등은 당대에 유명한 노론계 유학자들이었다. 권19에는 잡저 13수(書四勿箴後贈李士蘊, 訥字說贈吳景殷歸訥谷, 書沈隱侯詩贈朴敬時中庸集解序疑義書贈李希善, 送全善餘還 青海, 送韓士行還青海 등), 서(序) 10수(竹山安氏族譜序, 龍湖集序 등), 권20에는 기(記) 8수(孝子文化縣令俞公○○閭重修記 등), 제발(題跋) 12首(題慷慨翁任公行狀跋後 등), 권21에는 고축(告祝) 11수(昌寧蘇谷祠清敏盧公奉安文 등), 제문 6수(祭老洲吳先生文 등), 권22에는 제문 16수(祭梅山洪先生文 등), 卷23에는 神道碑 1首(懷安大君芳幹神道碑), 碑 3首(栗里世德祠遺墟碑銘并序 등), 墓碣銘 6首(源西處士權公翌墓碣銘竝序 등), 墓表 1首, 壙誌 1首, 권24에는 묘지명 6수(梅山洪先生直弼墓誌銘 등), 시장(諡狀) 2수, 권25에는 행장 8수(處士屯塢林公宗七行狀 등), 권26에는 행록(行錄) 3수(先妣宋氏行錄 등), 전(傳) 1수(孝子吳公相舜傳)가 있다. 뛰어난 낙론계 학자의 학맥과 교유관계 및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23) 심당집(心堂集)

신응선(申應善 1834~1921)의 문집이다. 전체 5권 1책이며 18.3×13.1cm 크기의 활판본이다. 1919년 저자가 직접 편집·간행하였다. 권두에 남정철(南廷哲)·김윤식(金允植)·이우명(李遇明) 등의 서문이 있다. 신응선의 본관은 평산이고 호는 심당이다. 인조조의 영의정 상촌 신흠(申欽)의 후손으로 1893년 문과에 급제하고 도승지를 역임한 후 청라면 나원리 은선동에 내려와 후생교육에 전념했으며, 글씨에 뛰어났다. 권1~4에 사(辭) 1편, 부(賦) 1편, 사(詞) 16편, 시 751수, 권5에 서(序) 30편, 기(記) 7편, 제발(題跋) 4편, 잠(箴) 2편, 명(銘) 2편, 송(頌) 2편, 설(說) 3편, 논(論) 3편, 행장 4편, 비명 3편, 소(疏) 3편, 연설(筵說) 2편, 교서 1편, 문(文) 9편, 표(表) 2편, 진전(進箋) 1편, 조(詔) 1편, 계(啓) 2편, 서(書) 12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시는 초목·금수(禽獸)·정루(亭樓)·시경(時景)·감회 등 다양한 소재를 각양각체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주평팔경(酒坪八景)>은 유창하고 수려한 문체로 묘사한 것으로 대표적인 작품이다. 논의 <정치론(政治論)>에서는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치란안위(治亂安危)가 달려 있으므로, 위에는 어진 임금이 있고 아래에는 어진 신하가 있어 사(私)를 버리고 공정을 기하여야 어진 정치가 구현되며, 국가의 위란이나 백성의 불안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또 <전가낙지론(田家樂志論)>에서는 천하에 낙(樂)이 많지만 농포를 가꾸고 가축을 길러 부모를 봉양하고 제사를 받드는 것이 농가의 직분으로 천하의 낙 중에서 으뜸이 된다고 전원생활의 낙관적인 일면을 논술하였다.

소는 모두 사직소로, 부수찬·사서(司書)·의관(議官) 등을 사퇴하면서 자신의 정치관을 밝힌 상소이다. <연설(筵說)>은 시강원우시직 재임시 세자의 질문에 대답한 것을 수록한 내용이다. 행장에는 유대이(兪大爾), 신석구(申錫九), 이준재(李準在)에 대한 것이 있다.

24) 아계유고(鵝溪遺稿)

이산해(李山海 1539~1609)의 문집이다. 이산해의 자는 여수(汝受) 호는 아계(鵝溪),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1558년에 사마시에 합격. 1561년 식년문과에 급제한후 병조참판·형조판서·이조판서를 거쳐 우찬성에 올랐다. 1583년 조광조의 비문 글씨를 쓰고 비음기(碑陰記)를 지었고, 왕명을 받아 김시습 문집의 서문을 지어 올렸다. 1587년 왕명을 받아 소학언해의 발문을 지었다.

1588년 우의정에 올랐고 이 무렵 동인이 남인 북인으로 갈라지자 북인의 영수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다음해 좌의정에 이어 영의정이 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문집은 기성록(箕城錄) 3권, 후집(後集) 1권, 잡저(雜著) 2권 합 6권 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과 목차는 없다. 권1~3은 기성록(箕城錄)이다. 1592년 이후 3년간 강원도 기성(箕城) 땅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 지은 시문을 수록한 것이다.

권1·권2는 시 200여 편이 저작 시기 순으로 실려 있다. 끝에 저자가 지은 발문이 실려 있다. 권3은 잡저로써 記·說·傳·序가 순서 없이 섞여 있다. 권4는 후집(後集)으로 기성록 이후에 지은 시를 모아 놓았는데 14개의 녹(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5·권6은 기성록에 실리지 않은 글들을 종류별로 모아 놓았다. 권5에 「언해소학발(諺解小學跋)」이 있고, 권6에 「매월당집서(梅月堂集序)」, 숙부인 토정 이지함의 묘갈명, 조광조의 묘표 등이 있다.

25) 옥담심공유고(玉潭沈公遺稿)

심영택(沈永澤 1867~1901)의 시문집이다. 심영택의 본관은 청송이고 자는 명보(命甫) 호는 옥담(玉潭)이다. 옥담이라는 호는 주자의 고향인 옥산(玉山)과 울곡의 고향인 석담(石潭)에서 취한 글자이다. 일찍이 부친에게 수학하고 어려서부터 학문에 뛰어났으며, 문장으로 유명하였다. 부친 심의덕(沈宜惠 1845~1910)과 함께 호론(湖論)을 지지하며, 보령 유림계에서 활동했으며, 학문이 뛰어나서 유림계의 신망을 한 몸에 받았으나 학문적 뜻을 이루어 보기도 전에 3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옥담유고는 정식 발간된 문집이 아니고 문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필사본으로 보인다. 1책 2권으로 되었는데, 권1에는 시(詩) 53수, 서(書) 29편이 수록되었고, 권2에는 서(序) 1편, 기(記) 2편, 설(說) 3편, 변(辨) 1편, 제문1편, 정문(呈文)이다. 서간은 주로 김복한과 부친 심의덕에게 보낸 것으로 학문을 논하는 내용이며, 기문은 집성당과 관련된 의한화당기(擬寒華堂記)와 백운사에서 강학하며 머물던 때의 백운사일기(白雲寺日記)가 있다.

이러한 유고 내용에 그의 사후에 부친 심의덕이 지은 가정(家狀)과 교우들이 쓴 만사와 제문을 추가하고, 창산 심의덕(菴山 沈宜惠)의 여러 기록을 모아서 함께 2006년 『창산·옥담유고』로 발간했다. 자료 정리는 황의천이, 발간은 심영택의 증손인 심재웅(沈載雄)이 하였다. 한말 지역의 학문 동향과, 한 가문의 전승되는 학맥을 알려 주는 자료이다.

26) 옥산세고속록(玉山世稿續錄)

옥산세고속록은 『정재공유고(靜齋公遺稿)』 『호군공유사(護軍公遺事)』 『성재공유고(省齋公遺稿)』 『구암공유고(久庵公遺稿)』 『매사공유고(梅史公遺稿)』 『직하공유고(稷

『下公遺稿』 『국사공실기(菊史公實記)』 『혜산공유고략(惠山公遺稿略)』 『취송공침언(翠松公寢言)』 『봉림공실기(鳳林公實記)』 등 9명의 남포백씨 문집을 묶은 것이다.

문집의 서문은 1944년 심주택(沈周澤)이 썼고, 발문은 1979년 백정균(白井均)이 지었다. 『정재공유고』는 백유공(白惟恭)의 문집으로 백유공은 세종 때 충주목사를 지냈으며, 시 7수, 소 2편, 계(啓)와 유사(遺事) 각 1편이 수록되었다. 『호군공유사』는 백인함에 관한 글로 그는 백유공의 증손으로 임진왜란 때 활동했다.

『성재공유고』는 백세영(白世榮)의 문집으로 시와 서간문 잡록이 수록되었다. 『구암공유고』는 백윤철(白允哲)의 저서이다. 시 2수, 전(箋)과 소(疎) 1편, 그의 신도비명과 묘지가 수록되었다.

『매사공유고』는 백지화(白之華 1676~1778)의 문집이며, 시 30수, 서간문 잡록 등이 수록되었고, 문집의 발문은 김계환(金啓煥)이 지었다. 『직하공유고』는 백동현(白東賢 1769~1861)의 저서이다. 시와 서간문, 그를 추모하는 만사 등이 있다. 『국사공실기』는 백태진(白泰鎭 1804~1881)에 관한 기록으로 그의 행장과 묘갈명이다. 손자 백낙철에 의해 간행되었다.

『혜산공유고략』은 백태진의 아들 백규수(白奎洙 1827~1868)의 문집이다. 『취송공침언』은 백규수의 아들 백낙철(白樂喆 1861~1940)의 저술이다.

『봉림공실기』는 백낙철의 아들 백남욱(白南郁 1892~1969)에 대한 기록이다. 옥산세고 속록은 보령 구룡리에 살던 남포백씨의 문집을 모은 것으로, 한 가계의 대를 이어가는 학문을 이해하는 데 자료가 되며, 한 집안에서 조상의 글을 모아서 후세에 전하기 위해 문집을 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7) 옥서실기(玉西實記)

조병문(趙炳文 1858~1893)의 문집이다. 조병문의 초명은 병찬(炳瓚), 자는 현옥(賢玉), 호는 옥서(玉西) 혹은 농호(龍湖)이며, 본관은 한양이다. 보령 출신으로 숙계 조병덕의 고제(古弟)인 눌재(訥齋) 효원(黻元)의 문인이며, 36세에 사망했다. 옥서실기는 1책으로 된 문집이다. 이규헌(李圭憲)의 서문과 손자 성봉(成鳳)의 발문이 있다. 본문은 권(卷)을 나누지 않았으며, 단지 원고(原稿)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에는 대책(對策) 1편, 차자(筭子) 1편, 소(疎) 4편, 계(啓) 1편, 사(辭) 1편, 계사(啓辭) 2편, 서(書) 3편, 의책(擬策) 1편, 논(論)·기(記)·통문(通文) 각 1편, 제문 2편, 조(詔) 2편, 시 10제(題) 19수를 수록하였다. 부록에는 이규헌의 전(傳)과, 유인택(柳寅澤)의 묘갈명명서를 실고 있는데, 조병문의 삶과 사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28) 우가현유고(尤可軒遺稿)

19세기 학자 이정영(李鼎榮 1798~1860)의 시문집이다. 저자의 본관은 경주이며, 자는 사구(士九), 호는 우가현(尤可軒)이다. 주산면 동곡(東谷)에서 살았다. 이예환(李禮煥 1772~1837)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으며 조병덕(趙秉憲 1800~1870) 임헌회(任憲晦 1811~1876)와 함께 학문을 하며 교유하였다. 이 책의 발문(跋文)과 서문(序文)에 따르면 이 판본은 이정영이 죽은 50여 년 후에 그의 후손인 종경(鍾卿)·종대(鍾大) 등이 소장하고 있던 유고를 편찬, 간행했다고 한다. 이 내용 외에도 신장(申棖)의 발문에 ‘永曆二百六十五年(1911)이라고 한 것에서도 간행연도가 1911년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이 4권2책이다. 1책은 권수(卷首)의 김복한의 서문(序文), 권1의 詩 88편, 書 12편, 권2의 書 24편, 2책은 권3의 잡저 4편, 부록의 유사, 행장, 제문, 만사로 구성되어 있다. 권말에는 신장(申棖), 이종대(李鍾大)의 발문이 있다. 특히 저자의 글은 심성, 이기(理氣) 등 성리학의 주요 문제를 토론하거나 이와 관련된 여러 학자들의 논평을 모아 놓은 글이 많다. 특히 조선후기 호락(湖洛) 논쟁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이 시기 저자의 학문은 물론 당시 보령 지식인들의 학술 경향을 살펴보는 자료로서 가치가 주목된다.

29) 울재고(栗齋稿) · 울재잡고(栗齋雜稿)

김관제(金寬濟 1864~1930)의 저술이다. 김관제의 본관은 경주이며, 우재(愚齋) 김한(金漢)의 후예로 태어났다. 삼희당 윤석봉 문하에서 육경을 수학하였고, 궁핍한 생활 속에서 경향 각지에서 인재를 육성하였으며, 노년에는 향리 강당에서 훈학으로 여생을 보냈다. 특히 한시에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울재고에는 증손 요집(堯執)이 지은 서문과, 백운 이병권이 지은 묘갈명이 수록되어 있다. 분권을 하지 않고 시와 서간 제문으로 나누어 수록하였으며, 오른쪽에 원문을 영인하고 왼쪽에 번역을 실었다.

시는 모두 302수로 오언절구 7구, 오언율시 12수, 칠언절구 86수, 칠언율시 197수이다. 시의 내용은 일상의 소회가 대부분이며, 정운경(鄭雲慶)·정해준(鄭海駿) 등과 나눈 시가 많다. 구한말 국난의 시기를 살아간 시골의 한 한학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울재잡고는 영인되어 출간된 울재고와는 달리 필사본으로 전해지며, 시 뿐 아니라 다양한 문체로 이루어져 있다.

시는 모두 261수이며, 대부분 쇠한 세상을 만나 뜻을 이루지 못한 저자의 마음을 담고 있다. 특히 유거배회(幽居排懷)에서는 망국의 시대에 나이까지 들어 청운의 꿈을 포기하

고 고향에 돌아와 아이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마음을 시로 풀어내고 있는 저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서간은 11편, 부(賦) 4편, 설(說) 5편, 기(記) 3편, 논(論) 5편으로, 김관제의 문학세계를 전체적으로 조감해 볼 수 있으며, 당시 보령지역의 사우관계 및 문학 활동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이다.

30) 이재선생실기(彝齋先生實紀)

백이정(白頤正 1247~1323)의 유시(遺詩) 약간과 유사(遺事) 등을 모은 것으로 후손 동혁(東赫) 등이 1859년(哲宗 10)에 수집, 간행했다. 백이정의 자는 약현(若軒), 호는 이재(彝齋), 본관은 남포(藍浦), 안유(安裕)의 문인이다. 고려 충렬왕 때 문과에 급제, 여러 벼슬을 거쳐 첨의평리(僉議評理)에 이르렀으며 충숙왕 때 상당군(上黨君)에 봉해졌다.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을 따라 연경에 가서 10여 년간 머물며 주자학을 연구하고 각종 정주서(程朱書)를 갖고 돌아와 이제현, 박충좌 등 제자를 길러냄으로써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전파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책머리에 영중추부사 조인영(趙寅永)의 서문(序文)과 목록이 있고 책 끝에는 백동규(白東奎), 조병덕(趙秉惠)과 후손 동우(東愚)·영진(永鎭) 등의 발문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2권 2책으로 되었다.

권1에는 유시(遺詩) 2수(燕居詩, 聯句), 부홍애선생증시(附洪厓先生贈詩) 1수, 부진신장보급본현동종차운(附摺紳章甫及本縣同宗次韻) 170수(奉朝賀 南公轍, 奉朝賀 金履陽, 吏曹判書 趙秉鉉 등)가 있고. 권2에는 유적(遺蹟)(文簡公本傳, 麗史本傳, 附諸家記述 등), 가장, 서가가장(書家狀後), 신도비명병서(神道碑銘并序), 묘갈명병서(墓碣銘并序), 회헌문인록(晦軒文人錄), 상당문인록(上黨門人錄), 부관통유정유찰유통(附館通儒呈儒札儒通), 신안사배향사실(新安祠配享事實), 상량문(上樑文), 부축문제서(附祝文諸書) 10여 편. <회헌문인록>에는 권부(權溥), 우탁(禹倬), 백이정(白頤正), 이진(李鎔), 이조년(李兆年), 신장(辛藏), 윤선좌(尹宣佐) 등의 약력이 들어 있다. <이제문인록>에는 박충좌, 이제현, 이곡, 이인복 등의 약력이 들어 있다.

백이정은 우리나라 성리학 초창기의 학자이기 때문에 본서는 성리학의 수입 및 전파에 관한 연구에 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1976년 후손 백창균(白彰均)이 보완 중간(重刊)하고, 2005년 한국유교학회가 번역하여 창균의 동생 백정균(白井均)이 국역집을 발간했다.

31) 인재집(認齋集)

임흥준(任興準 1851~1910)의 문집이다. 그의 자는 기숙(起叔), 호는 인재(認齋)이며

본관은 풍천이다. 보령 주산 금당에서 세거하였다. 어려서부터 십구사략, 소학, 대학, 논어, 맹자 등을 차례로 읽어 주위 사람의 칭찬을 받았고 특히 전재 임헌회에게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 돈간재 조진학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나중에는 삼희당 윤석봉 문하에 종유하였다. 권1에는 오언율시를 비롯한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김양희·윤석봉·김천서·조진학 등의 인물과 나눈 것이 많아 교유관계를 짐작하게 해준다. 권2에도 또한 시가 수록되었는데 칠언율시에 해당하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권3에는 서간 13편이 실려 있는데, 스승인 돈간재 조진학에게 9편, 조장희에게 보낸 3편, 간재 전우에게 보낸 1편이 있다. 권4에는 김영선·윤석봉·조익순 그리고 아들 선호에게 보낸 서간이 있다. 권5에는 서(序) 5편, 기(記) 5편, 명(銘) 3편, 고축(告祝) 4편, 축사(祝辭) 2편, 제문(祭文) 3편, 묘표(墓表) 3편, 묘지(墓誌) 1편, 행록(行錄) 3편 등이 수록되었다. 권6은 잡저, 권7은 잡지(雜識)에 해당하는 문장을 수록하였다. 권8은 병산문답(屏山問答), 금화문답(金華問答) 그리고 부록을 실었는데, 문답은 스승 조진학과의 학문 문답에 관한 내용이며, 부록은 임흥준의 행장인데 조익순이 썼다.

32) 장옥난고(藏玉亂稿)

백창균(白彰均 1912~1991)의 저술이다. 백창균의 자는 종한(宗漢), 호는 청양(淸陽) 본관은 남포이다. 웅천 구룡리에서 태어나 살았다. 어려서부터 한학에 전념하여 한학자로 대성하여 그 명성이 알려졌다. 산수와 문장을 좋아하였으며, 당대의 유명 인사들과 교분이 많았다. 이 책은 저자 생존시에 발간했고, 2005년 국역 817면으로 발간했다.

국역은 민병수, 발간은 아들 백경현이 했다. 제제는 권1, 권2, 장옥난고 후고 I, 장옥난고 후고 II,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권1은 서간 124편과 통문 17편이며, 서간 대상은 백범 김구, 위창 오세창, 심산 김창숙, 단운 민병승, 송암 조익순, 죽하 김승렬 등 지역과 중앙의 저명인사들이 대부분이다. 권2는 명(銘), 찬(贊), 상량문(上樑文), 제문(祭文), 묘갈명(墓碣銘), 묘지명(墓誌銘), 행장(行狀) 등 다양하다. 장옥난고 후고 I 은 서(序), 기(記), 비(碑), 묘갈명(墓碣銘), 묘표(墓表)이며, 장옥난고 후고 II는 서(書), 통문(通文), 묘갈(墓碣), 묘표(墓表), 제문(祭文), 애사(哀辭) 등이다.

장옥난고는 김구, 정인보 같은 명사들과 나눈 편지를 비롯하여 남포향교의 통문, 옥산사 관련 자료, 보령 뿐 아니라 인근지역, 저자의 집안 남포백씨의 수많은 인물들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을 담고 있어 보령지역 일원의 근현대 향토사 연구에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33) 정수재집(靜水齋集)

박세주(朴世冑 1641~1725)의 문집이다. 박세주의 자는 원경(遠卿), 호는 정수재(靜水齋)이고 본관은 밀양이다. 송시열에게 글을 배우고 정수재라는 호를 받았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부친의 병에 눈 속에서 죽순을 구하고, 모친의 병에 허벅지 살을 베었다. 효성으로 정려를 받았다. 신임사화 이후 청양을 거쳐 보령 도화담에 은거하면서 후학을 가르치고 처사적 삶을 살았다. 2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1913년 8대손 민화(旻和)와 7대 방손 영태(永台)의 노력으로 간행되었다. 서문은 송병제(宋秉濟)가 썼다. 권1에는 시 300수가 있고, 권2에는 시(詩), 만(輓), 서(書), 기(記), 잡저(雜著), 명(銘), 유사(遺事), 고사(告辭), 제문(祭文)이 있으며, 부록으로는 박세주의 효자정려 중수기와 가장(家狀)이 있다.

34) 주계시집(珠溪詩集)

이사육(李思彥 1830~1919)의 문집이다. 이사육의 본관은 전주이며, 세종대왕의 4번째 왕자 임영대군의 14대손이다. 호는 주계(珠溪)이다. 주산면 증산리에서 태어나 살았다. 한학에 조예가 깊고 한시에 능했다.

구한말 주립산 아래에서 초옥(草屋)을 짓고 자손들 교육에 힘쓰며, 친한 시봉(詩朋)들과 유유자적한 일생을 보냈다. 주계시집은 1954년 그의 손자 이철원 등이 중심이 되어 발간했다.

체제는 시권지일(詩卷之一), 시권지이(詩卷之二), 고풍(古風), 서한(書翰), 제문(祭文)으로 구성되었다. 시권지일(詩卷之一)은 모두 310수이며, 대부분 칠언율시이다. 특히 임상호, 이병규, 이관영, 윤건오, 윤석봉과 오로회(五老會)라 이름 짓고 지은 시에서 저자의 교유관계를 알 수 있다.

권2는 모두 194수이며 1권처럼 대부분 칠언율시이며, 1권과 마찬가지로 시봉들과의 차운시 등 내용이 다양하다. 고풍(古風)에는 의인화나 풍유적 성격이 강한 7언 36구로 된 장편시 4수가 실려 있다. 서한(書翰)·제문(祭文)은 위토 문체로 형에게 올린 서간과 부인 풍양조씨에 대한 것이다. 주계시집은 보령에서 일생을 보낸 근대 유학자의 500여 수의 시를 담고 있는 시집으로 그 시적 성취와 함께 이 지역 유학자들의 교류 상황과 활동의 면모를 잘 보여 주는 자료이다.

35) 청계유고(淸溪遺稿)

백사형(白師亨 1768~1808)의 문집이다. 백사형은 본관이 남포이며, 호는 청계(淸溪)이다.

웅천 구룡리 장좌동에서 태어나 일찍이 오서산의 정혁신에게 나가서 성리학을 배웠다. 수학 후 임성주(任聖周)·송환기(宋煥基) 등의 학자들과 교유하며 활동하다가 41세로 사망했다. 청계유고는 백사형과 함께 성당 정혁신(性堂 鄭赫臣)에게서 동문수학한 웅천 평리의 이예환(李禮煥)이 백사형 사후 백사형 부친의 부탁으로 정리하여 필사유일본으로 만들었다.

정식 발행되지 않고 후손에게 전해지다가 백사형의 현손인 백낙건(白樂乾)이 1952년 정식 발간하려고 행장 등을 추가하고, 백창균(白彰均)의 발문까지 붙였으나 발간되지 못하고 유일 필사본으로만 전해진다. 4권 2책(상 하)으로 구성되었다.

1권은 시로 사언시·오언절구·율시·칠언율시 등 77수가 실려 있으며, 2권은 소(疎) 1편(新案院毀撤後復設上言), 서(書) 8편(上大司成權常愼 與李進士宜俊 등), 서(序) 2편, 기(記) 1편, 명(銘) 4편(觀海亭北銘 등), 고축 2편, 제문 6편(性堂鄭先生文 등)이 실려 있다. 3권은 설(說) 2편(一原分殊說, 理一分殊說), 잡저 1편이 실려 있고, 4권은 부록편으로 백사형의 행장·애사 그리고 친척과 동문들이 지은 제문 9편, 만사 35수가 실려 있다.

끝에는 1813년 이예환의 서문(序文)과 1952년 백창균의 발문(跋文)이 있다. 청계유고는 성당 정혁신에게서 기호학파의 남당학맥을 수학한 백사형의 성리학 세계와, 신안사 창건 등 당시 남포현 지역 유학자들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36) 추강집(秋江集)

추강집은 백낙관(白樂寬 1846~1883)의 문집이다. 백낙관의 자는 경교(景敎) 호는 추강(秋江)이며 본관은 남포(藍浦)이다. 보령 주산면 동오리에서 병조참관을 지낸 백홍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1882년 포의(布衣)로 서울 남산에 올라가 봉화를 올린 후 위정척사의 상소를 올렸다가 38세로 사형당한 인물이며, 보령5열사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추강집은 3권1책으로 1958년 족손 백창균(白彰均)이 주도하여 발간했다. 유고의 서문은 1948년 의성 김창숙(義城 金昌淑)이 지은 것이며, 1958년 장면 부통령이 지은 실기의 서문이 문집을 발간하면서 맨 앞장에 붙여져 있다.

권1은 시로 화서 이항로, 중암 김평묵, 성재 유중교, 면암 최익현 등에게 보낸 시 등 27수가 수록되어 있다. 권2는 문(文)으로 척화소(斥和疎), 척화재소(斥和再疎) 상대원군(上大院君) 2편, 여취면암서(與崔勉庵書), 거화초기(擧火草記) 등이 있다. 권3은 부록으로 대원군서(大院君書) 2편, 만사선(輓詞選) 21편, 행장(行狀), 백창균이 쓴 실기(實記)가 수록되어 있다. 1880년대 초 신사위정척사운동(辛巳衛正斥邪運動)에 참여한 유생의 사상과 활동을 알려 주는 내용이 기록된 문집이다.

37) 토정유고(土亭遺稿)

이지함(李之菡 1517~1578)의 문집이다. 자는 형중(馨仲), 호는 토정(土亭), 본관은 한산이다. 보령 청라에서 태어났다. 형 지번(之蕃)과 서경덕(徐敬德 1489~1546)에게서 학문을 익혔다. 1574년 포천현감으로 있을 때 말업(末業)을 중시하는 사회경제 정책이 담긴 상소를 올렸고, 1578년 아산현감 재직 중에는 걸인청(乞人廳)을 만들어 백성들의 구휼에 힘썼다. 성리학 외에 천문지리와 의약(醫藥), 복서(卜筮), 산수(算數)에 이르기까지 관심이 다양하였으며 風水 등에도 능했다. 《토정비결》의 저자라는 설도 있으나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원래 저자는 저술을 남기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데다가 후손이 어려워 글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선(李選 1632~ 1692)이 홍문관에서 선현들의 문집을 정리하면서 남은 원고들을 모아 한 질을 완성하였다. 그 후 현손인 이정익(李禎翊)·이정억(李禎億)과 외손인 조세환(趙世煥 1615~1683) 등 후손들이 이선이 정리한 초고를 바탕으로 집에 남아 있던 원고를 참고하여 증보하고 교정하여 책을 완성하고, 송시열(1607~1689)의 발문을 받았으나 기사환국 등 정치적인 사건을 당하여 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720년(숙종 46) 현손인 경주부윤 이정익(李禎翊)이 다시 정호(鄭澹 1648~1736)의 서문과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발문을 받고, 문집을 간행하게 된 경위를 담은 지(識)를 붙여 임지인 경주에서 2권 1책의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권상(卷上)에는 차송운장익필운(次宋雲長翼弼韻), 차도정절귀거래사(次陶靖節歸去來辭), 대인설(大人說), 피음지설(避知音說), 과욕설(寡慾說), 리포천시상소(泣抱川時上疏), 리아산시진폐상소(泣牙山時陳弊上疏), 권하에는 토정선생유사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문중에서 민수이석구(民樹 李奭求)의 번역으로 번역집을 출간했다.

38) 파산세고(坡山世稿)

파산세고는 전체 6책으로 구성되었다. 파평윤씨 윤건오(尹建五)는 1880년대 재종질 윤석봉과 함께 경기도 양주에서 보령으로 낙향하여 정착하였는데, 이들 문중의 문집을 윤건오의 손자 윤영원(尹永源)이 필사 유일본으로 엮은 책이다.

현재 후손 윤인희씨가 보관하고 있으며, 황의천에 의해 발굴되어 알려졌다. 1책은 견암유고(狷菴遺稿)로 윤념(尹滄)의 문집이다. 윤념은 보령 낙향자 윤건오의 증조부이다. 전체 2권으로 구성되었으며, 권1에는 시, 권2에는 김평묵이 지은 윤념의 행장이 있다, 제2책 과재유고(果齋遺稿)는 윤건오의 부친인 윤의식(尹義植)의 문집이다.

사마시에 합격한 한학에 뛰어난 학자였다. 과재유고는 2권으로 구성되었으며 권1은 시, 권2에는 부(賦)·의(義)·제문(祭文)을 수록하였으며 부록에는 윤의식에 대한 제문이 있다. 윤념과 윤의식은 보령으로 이거하기 전의 인물들이다. 파산세고 제3권은 화정유고(華汀遺稿)이다. 전체 3권으로 구성되었고, 보령 입향조 윤건오(尹建五 1835~1918)의 문집이다.

윤건오는 자는 성극(聖極) 호는 화정(華汀)이다. 재종질 윤석봉과 함께 평생을 유교 문풍을 실천하면서 처사적 삶을 살았다. 화정유고의 권1은 시로 자연물을 대상으로 경치를 묘사한 작품도 있지만, 암울한 시대 상황을 읊은 시도 많으며, 비록 국권회복 운동에는 나서지 않았으나 지식인으로 망국의 한을 노래하고, 이를 통해 후진을 경계하는 내용들도 있다. 화정유고 권2는 산문(散文)을 모은 것으로 제문·발문 등이 있다.

특히 삼희당 제문에서는 비록 향렬은 다르지만 어려서부터 함께 공부하고, 비인과 웅천으로 이사하여 지금까지 의리를 함께해온 정의(情誼)를 추모하고 있다. 부록에는 윤건오에 대한 가사(家史)와 유사(遺事), 그리고 만사·제문 등이 수록되어 있어 집안 내력을 알려 주고 있다. 파산세고 4책·5책·6책은 모두 지산유고(芝山遺稿)로 윤건오의 아들 윤석기(尹錫祺 1860~1927)의 저작이다. 윤석기는 삼희당 윤석봉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보령에서는 백관형·이교현·김복한·유준근 등과 교유했다.

지산유고 상(上)은 2권으로 구성되었는데, 1권에는 시를, 2권에는 서(書)를 수록하였다. 권2의 서는 고종(姑從)인 의병장 서상렬, 중암 김평묵, 삼희당 윤석봉 등에게 보낸 것이다. 지산유고 중(中)은 제문(祭文) 고문(告文) 축사(祝辭) 등이 수록되었다. 권3은 제문으로 전체 21편이다. 권4에는 권3에 이어 제문 12편을 비롯해서 축사(祝辭)·계사(戒辭)·자설(字說)·기(記) 등을 실었다. 파산세고는 한 집안의 유문(遺文)을 모아 후세에 전하려는 후손의 정성이 보이는 문집이다.

아쉽게도 집안이 어려울 때 화재로 인하여 훼손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쉬운 점이며, 한말 일제시대 보령지역의 유림들의 교유관계와 집성당 운영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어 향토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39) 한성재유고(閒醒齋遺稿)

황상현(黃相顯 1800~1872)의 문집이다. 황상현의 본관은 장수이며 황희(黃喜)의 후손으로, 자는 덕유(德由), 호는 한성재(閒醒齋)이다. 보령 웅천 구룡리 화망에서 살았다. 문집은 권의 구분 없이 1책으로 이루어졌다. 서문 발문도 없고 목차 역시 정리되지 않았다.

〈人孰敢侮修身士〉는 ‘어느 누가 수신한 선비를 없신여길 수 있겠는가’ 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수신(修身)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장이다. <통문(通文)>은 채영준과 윤인규라는 두 인물의 다툼을 다루고 있는 글이며, 상계지(賞鷄誌)는 22년 동안 부부의 인연을 맺었던 부인이 4남 1녀를 남기고 운명하여 자신이 다섯 남매를 돌보게 되었는데, 마침 집에서 키우던 닭이 병아리를 돌보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지은 글이다.

그 외 <재덕부재험(在德不在險)> <저기금논성(著忌金論聲)> <해유동몽훈(解諭童蒙訓)> 등은 사서(史書)에 관련된 글에 자신의 견해를 적은 글들이다. 문집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글을 모아서 기록한 수준이지만, 시골의 이름 없는 선비의 한 모습을 보여 주는 의미가 있다.

40) 홍경일기(洪京日記)

윤석봉(尹錫鳳 1842~1910)이 쓴 일기이다. 윤석봉의 자는 운서(雲瑞), 호는 삼희당(三希堂)이며, 본관은 파평이다.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나 중암 김평묵에게 배우고 화서학과의 의리를 체득했다. 1880년대 보령 웅천에 낙향하여 주자와 송시열의 영당인 집성당을 건립하고, 유교 문풍을 진작하는 노력과 함께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홍경일기는 1책의 필사본으로 되었다. 『보령문화』 11집에 황의천(黃義千)이 소개함으로써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표제는 홍경일기이고 반초서체의 38쪽 분량이다. 윤석봉이 1906년 민중식의 홍주의병진에 가담했다가 왜군에 체포되어 홍주에서 서울까지 끌려가서 조사 받는 과정을 기록했다.

즉 1906년 음력 4월 22일부터 윤4월을 거쳐 6월 7일까지 약 2개월 사이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홍주의병에 가담하게 된 계기, 체포, 투옥, 서울 압송·심문·석방 과정이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홍주의병 관련 자료인 임한주(林翰周)의 『홍양기사(洪陽紀事)』, 홍순대(洪淳大)의 『해암사록(海庵事錄)』, 성덕기(成德基)의 『의사 이용규전(義士李容圭傳)』과 더불어 1906년의 홍주의병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기영 외 『근현대 대전·충남의 한학가와 문헌』 충남대인문과학연구소, 2003.

김선기 외, 『격동의 근현대 대전·충남한학가의 문헌해제』 2007.

규장각 자료

하성래, 「광현 이우명의 시 세계」 『보령문화』 14. 2005.